

Korean Architects

건축  
건축  
500  
Since 1966

건축사  
2010 12

Korean architects 500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500 / December / 2010

대한건축사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3415-6890 팩스 : 02-3415-6899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국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http://www.kira.or.kr>

201012

## 건축만평

## 어제와 오늘

2000~2010 | vol. 369~500

### 건축만평의 해학적 파워

건축은 공간 언어의 집합체이다.

공간 언어가 정리되어 다이어그램이 되고, 이것이 옷을 입으면 스케치나 도면으로 틸바꿈을 한다.  
허나 여기엔 여유와 유머나 풍자가 없다.

이 언어는 현학적이고 난해한 설명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면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건축적 사고를 설명하기 어려움으로(마치 악도나 평면도를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각 언어의 도움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시각 언어 중에 하나가 만화이다.

건축 만화의 전달력은 빠르고 감각적이고 해학적이다.

건축적 사고를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사람들의 문성에 호소하는 원초적 힘이 만화에는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즈음 읽는 매체 보다는 보는 것이 호소력이 강한 시류에는 순간적으로 전체가 느껴지는 만화의 매력이다.

심각한 토픽을 상대방에게 가벼운 '편'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도 만화의 해학적 파워이라 본다.



유원재 / Yoo, Won-jai  
한국예술종합학교 투터

### 썰렁한 만화

『건축사』지로부터 처음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이미 종교 관련 소식지에 5년 정도에 걸쳐 만화를 게재하고 있던 나로서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종교관련 만화는 종교가 소재가 되어야 하고, 건축관련 만화는 건축이 소재가 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아이디어도 빈곤한데 영역제약의 한계까지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그간 그려왔던 썰렁한 종교만화를 건축에도 반복해야 하나?라는 우려도 있었다.

만화의 사전적 의미는 '…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화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야 재미있다. 결국 누군가를 썹어야 재미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만화는 대개가 썰렁하다. 따라서 재미있는 만화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종교나 건축을 비판해야하는 모순을 감내해야 한다. 이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몽적인 태도로 만화를 그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건축에 대한 나의 자식과 통찰력이 못 미친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ㅠ\_ㅠ;

내가 이렇게 긴 냉두리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만화라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은 작업이니 만치 『건축사』지에서 원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ㅋㅋ



김낙중 / Kim, Nak-jung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건축사가 잠시라도 '피식' 웃음 짓게…

「건축사」지 500호 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는, 이 간행물이 근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건축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왔다는 사실이다. 사관들이 충실히 적어나간 실록을 통하여 각 시대 임금님들의 행적은 물론 왕조의 흐름을 날마다 알 수 있듯이 우리는 500권의 「건축사」지를 통하여 협회창립과 더불어 우리 건축계가 성장해온 과정을 째뚫어 볼 수 있다.

우연한 기회에 필자는 '석 달에 한번'이라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만평란을 수락 했지만, 우리나라 방방곡곡 모든 건축사들이 매달 빠짐없이 받아보는 권위 있는 잡지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거듭 할수록 부담감이 더해 감을 느낀다. 오늘날은 물론 후대의 건축인들이 펼쳐 볼 때 고개를 가우뚱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1930년대 뉴우요커지의 옛 카툰들은 80년이 지난어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데… 그 정도 까지는 못 되더라도 대다수 일거리 없어서 또는 설계해주고도 준공식에 초청장조차도 받지 못해 마음 상해하는 우리 건축사들을 잠시라도 '피식' 웃음 짓게 하여 위로 할 수 있다면 필자는 큰 보람을 느낀 것이다.

어쨌든 우리 건축인들의 오늘날의 활약상과 행적이 작품이든, 발언이든 「건축사」라는 실록에 차곡 차곡 박업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건축사」지 500호를 기하여 후시에 부끄럼 없는 알찬 건축인이 되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김진균 / Kim, Jin-kyoon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외로움을 빛다

우리는 외로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들과의 일체감을 꾀한다.

먹을 것, 볼 것, 들을 것 등은 몸과 마음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위는 먹 거리가 삼두압을 통해 세포조직과 만나는 것을 드고, 귀는 말과 음악 등을 통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나약한 육체는 외로움을 벌미로 무의미한 이성적 관계에도 집착한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외로움과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 치의 틈도 없이 외로움의 순간과 공간을 메우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관계맺음도 매순간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로움을 포만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날과 상실은 또 다른 외로움과 혀탈감으로 증식된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고통과 멜랑콜리는 삶의 증거이니 즐겨라!"라고 말한다. 나는 외로운 순간, 글을 쓴다.

나는 글을 통해 화석처럼 굳어서 일체화 될 것 같지 않던 수많은 무의식을 부활시키고 외로운 공간을 임의로 각색한다. 이야기 안에서 외로움은 정신을 채우는 양질의 자양분이며 수많은 감동을 출산하는 자궁이 된다. 그리고 글을 통해 살려낸 수많은 기억들은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고 새로운 정착지에 기거 할 수 있게 된다. 상실감은 깨달음으로 육체의 불꽃같던 욕망은 나를 이해하는 지혜로 착상된다. 나는 오늘 고독에 입 맞추며 풍성한 기억을 포식하고 있다. 나는 외로움을 질료로 생각을 빛고 있다.



곽희수 / Kawk, Hee-soo, KIRA  
이태도시건축 대표

2000~2010

## 건축만평모음

Vol. 369~500



- 유원재
- 김낙중
- 김진균
- 곽희수

2000. 01 | vol.369

2000. 01 | vol.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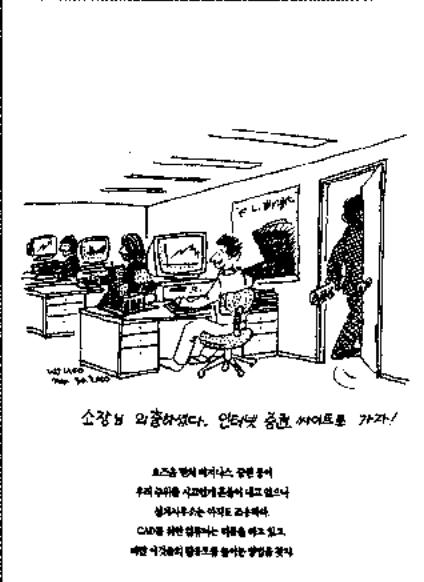


2000. 02 | vol.370



2000. 03 | vol.371

2000. 04 | vol.372



2000. 05 | vol.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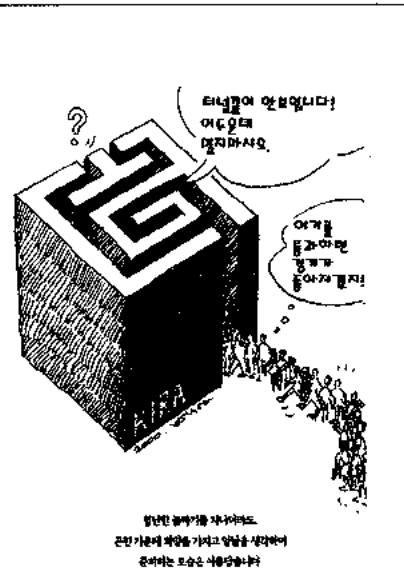


2000. 06 | vol.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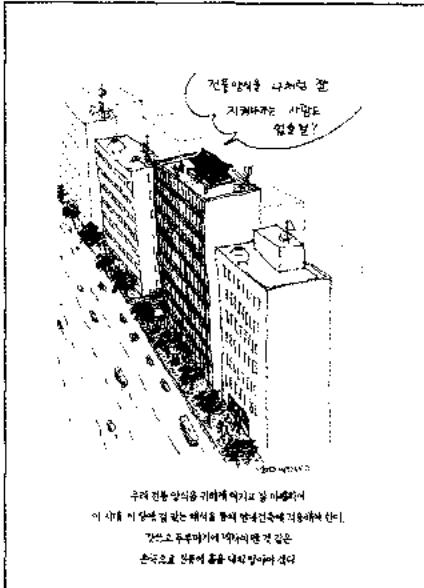
2000. 07 | vol.375



2000. 08 | vol.376



2000. 09 | vol.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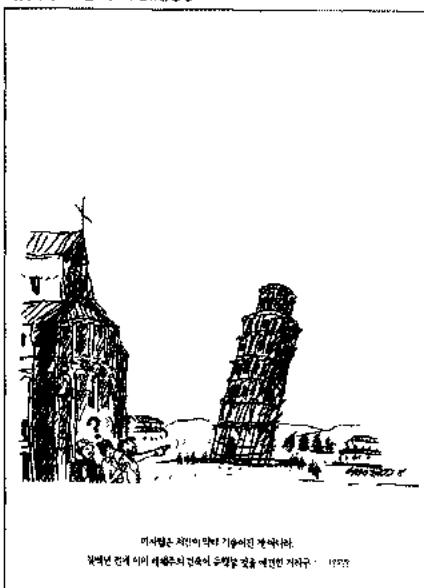
2000. 10 | vol.378



2000. 11 | vol.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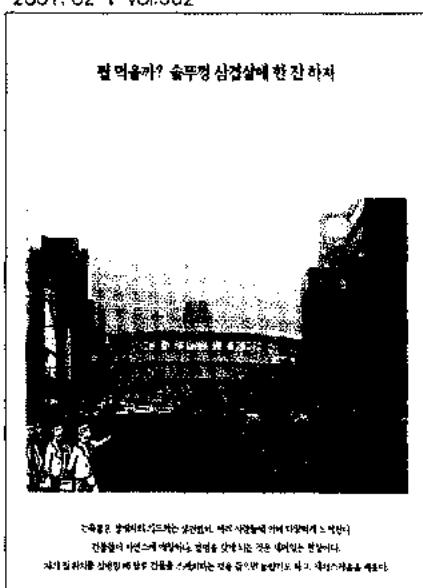
2000. 12 | vol.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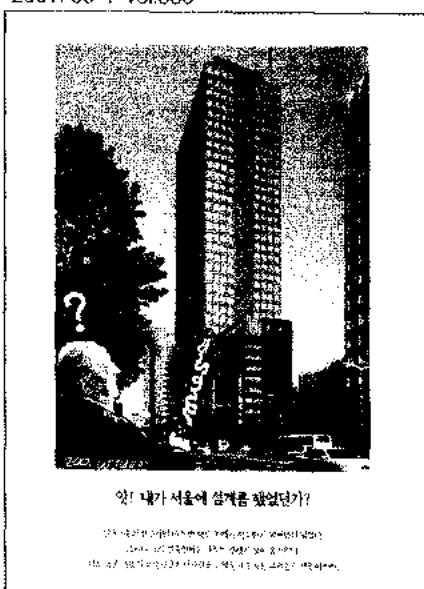
2001. 01 | vol.381



2001. 02 | vol.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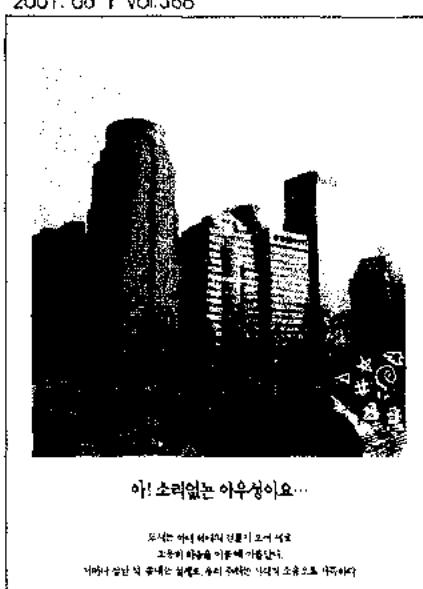
2001. 03 | vol.383



2001. 05 | vol.385



2001. 06 | vol.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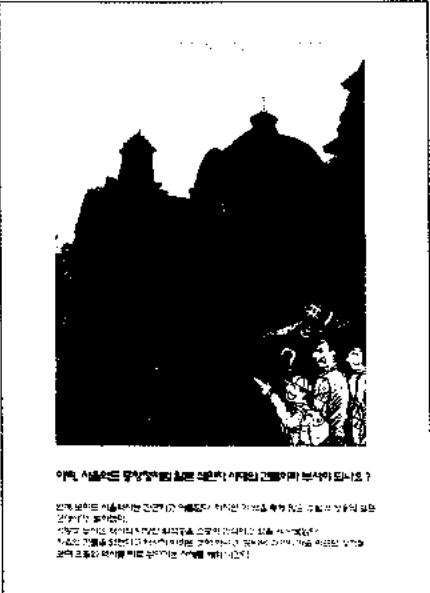
2002. 04 | vol.396



• १८४. उमा नारायण शर्मा जी का विद्यालय बोल्डन हॉल ।

제2장 어떤 전략은 어떤 운동, 평생의 성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운동은 개인의 사회적 교육이나 고지적인 교양과 성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언어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 우리는 그것과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윤리와 철학을  
그 목적은 어떤 운동으로 바꿔놓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2002. 05 | vol.397



이제, 어떤 드물고 희귀한 고문서를 보자면 또나오?

한국 보이드 시장은 2010년 전 세계 시장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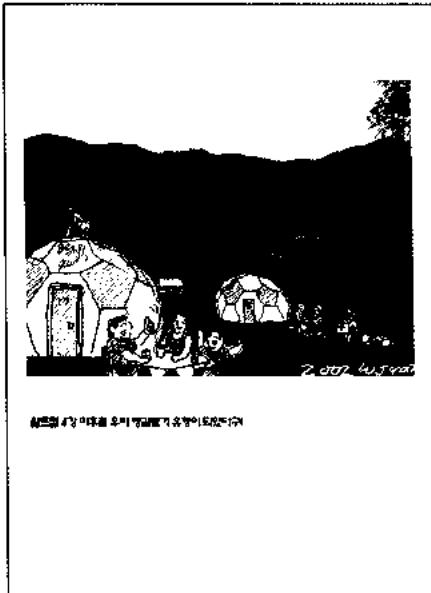
2002. 06 | vol.398



\* 10년의 고집기념을 맞은에서 주연 작품은 뭔가요 ???

민족 고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쳐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에 유통되는 것은 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통일된 여성의  
문화로 활동하고 노력하는 유익한 토론은 시도하고자 한다.

2002. 07 | vol.399



《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六十條

2002. 08 | vol.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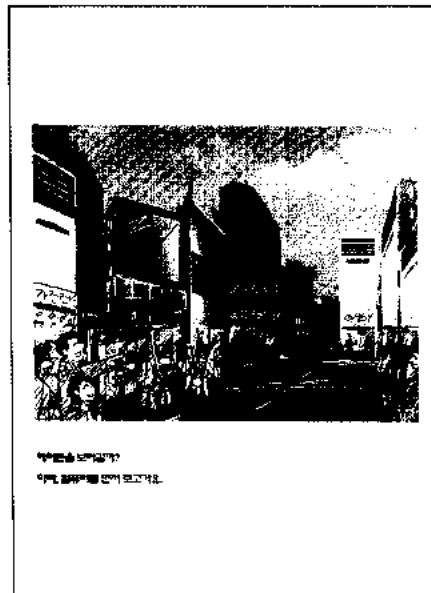
• 다음 문장은 책으로 끝나는 소설책으로 읽어야 하나?

2002. 09 | vol.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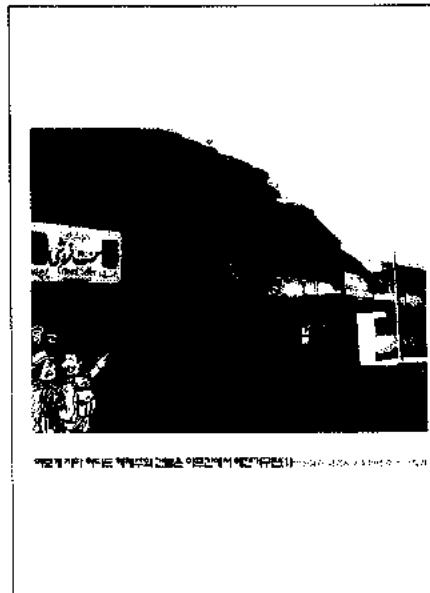
제10주 교회의 소송이론

2002.10.1 vol.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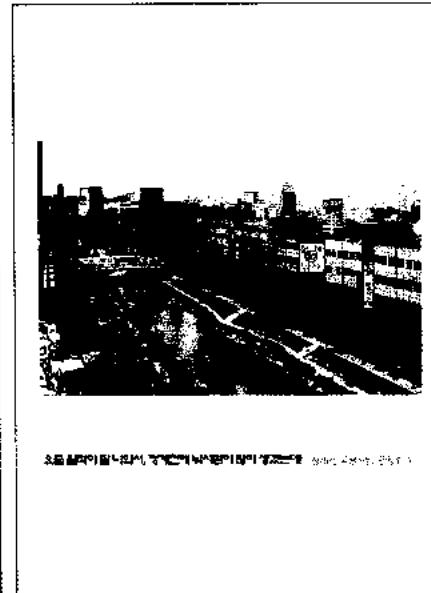
יְהוָה בְּנֵי יִשְׂרָאֵל

2002. 11 | vol.403



제작 기관: 한국 철도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2. 12 | vol.404



초등학교이탈리아어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연구

2003. 01 | vol.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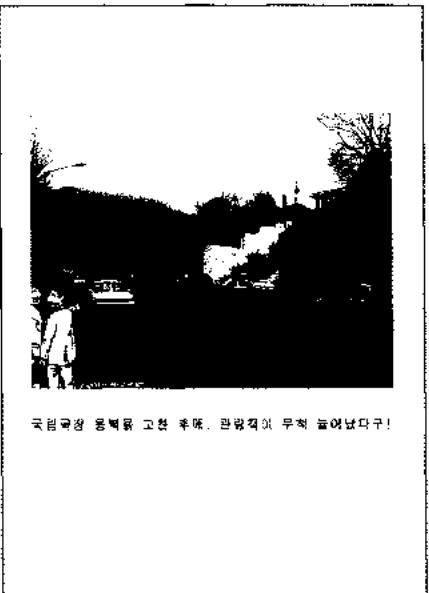
## 최우수 생활 건축상을 받은 이집소에서 이집하고 가자우!

2003. 02 | vol.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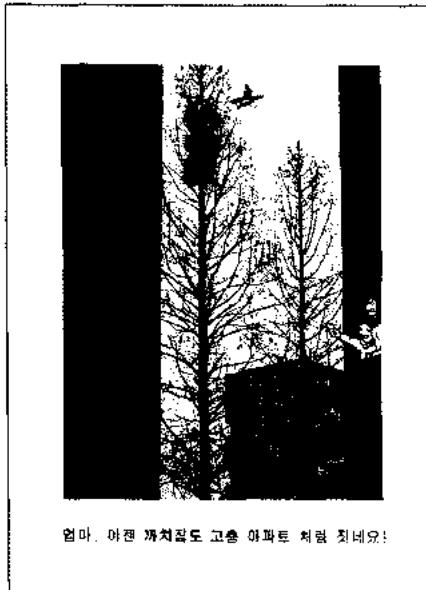
자유민족 건국도 꿈은 끊지 않는 계획입니다.  
— 1945년 8월 15일 독립선언문

2003. 03 | vol.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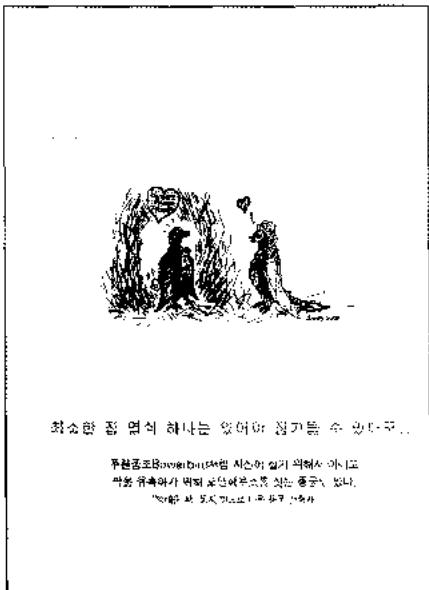
구구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2003. 04 | vol.408



엄마 아빠 끄적잘도 고출 아파투 처럼 치네요!

2003. 05 | vol.409



회수할 때 예의 하나는 있어야 할가를 수 있다.

주체공조Borrowed(제3점 차선이 일기 위해서 아니고  
마음 유희와가 떠나는 도안에 부수를 찾는 행위)입니다.  
“여행”은 또 다른 기호로 “주체”를 “여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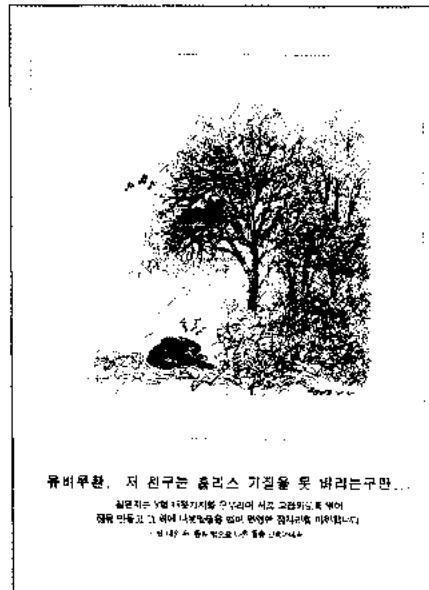
2003. 06 | vol.410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학문으로 본다. 그러나 경제학은

여전히 허리에 물건을 차운 채로 서 있었던 박수현은 놀라며 물었다.  
“이제껏 물건을 차운 사람은 없었는데, 그게 바로 그거지. 위로  
걸어오고 올라온 건 아니었지만, 유흥의 내부는 저런 소리로 꽉 차 있었어.”  
박수현은 물건을 차운 채로 서 있었던 것이다.

2003. 07 | vol.411



유버무천, 저 친구는 흔드는 기침을 뜯어내려는구만...  
척박지는 생활이정기지로 우리에게 서로 교감과감각을 빼어  
정을 만들고 그 위에 나날의들을 벌여 험난한 짐작과를 미행합니다.  
·인내와 죽을때까지도·죽을때까지도

2003. 08 | vol.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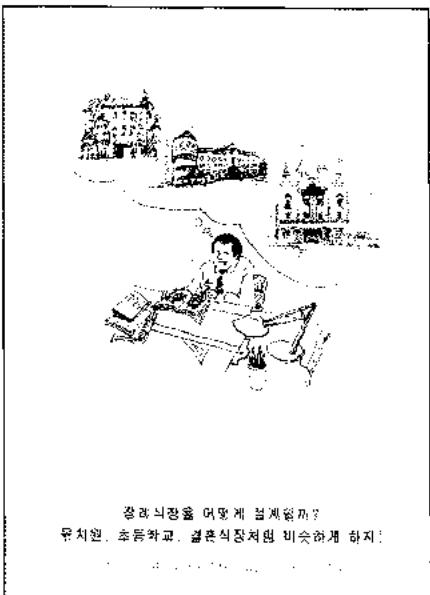
여부. 천원주 박애선 149곳을 대상, 79곳에 난사전  
경찰통 감상한 바다.

2003, 09 | vol.413



아빠, 그리스 시대 노래 여자들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2003. 10 | vol.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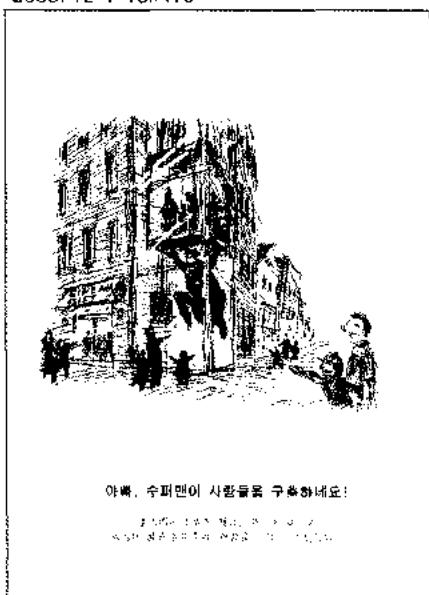
결혼식장을 어떻게 설계할까?  
뮤지컬, 추동학교, 결혼식장처럼 비슷하게 하자!  
- 2004년 결혼식장 디자인 전시회

2003. 11 | vol.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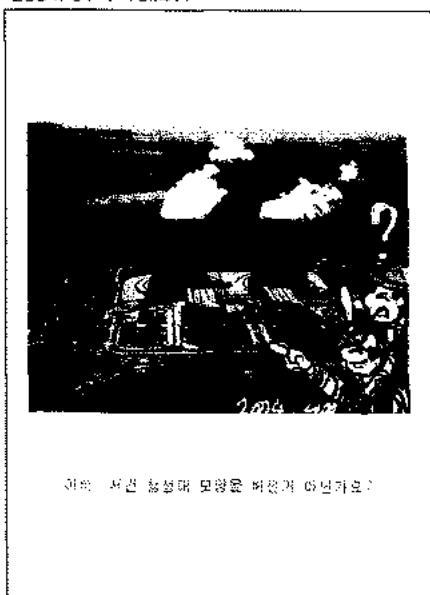
아빠, 저 화랑이에 암미서 적절까요?  
모던은 찾는 여종자들을 즐겁게 감싸주는 풍요로

2003. 12 | vol.416



야빠, 수퍼맨이 사람들을 구해줄까요?  
수퍼맨은 빠른 속도로,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림 같은 그림입니다.

2004. 01 | vol.417



아빠, 서른 살 성대 모임을 베판가 아닐까요?

2004. 02 | vol.418



아빠, 결혼식 기념 사진이나, 회사행사  
진짜 전통 한복장 무대를 즐기고 싶습니다!

2004. 03 | vol.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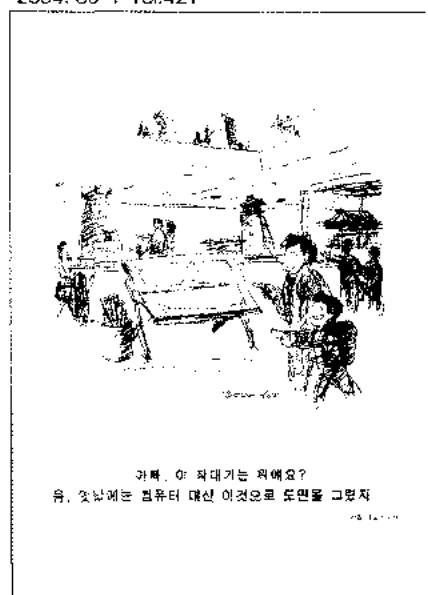
아빠, 거울 사목이라 갖국의 유명 건물과  
같아 광활으로 설계했지!

2004. 04 | vol.420



남편은 로즘 하이테크 건축학 쪽 봄것어요!

2004. 05 | vol.421



아빠, 이 차대기는 뭐예요?  
음, 옛날에는 컴퓨터 대신 이것으로 도안을 그렸지

2004. 06 | vol.422



아빠, 자 파라이트도 콩고도 징장을  
오브리스코처럼 미침트해서 갖다 놓았나요?  
- 콩고로 바람이오-

2004. 07 | vol.423



건축주의 취향을 분석한 술개입니다!

2004. 08 | vol.424



- 복합이라 겨울에 따뜻한 집입니다.  
- 예? 복합이라구요?

농장으로 이동한 미래 건축학

2004. 09 | vol.425



선생님, 수도를 이전하면 여길 학습농장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농지대 전기로 스트리밍

2004. 10 | vol.426



얼마, 일구가 일어려는 뜻이에요?

2004. 11 | vol.427



아빠, 여기에 결소를 키워  
불주미로를 도우면 좋겠네요!

2004. 12 | vol.428



풀밭 주제 경연지역이자면, 본타클로스만 예의입니다!  
풀거운 살한걸 알아하세요.

2005. 01 | vol.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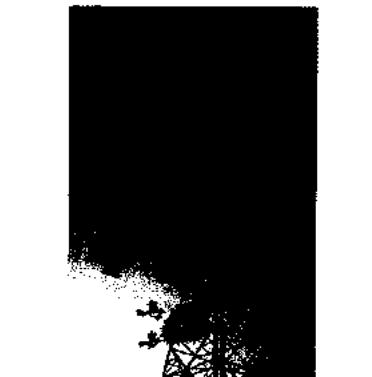
투명유리로 바꾸니, 냄새들이 없어졌네!

2005. 02 | vol.430



청계천 무허가 단자점도 복원하니  
역사의 의미가 있구만!

2005. 03 | vol.431



자 깨끗들은 걸치을 나무가 없어 저기다 짓는거야,  
하이테크 유형을 따르는 거야?

2005. 04 | vol.432



하이 서울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흔연된 첫소리를 출연시켰구만 !

2005. 05. 1 | vol.433



아빠! 소파이며 뺨이 찬것들에 질렸어요!

2005. 06 | vol.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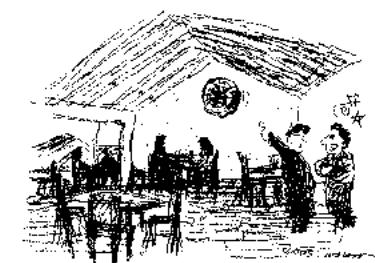
노을설 오후리 학우스 달빛작이 새로운 서울의  
상장이 되겠는데 ! ... ??

2005. 07 | vol.435



구름도 넘기 희든 고맙신이여!  
2005. 07. 05. 09:52:48

2005. 08 | vol.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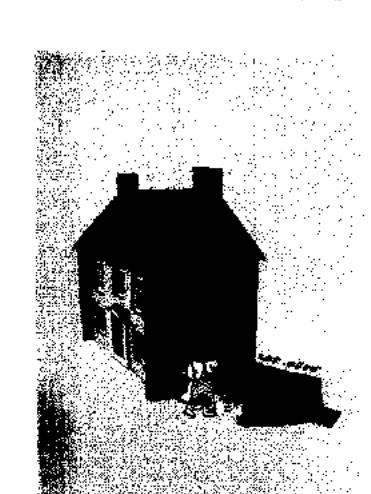
우리 가족 원통기록  
전한증족 대형귀 쫓바귀로 바꿔봬!

2005. 09. 1 | vol.437



우리도 구경을 대신 문화적으로  
좀 마시구 싶디구, 구구구구~

2006. 10 | vol.438



벳자루오 그림자를 자워낼 수 있다면… ?

2005. 11 | vol.439



아빠, 지붕이 토축해서 참자기 침몰겠네요.

2006. 01 | vol.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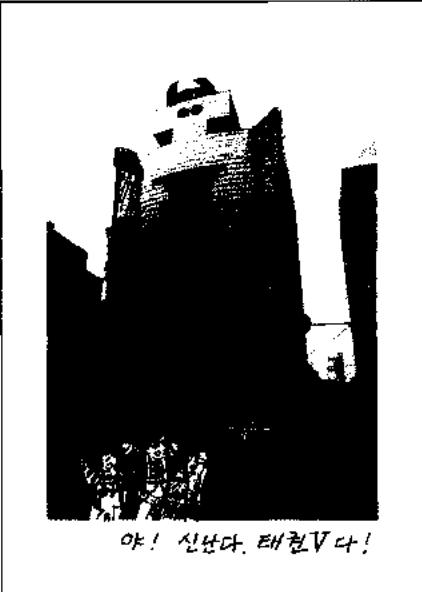
아빠, 신년 말이 예어 놀라 해있네요.

2006. 02 | vol.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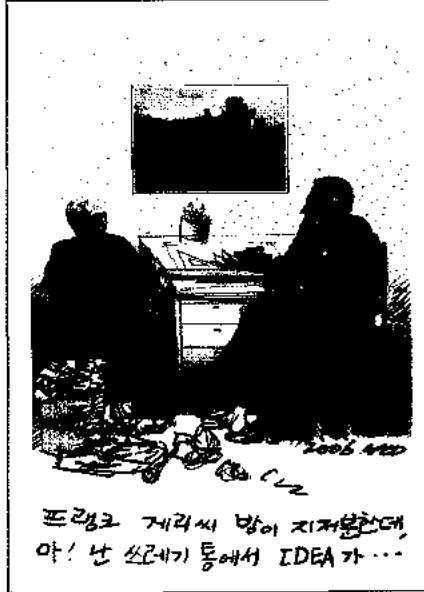
이해, 경복궁은 봄가세포 알아도 복잡이 되나요?

2006. 03 | vol.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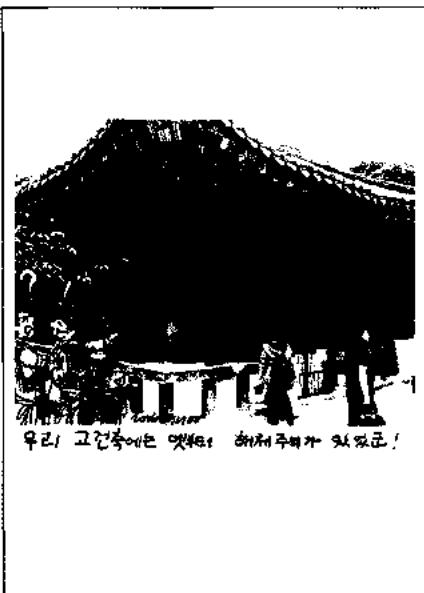
야! 신난다. 태웠다!

2006. 04 | vol.444



프랑크 게리씨 봉이 가져왔는데,  
아! 난 쓰레기통에서 IDEA가 ...

2006. 05 | vol.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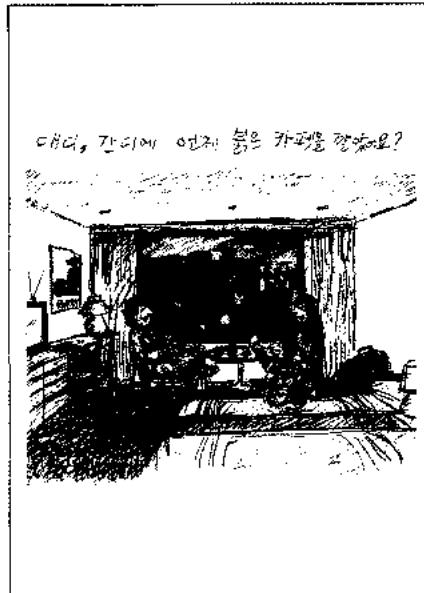
우리 고민족에는 옛날 해체주회가 있었군!

2006. 06 | vol.446



부카고의 성계로 이제 초고 아닙니까?

2006. 07 | vol.447



아이고, 간디에 이제 블루 카페를 열까요?

2006. 08 | vol.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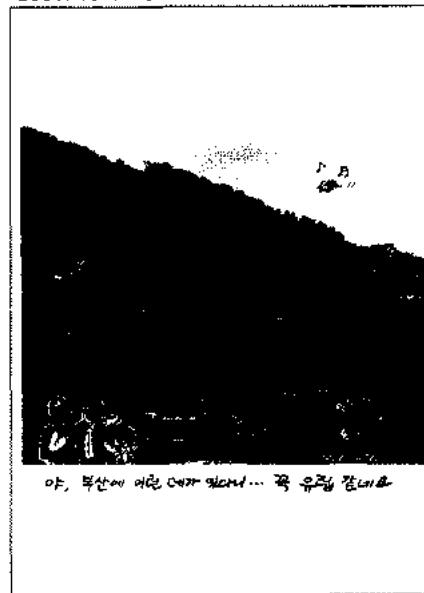
자 기둥은 조경면적으로 개선해도 좋나?

2006. 09 | vol.449



마마가 몽테란 전문 구경시켜줄까...

2006. 10 | vol.450



야, 부산에 이런 대가 있나... 꼭 유물 같네요

2006. 11 | vol.451



2007. 01 | vol.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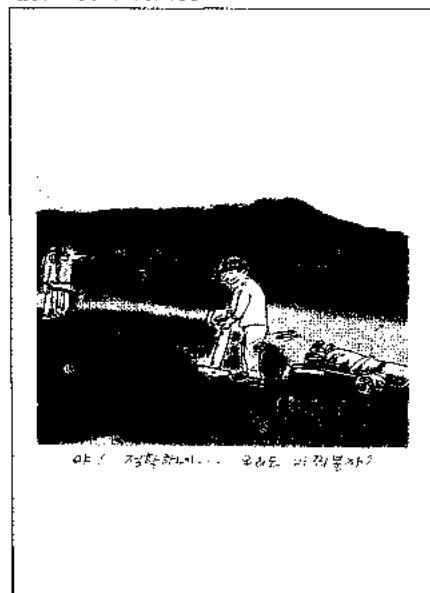


Exhibit 1 家·户·家元祖

2007. 02 | vol.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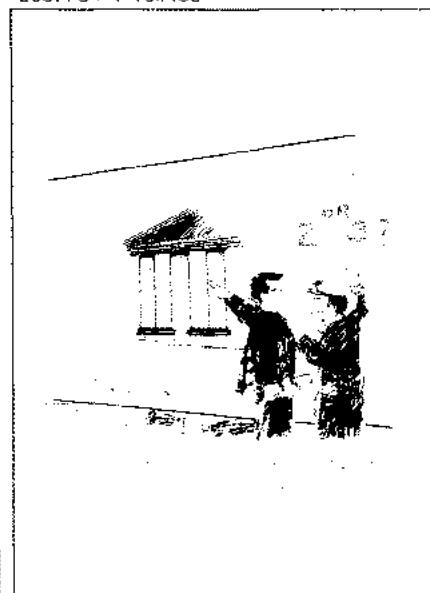


2007. 03 | vol.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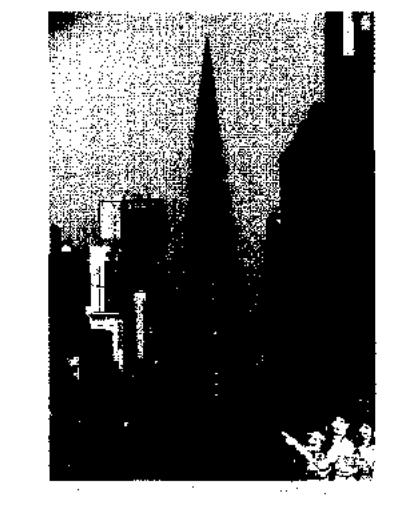


아빠! 차를 씻어주세요. 아빠도 봐주세요?

2007. 04 | vol.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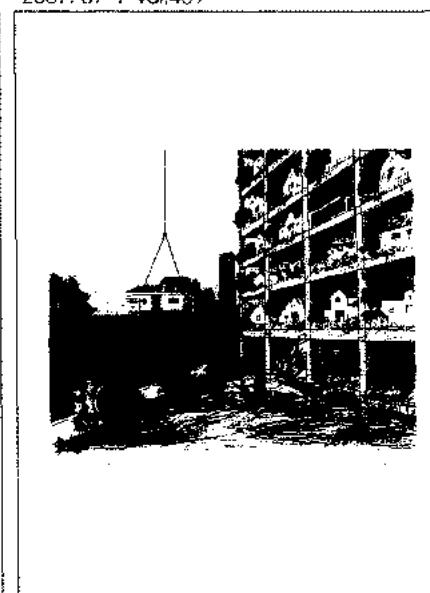
2007. 05 | vol.457



2007. 06 | vol.458



2007. 07 | vol.459



2007. 08 | vol.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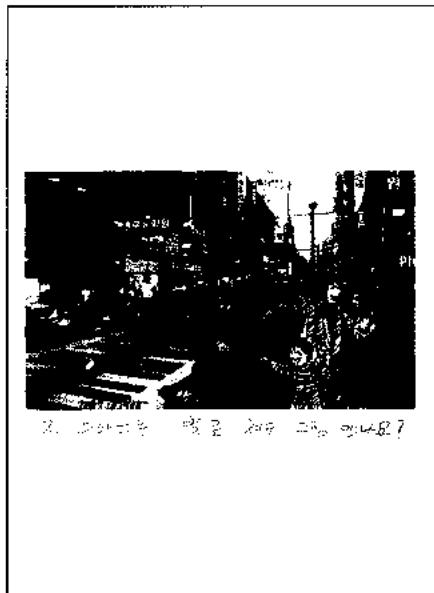
2007. 09 | vol.461



2007. 10 | vol.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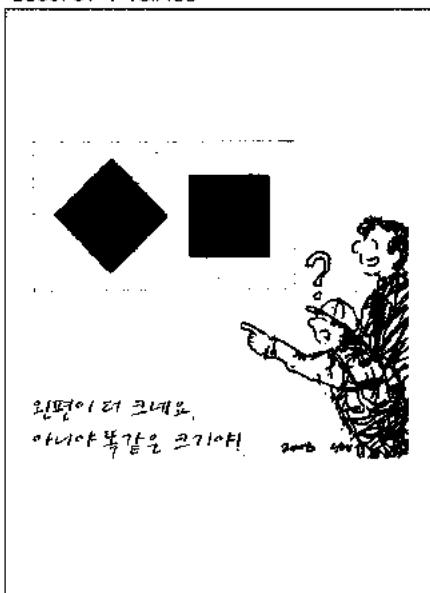
2007. 11 | vol.463



2007. 12 | vol.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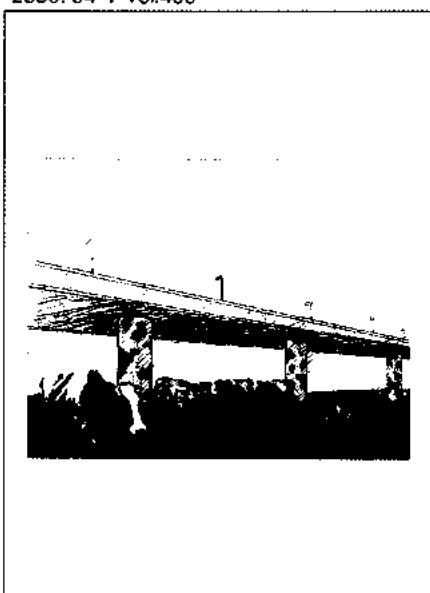
2008. 01 | vol.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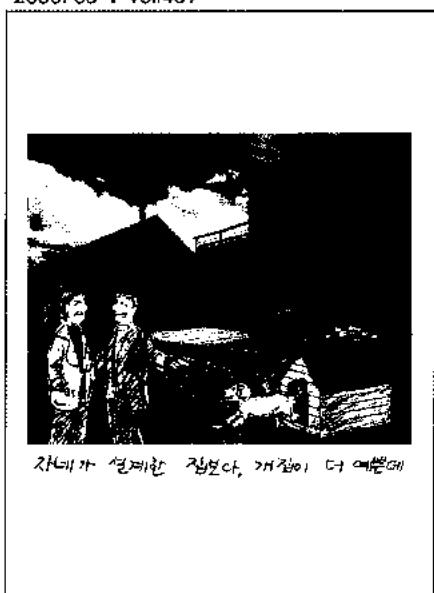
2008. 02 | vol.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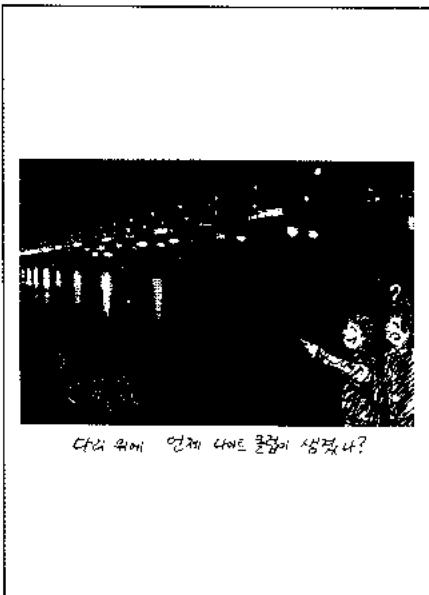
2008. 03 | vol.467



2008. 05 | vol.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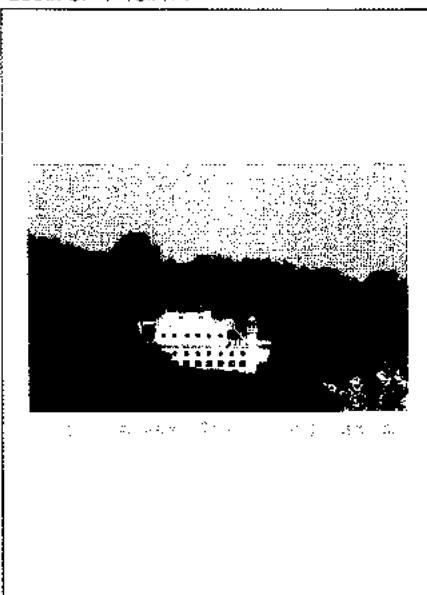


2008. 06 | vol.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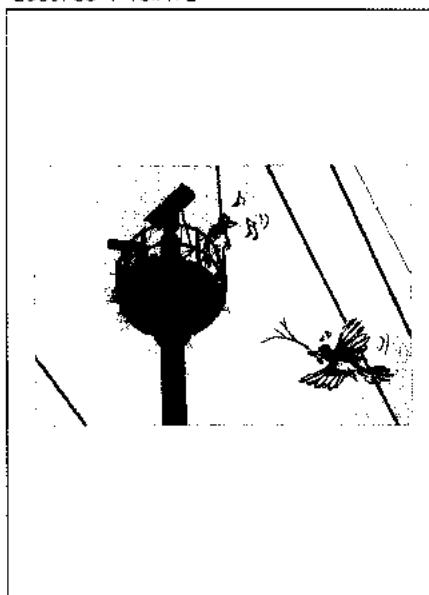
나는 언제 언제 나의 물방울이 생겼나?

2008. 07 | vol.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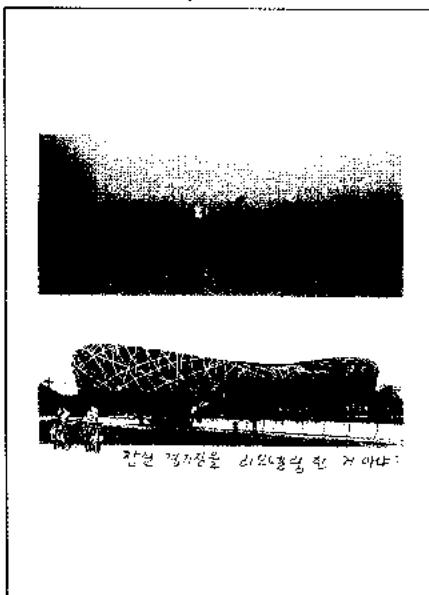


나는 언제 언제 나의 물방울이 생겼나?

2008. 08 | vol.472



2008. 09 | vol.473



잔인 경기장을 떠나는 걸 한 거 아닌가?

2008. 10 | vol.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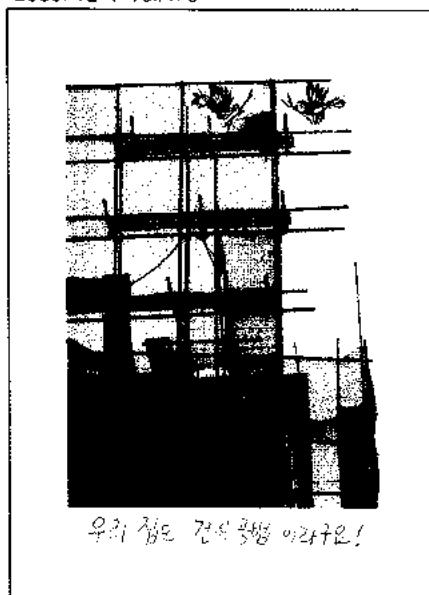
포커 게임 하려 공부하기

2008. 11 | vol.475



엄마, 저녁에 스파게티 해줘

2008. 12 | vol.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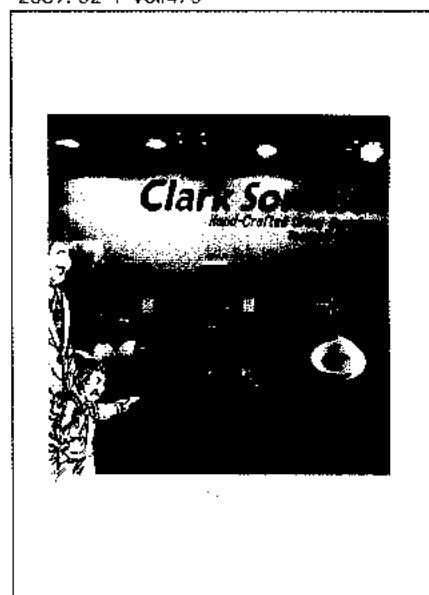
우리 집도 같은 물방울 아파요!

2009. 01 | vol.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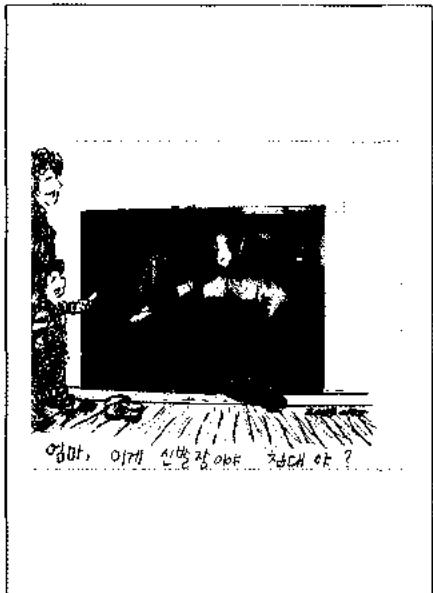


언제나 같은 물방울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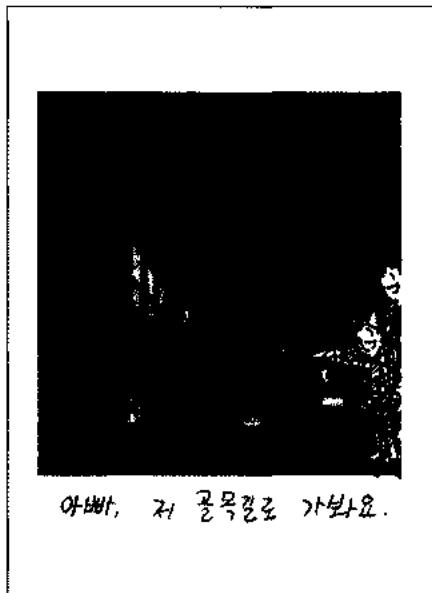
2009. 02 | vol.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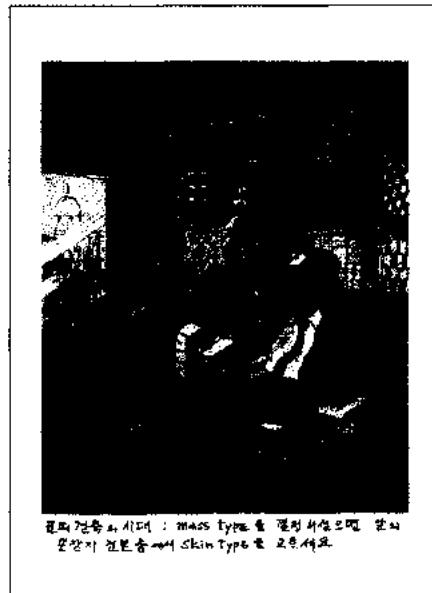
2009. 03 | vol.479



2009. 04 | vol.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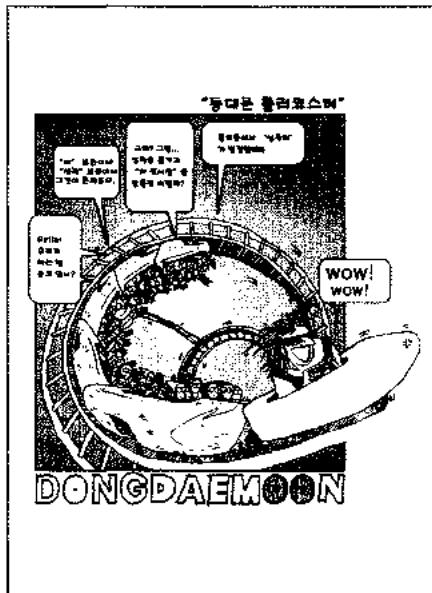
2009. 05 | vol.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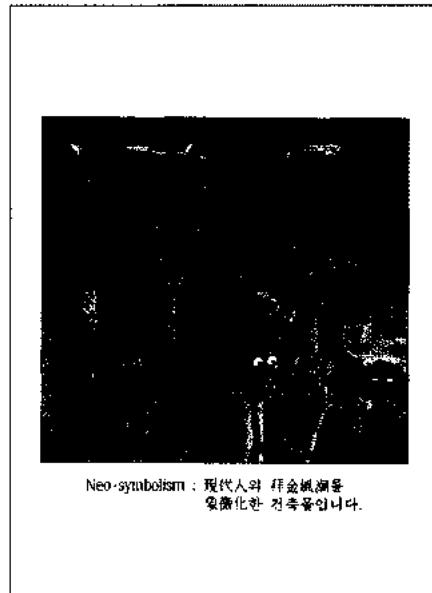
2009. 06 | vol.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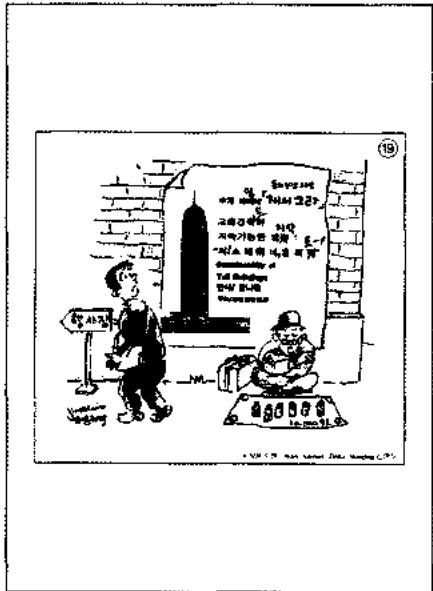
2009. 07 | vol.483



2009. 08 | vol.484



2009. 09 | vol.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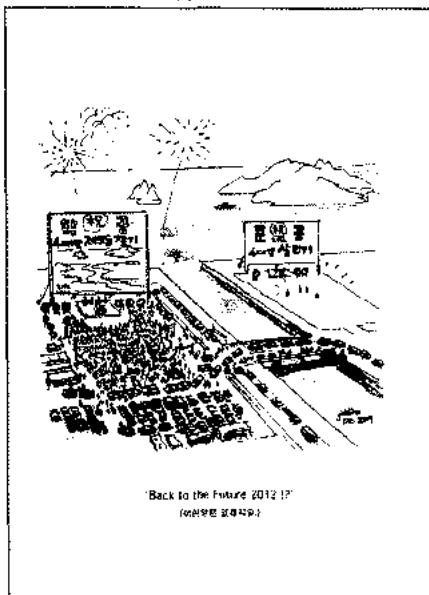
2009. 10 | vol.486



2009. 11 | vol.487



2009. 12 | vol.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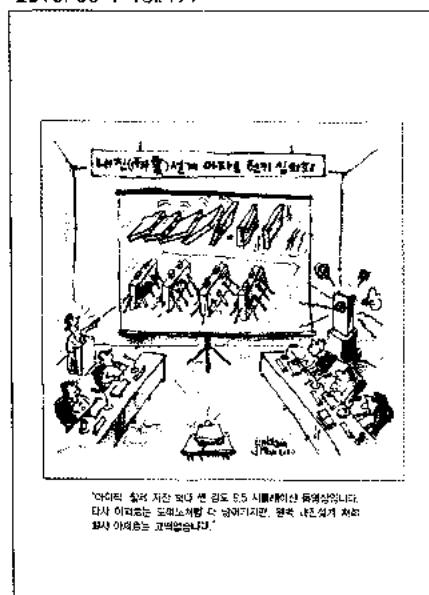
2010. 01 | vol.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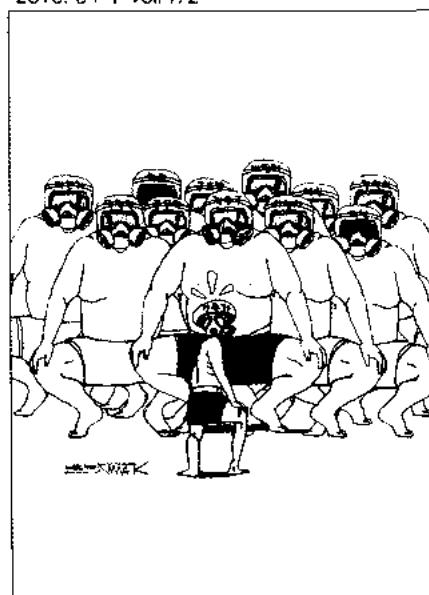
2010. 02 | vol.490



2010. 03 | vol.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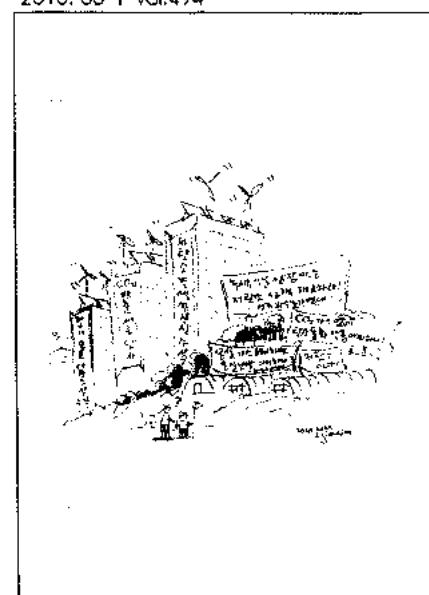
2010. 04 | vol.492



2010. 05 | vol.493



2010. 06 | vol.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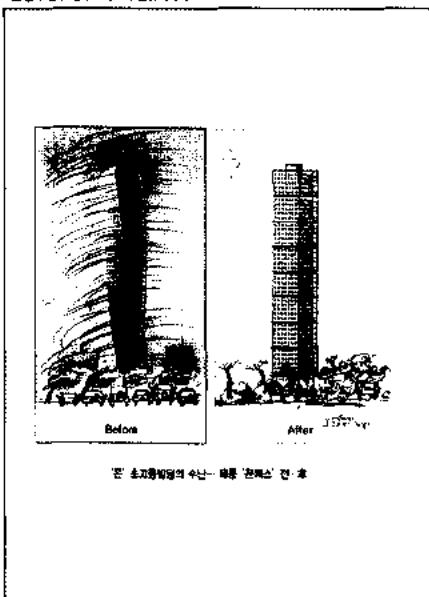
2010. 07 | vol.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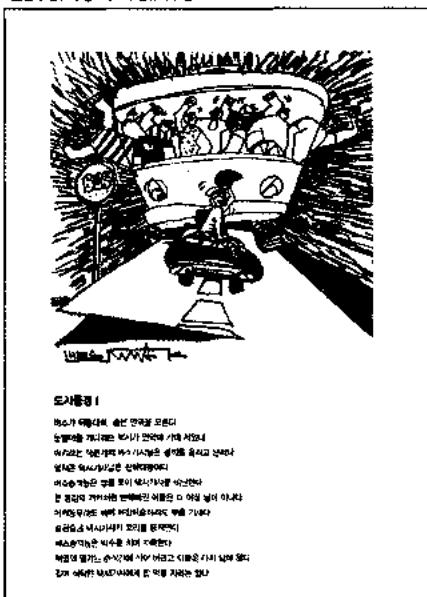
2010. 08 | vol.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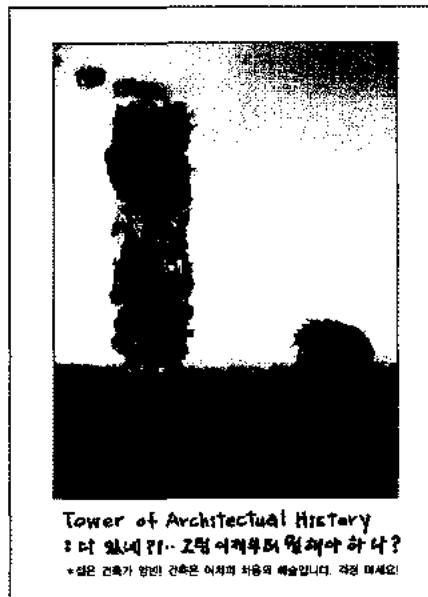
2010.09 | vol.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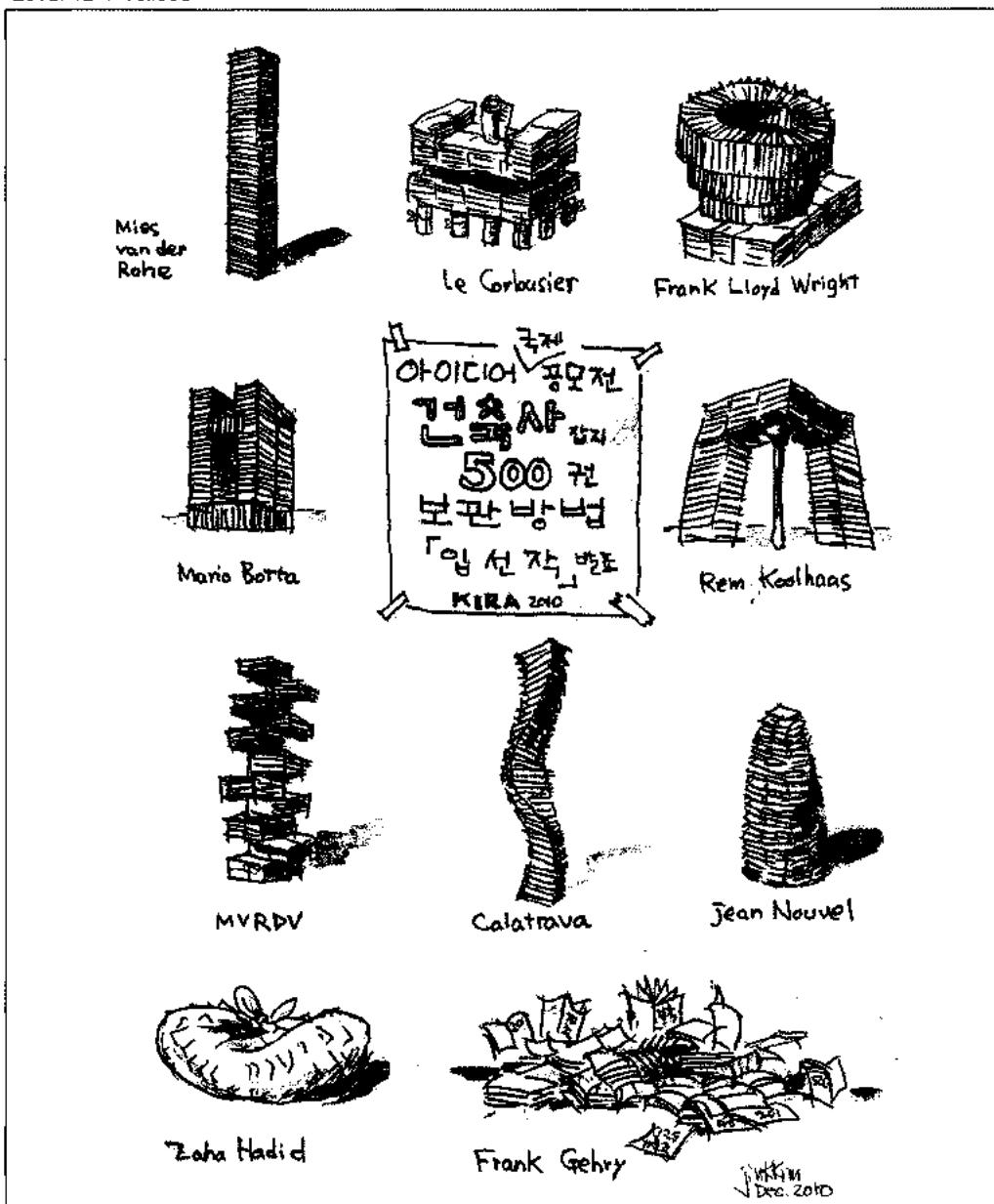
2010. 10 | vol.498



2010. 11 | vol.499



2010. 12 | vol.500



## 건축사지 역대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방담회

일 시 | 2010. 11. 10(수)

장 소 | 건축사회관 8층 본관실



**최동규** : 건축사시가 오는 12월이면 500호가 되어, 특집 기념 겸 여러 가지 준비(행사) 중 하나로 역대 건축사지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영배 교수**(조중 생략)과 김만성 건축사 같이 원로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담회 자료를 보시면 오늘 할 이야기들을 기록해놓았는데, 거기에 맞출 수도 있고 또 생각나시면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도 「건축사지」는 받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만성 건축사는 잘 받고 계십니까?**

**김만성** : 협회를 방문할 때마다 가져가서 보고 있습니다.

**최동규** : 안영배 교수는 몇 년도에 편찬위원장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영배** :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약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최동규** : 김만성 건축사도 한 20여년 전인가요 아니면 그 후이신지요? 오늘 모신 역대 위원장을 장양순 건축사가 시기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강점구 건축사는 인제쯤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강철구** :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방철란** : 저는 1996~8년도에 맡은 것 같습니다.

**최동규** : 1996~8년도면 가까우니까 그래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장양순** 건축사는 언제 맡으셨습니까?

**장양순** : 저는 99년부터 건축사지에 몸담고 있습니다. 2년하고 2년 쉬고, 또 2년하고 해서 위원장을 4년, 담당이사로 지금까지 4년 모두 8년째입니다.

**최동규** : 어차피 건축사지 최근에 발행되는걸 보고 어떤 분은 뭐 일반건축 잡지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생 어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아키텍처럴 레코드(Architectural Record)라는 잡지가 사실은 미국건축사협회 기관지로 만드는 잡지예요. 최영집 회장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도 AR자 같이 해보려고, 또 전진삼 발행인(와이드 AR)에게 맡겨서 수준을 높여볼까 하다가 예산 문제로 다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건축사지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한 분씩 말씀 해주시거나, '건축사지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성**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지가 너무 기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회장 및 임원들의 노출이 찾은 늦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를 다녀왔다면,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등등 말입니다.

**최동규** : 근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만성** : 이런 것들은 자신을 흥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축사지가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업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규** : 그 말씀은 건축사지가 대사회적으로 팔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만성** : 네,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볼 때 뉴스 같은 것은 작은 부분을 차지해야하는데, 이러한 점은 한명수 전 회장 때부터 그런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점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대한건축사협회 내 인물들에 대한 기사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까지는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것이 건축사지 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록성은 있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상업지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에 대한 것은 상업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건축사지에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담아야 되고, 현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주로 다뤄야 되고, 건축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을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건축사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건축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구** : 우선 건축사지는 제호 자체가 '디자인'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관료적인 냄새가 있는데, 잡지를 보면 더 관료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으로서의

건축사지의 본연의 기능은, 건축사의 업무에 충실(작품소개, 글 내용 등)하고 의식구조 즉, 건축사의 안목과 의식수준을 높여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항상 건축사를 대변하고 응호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적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만성** : 네, 그렇습니다. 협회 관련 인물이 차지하는 면이 많은 듯 합니다.

**윤도근** : 먼저, 건축사지의 500호 특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건축사지의 내용이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느낀 점은, 디자인이나 시각적 효과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축사지의 본연의 기능은, 건축사의 업무에 충실(작품소개, 글 내용 등)하고 의식구조 즉, 건축사의 안목과 의식수준을 높여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항상 건축사를 대변하고 응호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적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제가 참여했던 건축사지는 건축사의 지식을 높여주는 특집을 설정하고 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형평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다고 기억 됩니다. 현재의 사고로 보면 내용이 빈약하게 생각 될 수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며. 시대적 사회상황의 배경과 수준으로 봐 주면 좋겠습니다.

\* 서면 참여 : 윤도근 교수(총이대학교)

**장양순** : 김만성 건축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잡지에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 여섯 번 씩 나오고,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점은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협회에서 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되어야 봄 텐데, 건축사지가 기관지의 성격이다 보니 솔직히 요즘에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반으로 줄여서라도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 회원 위주만 보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편형도 바꾸고, 변형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내용적인 면도 좀 전에 김만성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뉴스는 작게 게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지 내에 게재되는 광고도 디자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광고나자인이라면 싸구려 책으로 보입니다. 조금 괜찮은 고급스러운 잡지에서는 이러한 광고는 게재해 주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건축사지는 삼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점이 좀 불만입니다. 게재되는 내용은 편집위원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건축잡지라면 좀 고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규** : 제가 이제 일 년 넘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작하려다 보니 예산적인 면에서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구** : 현재 건축사지가 130여 페이지 아닙니까?

**최동규** : 네, 맞습니다.

**강철구** : 60페이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게재된 것을 보니까 60페이지 정도 제작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큰 듯하고 무게도 무겁게 느낍니다. 종이도 조금 가벼운 것으로 사용하고 작게 제작해서 “정말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책을 만들어야 진짜 건축사가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건축사는 마치 과거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소식지 같습니다.

**방철린** :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전문지로서 갖출 것을 짜임새 있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지가 너무 소식지 같은 내용을 걸러짐 없이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저희소식, 회원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내용, 더 나아가서 취미모임 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구분 없이 다양한 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전문성에 비추어 꼭 게재해야 할 홍보성 꼭지들을 잘 선택하여 책의 뒷부분으로 짤막하게 옮아서 ‘건축사 광장’ 같은 코너에 게재하고,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불거리 위주로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지가 해야 할 내용 중에 ‘정보전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작품정보에 관한 내용은 지금 게재 중인 작품정보를 그대로 살리고, 그 외에 건축사들이 꼭 보아야 할 다양한 내용의 건축정보가 실렸으면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세계 건축 경향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건축사회원들이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폭넓은 건축관련 정보들이 게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기록’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록은 건축사지가 가져야 될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건축사들, 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서 수십 년 후에도 그 기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며, 신진 건축사들도 발굴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건축사만 보는 책이면 곤란하고 일반인들도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역할을 알게 하고 건축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탐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축 역사도 탐구해야 되고, 건축 철학에 대한 것도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게재해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모두 게재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이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골고루 실을 수 있도록 장기간 배분해서 글과

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교대로 게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동규** : 이야기를 들다보니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만들 잡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격을 올리려면,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SD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편집 팀이 두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 팀은 8월호 한 팀은 9월… 이렇게 구성되니까 밀도 있게만 들어지는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마음껏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영배 교수가 한 말씀 해주시죠.

**안영배** : 건축사지가 예전엔 사이즈도 작고, 컬라면도 없이 흑백으로 제작됐는데, 지금 건축사지를 보면 많은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축사들의 어떤 토의나 논리, 대담 등 이러한 각자의 의견들이 좀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건축사들이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전문지들이 많으니까 작품이 크게 실리는 것은 그러한 잡지들에게 맡기고, 건축사지는 어떤 건축사들이 어떤 작품들을



안영배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72년~73년 위원장 역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기록이랄까요. 꼭 좋은 건축물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회원작품을 게재하면 좋을 듯합니다. 좀 비중이 있다면 한 2페이지 정도 그리고 보통 1페이지 정도는 기록으로써 어떤 건물들이 최근에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게재했으면 합니다.

작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최근 건축사회원들에 의해 어떤 건축물을 지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적으로 게재하다보면, 지금보다 몇 배의 작품들이 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광고도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럭셔리, 그런 것보다도 자료로서 쓸 수 있게 말이죠. 특히 광고를 실을 때는 칼라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컬러풀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협회 임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많이 실릴수록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칼라는 너무 화려하니까 흑백으로 처리해서 게재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회의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으로 사진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표지도 건축작품을 게재하더라도 색감을 열게 하면 좋겠어요. ‘건축사’라는 제호가 뚜렷하게 보이게 말이죠.

너무 컬러풀하니까 일반 잡지와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건축회지나 뭐 건축가협회자는 대개 표지에도 중요한 항목만 게재해주면 ‘아 이번엔 이런 내용인 게재되었구나’를 표지만 봐도 알 수 있





으니까요.

표지에 요약해서 표기를 해주면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 건축 정책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들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건축정책에 대해 게재도 되었으면 좋겠고, 건축사법, 건축법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사항이나 의견들도 게재하고요. 꼭 건축법 관련 책을 매번 사서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최동규** : 안 교수 말씀은 '일반 작품은 일반 건축잡지에 역할을 맡기고 건축사진은 기관지로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실어서 알리는데 본연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관직 건축사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관직** :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성은 나쁜 분야의 전문성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어떤 것이 있나면. 우리는 병원, 문화시설, 학교 등 다양한 용도를 설계하다보니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은 오히려 대중성이거나 일반성이 가깝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건축사만의 전문잡지 또는 우리 내부의 어떤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하고 소통하는 쪽의 내용이 있어야 다른 분야에서 건축주들도 같이 읽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문성에 관해서 용도별로 다루다보면 다양한 건축주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실을 수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생각해서 일반적인 내용도 섞여있는 전문지는 어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의견들을 들어보면 시중에 팔릴 정도로 제작해서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편집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윤도근** : 현대사회의 개념은 읽는 개념 보다는 현대식 감각의 시각 효과에 충점을 두어야 힘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나 글을 편집하는 형식(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즉 작품 제목의 활자 위치배열(작품사진 위에 작품제목을 배열하는 등은 지향), 작가명 위치배열, 작품사진 위치배열, 글 내

용의 위치배열 등을 과감하게 디자인상 새바지 하는 연구와 과감한 개선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건축사지의 독자들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모던한 느낌을 주고, 신선하고 활력 있는 새로운 내용을 음미하는 효과를 제공함이 바람직합니다.

**김만성** : 여기 모인 우리 여섯 사람 중에서 네 명은 조금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 같고, 두 명은 실무적인 기관지로서 만들자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자는 일반인들하고 가깝게 만들어야 하고, 건축사 회원들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씨게 시서 볼 수 있는 일반 잡지책 보듯이 이런 형상으로 나가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 선배님은 사진을 좀 줄이자고 하셨는데, '건축물이 멋있다'고 느끼게 일



김만성 건축사

1주 건축사사무소 건축포럼  
167년~73년 위원 역임

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사진들이 많이 실려야 이 책의 가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적이고 무슨 구체적인 정보나 공법이 어떻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겠지요.

또한 대중화를 지향하려면 제호에서 '건축사'를 빼야 할 것입니다. 즉 일반사람들한테 보여줄 일반 건축잡지를 제작하려면 제호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울러 건축사지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최동규** : 참고로 이거 한권 만드는데 얼마 들죠?

**최락정(협회 홍보편찬팀장)** : 총 예산에서 비춰보면 대략 빙송비까지 포함해서 11,000부 제작하는데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제작비가 듭니다. 이울러 광고 수입은 한 달에 한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동규** : 오늘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고, 또 역대 편찬위원장들이 난달리 책임을 맡으셔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회고하는 자리 겸 노래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역대 편찬위원장이 당시 역정을 두었던 편집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철린 건축사부터 이야기해주십시오.

**방철린** : 제가 맡을 당시 건축사지가 기관 및 회원지 성격이 강해 이보다 전문지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의 편집방식을 비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 디자인부터 바꿨습니다. 안상수 교수에게 북 디자인을 부탁 했었는데, 많은 예산은 들일 수 없었는데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어 신선향을 즐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책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책을 보여준다)

#### 방철린 건축사

† 칸 종합건축사사무소주  
† 96년 위원·97년~98년 위원 역임

니까 회원 작품이라든가, 작품노트,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사, 전통 건축, 해외건축... 이런 코너들은 품만 변경시켜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반면에 '회원동정', '일하며 생각하며', '나의 스케치' 등 꼭지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된 작품을 편찬위원회에서 한 달에 하나씩 선정하여 부각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품리뷰'라고해서, 건축사가 제출한 선정 작품을 갖고 선정된 대담자와 비평가가 대담과 비평을 하게하여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한 달에 하나씩 했습니다. 또 다른 추가 내용으로는 '태마기획'입니다. 그때가 IMF시절이었고 상당히 건축사들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지방 건축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방 건축 템방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지요.

전국의 지역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과 교수라든가 건축사를 편집 디렉터로 지정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게 해서 그 지역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글도 쓰고 그 지역의 우수건축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지의 특성상 회원지의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는 협회나 회원들의 소식을 '건축마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기획작품, 설계도서신고 현황, 게시판 등을 일정 면에 정리 축소해서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건축마당'에 해외잡지동향에 대해서 넣어 폭넓은 정보를 얻도록 했습니다.

장양순 :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잡지든 권두언(卷頭言)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자가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을 쓰는 것인데, 이게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위원장시절에는 이것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회원들 글을 많이싣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임기에서는 제가 거의 권두언을 쓰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주로 건축사들이 가야 할 길, 건축사협회가 가야 할 길,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할 문제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협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아니고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아무튼 권두언이 계속 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방철린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일하며 생각하며' 같은 것들이 일종의 잡문 내지, 커피한잔 마시며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그런 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건축문화신문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를 잘 분리해서 대중적인 내용은 신문으로, 잡지는 전문성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개의 매체가 양립할 수 있는 바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철구 : 그런데 두 가지씩 하는 것 보다 하나를 가지고 잘 만들면 어때요? 난 이해를 못하겠고, 또 나같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보다는 두 매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 없애고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말이죠.

장양순 : 신문에는 현재 작품을 다루는 면이 없습니다. 우선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나요. 건축사의 요구사항, 부당한 일들, 관계법령 개정 등을 기사로 다뤄 대관관계에서 건축사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씁니다. 작품을 단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납니다?

방철린 : 지금 저는 잡지와 신문의 분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지하고 신문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신문을 보면 그 내용이 오히려 회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이런 저런 건축계 안팎의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건축사자와 달리 괜찮다고 생각해서 차별화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동규 : 강철구 건축사도 당시 편찬위원장 하면서 특별히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강철구 : 당시 저는 건축사지 디자인에 신경을 썼지. 내용은 바꾸기 힘들겠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라는 것이 우선 원고 받는 게 바쁘겠지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그때 당시는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쟁인 건축가 협회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외형은 건축가협회지보



다 건축사지가 못했어요. 돈은 더 많이 사용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하는 고민했던 기억만 납니다.

**김만성** : 많이 발전은 되었어요. 발전은 되었는데… 명실 공히 일반적인 잡지계통으로 나가려면 조금 너 진보적으로 만들어 쪘으면 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조금 너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합니다.

**강철구** : 내 경험에 의하면 사실 지금 예산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예산 3,0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축사협회 사정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압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제가 지금 한국기원 감사로 있습니다. 한국기원에서 '바둑'이라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고 난 다음부터 잡지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건축사지도 협회 내에서 미수알고 주알 실무까지 다 쟁길게 아니라. 지금 장양순 건축사가 말씀하신 대로 시론 같은 원고를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외주를 맡겨서 한번 시중에 배포를 해 다른 삽지와 경쟁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볼 때 훨씬 나을 듯합니다.

**안영배** : 그렇죠. 저자입니다. 아무튼 일반 건축잡지하고 경쟁하는 성격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잡지가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데, 너무 외국작품만 게재해서 국내 작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것도 꽤 많은데 말이죠.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인사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지에서 건축사들 회원 작품을 많이 실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시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컬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가지 색 정도로 제작하고 특별한 경우에 컬러로 하면 되겠지요. 사실 이렇게 작품을 크게 잡지를 게재하는 것이 건축사협회지에서 할일이 아니거든요. 왜 누구 작품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 다른 더 좋은 작품도 있는데… 비단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잡지에서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잡지의 성격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성격의 잡지에서는 역시 기록위주로 꾸며 만들어야 합니다. 해마다 건축문화대상 같은 작품만을 화려하게 한번 게재하면 될 것입니다.

건축사지에는 이런 대로 작품을 게재하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를 살피고 작품 자체를 살피면서 작품 자체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제 등에 작품들을 살피면서 작품 자체를 살피면서 작품 자체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이관직** : 제가 2004~5년 동안 협회에서 활동한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양순 건축사가 신문을 창간할 당시 초기 편찬위원회에서 정체성 문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때 잡지가 발행주기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문이 만들어지면 잡지는 격월간이나 계간으로끼자 만들어볼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와 신문의 성격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오고 건축사지도 한 달에 한번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영배** : 그 당시는 뭐 특별한 것보다도 자료 구하기도 힘들었고, 회원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매달 나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건축 잡지가 나왔다가 폐간되고 그랬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반 건축 잡지와 건축사지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었으면 힙니다. 건축사지는 어디까지나 건축사협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 건축 잡지운영 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강철구** : 다, 저자입니다.

**장양순** : 위원장님, 제가 부연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 다 편찬위원장, 편찬위원을 하셨는데,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건축사지가 창간호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원이 작품을 제출하면 게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실어야지 '노' 할 수가 없어요. 편찬위원 전체가 '정말 이건 안 된다' 하면 둘째도, 게재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거울'이란 게 전된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기록을 함으로써 이 시대의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도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만성 건축사나 강철구 건축사가 말씀하신 정체성을 완전히 고쳐서 새로 출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작품을 선택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안영배 교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밀이죠.

**최동규** : 저도 현재 편찬위원장은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찬위원장이 되면서 인원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편찬위원장을 했던 오석훈 건축사, 새건축사협의회 편찬위원을 지냈던 박인수 건축사, 잡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진삼 선생. 그 다음에 자원하신 분 이용우 건축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 안영배 교수가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쉬

서 정보가 균일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안영배** : 작품위주 보다는 기록위주로 하라는 뜻이지요.



최동규 건축사(작장)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09년~현 건축사시편찬위원회 위원장  
■ 작품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내 주다보니 해상도나 여러 측면에서 사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책의 질이 좋지 않아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편찬위원회의 직권을 이용해 좀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품을 선별하다보니 한편으로 미움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이런 와중에 드는 생각은 외주제작을 맡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드라마니 워너 모조리 다 맡기잖아요? 한 달에 한번 정신 차리고 와서 조금 몇 마디해서 책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최락청 팀장이 동분서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예산 등의 주변 상황 속에서 이정도 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찬위원장 재직 시 혹시 건축계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영배** : 그 당시 발행된 협회지들을 뒤돌아보면 예산이 적어서 규모만 작았을 뿐이지 잡지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계동정, 협회기사, 논설과 논문 그리고 회원작품 소개와 해외작품 소개 등 모두 꽂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축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 간의 이해가 얹혀있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장양순** :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안 교수나 김 건축사가 건축사자를 만들었을 때가 어떤 면에선 내용이 알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사자 1호부터 493호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 같은 경우에 가협회 회장이 정인국 교수였었고, 학회 회장이 김희준 교수였

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정 교수는 이미 당시부터 '건축사는 많지만 일감은 줄었으나 도태될 것이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컴퓨터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론 공부를 해라'란 글을 썼고, 김 교수는 바로 안 교수 말씀하신대로 '도시 계획의 중요성, 단지계획의 중요성 때문에 빨리 건축사가 그 길까지 뻗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그런 점들을 신경 썼더라면, 우리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인쇄도 조잡하고 한자도 많이 섞이고 했지만 오히려 현재의 작품 위주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미래를 보는 문제, 현실을 보는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개재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당 건립에 대한 것, 민속박물관을 경복궁 안에 지은 것, 부여 박물관 등등에 대해 좌담회를 열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별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제가 지금 선배님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재의 건축사지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디자인이 멋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동규** : 저도 봤습니다. 정부종합청사 현상설계할 때 나상진 선생이 당선 되었는데, 나중에 미국 회사에서 온근슬쩍 본인들이 작업한 듯 해가지고 김수근 선생이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강철구** : 저도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었는데요. 당시 이영희 회장님의 아버지 건축사지 담당이사였을 때입니다. 당시 편찬위원회에서 제호 로고를 바꾸자 해서 로고를 교체했었습니다. 돈이 꽤 들어갔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 된 겁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였죠.

이미 디자인 의뢰는 한 상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영희 회장님의 개인 사비로 물어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이영희 회장님한테 빚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장양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간축  
■ 99년~01년, 03년~05년 위원장  
■ 05년~07년, 09년~현재 담당이사



강철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82년~83년, 88년~89년, 89년~92년 위원회 역임



**최동규** : 방철린 건축사가 있을 때는 사건이 있었나요?

**방철린** : 건축계의 사건보다는 그때는 IMF 경제 위기가 와서 사무소들이 다 문 닫고 난리가 났을 때죠. 그 점이 기억이 납니다.

**이관직** : 저는 건축계 사건보다 그 유원재 선생님이 건축문화대상 작품에 대한 만평을 그려서 주셨는데,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겼었죠.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었는데, 작품에 대한 어떤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양순** :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자가 원고를 편집실로 보내 줘야 되는데, 협회 회장한테 직접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찬회의에서 게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게재하지 않았는데, 회장이 '왜 게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편찬위원회에서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이라면 위원장직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편찬위원으로 같이 일하게 하여 오해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편찬위원장을 물러난 후 거꾸로 편찬위원회에서 원고청탁이 왔더군요. 그래서 칼럼하나 써서 보냈는데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의 지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공제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제회가 만들어 지면 복지회나 신협은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복지회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듯 보였습니다. 위원장이나 담당이사가 주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위원장이나 담당이사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위원장이나 담당이사가 되려면 회장의 부당한 요구를 넘어서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배** : 비단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각각 분야에서 논쟁이 되어야 할 일들이 많게 마련이지만 특히 건축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발언하는 일이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 건축물의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신문기사에서 건축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은 다반사이고, 참석하더라도 말단 위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사들의 위치가 의사나 변호사 등의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자위하고만 있을 일을 결코 아닙니다. 건축계에는 이밖에도 논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정책이나 건축법개정, 그리고 환경문제와 전통건축 보존 문제 등에서 건축사들의 발언이 활발해지도록 건축사협회와 협회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건축계의 문제점 일부를 이야기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실무진 책임자인 최락청 팀장이 애로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락청** : 앞서 언급됐듯이, 성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실무진도 그 방향아래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지에 단기는 내용적인 면에서나, 이를 제작하는 실무적인 것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매체가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지요. 따라서 이를 문서화, 매뉴얼화 해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사무처에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담당직원 만으로는, 발간업무만으로도 급급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이 좀 더 보강되어 전문화되거나, 아니면 전문 출판팀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내용적으로 끝 성해져 회원에게는 물론 건축계, 나아가 일반인에게도 사랑받는 잡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규**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잡지뿐이 아니고 한국 건축의 문제점인데, 여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대책도 좀 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이관직 건축사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관직** : 다 아사겠지만 저는 발주 방식이라 그럴까요? 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일을 의뢰해서 건축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임기 위주의 텐 키나 BTL로 2~3년 만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시공사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주·건축사·시공자 이런 삼각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더군요. 이렇다보니 마치 시공자 밑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사무소로 변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여년 동안 누적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건축계가 힘을 합쳐서 발주 방법, 현상설계라든가 이런 시공하고 분리돼서 건축사가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는 토양을



이관직 건축사

■ 주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03년~07년 위원 책임

잡지를 통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철린** :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안중근의사기념관 준공식을 하는데, 건축사는 부르지도 않고 시공자하고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친지라며 산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야기한 그린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시사부소가 건설회사 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으로 건축관련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들이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턴키방식이라든가 BTL방식 이갓을 특수한 분야, 발전소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하던 정식 발주 방식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건축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건축사의 지위가 향상되겠죠. 건설사가 건축사무소 보다 위에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 디자인 의도와 벗어난 시공, 시공편의의 설계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슨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건축사를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 건축사가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문제도 놓잖아요. 같은 건축사가 '설계사를 못 믿겠다'해서 감리전문회사를 만들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작품을 설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건축사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건축사 자신이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사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눈앞에 보이는 0·10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사 자신들이 각성을 해야 될 무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당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구** : 저는 우리 건축사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될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회생활하는데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그 협업.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나 다 대표가 되려고 해요. 대표가 되지 않아도 디자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든요. 현재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받으려는 자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건축사무소 소장이고, '내가 디자인해야' 되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것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좋은 일화가 있는데, 10여 년 전에 자 밑에 사람들한테 함께 일해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겠다" 그랬죠. 즉 회사의 주식을 일부 주겠다.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보답으로 주식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점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하나

도 없어요.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잊고,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난 나가서 하나 차리면 된다. 차리면 뭐하느냐 90%가 망해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줄 아나. 매일 애매 시스템에서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자기가 하려 하나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돼요.

나는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디자인만 하고, 영업을 하겠다 하면 영업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뇌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부 모른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공부해야 돼고, 교육 받아야 돼고 그런데 건축사 연수회 같은데 가보면 협업하고,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사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못합니다. 요즘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도근** : 건축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중 대학 교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본인은 건축사로서 실무와 대학교수, 자문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등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교수 조방 형식은 박사학위를 배격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수년 내로 건축계는 박사학위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장양순** : 요즘 건축 전문 공부는 많이들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도덕·철학 공부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일조라 해서 소득의 1/10을 내죠. 시간도 1/10을 봉사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1년에 8시간, 1/365만 우려 협회를 위해 한번 노력해 달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리하면 신문, 잡지 원고가 넘쳐나고 건축사 소득도 몇 배 올라갈 것입니다. 불세출의 리너가 한 명 나와서 우리들이 전부 단합을 해야 합니다. 철학, 도덕 교육이 제대로 되면 단합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3단계 농합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전부 대한건축사협회에 들어 와야만, 농일된 목소리를 낸다. 그리하여 수어진 설계를 100%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2배~3배 이상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비용에 20~30% 설계비도 못 받고 죽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1/3은 아예 일이 없습니다.



다.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의 탓만 하고 정부 탓도 하는데, 이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능한 리더가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김만성** : 장 건축사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요. 일단은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끼리의 모임을 자주 갖는 시간이 있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건축사로서 그간 우리의 언론 매체를 이어온 것처럼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동규** : 저도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안영배 교수가 말씀해 주시고 끝맺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큰일은 나는 못하는’ 거라는 그런 좌절감 내지는 채념이 생기는데, 방금 전 또 우리 강철구 건축사 이야기 들으니까, ‘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 건축사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 보면 ‘신춘문예’를 통해서 갑자기 등장해서 소설가가 입문하고 있듯이, 건축계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미군 철조망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획안 정도는 제출물을 좀 간소화해서 계획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바꿔면 어떨까? 그 정도만이라도 문이 조금 열리면 좋겠습니다. 저만해도 건축계에 몸 담은지 30여년 되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더러 비웃듯이 “남들 다 커질 때 뭐했냐” 말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김수근 선생 사무실에 근무할 때 딱 1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큰일 다 할 줄 알았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큰일 하는 줄은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하나가 제일 아쉬워요. 누구든지 밧줄 하나 가지면 큰 산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영배 교수가 말씀해주십시오.

**안영배** : 학회지에서도 자주 특집 기사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한건축학회의 학회지에서는 매달 특집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집은 제각기 성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특집 1년 계획을 미리 다 하는 것입니다. 특집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맡-

기기는 아마 역부족일거예요. 어느 특집이든 누군가 맡아 역할분담 해서 필진을 정하는 것입니다. 편찬위원회에서도 이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나 하는 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토픽(화제) 되는 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알차게 건축사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동규** : 지금 안 선생님 끝 이야기에서 제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즉, 작품은 작품대로 게재하되 토픽 정하듯이 중요한 것을 굵직하게 축포 터뜨리듯이 계속 터뜨리는 거죠. 발주제도든, 현안문제들을… 그래서 그 자체를 모아서 건축계 환기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방철린** : 디자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책의 페이지에 여백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꽉꽉 채워져서, 숨이 차는 느낌인데 여백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학의에서 정리가 될 문제이긴 한데, 설계경기 내용 같은 경우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책의 뒷부분에다가 축소해서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접 관련이 적은 ‘회원들 취미’나 ‘동우회 활동’ 같은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히려 해외건축 동향이나 건축과 관련된 정보위주로 게재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양순** : 인 건축사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제위원회 위원도집에는 10명을 뽑는다면 100명쯤 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는 5명을 모집하면 10명이나 올까말까 하고, 신문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아예 없습니다. 시간 많이 뺏기고 일많은 3D워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글도 잘 쓰고 작품도 잘하고 와서 일해 줄 사람은 자기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문편집위원회는 TO가 다섯인데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제 대학 후배예요. 마지막에 온 거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동규** :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사지 500호 특집 역대편찬위원장 방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 나눔의 공간

500권의 「건축사」지가 보여주는 44년의 역사

유정훈 |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 Jeong-hoon

44년 전인 1966년이 우리나라 건축에서 어떠한 때였는지를 알려면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kira.or.kr/>)를 찾아서 로그인 할 필요도 없이, 왼쪽 화면 중간쯤의 6개의 박스 처음에 자리 잡은 「건축사」를 클릭해 보자. 새로운 창이 뜨고 복록이 나오는데, 거꾸로 나열된 목록을 보면 내려가다 보면 맨 밑인 1966년에 v.1, n.1, Jul이라는 꽉지가 보인다. 아마도 7월에 창간호가 나왔던 모양이다. 호기심에 내쳐 놀려보면 그 당시의 기록들이 펼쳐진다. 아! 그 경이로움이란! 협회의 연혁이 궁금하여 해당 아크로벳 아이콘을 누르면 1963년 12월에 협회가 설립된 후의 과정이 드러난다. 66년 5월말까지 전국의 회원 수가 547명이라고 한다.

이렇듯 첫 발행에 애쓰신 편집위원들과 글을 쓴 집필진들이 아직 생존하여 계실지 잘은 모르겠으나 참으로 멋진 일을 하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그 다음의 감사는 이렇게 디지털 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다. 간혹 어쩌다가 빠진 듯 건너뛴 월호도 보이지만 감탄하도록 충실히 문서화된 목록을 보노라면 야릇한 감동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이 솟아난다. 필자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기를 더듬어 보면 언젠가 신문에서 훌짓 본 「부여박물관의 왜색사비」 이었다. 분명 이 사건을 월간 「건축사」지가 간파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찾아보았다. 자료와 함께 있는 검색기능을 통하여 이 일과 관련하여 열렸던 좌담회 내용이 실린 1967년 9월호를 알게 되었다. 무려 24쪽에 걸쳐 협회의 회장단 및 건축사들과 교수 및 종교계로 이루어진 11분의 의견 피력을 읽었다. 철거해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도 있고, 고쳐서 쓰자는 온전함도 있다. 그런데 참석자 모두가 이 건물이 일본 것에 대한 모방 또는 영향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설계 당사자인 당시 34세의 김수근 씨는 “부여박물관이 두고 두고 내 죽은 다음에도 산 증거로 남아” 이 건물이 일본 신사의 표절인지 자신의 창작인지를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건물은 그려져 남았고, 지금은 그 가능성이 다른 채로 존속 여부를 운명에 맡기고 있다. 좌담회의 참석자들은 물론 건축가마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내친 김에 더 훑어보자. 창간호는 1966년 6월호, 두 번째는 1967년 4월호라는 꽤 긴 시기의 공백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찾을 수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잡지 한호를 내는 것이 배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내용을 뒤지다 보면 창간호의 제호는 「신건축사(新建築士)」였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호부터는 「건축계(建築界)」로 변경되어 1967년에는 4, 6, 9, 11월의 4권이 발행되었고 지금의 「건축사(建築士)」의 명칭을 가지게 된 1968년과 이듬해인 69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격월로 6권씩, 그리고 197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월간지가 발행되었다. 70년 1월호에 실린 협회 사업계획에서 보면 잡지 발행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건축잡지로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건축작품의 소개는 어떨지? 지금의 「회원작품」이라는 기사 제목은 70년 8월호부터 쓰인 것이고, 창간 당시에는 「작품화보」였으며 이어서 「건축물」 「이달의 작품」 등으로 변화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창간호에는 삼화건축연구소 박성규 건축사의 「3·15 의거 기념탑」과 차경순건축연구소의 「국립과학관」, 김경환 건축사의 「이화여대 다락방」이 실렸다. 흑백사진임은 물론이고 매우 간략한 개요 외에는 서술이 없어 건조한 느낌이나 도면은 비교적 충실히 실려서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내면 매우 좋은 자료집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

되어 대한건축사협회에 강하게 견의하는 바이다. 문득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1970년대가 궁금해진다. 75년 3월호를 보면, 이승우 건축사의 서울서부역사, 박성규 건축사의 농산물이용 시험실, 이영희 건축사의 외환은행마산지점합숙소, 정은용 건축사의 남양소금공장 및 손중모 건축사의 문화회관(김일체육관)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호기심은 '그 당시에는 외국 건축에 대한 관심이 어떤 하였을까?'이다. 두 번째 호에 네르비(Nervi)의 소개가 보이고 68년 5월호에 와서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의 건축동향이 소개됨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소개되는 외국 건축가로 리처드 노이트라,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미노루 야마자끼 등이 다루어졌는데 아마도 일본의 유사잡지에서 옮겨온 듯 출처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1972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해외작품에 대한 소개가 연재되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않은 이유로 외국의 일개 업체로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김수근 낭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청사 바로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1995년에 철거된 중앙청(조선총독부)과도 빛대어 제2의 조선총독부 아니냐면 외국인 설계의 정부청사는 결과적으로 건축인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묵살된 채로 70년에 준공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다.

창간호에 실린 안인모 건축사의 '절박(切迫)'이라는 글이 있다. 건축사의 보수와 사회적 위치가 기대와 노력에 많이 못 미침을 한탄하며 당시 인가된 보수기준에 대하여 물론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한 글이다. 이렇듯 자성(自省)의 소리와 개선의 의지를 계속되어 67년 11월의 김재철 회장 당선자의 충회연설 전문을 보면 인화(人和)에 치중하자, 여론에 입각한 운영을 하자 등의 인사말과 함께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창간호에 실린 안인모 건축사의 '절박(切迫)'이라는 글이 있다. 건축사의 보수와 사회적 위치가 기대와 노력에 많이 못 미침을 한탄하며 당시 인가된 보수기준에 대하여 물론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한 글이다. 이월듯 자성(自省)의 소리와 개선의 의지를 계속되어 67년 11월의 김재철 회장 당선자의 충회연설 전문을 보면 인화(人和)에 치중하자, 여론에 입각한 운영을 하자 등의 인사말과 함께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축사 1급과 2급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인턴제의 활성화를 이야기한다.**

75년 1월호의 권두언은 강명구 건축사의 '建築上, 建築家와 Architect'의 제목으로 진정한 프로로서의 건축사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빼있는 글이 실린 것을 주목하게 된다. 목록상의 최근호인 2010년 7월호를 보더라도 설계인력 과잉을 문제로 보는 이언구 건축학회 회장의 글과 김영수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의 글을 볼 때 이러한 건축사의 '바로서기'의 노력을 끝이 없을 것 같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타임지(?)를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심지어는 싱가포르의 건축 잡지들이다. 그러나 정작 궁금한 건축가의 이름 빛 건립시기 등이 자주 누락되는 것이 초창기의 모습이다. 고르뷔지에의 건물이 보이는가 하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의 아직까지 유효한 건축들이 소개되는 한편, 가끔 '이것이 왜 실렸을까?'하는 의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많은 정보 중에서 편찬위원들이 소개하고픈 것, 그래서 고른 것은 당시 건축계가 등경하였을 모더니즘의 모습이었을 터로 이해된다. 최근에 실리는 현지 특파원의 소신 있는 기사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68년 2월호에는 모처럼 우리나라 전체 건축인의 단결된 모습이 보였다. 세종로에 세워질 정부종합청사가 2년 전 설계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나상진 건축사의 작품을 기술부족이라는 이유로 외국 업체인 PAE의 안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3월호에는 이에 대한 현장 리포트와 김중업씨의 글을 실어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정부종합청사가 석연치

다. 건축사 1급과 2급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인턴제의 활성화를 이야기한다. 75년 1월호의 권두언은 강명구 건축사의 '建築上, 建築家와 Architect'의 제목으로 진정한 프로로서의 건축사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빼있는 글이 실린 것을 주목하게 된다. 목록상의 최근호인 2010년 7월호를 보더라도 설계인력 과잉을 문제로 보는 이언구 건축학회 회장의 글과 김영수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의 글을 볼 때 이러한 건축사의 '바로서기'의 노력을 끝이 없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딴 나라들은 독재시대의 건축이 나중에 와서 관광의 주 수입원(主收入原)이 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군사독재의 시대로 기억하는 6, 70년대와 80년대의 건축은 어떠하였던가? 기념비적인 대형 건축물이라면 63년에 세워진 남산자유센터, 67년의 세운상가 이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75년 9월에 준공되었고, 세종문화회관이 78년에, 86년에는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과 과천의 현대미술관이, 그리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88년에 지어졌다. 이러한 기

록들도 잡지에는 충실히 담겨있다. 언젠가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해야 할 일이다. 히틀러에게 슈페어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로 그러한 건축가가 있었는지? 앞에 나열된 건물들 중 김수근의 작품이 여럿 보인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더 있긴 하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그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현상설계경기는 예나 지금이나 큰 이슈를 일으킨다. 현상설계로 검색을 하면 271건이 나오고 설계경기로 검색을 하면 264건이 나온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을 보면 1966년 7월, 즉 창간호에는 최창규 건축사의 현상설계, 이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67년 6월에도 이승우 건축사는 설계경기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글들이 현상설계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리며 소리를 모아 2000년대 들어서는 문제제기가 많이 줄어든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책 현

완화를 남발하는 버릇을 가진 당시의 정부를 꾸짖는 것인데 이러한 소리가 들렸음이 보이는 바, 92년 7월호에 건축허가규제를 협회차원에서 전의하여 관찰하였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건축사」지의 늘 첫 부분을 이루는 기사가 있다. 칼럼(Colum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언제부터 이 기사가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니 93년 2월호부터인 것 같다. 첫 기고자는 이광형 KAIST 전산학과 교수이다. '기술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남대문의 설계자를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다. 피라미드와 로마 빙폐온을 각각 누가 설계하였는지 우리는 듣고 배워 아는데, 오늘 배달된 유력 일간신문에 실린 건축기사에서 건축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인가?

이렇게 보면 이 500권의 아카이브, 더 놀여날 역사의 저장은 참으로 소중하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나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임한 모든 기고자의 외침과 속삭임이 담겨있다. 비록 더 세련된 다른 잡지에 비하여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축사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 더욱 생생하다. 역사를 거듭하여 2050년대에는 1,000호를 맞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 잡지는 지금 모습이던 변모된 모습이던 같은 소리로 노래할 것을 믿는다.

상설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는 보인다. 오래전의 국립종합박물관(현 민속박물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오며 최근의 노들섬, 서울시청사 등에서 보여진 우리의 현상설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발주자의 지침인데, 이는 건축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민간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건축인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90년 10월호에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는 글이 실렸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당시에는 생소하고도 느닷없는 파도가 밀려온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길 하였으나 쓸데없이 흘어져 있는 힘을 모으자는 지극히 단순하며, 순수한 동시에 펙이나 당연한 제안이 아닐 수 없는데,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단합은 요원한 이야기이다. 시도는 꾸준한데 실천이 되지 않는다. 건축학회는 놓고서라도 현재의 3단체 통합은 정녕 이를 수 없는 꿈인가? 기다리면 되겠지. 말 들어보면 분명, 단합을 바라는 마음이 월등 많으니까.

91년 11월호를 보면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대한 두 개의 글이 눈에 띈다. 이영희 건축사의 글과 이갑준 건축사의 글이다. 경제를 위해 만만한 것이 건축인 듯 일관성 없이 규제와

93년 4월호에는 분당의 주택전람회에 대한 글이 실린다. 이 사업을 주도한 분이 글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전람회의 취지와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분당의 자투리 공간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상업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이 누구에게나 드러나는데 그러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또 건축문화의 새로운 실험장이며 살아있는 건축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면 이 주택전람회를 잘 기억하는 분 누구 계신가요? 아마도 이러한 작업의 과정으로 인하여 헤이리 마을이 조성되게 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건축사」지 검색기능에서 '헤이리'를 입력하면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축사협회는 헤이리를 인정하지 않나?

94년의 성수대교와 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인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었다. 이에 대하여 「건축사」지는 침묵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발하였고(94년 12월호, 장옹재), 자정(自淨)을 위한 특집(95년 8월호)이 있다. 참으로 아프고, 다시 펴올리기 힘든 일이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술과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은 팔복하게 진보되었음을 분명하다.

아무래도 90년대 중반 이후의 건축계에는 지금보다도 더 위

기의식이 팽배하였던 것 같다. 대형건축주의 무분별한 요구로 외국의 건축설계회사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대두되었던 시기였으므로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이 거론되었고 (96년 12월호),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한 두 차례의 기획특집(97년 1월호와 3월호)이 보인다. 그러나 40페이지가 넘게 할당된 12명의 글과 7인 좌담회를 훑다보면, '우리가 주도하면 된다'는 의식의 깨어있음과 자신감이 드러난다. 6, 70년대의 어쩔 수 없던 열등감과는 사뭇 다른 의연함이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끌리지 않음이 재확인된 계기가 아닐까 싶다. 어느덧 2000년대에 들어와 수백 명의 설계인원을 거느리는 굴지의 회사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스타 디자이너에 대한 대기업의 저자세가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극복될 것이 분명하다.

2009년 7월호에는 모처럼 흥미로운 토론회 현장이 실렸다. '건축설계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다.'는 당연한 것을 투쟁해서 얻어냈어야만 한 상황을 계기로 '왜 이래야 했었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다. 내 것을 기꺼이 주고서 뿐듯했던 것이 아니라 뺏기고도 '뭐 어때'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닌 것이다. 궁리는 문화를 창조한다. 토론회 끝 부분에서의 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오신 김현철님의 말은 큰 울림이 있다.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건축사」지는 또한 건축사들에게 기술교육적 내용을 전하는 역할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호부터 한국공업규격(KS)에 대한 연재가 실리고, 건축재료 및 디테일에 대한 기사가 자

주 보인다. 방수재, PC공법, 단열재, 법규기준 등이 계속하여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술적인 것은 교과서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그에 대한 전문서적 및 잡지도 활발히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건축사」지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2010년에 새로 기획된 것으로 '작품 리뷰'가 있다. 필자와 박인수 건축사가 열심히 일하는 젊은(?) 건축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이 전체 건축사들을 대표한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문제, 또 각자 처한 상황 및 연수의 과정 향후의 바람 등을 청취하고 독자와 공유한다면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회를 거듭하다보니 다소 습관적인 모습이 느껴지기에 이제 열 번을 채우고 그만 하려한다. 지방으로 찾아나나지 못한 것이 그곳 건축사들에게 못내 죄송하다.

이렇게 보면 이 500권의 아카이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역사의 저장은 참으로 소중하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나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임한 모든 기고자의 외침과 속삭임이 담겨있다. 비록 더 세련된 다른 잡지에 비하여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축사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 더욱 생생하다. 역사를 거듭하여 2050년대에는 어느덧 1,000호를 맞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 잡지는 지금 모습이던 혹은 변모된 모습이던 같은 소리로 노래할 것을 믿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한다. 쓸이기만 하는 창고가 아니라 누구든 펴갈 수 있는 곳, 여가야말로 풍성히 나누는 곳간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 ■

# 건축설계경기의 회고와 전망

박 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Park, Kyung-rip

## 시작하며

이 땅에 건축설계경기가 시작된 이후 건축설계경기는 항상 건축가들을 설레게 하는 등용문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아왔다. 당선자는 대부분 건축계의 공증된 건축가로 입지를 얻게 되며 이후 그들의 작품은 시대를 이끄는 아이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의 속성 상 많은 경쟁자들의 작품 중 당선작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자가 실망을 하게 되며, 때로는 당선작의 질적 가치와 심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는 경쟁을 통하여 승부를 정하는 것으로 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작품을 뽑는 것이다. 모든 경기에는 경기를 하는 목적이 있고 그를 관찰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된다. 어느 경기도 주체측이 있고 참가자가 있으며 심사위원이나 심판이 있다. 이들 모두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계경기는 보다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참가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항상 바람직한 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이슈를 읽지 못하여 앞서가는 디자인이 낙선되기도 하며, 때로는 실현성이 어려워 포기되기도 한다. 발주자의 안목과 성향에 맞춘 작품들이 당선되기도 하며, 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된 상황이 개입하여 참가자들의 의욕을 떨어트리기도 한다. 개개인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참가 자체를 망설여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도 한다. 그렇다고 항상 좋은 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절실

하게 기다리는 시기에는 때때로 젊은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당선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도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심사위원의 선정이다. 심사위원의 건축적 성향과 경험은 절대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의 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성향과 새로운 개념을 담은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이에는 많은 편차가 있으며 심사 위원 구성에 따라 당선작의 성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한다며 마련된 정량적 평가 또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은 일견 공정해 보이나 많은 함정을 지니게 된다. 차선책은 심사과정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심사 과정의 공개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심사에 앞서 발주처가 설계경기의 목표 및 지침을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명쾌히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 설계경기의 역사와 제도의 정착과정 및 중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설계경기를 되돌아봄으로써 끊임없이 제기되는 설계경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건축사」지 500호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설계경기 목록(본지70p.)을 작성하였다.

## | 설계경기의 역사

건축설계경기의 역사는 기원전 5세기 경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부터 1419년 브루넬레스키의 플로렌스 성당 둑에 이르기 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을 비롯해 많은 건축물들이 설계경기의 결과물로 지어졌고 1872년 영

1) Jacques Cabaneau: Competitions and Architectural Excellence, in Places 9:2 MIT, 1994

국건축학회(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서 정한 설계경기의 규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후 미국, 유럽 각지에서는 현재와 같은 공개경쟁방식의 설계경기의 형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설계경기의 대상 분야 범위 역시 건축분야를 넘어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대 되어왔다.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1956년 국제현상설계경기에 대한 실행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에서는 특정 공사비 이상의 모든 공공 건축물의 설계가 설계경기에 의해서만 선정되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을 정도로 건축에 있어서 설계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져왔다.

도심에 주어진 대지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을 공공광장으로 활용 시키고자 하였던 한 젊은 건축가 집단의 제안을 선정하였던 설계경기에 의해 풍미드 센터가 만들어 졌고 또 다른 한 젊은 여성의 과감하고 간결한 아이디어를 채택한 설계경기를 통해 베트남 미모리얼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면 많은 근대 건축가들이 참여하였다. 많은 관계자들은 당시 건축계 전반에서 주류를 형성하면 국제주의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한 Eliel Saarinen의 작품이 당선될 것을 기대했으나 2등작에 그쳤고, 260개의 참가작 중의 당선작은 Neo-Gothic 양식의 John Mead Howell & Raymond Hood 작품으로 선정되어 건축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sup>2)</sup>

한편 160여개의 계획안이 경쟁하였던 소비에트 궁(1932) 공개 국제현상설계에는 Le Corbusier를 비롯한 많은 근대 건축가들이 참여하였지만 최종 선정자가 발표되는 대신에 위원회는 근대 건축의 주류흐름을 무시한 절충주의적 양식의 3개의 우수작만을 발표하며 이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설계경기를 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은 CIAM을 위시한 유럽건축가를 비롯해 전위 예술가들에게 까지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다.<sup>3)</sup> 결국 설계경기의 방식은 주최 측에 의해 공개형식에서 폐쇄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1933년 Boris Lofan의 안이 당선안으로 발표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심사위원의 선정이다. 심사위원의 건축적 성향과 경험은 절대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의 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성향과 새로운 개념을 담은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이에는 많은 편차가 있으므로 심사 위원 구성에 따라 당선작의 성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한다며 마련된 정량적 평가 또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총합하여 결정하는 것은 일견 풍평해 보아나 많은 함정을 지니게 된다. 차선책은 심사과정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심사 과정의 공개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심사에 앞서 딸주처가 설계경기의 목표 및 지침을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명쾌화 하는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크고 작은 건축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 설계경기의 과정은, 때로는 신진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개되어짐으로 인해 각각 다른 사회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때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건축가 자신의 가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비판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 | 해외 주요 설계경기를 통해 본 건축설계경기의 문제

### 당선작의 시대적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고층오피스건축'을 표방했던 사카고 트리뷴 사옥(1922) 설계경기에는 Walter Gropius, Adolf Loos, Bruno Taut 등 당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이렇듯 설계경기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요구인 듯하나 심사과정이 항상 그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연계되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 당선작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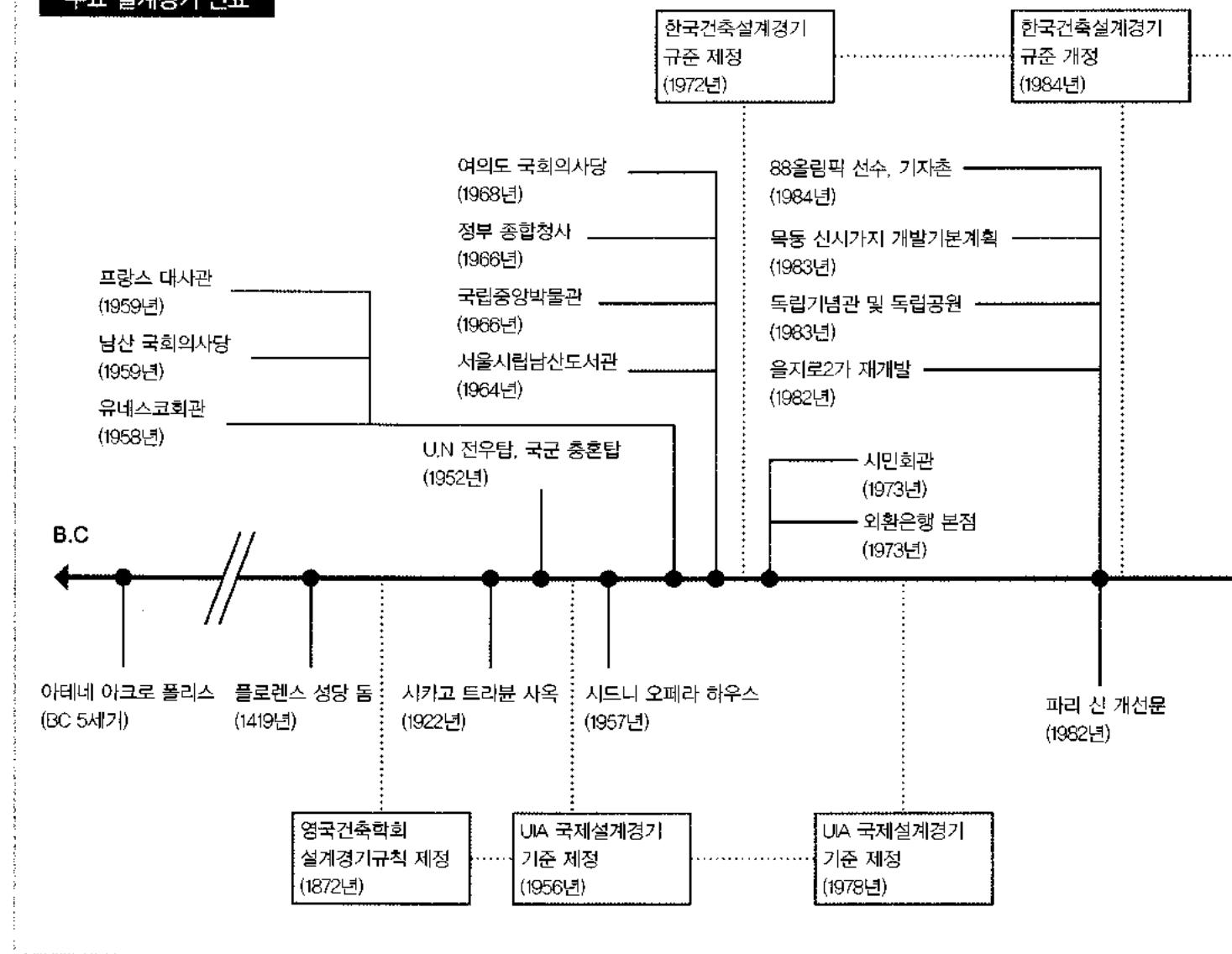
오페라, 오케스트라, 대형연회, 강연, 발레공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계획하도록 1955년 행해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1957) 설계경기에는 32개국에서 233개의 작품이 참여하였고 이를 작품 중 대상에서 탈락된 계획안들을 다시 살펴보던 심사위원 중 하나인 Eero Saarinen은 덴마크 건축가 Jorn Utzon의 작품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고 재심사에서 최종 당선안으로 발표된다.<sup>4)</sup> 하지만 현상설계안에 제안되었던 주요 구조체인 지붕 헬 구조는 당시 기술로 시공하기에는 막대한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 내

2) The Chicago Tribune Tower Competition: Skyscraper Design and Cultural Change in the 1920s by Katherine Solomonson and Richard A. Etlin, 2001.

3) "Soviet Palace", Time, March 19, 1934

4) Ziegler, Oswald (1973). Sydney Builds an Opera House. Oswald Ziegler Publications, pp. 35.

## 주요 설계경기 연표



는 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며 구조 분석을 위해 당시 최초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5)</sup> 결국 초기 예산보다 14배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 되고도 완공예정일보다 10년이나 늦게 완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건축주인 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와 갈등이 심화되어 건축가는 프로젝트를 중도에 사퇴하기에 이르고 이후 구조 변경되어 완공된 프로젝트 완공식에서는 건축가가 언급도 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 작품은 후에 호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며, 당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던 형태를 끈질긴 노력 끝에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로 회자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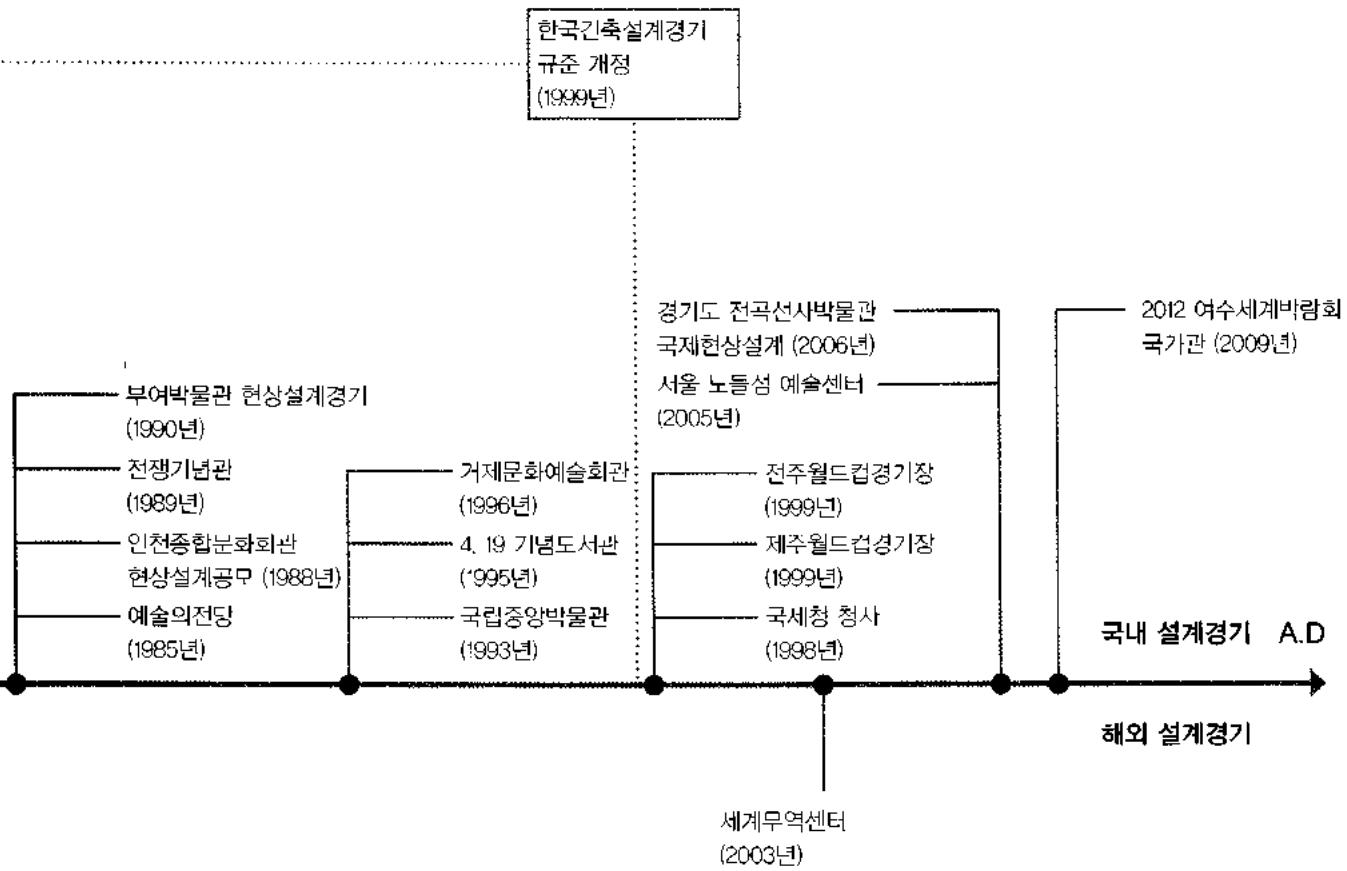
### 성공적인 국제 현상 설계경기 전환 사례

자국의 건축적 정체나 경직된 제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경계를 허물어 국제현상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적인 건축 사조를 받아들이거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설계경기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시청사를 필요로 했던 토론토 시는 1954년 토론토 시에서 가장 큰 3개의 설계사무실이 팀을 이룬 컨소시엄에 설계를 의뢰하여 1955년에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이 계획안은 많은 건축가와 대중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 결국 취소되기에 이른다. 자국의 건축가가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안을 선정하기 위해 UIA의 국제규정을 바탕으로 한 토론토 시청사 (1956) 국제설계경기가 개최되게 되었다. 전문 건축가로 구성된

5) Jones, Peter: *Ove Arup: Masterbuilder of the Twentie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2006.

6) Murray, Peter (2004). *The Saga of the Sydney Opera House*. London: Spon Press.



5명의 설계경기 심사위원들에 의해 500여개의 참가작 중에서 8개의 안이 1차로 선정되었고, 5명 중 Eero Saarinen을 포함한 3명의 심사위원들의 선택에 의해 최종안으로 덴마크 건축가 Viljo Revell의 안이 선정되었다. 1961년 착공하여 1965년 완공 되었지만 건축가 Viljo Revell은 1964년 사망하여 건물의 완성을 지켜보지 못했다.

### 신진 건축가 등용 사례

젊고 패기 있는 신진 건축가가 갑자기 건축계에 등장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나 설계경기는 종종 이러한 꿈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미테랑 정부 주도하에 계획되었던 La Defense 신 도시구

역 정비사업의 일환 이었던 파리 신개선문 '그랑 아르체' (La Grande arche; 1982)는 개선문으로부터 시작된 도시의 축 서측 정점에 위치하는 주요 거점 사업이었다. 73년 I. M Pei에 의해 81년 Aillaud에 의해 두 번에 걸쳐 계획안이 채택되었다가 취소 되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1982년 Kisho Kurokawa, Richard Rogers를 포함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제 설계경기를 통해 선정할 것을 발표한다. 424개의 작품들 가운데 채택된 안은 커다란 문의 상징성을 가진 거대한 미니멀리즘 큐브 형태 작품을 제출한 Johann Otto von Spreckelsen의 계획안이었다.<sup>7)</sup>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당시까지 자신의 집과 몇 개의 교회만을 설계했을 정도로 소박한 건축가였던 한 덴마크 건축가의 직관성은 진정한 작품성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공정한 국제 설계경기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심사위

7) François Chaslin et Virginie Picon-Lefebvre, *La Grande Arche de La Défense Electa-Moniteur*, 1989

원단이 선정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선건축가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그는 낚시여행을 떠나 있었고 가족들도 참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멜버른의 중심 문화 구역에 있는 페더레이션 광장 문화시설을 위한 멜버른 페더레이션 스퀘어(1997) 설계경기의 당선작으로 정형적이지 않은 다각형의 조합<sup>8)</sup>으로 이루어진 LAB Architecture studio의 계획안이 선정되었을 때 성 바울 성당으로의 경관을 침해한다는 역사 문화재보호 단체들과 보수적인 성향의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sup>9)</sup> 이후 공사 도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반영하여 상당한 계획수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에 친숙치 않은 과감한 디자인에 대한 우려에 공사비 증가, 완공시기 지연 등의 기술적 논란이 더해지면서 팽배했던 부정적인 시각은 그리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되었다. 멜버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시민이 긍정적인 건축결과를로서 여기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집회, 문화, 공연 등을 수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심사과정 문제점 표출 : 당선작가의 권리, 건축주 요구사항의 적절성

2002년 8월 LMDC(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가 세계 무역센터 국제현상설계(2003) 공표 한답 후 Daniel Libeskind안을 포함한 일곱 개의 Semi-finalist를 발표하고 뒤이어 2003년 2월 Finalist 2개 당선자로 THINK Team과 Daniel Libeskind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SOM을 Master planner로 선택하고자 했던 건축주 측 최대주주 Larry Silverstein과 설계경기운영위원회인 LMDC 간의 설계권자 선택권에 대한 불협화음이 지속되었다. 결국 Daniel Libeskind의 안이 당선안으로 최종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Larry Silverstein에 의해 SOM이 협력업체로 고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초기 당선안은 광범위한 설계변경이 되기에 이른다.<sup>10)</sup>

이렇듯 건축주와 당선 건축가, 작품 사이에는 당선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미리 적절히 규정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의 불씨가 된다.

〈표. 1〉 UIA와 한국 건축설계경기 규준 비교

	한국 건축설계 경기 규준	UIA 국제설계경기 가이드	비고
제정, 개정 시기	1972년 제정 1984년, 1999년 개정	1956년 제정 1978년 개정	
설계경기의 종류	공개설계경기 제한설계경기 지명설계경기	공개설계경기(Open competitions) 제한설계경기(Limited competitions) 특별설계경기(Special competitions)	
	프로젝트 설계경기(Project competitions) 아이디어 설계경기(Idea competitions)		
	1단계 설계경기(Single stage competitions) 2단계 설계경기(Two stage competitions)		
설계경기 참가자격	설계경기의 종류에 따라 공고에서 명시된 자격 또는 기타의 참가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집단	
심사위원회	건축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전문가 이외 전문가 포함 가능	건축가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 또는 기술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로 구성. 심사위원 4명대 1명 비율로 부심사위원(Deputy Jury)이 임명되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의 분석을 도와 줄 특별심사위원(Consultant Members)을 포함 할 수 있으며 투표권 없음. 심사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부심사위원 : 투표권은 없으나 심사 종료시까지 공식적으로 부재자를 대신하여 모든 심사 회의에 참석하며 불가 피한 경우 심사위원을 대신함.
심사위원 수	5인 이상 9인 이내의 홀수로 정함	7인 이내의 홀수 구성, 최소 1명은 UIA에서 지명 가능, 반수 이상 외국인이어야 함	
전시 및 접수		탈락 작품을 포함해서 모든 작품은 설명으로 심사 위원회 보고서 사본과 함께 최소한 2주 전시. 단 출품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이같은 사항을 자신의 신분이 기재된 봉투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8) Brown-May, A and Day, N (2003) Federation Square, South Yarra, Vic: Hardie Grant Books (ISBN 1-74066-002-1)

9) "GOVERNMENT ACCEPTS RECOMMENDATION TO SAVE ST PAUL'S VISTA". OFFICE OF THE PREMIER AND TREASURER: Media Release. [www.legislation.vic.gov.au](http://www.legislation.vic.gov.au). February 17, 2000.

10) Lerner, Kevin (August 2003). "Libeskind and Silverstein reach an agreement for WTC site". Architectural Record.

## | UIA 국제설계경기 가이드와 한국 건축설계경기 규준

한국 건축설계경기 규준은 UIA 국제건축설계경기 기준을 참고하여 1972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1984년과 1999년에 개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른다. UIA 국제건축설계경기 가이드도 1978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두 개의 규준은 전반적으로 공정한 건축설계경기를 위하여 다양한 제한과 권장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다른 건축적 환경으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규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적으로 규준을 지키느냐가关键으로 보인다. 두 규준의 중요한 차이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 한국 건축설계경기의 시대별 추이

1972년 12월 12일에 3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한국건축설계경기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오웅석, 김수근, 이해성(한국건축가협회), 이광노, 이승우, 나상기(대한건축학회), 송관식, 한창진, 안영배(대한건축사협회)가 각 단체들의 대표였으며, 위원장은 오웅석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건축설계경기 발생 시 건축주에 자문하여 공고안과 내규작성에 협조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협조하고, 부당한 조건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 3단체 회원들에게 응모 불응을 종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설계경기규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1963년 8월 9일 이후, UIA의 현상응모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규정을 제정할 것을 발의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그간 대부분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경기를 걸치며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한 건축계인사들은 보다나은 건축의 실현과 건축가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설계경기규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상황 변화에 의해 무산된 1959년 남산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켰던 국립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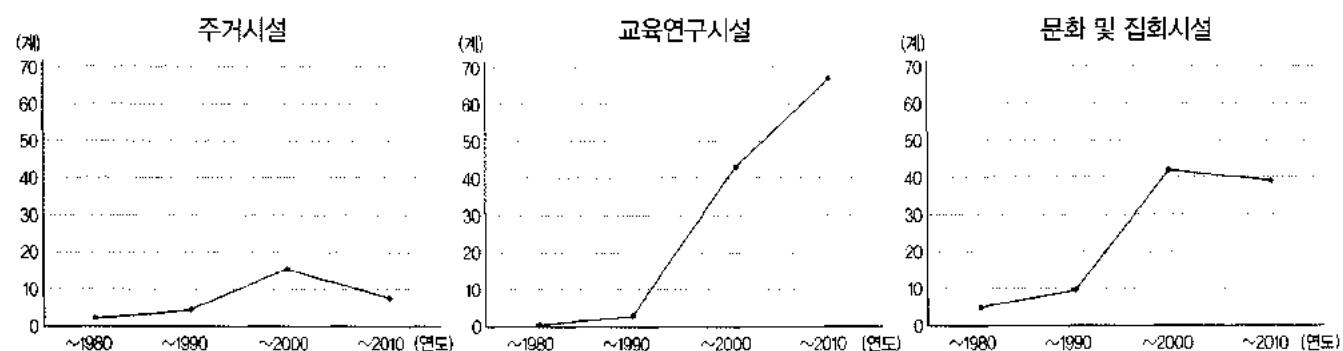
박물관은 설계경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어 건축계 화두의 중심이 되었다. 정부를 포함한 발주처의 불합리한 발주 지침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이 설계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 한편,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표현할 것을 원하였으나 형태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정부종합청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은 건축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주요구사항, 응모자격 등은 물론 건축계의 요구사항과 관계없이 진행되어 건축계를 실망케 하고, 건축가들끼리 갈등을 겪게 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설계경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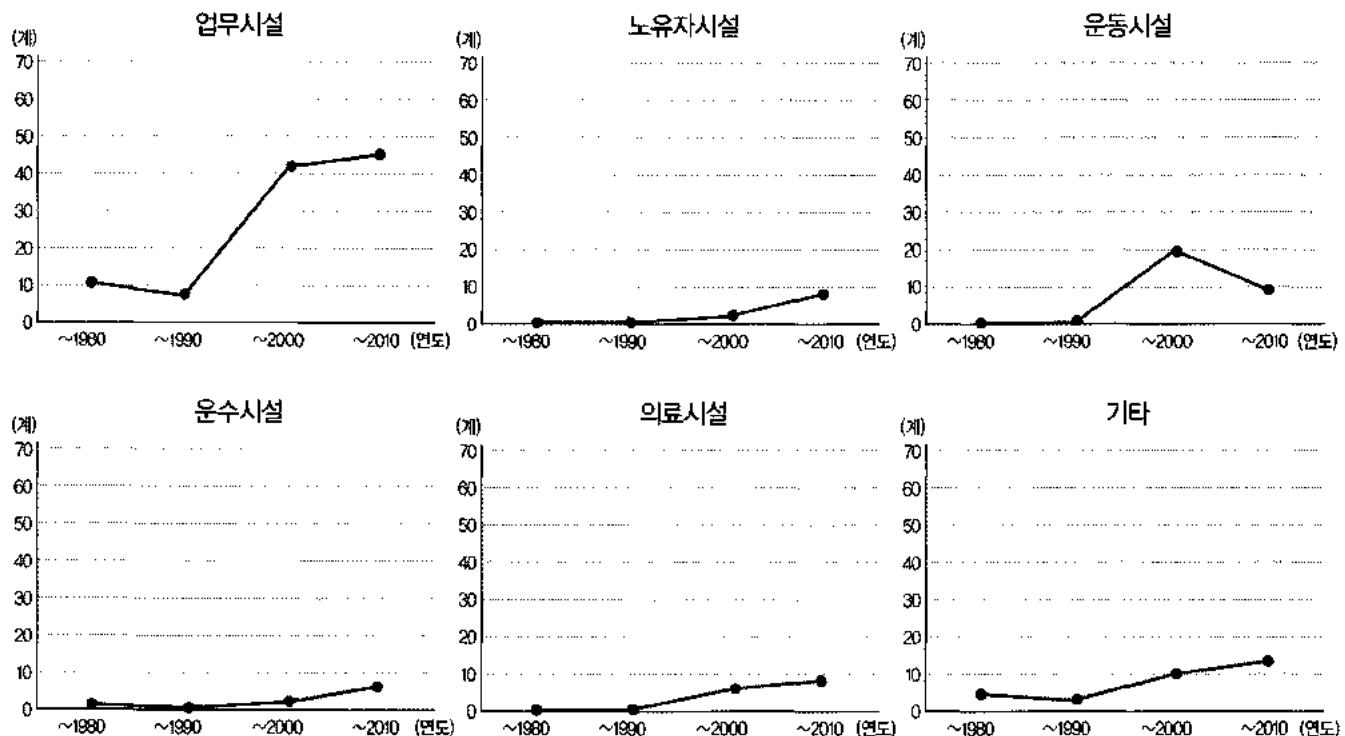
전통의 현대화작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대사관처럼 설계경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197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KBS방송 청사를 시작으로 외환은행 본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은행 기본계획, 한국종합전시장, 제2정부 종합청사 등으로 이어진 설계경기는 성장의 기도에 들어서는 당시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종문화회관은 또 다시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계승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이같은 주제는 1983년 초반 새로운 정부에 의해 실행되었던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에도 이어져 예전히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라는 부거운 주제에 건축계가 머물게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을지로 2가 재개발, 목동신시가지 개발 기본계획 등 도시차원의 설계경기 등이 등장함과 동시에 88올림픽 선수·기자촌, 예술의 전당, 인천종합문화회관, 전쟁기념관 등 기념비적인 설계경기가 건축가들을 뜯뜨개 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충무시민회관, 원주시립박물관, 4.19기념 도서관, 거제문화예술회관, 광진구도서관, 마산문화회관 등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시설에 관한 설계경기들이 확산되었다. 이와 아울러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계경기로 등장하여 많은 건축가들의 등용문으로 작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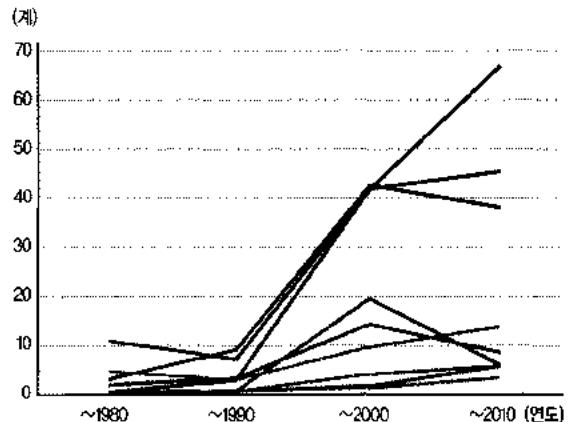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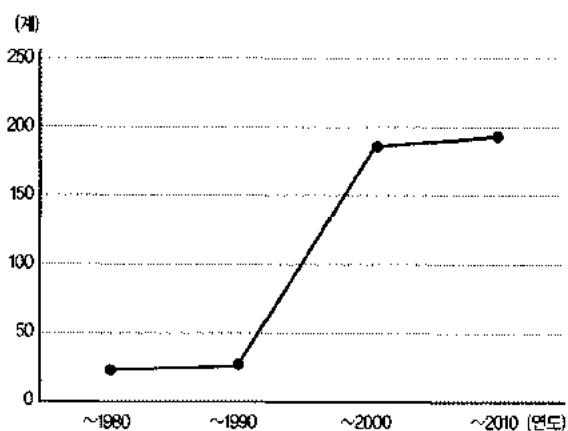
### 용도별 설계경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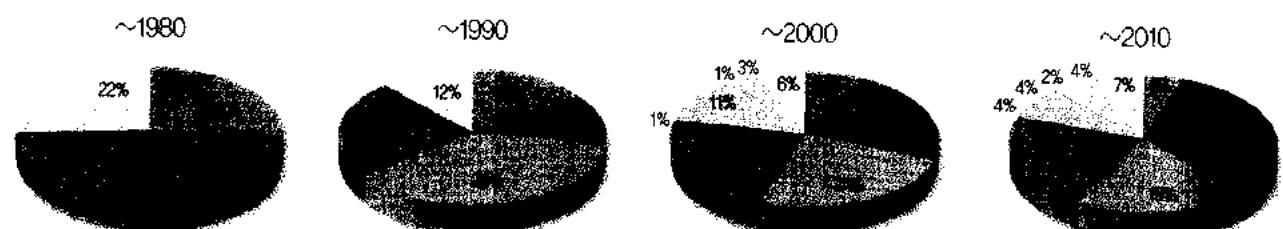
연도별 설계경기 총합

용도별 설계경기 증감 추이 1



- 주거시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기타시설

연도별 설계경기 용도분포



위의 「용도별 설계경기 증감 추이」 표는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설계경기가 이루어지며 양적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게 된다. 설계경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주제에는 변화하는 건축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을 알 수 있다. 자연과 도시를 담은 에너지, 자연환경과의 조화, 그린네트워크의 실현, 도시와 자연의 제고, 자연 친화, 인간중심, 환경친화적 생태, 환경친화적 건축물 구현, 유비쿼터스, 스마트빌딩, 그린코리도 등은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자연과 도시와 건축의 화해, 발전하는 기술과 환경의 공존 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시와 건축에 도입할 것을 꾀하고 있다.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국제설계경기의 증가이다. 고도성장을 넘어 경계를 허물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위상을 설계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건축사」자에 기고된 건축설계경기에 관한 논의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건축계에 회자되고 있고, 「건축사」자에서 설계경기의 결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고되지만 본격적으로 설계경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설계경기에 대한 기본적 고찰 – 발주와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이승우 / 건축사, v.2, no.2, pp.45–55, 1967년 6월”, “한국 설계경기의 문제점, 박영건 / 건축사, sno.196, pp.62–65, 1985년 7월”, “한국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시용/ 건축사 1993년 2월”, 1994년 7월에 게재된 기획진단 특집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중 “설계경기에서 건축사의 역할, 조인숙”, “설계경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석환”, “신투리지구 설계경기 심사 참가기, 김인철” 등의 글이 지난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며, 그들 주장의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설계경기의 효용

이승우는 그의 글에서 ‘특명설계’와 ‘설계경기’로 나누고 다시 설계경기는 ‘지명설계경기’와 ‘공개설계경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발주자와 건축가 사이의 신뢰를 기본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특명설계는 간편하며 효율적이지만, 공공성이나 기념비적인 성격을 띠는 공공 건축의 경우 설계경기를 권하고 있다. 특히 ‘지명설계경기’가 우수한 건축을 구하기 위하여 기 사회적으로 인정된 건축가 중에서 일인을 뽑는 것이라면, ‘공개설계경기’는 세상에서 통하는 신뢰를 또 다시 백지로 돌려 새로이 대가, 증견, 신진 속에서 찾아내며 건축계를 진흥하는 정치적인 뜻을 품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결국, 건축설계경기는 좋은 설계와 동시에 좋은 설계자를 고른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을 고르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능률이나 생산성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과정의 민주적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가 중요시 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계경기의 다양한 제반 조건을 UIA 설계경기 규칙을 인용하며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궁극적으로 설계경기의 발주가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단체에 의해 행해지고 그럴 수 있도록 건축가 단체가 성장하여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참고로 ‘정부종합청사설계’를 예시하며, 당시의 심사규정 및 심사과정, 심사위원, 심사 총평을 살고 있다. 그는 당선작을 내지 않았던 당시의 설계경기 상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 경기에는 한 사람이 2개씩 작품을 출품한 건축가도 있었다는 것이다.

박영건은 설계경기의 또 다른 의미중의 하나를 건축문화의 파급에 두고 있다. 그는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수인이 동시에 경쟁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서로의 주장을 비교평가하거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더욱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논의에 동참하여 건축문화를 제고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경기의 주체자가 사업계획과 설계경기 자침을 보다 명백히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초기 단계부터 심사위원회를 선정하여 설계경기의 목표설정 및 경기조건 결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건축가들의 참여와 비전문가들의 참여 비율 및 역할에 대하여도 언급하며 건축가의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설계경기의 당락을 좌우하는 표현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응모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표현 방법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표현에 좌우 되는 설계경기 심사의 한계를 꼬집고 있다. 한편, 그는 간절한 기대를 외면한 채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부난한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불행한 현실로 보며 보다 좋은 작품을 뽑을 수 있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제도적 보완을 언급하고 있다.

우시용은 1989년 1월~1992년 4월 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주요 설계경기 중 건축 관계 잡지에 기재된 설계경기 115점(국가기관: 53, 공공단체: 40, 민간: 22)을 분석하고, 응모건축가의 면담, 심사위원회 면담조사, 응모과정과 평가과정, 당선안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설계경기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을 건축주, 대상프로젝트, 응모건축가, 작품, 심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상호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서로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경기의 효과를 거둘 것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그는 설계경기(프로젝트경기, 아이디어경기) 구분의 UIA 기준과 KIA 기준을 비교하고, 단계별(1단계설계경기와 2단계의 설계경기)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응모

자격에 따른(일반공개경기, 제한설계경기, 특별설계경기(UIA 규준)/ 일반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KIA규준))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 설계의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우시용의 분석에 의하면 응모자 상당수가 설계경기 참여를 통한 참신한 건축관의 표현이나 이의 실현대신에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아쉬운 점으로 발주처가 요구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요구사항 등 부적합한 요구 사항까지도 부응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건축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는 이같이 바람직하지 않는 발주처의 요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기획단계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전에 공공의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용도별, 규모별, 응모기간별, 분포현황 및 그들 상호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경기의 유형 및 응모자격, 응모기간, 질의응답 제출도서의 내용 및 규격, 건축주의 작품에 대한 요구사항, 심사, 상금/제작비, 심사 후 관리/ 작품반환,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 귀속 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주최자인 건축주가 충분한 기초 자료 및 스펙 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설계경기의 질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경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응모자에게는 프로젝트의 성격, 기능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할 수 있게 시간이 주어져야 함도 첨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 시기에 대하여 각별히 논하고 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사전 구성과 사후 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시용은 심사자가 건축주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와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선정 시기가 꽁모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사후에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전에 구성될 경우 응모자가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나, 정실이나 이해가 개입되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의 분석에서 특기 할 것은 심사방법에 대한 것으로 다수결(17.5%)보다는 채점방식의 선호(71.9%)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사항을 “채점 방식에 의한 선정이 다수결에 의한 선정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수결인 경우 심사 위원회가 다수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의 비전문가에 의하여 무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채점방식이 각 심사사항에 대한 점수를 종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당선작의 발표와 동시에 심사과정 및 평가 과정을 유관지면에의 발표와 응모인의 공개적인 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응모자, 심사자 모두가 원하는 사항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의 한 방안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보다 명쾌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설계비와 상금, 제작비를 혼용하여서는 안됨과 한국건축설계경기 규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절한 설계비 책정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건축가들의 노력과 업무 내용에 비해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인숙은 행하여졌던 설계경기의 상당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아이디어 컴퓨터션이라기 보다는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처가 의무는 도와서 한 채 갑이 되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엔자리어링의 활동 주체가 응모자격의 대표로 나서는 이상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소형 아틀리에 사무실 사이의 고리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관공서의 경우 전문가가 있는 어떤 전담 조직에게 총괄의뢰를 하여 일의 순서를 객관화 한 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는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건축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하면 언젠가는 건축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김석환은 좋은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설계경기가 점점 더 회의적인 풍토가 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선자조차도 공감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당선 과정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의구심이 건축가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당선작의 평가 절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로 건축계 전체가 반성하여야 하는 일로 피력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 실무자의 비전문성과 작품성보다는 무난하고 경제성과 효율적 가치만을 따지는 풍토가 건축가의 바람직한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응모자 또한 작가의 신념 보다는 당선을 의식하여 심사의 성향에 맞추어 인을 작성하는 것 같은 완이한 태도로 임하였던 것을 비판하고 심사자들의 안목과 자질도 한 몫 하였다고 쓰고 있다. 특히 수없이 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이 불공정한 심사의 희생이 되는 것을 이 시대 건축문화에 대한 죄악이라고 언급하며 그간 설계경기를 통하여 당선된 작품들이 건축인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았음을 상기 시키고 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구성에 심사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 안배에 굽굽하거나 비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기 힘드므로 시행주체가 안목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대비로도 단위의 비상설기구로서 가칭 ‘현상설계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사전 구성과 심사과정의 공개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인철은 도시개발 공사가 시행한 설계경기에 참여한 후기를 통해 당시 심사의 한 단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설계경기제도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던 중견 건축가로 심사에 임하

면서 겪었던 아쉬웠던 점과 희망과 가능성을 함께 논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명단의 사전 공개, 심사과정과 결과의 건축잡지 공개, 보편화보다는 독창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교적 투명한 심사 과정 속에서 그간 막연히 거부하여왔던 설계경기 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음을 밝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였듯이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으로 겪었던 어려움도 피력하고 있어 결국은 건축가의 양식과 윤리의 문제가 중요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이 심사과정이 매우 드문 예일 수 있음을 다른 필자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경기 설계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마지막 언급한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을 보며 건축의 결과는 결코 건축주와 시공자의 탓으로 돌려질 수 없다는 것… 책임은 오로지 건축가에만 있는 것”이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만한 것이라고 본다.

## 마치며

지난 몇십 년의 건축설계경기에 관한 역사를 짧은 지면에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대를 달리하는 몇 안 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시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건축인들이 있었고, 각 시대의 정신을 담으려는 건축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도성장을 목표로 달려오며 겪었던 성장통이 건축설계경기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별다른 규준 없이 정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한 초창기 대한민국 건축태동시기를 거쳐 외국의 합리적인 규준을 본받아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을 만든 1972년은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이후 심기일전하여 희망을 갖고 건축설계경기를 추진하던 건축계는 양적 팽창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발주처의 비전문적 시스템과 영향, 건축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심사과정의 공정치 못한 관행과 건축가들의 사회적 역량 부족 등은 양적 팽창에 맞물려 건축을 문화에서 생산의 도구로 폄하하는 심각한 과정을 겪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자성과 자정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로 접어든다. 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면 시기로 접어들며 건축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건축설계경기의 요구 사항도 21세기로 접어들며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자연친화적 설계, 에너지 절약형, 무장애 설계, 자연과 도시와의 화해, 기술의 발달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건물의 생산 위주에서 사용자 우선주의로, 인간을 위한 공간에서 생태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 등 속속 중요 개념이 등장하고 설계경기에 등장하는 작품 또한 질적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당선자의 작품성에 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경기를 단순히 발주와 한 수단으로 여겨 일상화되는 가운데 건축설계경기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세심하게 준비되고 정리된 발주처의 발주 준비가 선결 조건으로 보인다. 모두가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가하여야 하며, 심사 위원도 미리 선정되고, 과제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경기 과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발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그저 문안한 작품을 뽑기 위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 설계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보다 나은 건축이 시대를 끌고 가는 문화 창출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건축계는 단합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 하며 스스로도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윤리 강령이 종이 위의 호랑이로 남지 않게 윤리적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국은 건축사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켜낼 때 사회로부터 건축설계경기도 신뢰를 받을 것이며 건축문화 창출의 진정한 주인이 되리라 본다. ■

# 「건축사」지에 게재된 설계경기 연도별 목록

정리 | 박경림

2006	경기도김포양도서관 전통문화센터(기)	김포시 주 신관면(기) 김포종합건축사사무소+김동호(주) 진무종합건축사사무소+이건설	교육연구소(설계서관)	경기도 수원시	sno. 442
	고제고등학교	조도연 이경한(주) 다비디(건축사무소)	교육연구시설(설계학교)	서울특별시	sno. 442
	인천국제공항 인력개발원	전현준(주) 화성종합건축사사무소+신재현(주) 대하고(건축부)	교육연구소(설계학교)	인천광역시	sno. 442
	동자2동 복합청사	류종수(주) 세기건축사사무소+니경희(주) 우거건축사사무소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443
	대주벤처 종합지원센터	양덕호(주) 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sno. 444
	경기도 전문선사문화관 국제예상설계	경기노 네글리스 네마사(설계), 아날로깅(건축·디자인)브랜드	문화 및 접객시설	경기도	sno. 445
	서울시청사 중·복제 민기	서울특별시 손정기 김관진(주) 솔루션종합건축사사무소+정경관(주) 호림종합건축사사무소+HMD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446
	하동군 보건소	조기화(주) 하동건축사사무소+이주용(미가건축사사무소)	의료시설	경상남도 하동군	sno. 446
	고양시 평화에너지 설립기념관	고양시 평화에너지	문화 및 접객시설	경기도 고양시	sno. 450
	경남대학교 거제 60주년 기념관	연남대학교 이관자종합건축사사무소(기종)	문화 및 접객시설	경북 경주시	sno. 452
2006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복층관 및 출입체육관	서울시립대학교 장윤규·신정호(설계) 건축사사무소+김영호(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55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업무시설	경기도 평택시	sno. 456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구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조도연(주) 대개혁(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연구원)	충남 부여군	sno. 456
	상행부산행방유적소	한국도로공사 송이호(주) 김동민(주) 종합건축사사무소+로인건축	관광체육시설(체육)	충남 천안시	sno. 457
	세종 노동장 예술선택	세종시 노동장	문화 및 접객시설	세종특별자치시	sno. 457
	내주시 제4공무원 수련원	서울시 박은호(주) 김동환(건축설계) 김경실(주) 김희숙(주) 아이데올(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연구원)	충남 계룡시	sno. 458
	서울시청사 중·개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청사 안길환(주) 우연종합건축사사무소+김기태(주) 우영아이스+손종현건축사사무소+Design & Order A. Sauer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458
	기생전안방기 와줄지 유기소	한국도로공사 노경애(주) 김정종합건축사사무소	관광체육시설(유기소)	전북 익산군	sno. 458
	대전 서남구 대구 아파트	대전주택공사 관승한(주) 화성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대전시	sno. 459
	해운대종별 개간로	이동호·김충백·고진숙(주) 현민건축사사무소+하승희·오세연(주) II	수변시설	부산시	sno. 460
2006	국립부산국립극원	부산시립극장	문화 및 접객시설	부산시	sno. 465
	국립 생활기획관	이정희·성명관수(주) 화성종합건축사사무소+김용관(주) 송진선(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인천광역시	sno. 466
	전국대학교총연 전로자 단체	이상령(주) 김미월(주) 공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의료시설	전북 선수사	sno. 466
	임산형성문화전설	김희언·김다식(주) 화성종합건축사사무소	종교시설	경기도 고양시	sno. 466
	한국수력전자력(주) 고리로토리 제2 발전소 시구동	박대원(주) 포스도(설계) 김숙자(건축설계)	업무시설	부산광역시	sno. 466
	중부물관	김규식(건축설계) 김수여(주) 박경관(한국기술교육대학) 박기석(주) 그린드	문화 및 접객시설	충북 진천군	sno. 466
	경기대학 마스터플래닛 학술정보관	임정관(주) 홍천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주) NC	교육연구시설	경기도 화성시	sno. 467
	수원시 제2정차장	양승관(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경기도 수원시	sno. 467
	광씨워터파크	서준범(주) 김충위(건축설계) 노지간축	문화 및 접객시설	대구광역시	sno. 467
	광주은시민환경선센터	김진호(주) 대우(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김경호(부천대행)	문화 및 김호(설계) 고근(생활시설)	광주광역시	sno. 468
2006	화성동탄기구 시민단지	안길환(주) 부영건축	공동주택	충남 단양군 광성지	sno. 468
	인천대학교 이매관	안길환(주) 영종종합건축사사무소+이자식(주) 인종합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	인천광역시	sno. 469
	용산초소년수련관	이상근(주) 세화한(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69
	인천종합운동장 국제기획센터	안길환(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sno. 469
	동부노인문화요양센터	김종관(주) 종합건축사사무소(기원)	노인복지시설(보기시설)	서울특별시	sno. 470
	국립현대미술관 수자정	성광운(주) 박병관(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김숙자(설계)	자동화설비시설(주)장	경기도 과천시	sno. 470
	영천문화재단 낙지터	김경우(주) 영천문화재단(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운동시설·분화 및 접객시설	경북 영천군	sno. 470
	증인다학교 의과대학 종조	노경래(주) 경정종합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0
	경기과대 부설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인천광역시	sno. 471
	신재학회 커어센터	김동규(주) 전경사(건축설계) 도림(주) 정예(설계) 종합건축 설계 김숙자(설계)	의료시설	경기도 화성시	sno. 471
2006	서울방한학교	서봉수(주) 최도현(건축설계) 도우(주)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1
	서울시 구로구	소인식(설계) 김숙자(건축설계) 도우(주)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no. 471
	경북구민인권관판타	임해인(주) 김숙자(건축설계)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no. 471
	동광고전기돌관	김상수(주) 형제(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문화 및 접객시설	경기도 경기도	sno. 471
	건국대 신학부동과	박영호(주) 신자호(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1
	경기도 구 아파트	서울도시 도시개발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현기(주) 한민정(주) 이나영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sno. 472
	전주은행내부	신주산법(설계)	교육연구·설	경상 진주시	sno. 472
	증르문화체육센터	서울시 종로구 정동(주) 혜랑종합건축사사무소	문화시설·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no. 472
	15400원화전본사 주거단 복합나입	주(주) 간접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빌딩시설	서울특별시	sno. 472
	별신도구 아파트	서울시 두시가별공사 단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주훈(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sno. 473
2006	민족고등학교	조도연(주) 디비(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대전광역시	sno. 473
	강릉구정 복합관	박주환(주) 김숙자(건축설계)+백금부(설계)	업무시설(생활시설)	서울특별시	sno. 473
	중국사인 CEO 다스티풀관	장영규(주) 쇠영종합건축설계사무소+당우한(설계) 김도(설계) 김숙자(설계)	업무시설	중국 캐나다	sno. 473
	부산신자연센터	정경관(주) 윤흥건(주) 허준종합건축사사무소+박철관(설계) 유호종(주) CIRT(종합건축사사무소)	업무시설·문화 및 접객시설	부산광역시	sno. 473
	천안여학교·천안외국어대학 복지관 체육관	양성호(주) 신민당(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충남 천안시	sno. 473
	기암 1동정사	성기호(주) 하이엔드(설계) 김숙자(건축설계)	업무시설(경암1동수사)	서울특별시	sno. 474
	7750원화전본사	최경철(주) 김숙자(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474
	온예고·구온종합학교	조도연(주) 디비(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추동학교)	서울특별시	sno. 474
	상수산업 본점동 사옥	송호승(주) 채진축(설계)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475
	광녀초등학교	이정선(주)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5
2007	인천고등학교	김현선(주) 유한(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경기도 수원시	sno. 476
	부천트수학교	주익숙(주) 양호(종합건축사사무소)	교육연구시설	경기도 구현시	sno. 476
	경기고등학교	성기호(주) 하이엔드(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7
	부천시청	최경철(주) 김숙자(건축설계) 김숙자(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477





국제설 청사	국서초	구 청식(주) 솔루ーション건축사사무소)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qm. 354
경매인 생활관	창원시	창원도 조통구주 아죽면지니어링 건축+사무소+수 손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경상 경주시	sqm. 354
팀일 보건소	밀양시	밀양재료수 충북간호사사무소 가문역	의료시설	경북 을지시	sqm. 354
동부상상전총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0번지	김종석(주) 경기(경기) 건축	문화 및 박물시설	서울특별시	sqm. 350
강북구민회관	강북구	운송중 변동필드(건축)	문화 및 전시시설	서울특별시	sqm. 350
진주산업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진주산업대학교	운현숙(디자인건축)	교육연구시설	경상 주주시	sqm. 353
정원대학교 재학생학관	정원대학교	정원중(대학) 건축	교육연구시설	경상 창원시	sqm. 353
위화 정자기념도서관	김해시	김민구 예술인(이화여대) (경상예성영기숙)	교육연구시설	경상 김해시	sqm. 353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	일광(주) 성남(한국문화체육)	교양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전남 목포시	sqm. 352
울산광역시 북구청	북구청	서호(주) 성립연대(아동증합건축)	연수시설	울산광역시	sqm. 352
전주 교육청시	전라북도 교육청	오종혁(주) 4이상도 송경규(세계건축)	연수시설	전북 전주시	sqm. 352
예현군청사	예천군	한수(주) 세종건축	연수시설	경북 예천군	sqm. 352
광주광역시 소거마리원로 청사	광주광역시 산기슭(한국원로)	김우재(주) 건축+상장연대(건축)	연수시설	광주 광주시	sqm. 352
경상대 개교50주년 기념 고제대학원	경상대학교	송이호 박현철(주) 미안(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경상 진주시	sqm. 351
제암리 3·1운동 숙구유적지 기념관	하남시	비트엔건축사+주소 대안+오보한(건축) 나사무소 (건축)	문화 및 전시시설	경기 회성군	sqm. 351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최삼재(주) 가을증합건축	노숙자시설	서울특별시	sqm. 351
남해문화센터	남해군	최신재(주) 가을증합건축	온수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경남 논해군	sqm. 351
한국기스인전용사 교육원	한국기스인전용사	주경창(주) 비즈(건축)	교육연구시설	충남 천안시	sqm. 351
도로증합기술연구원 도로기술사업부	한국도로공사	김금철(주) 이아(증합건축)	교류연구시설	경기 화성군	sqm. 350
도로증합기술연구원 도로기술사업부	한국도로공사	최종철(주) 종현건축+전영재(주) 코아(건축)	교류연구시설	경기 하성군	sqm. 350
제2동 3동 풍수동	중랑구	도박코주 유경(건축)	연수시설(문화체육시설)	서울특별시	sqm. 350
서울시립 칠성어린이집	서울시 청량진구(한국)	서예(주) 경주(건축)	교류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qm. 350
속령고등학교	경기도 노포면	나성호(주) 백주(건축), 엄파(증합건축)	교류연 구사립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시	sqm. 349
중앙고등학교		조혁재(주) 이근구(주) 향정증(건축)	교류연 구사립고등학교	경기 과천시	sqm. 349
명덕고등학교		한경(주) 삼수증합건축	교류연 구사립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sqm. 349
부산대학교 기숙사	부산시 동합한성기숙	장연규(도원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부산광역시	sqm. 349
인동십자병원	인동시	이경희(주) 화온건축(건축)	운동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경북 단동시	sqm. 349
성북동 총사 및 수차당	성북구청	김본경(예가건축사사무소)	자동차 관련시설	서울특별시	sqm. 348
선업디자인센터	한국산업디자인원 진중원	이경희(증합건축)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qm. 348
운수종사회 복지센터	서울시 건설기전의원부	조승호(주) 원술(증합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qm. 347
서울 버스 끌라시	서울시 선별진료소(부동)	황석복(주) 정노(주) 기파(증합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qm. 347
서해운사법동원	서울시 강남구(한국)	김상동(한강건축)	외교사	서울특별시	sqm. 346
노동부소속 기관 보존 고설 청사	노동부	박종수(주) 삼우(증합건축)	업무사	경기 수원시	sqm. 346
미신문화회관	마산시	송이호·박현필(주) 라인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경남 마산시	sqm. 346
광주 학생 노숙문화회관	광주광역시 교육청	송고호(주) 박현필(주) 라인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광주광역시	sqm. 346
고속철도 경북통합역사	한국고속철도 경북(한국)	김우(주) 모비(증합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경북 경주시	sqm. 346
울성청소년수련관	울성군	고우(주) 보옹(주) 2층합건축	스캔시설	경남 울진군	sqm. 346
거제시 육군종합복지관	거제시	이호(주) 디자인(증합)	문화 및 접객시설	경남 거제시	sqm. 345
대구설내동학교	대구시	경대(주) 일동건축+변광우(한도시단지)	운동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대구광역시	sqm. 344
한국전통문화학원	문화체육부	이은(주) 아트센	교류연구시설	충남 부여군	sqm. 344
한국문화예술공연 청소년극장	한국문화예술공연 청소년극장	3영희(주) 미행(주) 이식(증합건축)	연극시설	충북 청주시	sqm. 343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나옥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손인수(한국인재아동)	교류시설	대전광역시	sqm. 343
고리마을	서울시 강남구(한국)	Oravo Co. Residencial	문화 및 접객시설	제주 제주시	sqm. 342
동산대 강의동 청주공·운학관	동·나대	김홍근(주) 진호+최상익(주) 모나(건축공학)	교류연구시설	경기 나주시	sqm. 342
마포도 인사계회관	마포구	조영장(주) 조경(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qm. 342
고양노인복지회관	고양시청	조영장(주) 조경(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경기 고양시	sqm. 342
중랑소방서		화윤(주) 일산건축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qm. 342
강서구 민족홀리센터	강서구	손은(주) 손·노(건축)	운동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qm. 342
안전개방(한국)	안전개방(한국)	안전(한국)	업무시설	인천광역시	sqm. 341
성동증합생명기념관	성동구	안상원(한국)	연수시설	서울특별시	sqm. 341
한남대 종합정보센터	한남대	변희령(주) 솔(증합건축)	교류연구·설	직장광역시	sqm. 341
동작스빌서	동작스빌서	손경호(주) 안준성(건축)+지·전건축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qm. 341
김해문화예술회관	김해시	(주)동자(주) 흥미(증합건축)	문화 및 접객시설	경남 김해시	sqm. 341
신대사립도서관	신대(시)	이느로(주) 한·수(이상숙(증합))	교류연구·설	경기 양주시	sqm. 341
원주시청사	원주시	보령(주) 모성상(한·인)	문화 및 접객시설	경북 영주시	sqm. 340
대구동구 체육문화회관	대구광역시 청원구	심우근(주) 속·오(한국)·한은주(우신건축)	운동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대구광역시	sqm. 340
화성군청사 및 의회동	화성군	김동훈(주) 암자(한국)·주진우(건축)	교류시설(공공업무시설)	경기 화성군	sqm. 340
화성시구 아파트	대전광역시	조정기·백는우·최병선(한국)·김기현(증합건축)	운동구역	서울특별시	sqm. 339
한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주) 교육장	남길(한국)·정기(증합)	감우(시설)	경기 수원시	sqm. 339
이정부서 의회청사	의정부시	조경기(한국)·한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경기 의정부시	sqm. 338
제주시외회		한명동·이수·한(한국)·한(한국)	의료시설	제주특별자치도	sqm. 338
제주시민문화복지관	제주시	김희수(한국)	문화 및 접객시설	제주특별자치도	sqm. 338
성주사립서장·도서관	경주시	신재(한국)	교류연구시설	경북 칠곡군	sqm. 338
순천내수고·청평초·화원	순천내수고	안병모(한국)·정유(한국)·김현(한국)	교류연구시설	전남 순천시	sqm. 337
공릉구구 관자(보드)	도시개발공사	조경희(이준인(한국)·한(한국))	금동주택	경기 수원시	sqm. 337
대동 에드워 퀸·트드 그레이즈	대화재(호)	숙기(한국)·한(한국)	운동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서울특별시	sqm. 337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포천군	상인회(POC-AO)	문화 및 취미시설	경기 포천시	sno. 306
남자주군청사	남세주군	김성례신예제작	업무시설	제주도 서귀포시	sno. 336
과천시 갑현동 대로교회관	과천시	김영재(다원건축)	문화 및 취미시설	경기 과천시	sno. 336
감리교 신학대학 100주년 기념관	감리교 신학대학교	주신 연설 경향건축	교육연구시설	네울득골시	sno. 306
전북도청사	전북도청	우영근반포건축	업무시설	전북 전주시	sno. 306
대선 기 2층수신을 도미시청	대전광역시	김인수 최자연신해(엔건축)	민예시설	대전광역시	sno. 306
울지도 2가 도심 재개발	내한주택공사	이충찬 보승준(한상건축)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305
대전도시개발 종합사관실		이명호(백현건축+박금광(장원건축))	업무시설	대전광역시	sno. 305
연천군 문화예술회관	연천군	인천원(성렬건축)	문화 및 취미시설	경기 연천시	sno. 335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고흥군	김영기 강원 원(서원건축)	문화 및 취미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sno. 335
진해시경기	진해시	김호 이진부(원형건축)	술무 시화공원(한우사회)	경상 진해시	sno. 335
천주교성당	진수군	정다복(일본건축)	술무 시설(공연업무시설)	경상 진주시	sno. 335
오산시 종합문화회관	오산시	이진부(한국건축)	문화 및 철학시설	경기 오산시	sno. 335
간동 한국국화전시원	간동군	전체우(동남아 태건축)(이상현(이기건축))	업무시설	경북 안동시	sno. 335
국립부 청록빛의	국립부양등병원	안길원(무영건축)	의료시설	서울특별시	sno. 335
내수구역 제2구 도심재개발	방음건설	이광원(부록건축)	문화시설	서울특별시	sno. 335
평진군 노서단	평진구	이종상 이종수(이예건축)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335
목실 불내방성장	서울시 강남구한글로보	조정래(연정건축)	은농시설	서울특별시	sno. 332
3000 이시아경기 대회 경기장	부산	정다찌(한진설계)	운동시설 문화 및 철학시설	부산광역시	sno. 331
충청북도 피划교육원	충청북도 교육청	오선희(신간건축)	교육연구시설	충북 청주시	sno. 330
한정기금관		국식위(종기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서울특별시	sno. 330
충남구립도서관	충남구	오봉석 김진권 주영인터너셔널 건축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330
기동성길기구 주광마드	내한주택공사	AK 구 - 민승렬한국족(복지구) - 보성일정일(엔건축)	공동주택	경기 용인시	sno. 330
강원전문대학		이지표주(엄민아(건축)+안광호(종합건축)) 신	교육연구시설	경원 강릉시	sno. 330
대구 유신 층별		곽세훈 이자우(주 레는종합건축(내구모스))	숙박시설	충북인증획득원	sno. 330
만금정 '유의진'	조달총	오영국(금기축)	문화 및 친화시설	경기 마주군	sno. 328
내수 송월문화예술회관	태백시	구정희 이호수 김호경(예가워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경기 태백시	sno. 328
과천동 나로직 티관	과천시	충순진 풀강우 최기원(으름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경기 고양시	sno. 328
기재문화예술회관	거제시	장석중(이도록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경상 거제시	sno. 328
울진피기념관	국립체육관공단	최령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서울특별시	sno. 327
국수원행 로드	국수원행	이영호 이수문 한영균(해린건축) HAN YOUNG-KWON - DIAZ	한무시설(공연장무지점)	서울특별시	sno. 327
충남 국제문화센터	충남대	오태주 김현정(정기축)	문화 및 친화시설	대전광역시	sno. 326
내전 남양아이파크	대한주택공사	조병기 국동수 최병진 경세진(장남건축)	공동주택	대전광역시	sno. 326
제2신암연구원 경시	제2신암연구원	양민호 조영식한국건축	교육연구시설	경기 용인군	sno. 325
경현군 보건의료원	연천군	곽은영(예간건축) INDO CONSULT	의료시설	경기 연천군	sno. 325
대전 서구 다른적 종합체육관	대전시(구청)	김인수 최자연신회(엔건축)	운동시설 문화 및 친화시설	대전광역시	sno. 325
대전 서구 낙선공원 설내방성장	대전시(구청)	김영래(한국건축)	운동시설	대전광역시	sno. 325
인천 송현시민 바이트	대한주택공사	안길원 손광민(정근건축)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sno. 324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내구원역시 교육청	백승구 설송배선건축	교육연구시설	대구광역시	sno. 324
근로자 체육문화사업	근로 체육공단	심으로 체육식 김종훈(도울건축)	운동시설 문화 및 친화시설	경기 수원시	sno. 324
근로자 영유아보육시설	근로 복지급단	박용수 스태파두(건축)	노후자시설		sno. 324
경성 홍성군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최동호 경경상 한남수 최기철(유동컨설팅)	공동주택	경기 광명시	sno. 324
천주교 평화는 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손용이(연경건축)	종교시설	서울특별시	sno. 323
성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두상프러소(건축)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광주광역시	sno. 322
동명중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류언천(유기림건축)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광주광역시	sno. 322
남수원 문화예시		손광인(무영건축)	온수시설	경기 광명시	sno. 321
국민언론 종합동양시설	국민언론관리 공단	황우정 종현건축	관광휴게시설	충북 제천군	sno. 309
수원화서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최증호(종현건축)	공동주택	경기 수원시	sno. 309
대농 군세스 케이드성	나눔 선수준	수경발전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운동시설	서울특별시	sno. 309
서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백현실(상덕박(종합건축) 신도사찰서 강비)	문화 및 친화시설	부산광역시	sno. 310
서기 2 남도서관	보훈처	장의광(주)이수호(종합건축)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312
대구 삼정지구 공동주택	대한주택공사	최두혁(토문강장면트건축)	공동주택	대구광역시	sno. 313
봉천지구 아파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민현생주 풍활 건축사(서무소 디로재)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sno. 314
송수기념 선왕 액자점	종소기념관 공단	강기사(방진축)	판매시설	서울특별시	sno. 314
반도문화 시의도서관	서울시 서초구청	윤바수(내·외관)	문화 및 친화시설	서울특별시	sno. 315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울산시	회원식 박문철 노병기 박근정우성건축	문화 및 친화시설	울산광역시	sno. 315
제주 화도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주. 우원 종현건축(자무소)	공동주택	제주특별자치도	sno. 315
부산 강서구청	부산광역시	백재희(자진건축)	업무시설(공연장무지점)	부산광역시	sno. 316
원주시 디박불관	원주시	한경호 하금현 유기정 김상수(종합건축 신)	문화 및 친화시설	경원 원주시	sno. 316
종합도서정보 연구센터	대한주택건축기술(KOTRA)	인길원 종현(주)구성종합건축	교육연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316
종합예시지회관	에너자전리(공간)	송기덕(정일(한)종합건축)	업무시설	경기 용인시	sno. 316
대구 이진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안길원 손광민(무영건축)	공동주택	대구광역시	sno. 317
동구 동구청	서울 동작구	각재미(유시건축)	업무시설(공연장무지점)	서울특별시	sno. 317
농학수 근현화선 복고 보건소 경시	서울 동작구	주수일건축(주)수일+소련건축(하서구)	업무시설(공연장무지점)	서울특별시	sno. 317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무속·냉면	건국대학교	원노시선(윤승중·변용·상현태)	의료시설	서울특별시	sno. 320
경기도 광우원 스판원	경기도	진우건축(김동준)	수ん시설	경기 안산시	sno. 319

	대구 축구전용구장	대구광역시	이상건축(각설회)	운동시설	대구광역시	sno. 36
1995	수원시립 회성상	수원시	진주간(죽동종)	묘지관련시설	경기 수원시	sno. 37
	국립중장비물관	경북	진주종합건축·사무소(은장길)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sno. 38
	대전선암암자하고 증인도서관	대전선암대학교	는화(한민족학관)·최재원( )	교육연구시설	대전광역시	sno. 39
1992	강남구회관 및 구의회청사 현상설계	서울 길남구청	연중관건축	업무시설(공연무시설)	서울특별시	sno. 77
	군산시청사 현상설계경7	군산시	신천미술	의무시설(공급무시설)	전북 군산시	sno. 262
1991	충무사원회관 현상설계경7	충무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리안 철도 (승이호·안기례)	문화 및 접회시설	경남 충무시	sno. 264
	진로간술화관 현상설계경기	진로간술관 제조현	호령관(건축)서사무소	일반시설	서울특별시	sno. 27
	대법원헌사 현상설계경도		운도시종합건축	공연장	서울특별시	sno. 240
	부여박물관 현상설계경7.	규령증인박물관	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문화·설	충남 부여군	sno. 250
	서울 가양지구 시내아파트 현상설계경기	서울 도시개발공사	주아기고래종합건축사무소	주거시설	서울특별시	sno. 256
1990	서울 행파구 시장아파트 현상설계경기	서울 도시개발공사	빛 종합건축	주거시설	서울특별시	sno. 259
	나구지하철 종상사역설		선종대(국립건축)	업무시설	내구광역시	
	부산시청사		0 음홍(일스啄한건축)	업무시설	부산광역시	
	동진 제3정부청사	경부	신우건축	민주·나성	대전광역시	
	목동도서관 현상설계 경기	서울특별시	서울거울	교육시설	서울특별시	sno. 238
	대치 수제자기 A·영아파트 현상설계		주·천일종합건축	주거시설	서울특별시	sno. 245
	국립미술관 현상설계경기		종간송관건축	문화시설	내구광역시	sno. 246
1989	대법원정부청사		운송동	입구시설	서울특별시	sno. 249
	인천종합문화회관		진석중(이우현)	문화 및 접회시설	인천광역시	
	평화의랑	전명기념사업회	희망진	관광호객시설	서울특별시	
	전쟁기념관		국축연-이석관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국립대구박물관		경세랑(국기)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sno. 249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임이동종건축사무소	교육연구시설	대전광역시	sno. 250
	신한은행지점 신축예정건물 기획정	신한은행	직립종합건축사무소	업무시설	가상	sno. 252
1988	광주전력회사회관 현상설계	광주광역시자부	국보동종건축사무소	임구시설	광주광역시	sno. 233
	인천종합문화회관 현상설계공모	인천광역시	아도구종합건축사무소	문화 및 접회시설	인천광역시	sno. 234
	마산지방변법청장 현상설계공모	마산시	주·온달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업무·생활综合(업무·시설)	경남 창원시	sno. 235
1987	86년건축 흐트 설계경기 작품	일본 건축학회	동·정기회관(4·8층·상·정·의·건축·사무소)·2동	공연장	가상	sno. 236
	국제방송센터		길동업	방송통신시설	서울특별시	
1986	한별도서관		길석월	교육연구시설	대전광역시	
	예술의전당		향인인·우구는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1984	한국은행 본점		밀양기축	업무·생활综合(업무·시설)	서울특별시	
	한국총합무역센터		니한 설계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목동 신사기자 개발 기본계획	성부	김·윤·이규복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서울법원 신축		김수근	업무·생활综合(업무·시설)	서울특별시	
1983	특화기획관 및 드립공원	전부	김·충·이규국	문화 및 접회시설	충남 천안시	
	아시아 신수축 및 공원 기본계획		기상통	관광호객시설	서울특별시	
1982	을지로2가 재개발	대한주택공사	화신 건축·길종합건축·천을건축·기술단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1979	제2정부종합청사		엄미간축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1977	한국중학진시장		정금건축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1975	한국은행 기본계획		설연건축	공공시설	서울특별시	
	한국중권기획		미승우(종합건축)	은무·교실	서울특별시	
1973	시민회관		언역무	문화시설	서울특별시	
	외환은행본점		장을 건축	공동시설	서울특별시	
1972	KBS 방송청사		동기덕·박준영	방송통신시설	부산광역시	
1968	부산시청사		신오강·부산중앙빌딩사무소	업무시설	부산광역시	
1968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부	인명배·우창한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1966	정부종합청사		워시작정운·가적3층	업무시설		
1966	국립동양박물관	문화재관리국	강릉간·국보보관단	문화 및 접회시설	서울특별시	
1963	부산전통역사 실내경기		이광노·원정우·김상현·이준희·유승·노내재(무아건축)	문화시설	부산광역시	
	프랑스사관		길동업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1959	남산 국화역사당	정부	백운명·김수근·강병기·정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주택설계경기			국도주택·민족주택		
1958	유니스코 회관		개기령	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전국주택설계경기 및 건축시제 현상	보건사회부		공동주택·타운주택		
1956	우남회관		3신각길을·이진승(종합건축)의 날개로·자이김	문화·설·접회시설	서울특별시	
1954	남대문교회신축		기규재	종교시설	서울특별시	
	공군본부	공군본부	김경수	교정 및 군사시설		
1952	나·전우회·국군총본부		기광노	기념관	대·방역시	
1949	대구시청사		충남구사(부수별로 설계과 협작)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구광역시	
1947	인물전(대전역)	조선민족기술 학회	김태소	민야·나성		

\*공란은 「건축사」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 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방향

## 융합과 표준, 그리고 통합 (Convergence & Standards, and Integration)

○ 김 가 수 | 동아대학교 건설본부장  
동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Kim, Ki-soo

○ 김 양 곤 | 동아대학교 건설본부

by Kim, Yang-kon

설계와 시공은 모두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설계자의 의견이 시공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시공자의 좋은 제안이 설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관계없이 설계자의 의도와 열정이 베여있는 결과물로 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감독관, 관리자, 또는 CM 수행자, 건설사의 시공 기술자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장생산이 많은 건설공사에는 복잡한 공정과 직종들이 복합적으로 관계하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결함이 발생하기 쉬워 품질과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감리의 중요한 역할은 건축물의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지만 공사과정의 각 분야를 조율하며 설계의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건축물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의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주, 설계, 감리, 시공, 인·허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잡한 제도와 법규개선에만 치중해 왔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감리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령 500호를 맞이한 「건축사」지에 나타난 기사들을 통하여 각 시대별 감리제도에 대한 건축사들의 문제의식과 대책을 살펴보고,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산업 환경에서 양질의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 감리 제도변화와 「건축사」지의 반향

#### | 건축물 감리제도와 「건축사」지의 주요기사 변화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업과 건설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정립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기술의 발달, 경제규모의 성장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1950년대 전후복구사업을 시작으로 1960년대 건설산업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단지, 고속도로 등의 국가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제1차 국토건설종합 10개년 계획에 따른 국토정비사업,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그리고 1980년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각종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형성된 건설붐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후 1990년대에는 UR 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WTO체제와 OECD 가입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방형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보화 및 선진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과 같은 공사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공사관리와 더불어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sup>1)</sup>로서의 역할은 배제되어 왔다.

19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제정되었으나 공사감리에 대한 규정은 1963년 12월 16일 처음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제도

1)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화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축물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70년 1월 1일 및 1980년 1월 4일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에 의한 감리를 의무화하고, 건축사보를 통한 상주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해외진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1987년 10월 24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감리제도는 더욱 전문화되어 책임감리제도(1993년 6월 11일) 및 설계감리제도(1995년 1월 5일)의 도입과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세분화(2001년 1월 16일)가 이루어져 왔으며, 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1994년 1월 7일)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별도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건설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종합적 관리의

제도개선 문제를 주장하는 기사들이 증가하면서 공동 좌담회와 연구기사들을 통하여 문제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건축사」지에 나타난 경향들은 제도개선보다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건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BIM 등에 관한 정보성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건축사」지의 건축물 감리제도에 관한 주요기사 내용분석

1960년대 「건축사」지에는 감리제도에 대한 별다른 기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63년 건축법에 의해 감리제도는 확립되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의무화한 것은 1970년 1월 이후의 일로 1960년대 당시 건축계는 감리제도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축사」지에 감리제도에 관한 기사가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성보다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규제들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의무화 하는 형태로 감리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감리자가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를 변형하고 공사관리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배제되어 왔다. 또한 감리관련 규정은 건설산업의 성장과 고도화, 전문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완되면서 공사의 종류는 물론 발주형태 및 사업의 규모, 용도, 비용, 중요도 등에 따라 여러 법령에 의해 감리배치 및 감리원 자격기준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실정이다.**

필요성과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구성된 '건설제도 개혁 기획단'의 제안<sup>2)</sup>으로 기존의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96년 12월 30일)을 통하여 건설산업 관리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창간 500호를 맞이한 「건축사」지에 그동안 나타난 주요기사들의 경향을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먼저 「건축사」지가 창간된 1960년대는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회원의 작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정보전달 기능에 충실했고 있었다. 또한 당시 미흡하였던 건축사들의 직능과 사회적 역할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간간히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건축사 업무의 사회적 확립은 건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건축감리 업무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건설산업의 고도화 전문화가 시작되는 1980년대 「건축사」지에는 전문인으로써의 건축사 역할론이 대두하면서 건축감리의 역할과 책임문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엿보이는 것은 197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로 공사감리에 대한 필요성 및 법률적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연구기사가 소개되었다.

한편 상주공사 감리제도가 실시되었던 1980년 이후 「건축사」지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감리제도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공동주택 감리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이전과 같은 단순히 감리제도의 변화 등을 소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당시 감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86년 12월 이재옥의 '건축 공사 감리자의 책임한계'를 지적한 기사를 비롯해 1987년 1, 2, 3월까지 감리업무,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1987년 10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시공감리제를 비롯한 전문화된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업무간 분쟁해결과 감리책임 및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기사도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건축사」지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현행 감리제

2) 한미파슨스, Construction Management A to Z, 기문당, 2009

〈표 1〉 감리제도의 변화와 「건축사」지 관련기사

구분	시기	감리관련 제도의 변화	「건축사」지 감리제도 관련기사
기반구축	1950년대	○ 건설업법 제정 (1958. 3.1)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준 마련	
	1960년대	○ 건축법 제정 (1962. 1.20)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건축사법 제정 (1963.12.16) 공사감리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	1966년 「건축사」지 창간
산업화	1970년대	○ 건축법 개정 (1970.1.1)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신설] 일정규모 이상 건축사에 의한 감리 의무화	7304 이명환/공사감리 7305 이명환/공사감리① 7306 이명환/공사감리② 9310 이명환/공사감리③ 7905 김정식/감리업무와 문제점
	1980년대	○ 건축법 개정 (1980. 1. 4) 건축사보를 통한 상주공사 감리제도 신설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1987.10.24) 전문화된 감리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감리제도 도입	8105 공동주택의 감리수행에 대한 문제점 8606 강기세/감리업무에 대한 소고 8610 김영석/설계감리자와 공사시공자 8612 이재옥/건축공사의 감리자와 책임한계 8701 이재옥/건축공사의 감리자와 책임한계② 8702 강기세/설계감리분리에 대한 소고 8702 이재옥/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8703 이근/조달청의 공사감리기능의 성격 8707 이재옥/건축공사의 감리에 수반되는 분쟁의 조정제운영 실태
고도화·전문화	1990년대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993. 6.1) 일정규모 이상 공공공사 책임감리제도 도입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1994. 1.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감리 별도지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995. 1. 5) 공공의 이용편의와 안전, 공법 및 구조상 특별관리 대상을 설계감리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개정 (1996.12.30)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9108 건축규제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9112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921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9211 강석준/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제도 개선방안 9301 한종언/건축설계감리 용역사의 제도개선에 따른 재안 9311 건축감리의 방향설정(책임과 한계) 9410 김규태/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모색
	2000년대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2001. 1.16) 검축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세분화	0207 최찬환/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0301 이봉준/건축사특별감리원 제도란 기고를 읽고 0401 편집팀/설계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 0401 이종엽/설계감리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공청회를 듣고 0505 이종엽/설계감리 및 검사업무의 제도개선방향

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1년 8월 「건축규제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는 당시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더불어 건축사의 감리의무와 책임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보수문제가 거론되었다. 토론에 참여했었던 안길원 건축사는 이러한 문제가 비대해진 건설회사와의 힘겨루기로 공사감리에 따른 책임이 점점 건축사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

제를 치유하려는 생각보다 감리자인 건축사의 의무만 강화하고 책임만 확대하려는 의도”<sup>3)</sup>에 대해 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힘을 주장하였다. 1991년 12월 「건축사」지에 지상중계로 게재되었던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sup>4)</sup> 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11월 한국건축감리전문회사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던 “건설회사 시공감리제도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외국과 국내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와 운영에 따른 사례분석,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감리자의 역할분담과 시공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12월호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당시 기사의 주요내용은 감리업무의 개념 및 영역정립 및 적정보수율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제도에 대한 기사들과 함께 건축공사의 적법수행을 위한 감독과 감리제도의 개선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하였다. 1994년 10월 건축사 김규태 씨가 기고한 “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모색”이란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까지도 여전히 건축 감리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주목할 점은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의 연장 작업이며,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시공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sup>5)</sup>라며 설계디자인 감리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찍부터 디자인 감리제도가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제도에서 기술과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진 반면 건축디자인의 질적 보장을 위한 감리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1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의해 감리의 업무와 책임구분이 보다 세분화되고 설계 감리기술에 대한 진흥책 마련과 감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변해가는 건축환경에 따라 2002년 7월 최찬환 교수는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설계 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건축사협회 주최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좌담회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감리방안법 개정에 발을 맞추어 “앞으로 의원입법 등의 문제를 건축사협회가 주도해야”<sup>6)</sup>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건축감리 제도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에 머물렀지만 각 시도의 입장 차이에 따른 의견교환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원입법 등 자구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건축사」지가 감리제도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대한 여론조성 기능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04년 1월에는 감리기술진흥에 대한 의견개진과 함께 2005년 5월 이종엽 씨의 ‘설계, 감리 및 검사업무의 제도개선 방향’ 등 현안해결을 위한 기사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후는 감리제도에 대한 기사를 이 감소하면서 제도개선보다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내·외 건설공사와 감리제도

### | 국내감리제도와 감리방식별 업무범위

감리제도에 대한 규정은 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다. 감리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표2>에서와 같이 감리 대상에 따라 크게 건설공사, 설비공사, 설계에 대한 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 감리는 발주형태 및 용도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공사로 나누어져 각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설비공사 감리는 공종 및 규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설계감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와 전력시설공사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리관련 규정은 건설산업의 성장과 고도화, 전문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완되는 과정에서 공사의 종류는 물론 발주형태 및 사업의 규모, 용도, 비용, 중요도 등에 따라 여러 법령에 의해 감리배치 및 감리원 자격기준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정비와 개선은 물론 전문화된 감리 상호간의 조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감리제도와 관련된 각 법령에서는 공사감리를 해당 분야의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리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이 외에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감리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 해당업무는 <표3>과 같이 범위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감리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겸측감리, 설계감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설비공사의 감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 이외에 감리형태에 따른 감리업무의 수행지침 및 세부기준을 공사진행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국도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감리는 경제성, 설계안 및 공법, 공사비,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공사 감리는 설계도서 검토, 시공관리(공기, 설계변경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공사

3) 지상좌담,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건축사, 1991.8, pp.18~26

4) 지상증계, 건설공사·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건축사, 1991.12, pp. 72~81

5) 김규태, 건축감리의 올바른 방향모색, 건축사, 1994. 10, pp.20~21

6) 좌담, 설계·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 건축사, 2004. 01, pp. 64~83

(표 2) 감리의 구분

구 분	감리대상	감리주체	감리배치형태	관련법규
건설공사	민간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사	일반감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건축사보/ 감리전문회사소속 유 자격자	상주감리 (공사분야별 건축사보)
		○ 다중이용 건축물 <sup>7)</sup>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	상주감리 (건설기술 관리 법에 기준 배치)
	공동주택	○ 아파트 <sup>8)</sup>	건축사보/감리전문회 사 소속 유자격자	상주감리 (공사분야별 건축사보)
		○ 사업계획승인 대상 <sup>9)</sup> 으로 300세대 미만	감리전문회사/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자	상주감리 (총괄감리원/공사 분야별 감리원)
		○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감리전문회사	주택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관리법
		○ 기타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규정 적용	건축법 건축사법
	공공공사	○ 200억 이상의 22개 공동 <sup>10)</sup>	감리전문회사	전면책임감리
		○ 전면책임감리 비대상공사로서 교량, 터널, 등 발주청이 부분책 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감리전문회사	부분책임감리
		○ 책임감리 비대상공사로서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이 필요한 경우	감리전문회사	검증감리 시공감리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부분책임감리, 검증감리, 시공 감리, 전면책임감리 순으로 적정성을 검토		건설기술 관리법
설비공사	전력시설 공사	○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전력시설을 공사 등 <sup>12)</sup>	전기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상주감리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정보통신 공사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sup>13)</sup>	방송통신위원회 인정 감리원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	○ 연면적 30㎡ 제곱미터 이상 및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 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소방공사감리업 소속 감리원	상주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로서 연면적 연면적 1,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을 등 <sup>14)</sup>		일반감리
	건설공사	○ 공공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실시설계 등 <sup>15)</sup>	설계감리업 소속 감리원	건설기술 관리법
설계	전력시설 공사	○ 21층 이상이거나, 50,000㎡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을 등 <sup>16)</sup>	종합설계업 등록자/ 설계감리자	전력기술 관리법

7)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편의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1항 4호]

8)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은 공사비, 평균감리기간, 공사난이도에 따라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를 통해 별도 지정하고 있다.  
9)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  
의 승인)]

11) 공항건설공사, 관립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2항에 따른 감리 비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에 따른 설계감리대상용역

1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에 따른 설계감리대상 전력시설물

〈표 3〉 감리방식별 업무범위

구 분	감 리 업 무 범 위	
	일반감리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축물 및 대시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주감리
건축법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 감리	책임감리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행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고조불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 계획의 시도, 품질시행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공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지기준) 참조
	김축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참조
	설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참조
전력기술 관리법	전력시설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참조
정보통신 공사업법	정보통신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참조
건설 사업 관리	건설기술 관리법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건설사업 관리자	

관리를 중심으로 업무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설계 및 공사 단계 별 감리업무 이외에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건설공사 감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이 경우에는 설계감리업무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sup>17)</sup>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더불

어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1960년대 감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1970~80년대 중반 건축규모와 기간에 따른 건축사 중심의 감리제도를 거쳐 1980년대 후반 건설관리법 제정 이후 세분화, 전문화된 감리제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인 성장 중심의 건설사업 발전과 이를 둘러싼 여러 차례의 대형 사고들은 건설산업 전체에 대한 공사 중심의 기술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성보다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규제들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의무화 하는 형

17) 발주청은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8)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3조(업무범위) 2항[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25호]

태로 감리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이를 영향으로 건설산업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중심의 소명과 도시·환경적인 책임,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한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건설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사관리와 더불어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를 1996년 도입<sup>19)</sup>하였으나 적용 범위가 제한<sup>20)</sup>되어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 | 국외 건설공사 감리 제도

외국의 공사관리 및 감독 제도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감리업무 규정에 의한 방식과는 달리 시공자가 공사감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설계, 시공, 감독 등 공사관계자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책임에 따라 특정한 공사관리 분야보다는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건설사업관리와 업무조정자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CA(Construction Administration) 제도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에서와 같이 건축사가 공사관리 및 분야별 업무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 싱가폴에서와 같은 건축사 중심의 공사 감리제도를 통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에 의한 건설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미국의 감리제도의 특성

미국의 경우 느슨한 체계 안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엉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화하고 다른 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지식의 분업화 경향은 자신의 영역을 지켜 지적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자본주의적 산물임과 동시에 전제를 읽어내는 통합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대 역행적 업무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따라 건설 관련 규정에 있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관련법규(Uniform Building Code) 이외에는 주마다 자율적인 체계에 의하여 건설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건설 관계자별 해당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과 계약을 중심으로 공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은 시공

자 스스로가 지도록 하며, 시공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보증·보험제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공사관리는 대부분 건축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사에 의한 공사관리(Construction Administration) 및 감독(Observer)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계되는 전기, 기계, 설비 등 각 전문분야간의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직접적인 공사감독 또는 시공 감독(Construction Inspection) 대행기관을 통하여 검증과 자재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관의 승인을 거쳐 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영국의 감리제도의 특성

영국의 경우 판례법을 토대로 법이 발전해온 관계로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않다. 따라서 건축사의 법적인 위상보다는 건축사의 사회적인 위상, 건축사의 활동과 품행에 대하여 관련 조직에서 통제하는 규범을 통해 건설산업 그리고 건축사의 역할이 정해지고 있다. 영국은 법적체계와 사회구조 특성상 공사관리에 있어 법령에 의한 규제보다는 원칙적으로 시공자 스스로가 현장에서의 검증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Planning Supervisor)을 고용하여야 한다.

공사품질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해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 등록된 건축가로 하여금 현장감독원(Clerk of Work)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상태와 설계도서에 대한 비교, 검토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 기본적으로 공사관리전문회사로 하여금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공사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허가권자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Building Authority와 Building Regulation에 의한 법규 검토를 담당하는 Building Inspection Official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배치된 검사원(District Surveyor)에 의한 현장검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1996년 민간주체인 Approved Inspector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는 이 대행기관이 대부분의 감독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sup>22)</sup>

### 독일의 감리제도의 특성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규정된 업무범위인 건축물, 주거단지, 도시 관리분야에 참여하여 예술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이

19) 1996년 12월 30일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제26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조문 신설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범위를 지정

21) 박현표 외 9인, 건축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8.2

22) 김용성, 김역, 건축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11호, 2008.11

루어지는 현상설계 또는 감리 등의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건축관련 제도 및 건축물에 필요한 관련법규 기준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법규(Code)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사감리 대상공사 및 규모,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감독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가 지정된다.

건축사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감독 업무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분야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특히 시공자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건축사를 공사총책임자(Bauleiter)로 지정함으로써 공사진행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 수행토록 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직접적인 공사감독과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감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감독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민간업체의 감리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기도 한다.<sup>23)</sup>

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를 건축관리공무원 신분의 건축주사로 임명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와 더불어 공사감리자도 그 책임을 지게 된다.

### 싱가폴 감리제도의 특성

싱가폴의 감리제도의 특징은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회사의 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준공검사의 경우 정부에서 파견하는 감독관에 의해 철저히 확인 및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공사감리의 실질적 업무는 분야별 해당 전문가가 결정하게 되지만 총괄책임은 건축설계자가 지게 되며, 감리업체의 선정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선정하기도 하지만, 건축사가 전기, 기계, 구조 등의 감리업자 선정을 대행하기도 한다.<sup>25)</sup>

이상과 같이 건설산업을 둘러싼 국가별 감리제도의 특성은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차이점은 무관할 수 없지만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건축물을 산업이 아닌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국가별 감리제도의 특성은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차이점은 무관할 수 없지만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건축물을 산업이 아닌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 일본의 감리제도의 특성

일본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 7항 규정에 의해 '감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올바른 감리제도 확립을 위해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의 충실히 작성과 이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들간의 상호 이해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공사감리의 책임은 공사를 설계도서와 대조하고,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처럼 일본 감리제도는 설계의 연장업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해주는 감리기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건축사에 의해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감리종류 및 감리업무영역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리의 내용에 설계의도를 시공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하는 특장을 가지고 있다.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체적인 품질관리와 공사의 각 포인트에서 종점적으로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시공 중 검사와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일정

### 건설산업과 사회적 환경변화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국 건설산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추 산업으로 국가발전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자재 개발, 기술발전, 해외 건설시장 개척과 약진, 고도 플랜트 시장 확보 등 실로 눈부신 약진을 거듭해 왔지만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건설산업은 이미 창조산업, 디자인 산업을 지향하기 위한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지식, 정보의 독점이나 자기 독점이 곤란한 현대, 혹은 미래 사회에서 건축산업은 창의적 변용이 요구되고, 사회적 위상과 지위에 대한 형식만이 아니라 실력과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지적산업으로의 변화조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산업구조의 조망을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조선업의 경우 이미 화물선이나 컨테이너 운반선을 생산하면 제조방식에서 크루즈 유람선이나 고급요트 산업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조선산업의 미래가 제조산업에서 문화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적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증거로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외적 변화와 더불어 건축

23) 김예상 외 3인,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5.2

24) 伊尺陽一, '건축공사감리의 요점집', 章國社, 2009.4

25) 박환표 외 9인, 건축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8.2

계 내부에서도 건축설계 저작도구(Design Tool)의 변화, 건축물 대형화 복합화에 따른 업무의 분업화와 협업체계, 건설공사의 다양한 수행방식(Project Delivery) 등장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6)</sup>

## | 건축설계도구의 변화

약 15년 전 손으로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도면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역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CAD란 설계도구와 함께 건축설계에 Digital 기술이 접목되면서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세 속에 협업과 재생산이 자유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을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필요에 따라 각각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용이하게 되었지만 작업환경에 따른 업무 수행과 방법은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철저한 준비마저도 간과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지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설계 프로세스인 통합수행방식(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의 중심에는 지능형 객체정보 설계도구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대안으로 이전의 CAD에서 문제시되었던 정보의 활용과 부자연스러운 소통의 문제, 중복된 업무와 비효율적인 작업방식, 코디네이션 오류, 자재와 에너지의 낭비 등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BIM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CAD와 같이 선의 집합체로서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각의 객체에 정보를 부여하는 데 이터베이스 모델로서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 | 공사의 대형화와 복합화

산업기술의 발달과 도움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분업이 성행하여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출현하였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생겨나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각기 다른 장소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단계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가지 일에 투입되면서 프로젝트의 조정업무(Coordination)와 운영(Management)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주요업무는 얼마나 좋은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복잡하고 커질수록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조정(Coordination)과 운영(Management)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사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 공종들 간의 문제들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열 가지 이상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건축사들은 엔지니어로부터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충돌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 | 다양한 공사 수행방식

고대 건축가들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즉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법적 책임을 요구되었다. 이처럼 건축설계와 시공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과정이었으나 근대 산업사회에서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이 분화되고 오늘 날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3자 구도로 이루어지는 '설계시공 분리발주'(Design-Bid-Build, DBB)가 가장 전통적인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Systems, PDS)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중에서 설계시공 일괄발주(Design-Build, DB), 시공 책임사업관리(CM at Risk, CMR), 설계시공 유지관리(Design-Build-Maintain, DBM) 등으로 발주방식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안 발주방식 그리고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등의 출현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전과 다른 참여자간의 협업 형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27)</sup>

## | 감리제도의 개선방향

산업사회의 최전성기였던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 같은 학자들은 산업사회 이후 지식이 가치와 부를 창조하는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지식산업은 국가별,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OECD에서는 '지식을 창출,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계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

26) 김동현, '건축설계 업무 단계별 구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 건축과사회 제17호, 2009, p.175

27) 정명수, 'CM/ PM 업무와 건축사역할', 건축과사회 제17호, 2009, p.187

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지식산업의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7년 3월 지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담당과를 신설하고 8월에는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5월 서비스 산업의 정의, 범위, 및 지원 근거 등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었다.<sup>28)</sup>

이미 21세기의 건설산업은 제조산업에서 문화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작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지식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개편과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등 그 여파는 이미 건축영역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건축물은 첨단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기술의 집약체이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공정이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리 완성도 높은 설계도면과 도서를 바탕으로 시공하여도 시공현장 기능공들의 도면에 대한 이해오류, 시공의 시행착오, 디자인 의도와는 무관한 시공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결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설계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설계요원을 디자인 감리로 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가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 등을 검토 승인해야하며 최초 설계의 디자인 의도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모두 전문 확인인(Inspector)제도가 있어 설계자와 함께 감리를 진행하고 있어 이원화를 통해 '건축의도', '건축성능' 모두를 만족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즉 설계자가 감리하는 디자인 감리

적법시공을 위한 시공결과와 확인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시공검사는 허가권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방법의 검토 협의 및 시공의 감독업무는 건축사, 그리고 공사전반의 운영업무는 건축주에 의해 지정된 공사관리자를 원칙으로 각 분야 구성원간의 철저한 역할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로 디지털화 첨단화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련 엔지니어 분야와의 긴밀한 협업관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구체화된 업무관계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건축사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계업무에서 건축물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융합적(Convergent)인 사회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동반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된 건축정보 체계를 토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며 이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통합적(Integration)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 디자인감리의 융합적인 건축공정 관리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상호신뢰 속에 이루어진 양호한 건축디자인과 이에 따른 충실향한 설계도서의 작성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설계자와 허가권자간의 면밀한 검토, 나아가 설계자 시공자간의 설계도서에 대한 충분한 상호이해는 물론 공사관계자들의 충실향한 업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도,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제도가 있지만 설계자로서 감리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해당 건설 현장의 출입 조차도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공 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은 고사하고 검토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와 기술적 감리로 이원화하는 것이 건축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실천방법이라 생각된다.<sup>29)</sup>

나아가 프로젝트의 규모가 복잡하고 커진수록 설계단계에서의 핵심은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조정(Coordination)과 운영(Management)능력에 있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주요업무는 얼마나 좋은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 공종들 간의 문제들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과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물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와 참여조직을 포괄하여 융합(Convergence)하는 것으로 결국 건축사들의 CM/PM 업무역량 강화는 선제품질의 고도화 및 프로젝트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 표준화된 설계도서와 지식정보시스템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산업과는 달리 국내 건축설계 분야는 질적 문제에 있어서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왜곡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많은 설계도서가 한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 기능적, 비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생산함으로서 경쟁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창

28) 길동재, 권태원, '건축설계에서 건축사업부와 협력설계 업무와의 관계', 건축과사회 제17호, 2009, pp.180~185

"지식서비스 산업은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통신, 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온라인, 허브, 컨설팅, 디자인, R&D 등) 건축설계, 조경설계, 도목설계 및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29) 박인수, '공사별주 및 공사임수과 건축설계업무', 건축과사회 제17호, 2009, p.192

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sup>30)</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계도서는 건설공사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둔 설계도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감독관, 관리자, 또는 CM 수행자, 건설사의 시공 기술자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건축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분야의 작업자들은 각자의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목적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해 왔었지만 대부분 서로간의 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시스템은 건설사업의 많은 측면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로, 건축주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관리자들에게 비용, 에너지사용, 성능, 삼차원 시각화 등을 건축물 생애주기 측면에서 초기에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디자인과정에서 시공과 제조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과 조달계획을 초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프로젝트 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속한 조달, 건물자체와 사용자들에게 건물의 각종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여 건축주, 설계자로부터의 변경사항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Standardization)된 BIM시스템은 디자인 협력자들인 구조, 설비, 등 용도별 재료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업무체계가 가능하고 시공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건설사와 제조업체와의 협업시스템이 가능하여 건물의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sup>31)</sup>

## | 통합적인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외국의 건설공사 제도 및 각종 시스템이 기본 원칙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제도와 복잡한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차이점은 있으나 외국의 경우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건축물을 산업이 아닌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위법내지 부실 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모든 공사는 시공자 책임 하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성보다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규제들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의무화 하는 형태로 감리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감리자가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공사관리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배제되어 왔다. 또한 감리관련 규정은 건설 산업의 성장과 고도화, 전문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완되면서 공사의 종류는 물론 발주형태 및 사업의 규모, 용도, 비용, 중요도 등에 따라 여러 법령에 의해 감리배치 및 감리원 자격기준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정비와 개선은 물론 전문화된 감리 상호간의 조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는 취지와 공사관리인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적합여부(공공적인 감시기능) 등으로 감리업무는 세분화되고 있으나 내용의 경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감리자의 책임이 과중하게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감리업무는 발주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감리자의 역할과 내용이 동일해야 하지만 발주기관, 건물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단일용도 건물에는 동일 감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발주주체에 편의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를 통합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전문 감리인력의 육성방안 및 자격강화 감리업체의 선정방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sup>32)</sup>

또한 공사감독의 경우 우리나라는 감독권자(인허가권자)가 감독하지 않고 겸사 및 감독 업무를 감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적법시공을 위한 시공결과의 확인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시공검사는 허가권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방법의 검토 협의 및 시공의 감독업무는 건축사, 그리고 공사전반의 운영업무는 건축주에 의해 지정된 공사관리자를 원칙으로 각 분야 구성원간의 철저한 역할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sup>33)</sup> ■

30) 전한송,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건축가, 20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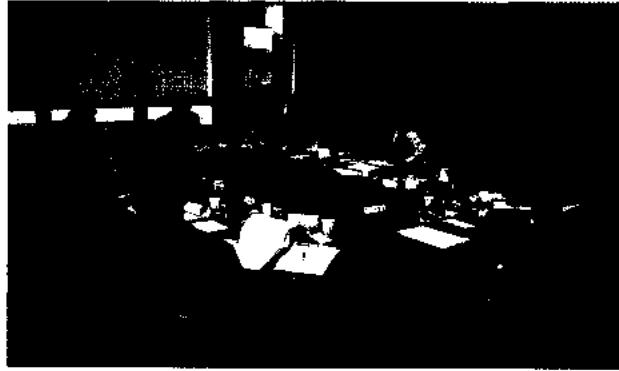
31) Mark Reichardt, '융합과 표준(Convergence and Standards)', The BIM 장간호, 2008.07, pp.50-51(32) 박환표, 신은영,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9호 2005.9

33) 김용성, 김억,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권 11호 2008.11

## ‘건축 설계경기 및 감리제도의 나아갈 길’

일시 | 2010. 11. 17(수)

장소 | 건축사화관 8층 임원실



### Part 1. 건축 설계경기

**최동규 :** 반갑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건축사지 500호 특집 좌담회’로 ‘건축설계경기 및 감리제도에 대한 좌담회’입니다. 건축사지가 이번 12월에 500호가 됩니다. 오늘 좌담회는 유인물에 있는 원고에 대해 강원대 박경립 교수(존칭 생략)와 동아대학교 김기수 교수가 설계경기와 감리제도에 대해 발표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좌담회를 위해 강원대 박경립 교수와 동아대학교 김기수 교수가 건축 설계경기와 감리제도에 대해서 건축사지에 게재했던 40여 년간의 자료를 읽어보시고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그럼 박경립 교수 먼저 발표를 해주십시오.

**박경립 :** 건축 설계경기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것을 잠깐 들여다 볼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숙제가 좀 베거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외국의 건축설계경기에 관련해서 나온 칼럼이나 책들도 살펴보니 역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건축설계경기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는 다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축설계경기를 통해본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선의 시대적 적정성과 심사

의 검증성 문제가 어디나 주제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작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좋은 작품이 뽑혔다는 것이 진짜 실현 가능한가? 아시다시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경우 기술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어려운 과정과 무리한 시도 때문에 또 기술적 축적이 되어서 성공을하게 됩니다.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정했을 때 드는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점이 발주처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국제현상으로 돌리는 순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고 전혀 다른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국제현상의 묘미중의 하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신진 건축가의 등용이 설계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심사과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당선 작가의 권리, 건축주 요구 사항의 적절성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뽑아 놓고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을 자제했는데, 외국도 결국 그런 일들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 읽어본 결과 역시 문제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외국이 갖고 있는 것이나 같은 양상인데, 정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사위원의 권위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선정되면,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 할 때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가도 건축주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단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건축 설계경기에 대한 문제는 1950년대 60년대 다 일어났어요. 1972년에 3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경기 어떻게 할 건가 규칙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축설계경기 발생 시 건축주에 자문하는 등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만들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3년도 그 UIA 현상옹모에 따라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규정 제정할 것을 빌의하고 계속적으로 노력 한 것이 72년에… 9년 걸려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가가 내세운 것은 '전통을 이어라'하는 것이 강력한 주제였습니다. 60년대의 주제에는 '전통의 부활'이었습니다. 전통에 대하여 조금은 국수적인 의미에서 형태에 집착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서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증권거래소, 은행, 종합전시장, 제2정부 청사 등등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놀어선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컴퓨터에, 거의 다 공공기관들이었고… 그다음에 주제가 되었던 것이 역시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 같은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관과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 사회로 되어가고 있구나… 일동 당선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이 심사과정이 공정했다고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은 공정 했는데, 시작부터가 불공정 거래가 시작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불신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보상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설계권리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명쾌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규정이 위반 됐을 때나 설계를 다시 했을 때는 설계 다시 한 거에 대해서 비용지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선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참가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80년대 들어서니까 도시차원으로 설계경기가 비뀌더라고요. 을지로 2가 재개발, 목동 신시가지 개발 등등. 그래서 건축에서 도시로 확장되어, '아 이게 우리나라가 설계경기만 봐도 움직임을 대충 알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88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역시 문화적 기념비적 설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역시 이때도 주제는 항상 '전통의 현대화'라는 것이 달려있었습니다.

90년 들어서니까 박물관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문화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것들과 설계경기들이 확 늘어나고, 역시 그 자체와 관련해서 골고루 잘사는 지방에 문화시설들, 즉 생활편리 문화시설들이 건축설계경기가 되면서 이제 양상이 틀려집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과 자체가 하는 것과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주제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연환경과의 조화, 그런 네트워크의 실현, 도시와 자연의 제고, 자연 친화, 인간중심, 환경 친화적 생태, 환경 친화적 건축물 부여 등등. 이렇게 환경친화적이란 단어와 지속가능(Sustainability)에 대한 것들이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스마트빌딩. 그런 클리너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IT산업들이 합해져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로 그리면서 주제어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대적 설계경기의 출발은 영국 건축학회가 1872년에 제정한 설계경기규칙이 근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UIA 국제 설계 경기 기준이 1956년에 정립됩니다. 그다음에 1978년에 개정이 되고… 한국건축설계경기 기준 제정은 1972년에 되고, 84년에 개정되고, 99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 사회로 되어가고 있구나… 일

많은 프레젠테이션, 너무나 많은 모델은 획기적으로 줄여서 아이디어 설계경기를 많이 활용하고… 기술적 실현을 위해서 시스템을 좀 더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공공발주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발주도 공공발주를 자꾸 닮아가서 건축사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공공발주가 변화해야 민간발주도 서서히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최동규 :** 우리는 사실 대형 공공경기에 참여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박 교수의 설명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담회로 진입하기 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참여하시면서 현재 기 발췌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죄담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그것도 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용미, 전영철, 조익수 건축사 세 분 중에 한분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영철 :**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 이란 제목을 가지고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발주제도의 개선점. 그 발주제도 중에서 현상공모전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 셋이 가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아우리(AURI,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염철호 박사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끝금 진 우리 박 교수가 이야기하신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공정해야 된다는 공정성하고, 두 번째는 심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투명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심사위원에 의한 정확한 심사의 개념인데, 정확한 심사의 개념 속에 심사위원의 선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부녀회관의 그 부녀자분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조를 하는 사람이나 설비를 하는 사람들,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인 심사는 이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그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계획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토론에 의해 해야 되고, 심사위원은 사전에 공개 돼야 되고, 심사결과도 철저하게 공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미** :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건축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도개선 해달라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발주제도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생겼지만 발주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국토부에서 문제점만 알면 고쳐주겠지'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끊임없이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일선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달청 건축담당자들과 토론했을 때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상설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왜 고쳐지기가 어려운지 조달청과 만나서 하심단회하게 이야기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조달청이 가장 큰 발주기관이잖아요?

**박경립** : 그런데 이 발주제도 정리하는 것을 대통령이 하시나요?

**전영철** : 모르시지요. 목표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으로 잡아놓고, 이 품격이 자꾸 월등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발주제도다. 이렇게 물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제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 공모전 설계공모전에 대한 것도 그 속의 대안들입니다. 지금 말씀 느꼈던 세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설계 공모전에 래벨에 따라서, 방금 전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출물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간이 공모전의 형태를 좀 많이 짊어넣는 것까지 제안을 해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규** : 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했습니다. 뭐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조익수 건축사부터 본인이 계시는 사무실은 공공건축 설계경기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을 텐데, 또 아예 참여도 못하는 사무실의 문제점하고 다른 텐데 조익수 건축사가 생각하는 공공건축 설계경기 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부터 위계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조익수** : 우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나눴었던 그 설계경기 3단체에서 제안 했었던 내용들을 말씀 드리죠. 우선 첫 번째, 박경립 교수

가 말씀하셨듯이 심사에 대한 신뢰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설계경기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심사위원은 공정성에 참여자는 결과를 받아드리는 자세에 상호 노력함이 문제해결의 우선 과제로 봅니다.



조익수 건축사 (토론자)

1 (주)영인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사에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UIA의 기준에서도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선문가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학교수들보다는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참여하는 전문가 인원수도 15명에서 UIA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은 7명 이내의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심사위원 중 설계계획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계획분야가 아닌 공무원, 엔지니어링 분야의 심사 참여를 최소화 하여 주로 계획이나 디자인의 평가에 의해 심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경기운영규정을 바꾸면서 턴키설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전체심사위원의 반 이상을 치여할 수 있게끔 규정을 이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인원수와 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가장 현안적으로 남겨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당일 새벽 또는 전날 저녁에 위촉, 다음날 당일의 설계안 비교 검토와 평가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는 설계안을 구성,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출하는 설계자의 노력에 비해 대상 건립부지의 현장 조건 검증 없이 도면에의 비교분석만으로는 충실했 평가로 볼 수 없어 좀 더 심사의 평가기간을 늘리거나 사전에 심사위원을 위촉 평가전에 충분한 설계안 평가기간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설계지침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주처가 요구하고 있는 건립 목적과 방향이 명쾌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결국 심사위원들 개인적 판단에 의해 발주청의 의도와 달라 선정되기도 하여 설계지침의 구체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UIA규정에서도 있듯이 한 사람의 PM이 프로젝트가 처음 선정 될 때부터 참여하여 지침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 스페이스 브로거램의 적정성 검토, 심사위원 구성하며,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다만 PM은 심사를 할 때만큼 심사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려면 이런 민간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통해서 설계경기의 공정은 확보 되리라 봅니다.

**전영철** : 가기에 덧붙여서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지침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자침서를 안보고 자기 임의로 판단해

서, 지침 무시하고 해서, 거꾸로 시행자 측에서 작품을 관리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도 지적이 되었죠.

**최동규**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 말씀하신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침이니 뭐니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 회복은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 되었을 때부터지요. 심사위원을 모르면 그것부터 신뢰가 없게 되지요. 심사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아 그 사람들 참 괜찮다' 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신뢰는 과정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뢰회복 말고 또 말씀하실 것 또 있으세요?

**조익수** : 좋은 제도라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설계경기의 규정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석용되려면 현재와 같이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거나 건축 기본법에서 설계경기를 제도적으로 규정, 운영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근래에 와서 설계경기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심사위원은 공정성에, 참여자는 결과를 받아드리는 자체에 상호 노력함이 문제해결의 우선과제로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들어가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에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UIA의 기준에서도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학 교수들보다는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참여하는 전문가 인원수도 15명에서 UIA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은 7명 이내의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심사위원 중 설계계획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계획분야가 아닌 공무원, 엔지니어링 분야의 심사 참여를 최소화 하여 주로 계획이나 디자인의 평가에 의해 심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최동규** : 알겠습니다. 설계경기 전 과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강제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

**박경립** : 지금 조 건축사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설계지침의 명확성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설계지침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을 정부가 주문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심사위원을 처음에 미리 선정하고 공개하고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가는 지침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지침의 적절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하는 사람도 심사하는 사람도 나중에 받는 사람도 서로 도움이 되는데, 빌주처의 입장에 서서 전체로서의 도시와 건축, 시민과 건축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얼마만큼 돋보이게 하는 것인가만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반발하는 경우도 꽤 많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침이 사실은 간단한 항목이 아니고 지침을 작성하는 것에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초기부터의 참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미** : 지금 박경립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가 지침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박물관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에 대한 현상설계와 주민센터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현상설계의 목표가 다른데, 설계경기지침을 보면 상징성을 주문하지 않는 지침은 없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앞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설계지침을 만들다 보니 지침이 일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태반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제출물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CG조감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감도 대신 간단한 모형으로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문가가 지침 만들 때 참여하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고 제출물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철** :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내면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계획을 보고, 디자인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부 공간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하는 방향이

내부 공간계획은 뭐 어차피 수정 될 것인가 하고 전혀 거의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외부 공간계획, 배치계획과 건축문화 외형 디자인 정도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심사 시간 자체가 워낙 짧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한 3시간 내에 대부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내부 공간계획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고민해서 만든 내부 공간계획 같은 것이 별로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심사 방법인가. 그래서 아까 대부분 우린 OX 심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 몇 작품 떨어뜨립시다. 그래서 OX 심사를 하거나 그러는데 심사 방법도 각 공간마다. 외부 공간이면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이면 내부 공간, 또 외형 디자인이면 외형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에 의한 심사방법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미** : 그런데 그것은 심사위원의 수준문제입니다.

**최동규** : 공공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계의 큰 잔치인데 대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상 선정되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내는 그룹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수 건

축사의 생각도 말해보시죠?



박인수 건축사 (토론자)

|주파크이조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우를 보니, 지금 사무실을 개업해서 한 1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된 경우죠. 지금까지 현상설계 전적을 굳이 말하자면, 32선 28패 4승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상 프로젝트가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절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상설계를 안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도 없어지니, 이게 안할 수 도 없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시간이 좀 지나, 최근 들어서는, 현상설계의 심사 혹은 설계지침서 기준심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나와 계시는 김용미 건축사하고 지침서 심의도 했는데요. 조금 전 박경립 교수가 너무너무 정리를 짚해 주셔서 그 내용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초기에서, 설계 지침서가 얼마나 중요하나에 대해 조금 더 확 와 달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하는 현상설계가 있었고요. 지침서 심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굉장히 큰 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리노베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기준 구조나, 기준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 진행하면서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상황 발생 되는 게 설계자한테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적어도 예산 관련해서 설계자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적어도 이런 유의 현상을 하기 전에 리노베이션을 할 만한 건물인지 아닌지 정도는 먼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부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행하게 된 것 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설계자가 설계를 하게 될 때, 설계범위가 매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자는 그 업무 범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썩 뛰었죠. 이런 게 어디 있나고. 하지만, 이미 일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리노베이션 할 만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하부에 인프라에 대한 현황도 부정확했어요. 그래도 그건 예산은 또 잡아놨다고 합니다. 다행히 2천만 원. 그런데 그게 2천만 원이 될지 4천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설계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 지침 항목 중에 하나가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또,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사실은 많은 공공에서 발주할 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국내에 쓸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좋다는 것 그저 집에 넣은 거고, 다 외국 기

준을 가져다 쓰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하나도 안 봤아요. 물론 몇몇 아이템에 대해업체마다 일부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표준화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결국 알만 많아지고, 평가도 못하고,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BM 이죠. 이것도 기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요. 지침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침서에 있으니, 관련 업체 끼고 그냥 또 그걸 한다고 머리를 둘러 쌔매고 하고 있는 거죠.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현상설계에서 이 지침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빌주자는 지침서를 내주고 손을 떼도 되요. 그 만큼 정확하게 써져야 한다는 거죠. 빌주처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 합니다.

추가적으로, 빙금 전 그 리노베이션 현상은 리노베이션이므로 분명히 저희 건축사 설계요율에는 설계비에 20%를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상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국토해양부 고시에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그러면 자기네 예산심의에서 잘린답니다. 그럼 우리는 공공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현상설계에서 중요한 지침서가 발수위주로 기획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이 지침서를民間에서 작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일 지침서가 잘못되어, 공공에서民间이 만든 지침서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기획과 지침서가 모두 공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民间에서 운영한다면, 사실 설계자 대신 기획 시부터 많은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최동규 :** 리노베이션 건만 말씀하는데요. 다른 공공설계경기 혹은 참여했던 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인수 :** 최근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프로젝트만 이야기했나 봅니다. 큰 이야기 보다 조금 작게, 실질적인 이야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현상설계의 관련 '불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심사과정'을 토명하고, '지침 토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를 느끼진 못하고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불신'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믿을 만하나 그렇지 못하나에서 믿을 수 없을 때도 불신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형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것은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최근에 어떤 건축사분을 인터뷰 해봤더니, 어떤 현상설계 당선이 되었는데… 100원에 짓는 건물이라고 가정해두죠. 그런데 설계 당시에 없었던 해수인입장치를 당선 후 설계 과정 중에 집어넣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상황은 현상설계 당시의 예산에 안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산을 벌주처가 빠트린 거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된데요. 실제로 업무에서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한 후에 공공에서 오히려 설계자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이거 좀 넣어 달라” 그런데 설계자는 한국 계약상 ‘을’이 많아요. 끝까지 안 넣어주면 일이 진행 안 되고, 또 관련된 사람이 다치게 되고, 넣자니 이제 건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결국 공공도 힘들고, 설계자도 힘들고, 또 갑작스런 변화에 설계도, 또 시공도 어렵고,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이용자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통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M, PM 등이 그들인데요. 이들은 결국 벌주처를 대신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 업무가 있어요. 하지만 건축주(벌주), 설계자, 시공자 이 세 명의 관계만 건설하고, 신뢰가 있다면,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은 전혀 없어도 되거든요.

국내의 건축 벌주제도를 살펴보면, 국제기준과 다른 크게 다른 것 이 하나 있어요. 설계자와 시공자는 잘못할 경우, 대단히 많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비해 건축주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의 구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벌주에서 잘못된 내용은 궁색하게도 설계변경을 사정해서 얻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죄송하게도 빈번하게 외국의 사례를 드는데 국외의 선진국들의 모든 인용하시는 책들, 글들을 보면 벌주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국내 여러 유수의 현상설계들을 보면 상당히 불신할 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투명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 이전에 공공건축의 생산과정이 먼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침서와 심사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설계경기 하는 동안 이 지침서는 거의 성경책과 다름없는 건데 대충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동규** : 준비도 안 된 채 벌주 된 것을 이야기하신 거네요?

**오섬훈** : 박경립 교수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설계경기가 갖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현상설계로 벌주했지만, 지금은 중요한 몇몇 프로젝트 외에는 일종의 벌주 수단의 하나로써 현상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1등만 능사가 아니고 2, 3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경기라고 하는 게 좋은 작품을 뽑는 것 못지않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동용문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현상설계도 있긴 하지만 또 PQ로도 시행한다는 말이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국제현상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뽑아야 되겠지

만,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은 공정성 등의 심사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 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등 외의 우수작들에도 참여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1등을 하면, 마스터플랜과 50%의 빌딩 설계권을 주고 2등하면 30%주고, 3등하면 20%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또 작은 규모의 시설들 예를 들어 동사무소신축설계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의 적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서울시에서 경관건축가를 뽑았는데, 이같은 그룹들을 뽑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2등, 3등이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1등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색깔의 2, 3등 안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건축문화도 다양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뭐 1등 아니면 꽁이더. 그런 게임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열정이 얼마나 생길까요. 몇 번 현상 끝에 스스로 자조적이 되어서 여러 모로 피폐해지고… 급기야는 좋은 사람들은 딴 곳으로 다 가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온 저런 사람들이 학교로 도망가는 이유들이 뭘까. 왜 건축설계를 하겠다는 사람이 학교로 왜 도망을 가냐는 이야기죠. 심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학교에서 할 역할과 건축실무에서 할 역할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너무 척박하니까 그런 토양들을 김일환 과장이 계시긴 하지만 일단 정책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그러니까 당선자 외에 2, 3, 4등에게도 계속 당선 될 때까지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요.

**박인수** : 제가 미국의 어느 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일정 규모 등 어떤 조건하에 공공 프로젝트는 주공이나 그런데서 쓰는 방법이긴 한데 – 한 사람이 중복돼 계속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성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회의 균등성…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당선된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당선 된다는 것’ 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복 당선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설계를 잘하시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의 비율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상식적으로 20%~3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 때 지어진 건물을 심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서류상 내가 무슨 건물 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다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경립** : 오섬훈 건축사가 말씀하셨던 2, 3등 안을 반영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등 안이 항상 무난한 걸로 끝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떨어지고도 작품이 이슈가 되어서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는 그럴 기회조차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김용미** : 그런데 그 설계경기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경기는 현대미술관 현상설계 같은,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건축물에까지 이슈가 되는 디자인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면 몇 장과 간단한 스케치와 설명서만 제출하는 제안서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처럼 현상설계하면 CG조감도, 투시도가 들어간 패널 여러 장에 보고서, 도면집까지 다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3, 4억짜리하고 20억짜리하고 같은 제출물을 내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작은 현상설계도 구조, 투목, 기계, 소방, 전기 계획까지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계경기를 이원화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은 이슈가 되는 디자인이 뽑힐 수 있도록 설계경기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일상적인 건물은 간단한 제안서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건축사 (토론자)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용우 :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박경립 교수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일목 요연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UIA권고안하고 국내 안하고 다른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 설계경기 참가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진입제한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UIA권고안에서는 건축사그룹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PQ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걸러지니까, PQ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사가 규모에 따라 설계 못 할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건물이나 특수한 용도의 건물도 스터디하면 얼마든지 기획하고 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특히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지어진 유명건축물 중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건물을 설계해 본 사람만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건물을 대량 생산하겠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되겠지만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데, 건축사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意义上 문제를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가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UIA 권고안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하고 우리가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심사위원구성을 보면,

건축 전문가, 그것도 계획 층 두 명, 구조 한명 내지 두 명, 그 다음에 시공… 그 외 설비, 전기, 토목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대단지가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토목이 차지하는 역할, 부대토목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 건물 전체에 영향을 적게 미치거든요. 그래도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심사에 참석을 해보면, 누군가가 앞장 서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의 정서상 거기에 대놓고 면박을 한다는 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표를 하는 게 이날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흘러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심사가 공정하게 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심사자체의 구성, 심사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심사 과정 그 다음에 심사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심사 의견이 뭔지 하는 것까지도 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일단은 석나라하게 다 느려나 있는 상황이나까요. 어떤 자자체를 보면 아예 심사 과정을 비디오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용미 건축사가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CG를 없애야 한다”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요즘 공공건물 중에 당선된 안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대형 커튼월을 사용을 합니다. CG를 그려보면 커튼월만큼 효과가 나는 건물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돌을 붙인다면 뭐 다른 재료를 썼을 때는 우선 반사도 안 되고, 광택도 안 나오고 고려니까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경을 CG를 했을 때도 건물이 다 숙여 보이거든요. 그런데 커튼월로 해놓으면 효과가 참 잘납니다. 우선은 눈에 띠는 그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투시도상이나 조감도상에서는 CG로 아주 멋있게 되어있는데, 지어놓으면 다른 건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뭐 강북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구청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어떻게 저런 건물이 저렇게 서 있을까 하는 그런 가슴 답답한 경우를 느끼게 되는 게 다 그런 연유라고 봅니다. 국제현상 작품집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 제출불이 훨씬 단순해요. 그냥 그래픽위주로 가고, 단지 색채를 표현할 때도 질감을 넣는 게 아니라면으로 처리 하든지 2차원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공간이라든가 그 건축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 표현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CG로 해서 현란하게, 그냥… 어떤 상품을 고르듯이, 눈에 띠는 상품이나 고르는 것 같이 그런 식의 현상설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최동규** :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있는 자민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란 거죠?

**이용우**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 현상설계안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목표가 뭐냐 하는 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현상설계란 완성된 설계도서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라는 작품이 될 가능성

을 보고 뽑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실비, 전기라든가 각종 가능적으로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 단순한 칸막이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실시설계 시에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배제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채점표에 의해 심사할 경우 점수 항목 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간상 일정이 점수로 표기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변화될 수 없고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는 건물 자체도 좀 나아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요즘 세워지는 현상설계 당선작들이 낭선안을 보면 굉장히 멋있고 내용도 있고 공간도 좋고 이렇다는 인상이 드는데, 세워 진걸 보면 당선작하고 많이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원인중 하나가 설계자가 현상설계에 당선해서 안을 제출하고서는 공사에 관여를 못하고 감리를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물은 설계자가 공사단계에서 감리단계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설계 의도가 시공과정에 정확히 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설계경기 하는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중요한 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제도 보완이 되고 법적으로 강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여간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양순** : 현상에서 A지자체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B자자체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어디에 세워놔도 결국은 똑같은 특성 없는 그런 건물들이 계속 선정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이야기한 '한국건축설계경기원'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조달청에서는 공시 발주단 하고,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경기원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관반민이 되도 좋고, 아니면 민간단체로 해서 국가에서 공인하고, 비용을 지원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및 공기업은 현상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기락을 잡아야 합니다. 민간현상도 의뢰 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세부적으로 전부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부 건축사를 보면, 우리 건축사들은 불공정한 설계경기에 전부 참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거죠. 지금이라도 건축단체가 통합되고 윤리위원회가 종전처럼 권위를 갖는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보이콧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건축을 마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김용미** : 설계경기전당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국건위 토

론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 기구를 만드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당 부분 건축 발주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바꾸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걸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은 지금 현재 심사위원 비공개입니다. 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입니다. 왜 낙선했는지 더욱 알 수가 없죠. 또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예요. 심사위원이 11명이면 건축계획 교수는 기껏 해야 2~3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조, 시공, 토목, 설비, 전기 분야 교수들이 들어가는지 설계경기도 아니고 계획안을 심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술분야 교수를 많이 배정하는 건지, 설계경기를 탄기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조달청은 설계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은 설계경기를 했다가 능력 없는 건축사가 그림만 그럴 듯하게 해서 당선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골치 아프지 않느냐 오히려 PQ입찰로 하면 실적 있는 업체가 당선되니까 안전하다는 논리를 폄시느라 고요. 자자체에서 조달청에 설계 발주를 의뢰하면 조달청은 설계경기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의 PQ입찰 아니면 가격입찰로 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PQ입찰 시 참여기술자 정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의 특이성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준이에요. 참여 기술자의 점수 기준을 보면 건축기사가 있어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요. 건축사이면서 기사가 없으면 만년 초급입니다. 그런데 5년째 건축학과 나온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기사 따려고 안하거든요? 기사는 공학도들이 취득하는 거지 우리가 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설계발주를 PQ입찰로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 PQ로 많이 따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일단 우리기 어떻게든 조달청하고 대화의 창구를 뚫어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이 변해야 자자체가 변하고 그러다 보면 설계경기하는 환경도 좋아지겠죠.

**최동규** : 방법론을 제시해주셨네요.

**박인수** : 저희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다가 최근에 원인을 알았어요. 문제는 첫 번째로 국가 계약법에 있었어요. 말씀처럼, 왜 조달청에서 그러나 하면 건축 설계를 발주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건축설계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용역과 동일하게 발주되고 있는 것 이거든요. 현재로선 국계법에서 건축설계를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산업 등은 별도의 발주 방법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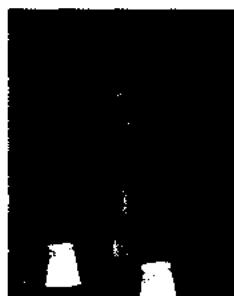
김용미 건축사 (토론자)

|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들어 내고 있는데 말이죠. 건축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해놓고서는… 지금 액션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내용은 건기법 별표에 기술자 평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가 없어요. 그러니 건축사는 평가에서 초급기술자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죠. 결국 PQ 등에서 건축사는 명원히 기술사를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몇 일 전 대한건축사협회 제3법제위원회에서 건축사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철** : 그게 이제 이번 건축사법이 통과가 되면, 김일환 과장이 오늘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려다가 국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행히 여기 참석해주셨는데, 건기법에 5년제의 졸업생들이 어떤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건축사가 또 기술사와 같은 동등한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같이 논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그동안 심사에도 참여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껏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김기수 교수가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수 (발표자)

|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김기수 : 가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서 심사 의뢰가 옵니다만, 저 같은 경우 근무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심사에 적극 참석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심사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우 건축사가 자직 하셨지만, 대부분의 설계 안들이 다 유사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다른 분들도 자직하셨지만, 당선안도 2등 3등 인들도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도면도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만, 어느 안이 당선이 되든지 관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심사하기가 너무 곤란한 겁니다. 이를 분별 할 수 있는 것이 지침서인데 지침 자체가 두루뭉실하고 각 계획안들의 수준들은 이미 높아져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누군가와 서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거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부지런히 설명하러 오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별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되는 안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안을 만드는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지침이 주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심사를 가보면 그게 안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심사하기가 굉장히

허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분이 리드를 하시면 훨씬 끌 수 밖에 없는 이유들도 대부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을 만들 때 현상설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현상설계를 하는 목적 중에 공통적인 것은 좋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때까지 어떤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설계지침을 만드는 기획단계에서, 다음에는 현상설계를 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성 서비스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 산다이에 있는 미디어테크 전자 도서관의 경우 21세기 건축을 선도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로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토토요가 당선이 되었는데 현상설계 전체를 코디네이트 하셨던 분이 이소자키였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에 이소자키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이 없었다면 이토토요와 같은 아이디어로서 당선되는 일도 없었고 지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분명 계획안에는 공사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기법의 문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구조기준을 뛰어넘는 구조적 해석까지 시도하였지만 그 목적에 맞추어서 현실까지 끌어주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소자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기획도 잘해야겠지만 그 기획들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철** :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짚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현상설계 자체가 좋은 건축물을 뽑기 위한 것도 되지만 정말 새로운 건축기가 탄생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으로 분명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제출된 작품으로 아까 이용우 건축사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마다가 꼭 오천 제곱미터 이상 똑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에 실적이 있는 자만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만 제곱미터로 한다든가. 이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탄생하려는 새로운 신인 건축가들을 탄생을 막는 대표적인 것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줘야 되겠다.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동규** : 오랫동안 말씀 하신 것을 지켜보셨는데, 우리 이용락 부회장, 예전에 그 국토부에 과장으로 계셨었고, 지금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때신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이용락** :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 이용락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개선방안이 객관성을 갖게 되고 설득력도 갖게 되어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평가 시 비전문가인 발주처 공무원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정도 너무 설계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발주기관은 발주기관대로 달성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발주기관의 이러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면 공무원을 포함한 발주기관은 작품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기능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주자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공사의 경우 예산 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분양성도 중요하고, 사용 중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직원들은 그동안 필요한 것들을 지침에 반영할 것이고, 지침에도 모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며 평가 시 직접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비전문가라 하여 평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지사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인수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현상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민간에서 제안된 안의 가치를 공공에서 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이 좋지 못하다면 뽑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침서에는 발주자가 어떤 가치기준이 필요하느냐고 기록되어야 하고, 심사에서는 그 가치에 부합되는 안을 선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안된 안들 중 최선의 안을 선정해야죠. 일단 그런 안을 선정했으면 잘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정해놓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다든지 결과가 역려 되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하면 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정했다는 것은 공공의 권한을民間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프로젝트가 개인프로젝트와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의 주인은 역시 이용자, 사용자입니다. 결국 건물, 발주자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나 권한, 실행을民間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과民間이 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설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을 공공

에서 민간건물처럼 컨트롤 한다는 것은 소위 공공건축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입니다.

**이용락 :**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공의 범주에 기계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조익수 :**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계의 평가는 건축설계 및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분 즉 건축계획 전문가로 제한하고 발주처의 공무원이나 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안을 결정하는 설계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되, 기술위원회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설계안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제출하여 평가자가 인식 하도록 하여 건축계획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당선토록 하여 설계단계에서 보완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우수한 설계안이 채택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발주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건축가의 입장에서만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저가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설계경기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동규 :** 이용락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은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식화된 결과물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 계실 때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것으로 용역의 성매가 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술심사에서 충분히 걸려질 '차 심사의 필터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일환 과장이 박성의 의견을 다 들으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환 :** 비록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설계경기나 감리와 같이 구체적인 발주 방법에 대하여는 저희 고보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과 업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나 내용에 대하여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심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건축계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일환 (토론자)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방금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안하신 사항들은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사항을 제시해주셨다고 봅니다.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의문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는데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가입니다. 개선방향이나 답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개선하는 접근방법이 부족한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단순히 문제만 제기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담당부서나 관련기관에 끊임 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계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제기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건축분야를 발주하는 분들이나 지자체에서 인·허가 하는 분들, 심지어 국토해양부내 건축설계경기 치침을 다루는 분들도 알고 보면 모두 건축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제기하신 문제점에 쉽게 공감하고 개선책에 동의하실 분들이라고 봅니다.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기하신 문제점이 단순히 건축계의 어려움이나 건축계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논리 개발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오늘 논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경기의 문제점을 몸으로 느끼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건축계 밖에 있는 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 밖에 있는 분들의 공감을 얻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도도 쉽게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논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 고담준론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지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양순** : 건축 외 분야의 기술사는 설계와 시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건축만 건축사는 설계하고 시공기술사는 시공을 하게 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를 하게 되어있죠. 이것은 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건축사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야죠. 반대로 말한다면 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서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설계경기원을 만들든 간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건축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건축 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관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지금 말씀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경기시스템은 엔지니어링법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건축사가 설계해놓고 왜 그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방금 전 조익수 건축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당선자에 대한 발주자의 거부권이 독일에는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심사제도를 보니까 독일은 애써서 뽑아 놓아도 건축주가 거부하면 못 짓습니다. 그 대신 일등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을 뿐이지 제도는 이미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다음에 과거 40년을 돌아보고 또 그사이에 시간이 짧깐 흘러서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새로 월고 쓰시는 기분으로 요약해보시지요.

**박경립** :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건축사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사가 독립기관이라 그려죠?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은 혼자해도 되고 100명을 데리고 해도 되고, 건축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것 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축사의 권리가 못 찾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것 이죠. 그것은 건설이 압도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FTA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건축도 앞으로 중요한 논제가 될 것 입니다. 우리만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UIA기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상호교환하게 될 시점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경기를 실시하던 초창기에는 진짜 좋은 작품들을 뽑는 잔치 같은 것이었는데, 점점 발주제도의 편의함 때문에 가벼워져 그것을 굳이 설계경기를 안 해도 될 것까지 하고, 공공발주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설계로 뽑은 것의 창작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설계를 거부는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보상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안 돼야 합니다. 만약 고치더라도 건축사와 충분한 협의 하에 해야 됩니다.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 했던 것의 중요 콘셉트가 훼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동규** : 제가 건축 3단체 설계경기운영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10몇 년 전부터 일본, 독일 자료를 직접 제가 구해보면서 좋은 제도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독일제도 같은 잘된 것을 차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되어있는 법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를테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이미 일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당선 시켰듯이 경기설계 참가자들이 신뢰할 만한 심사위원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면 설계경기가 축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뢰회복, 그것이 관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법이 잘 돼서 추장을 따르나요? 추장이 믿을 만하면 다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신뢰가 없으면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후쿠야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조익수 건축사가 말씀한 신뢰할 만한 과정, 신뢰할 만한 심사위원, 신뢰할 만한 지침.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나 말씀하셨고, 그다음 오성훈 건축사는 'Winner takes all'이라는 아바의 노래도 있지만,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 3, 4등에 대한 배려. 그래서 계속 2, 3, 4등도 피해보지 않고 1등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 진입장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조달청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했다가 또 그곳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따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액션플랜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김일환 과장은 더 이상 이러한 좌담회는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좋은 방법들을 실현하는지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설계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5분 쉬었다가 감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Part 2. 감리제도



**오성훈 :** 「건축사」지 500호의 시간동안  
드러난 감리제도—그 자체로서 또 설계  
와 연관해서—의 변화와 현재의 감리제  
도, 외국의 제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한 개선방향의 모색을 김기수 교  
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해의 공통  
바탕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관과 모색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이 개진되어 다시 한번 더 감리제도  
에 대한 인식과 설계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앞 단계에서 설계경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감리제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삼풍백화점 내지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제도가 급속히 규정되어 복합화 되어가는 것 같고요, 발주제도가 다양화 되면서 김기수 교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리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대강 김 교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설계 단계에서 시공을 거쳐서 어떤 의자들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 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BIM 같은 것으로 유저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연에서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 건축 사대가기준에 언급되어 있는 속칭 디자인감리라고 하는 사후관리 설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좌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논의를 좁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감리 제도가 설계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단 모두 강연에서의 김 교수의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설계에서 감리까지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췄

으면 싶어요. 그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개 공공속의 발주는 감리와 설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와 감리가 연속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계감리가 분리된 상황에서 설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죠. 우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현재 복합화된 대형 건물을 많이 다루시는 사무소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익수 :** 우선 근본적이지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리문제에 관한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문제에서의 완성도에 감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공건축물 발주제도에서는 설계와 감리는 별도의 영역으로 규정.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의 책임으로 당초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디자인을 달리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주처의 인의 변경 등 당초의 건축물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아 설계사의 저작권의 문제로 비하할 잠재적 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감리단계에서의 과도한 설계자의 의견이나 설계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질의로 설계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제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이유는 현재의 감리업무의 정의는 관련법령에의 적법성 확인, 기술적 안전 확인, 시공품질,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의 확인, 도면대로의 시공여부 등 주로 엔지니어링에 주목력을 두고 건축물의 건립 목적이나 기능 유지, 공간 구성의 적정성과 디자인 유소의 유지 등 계획 및 디자인 관점은 제외 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의 감리는 현재의 기술적 감리 이외에 디자인 감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발주조건에서 볼 때 감리비는 투여인력의 인원과 일수에 따른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과 달리 설계비는 공사비에의 비율로 산정함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의 외주비를 부담하면서도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설계자가 감리단계에서의 디자인감리를 보수내가 없이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감리업무에 디자인감리를 포함하여 일정 지분을 설계자에게 할당하거나 별도의 디자인감리에 대한 용역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 되리라 보며 설계자는 당초 설계자로서의 건축물의 가치 및 디자인 확보에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첫 번째 문제인 저작권의 문제도 확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미 :** 그 이야기를 긴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납품할 때 도면이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수준의 70%정도라고 봅니다. 30%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도면에 다 표현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석, 현장 사정에 맞는 재료선정과 적용방법, 색채신정 등 소위 속 드로잉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의 경우,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대부분 현상 소장하고, 시설과 담당하고 감리사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완성도가 이도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작가라도



민간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을 했을 때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감리자가 맡을 수 있는 것은 시공감리입니다. 현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설계디자인 분야까지 그 분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제도 하에서는 책임감리자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해서 설계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감리비 중 최소 20%만이라도 설계자에게 할애하여 설계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선훈** : 시공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 이야기를 하신 말처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저작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건물 수준을 높인다는 이야기인데, 대개 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설계도대로 충실히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감리 역할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관리는 해야 되요. 그리고 네 번째는 품질관리가 있고 안전 관리가 있고, 사실은 감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건축사법 감리나 작은 규모들은 그냥 도면과 최소한의 품질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관리 면들이 감리가 분리되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분리가 되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수긍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큰 규모나, 터키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복합화가 되어야 하니까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작은 건물들, 그것조차도 감리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짚어보고, 시공단계에서 소위 디자인감리 즉 사후관리 설계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를 어찌 봐야 할지 조금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용우**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선훈 건축사가 기준의 건축사 감리 하던 것 하고, 그리고 건기법에 의한 감리하고 요즘 와서 건기법안의 사업관리, CM에 관한 이야기하고 어떤 규모라든가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분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

면, 그동안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단순하다거나 소량이었던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고 비용이 작으니까 서로가 양해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안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보면 지금 거론된 감리방식의 업무와 거의 대등하게 다 해야 될 일을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민간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규모가 작은 공사의 감리를 맡아도 건기법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항들까지 다 요구하고는 합니다. 감리계약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계약서 내에 이게 상주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한 책임으로 다 지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비용 적게 주고 그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고 특히 출장해서는 그걸 다 못하니까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 주었던 것이지 책임에서 면책이 되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감리 제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사업관리 라든가 책임감리 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 건축사에게, 건축사가 가지고 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준거지 건축사가 애초부터 못 할 일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내용들 중에 CM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희도 CM하고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설계해주고 납품을 해주고 나면 건축사들의 기본 업무는 끝이 나야 되는데, 공사 끝날 때 까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공정회의에 꼭 불려가서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 서포트를 해줬어요. 비용은 물론 당연히 없죠. 그런 과정에서 CM측의 투입인원을 보면 현장에 딱 한명이나와서 상주를 하고, 그때 공정마다 필요할 때 마다 전기, 설비, 토목 기사들이 한명씩 나와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상주감리를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은 당연히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는 업무 자체가 뭐가 다른가, CM에서는 CM을 하면은 공사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주한테 이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감리제도를 보면 CM을 하든가 종합감리를 하던가, 건축사감리를 하던가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CM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건축사의 권한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사는 책임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임은 시공자가지고 설계자가 지는 거지 CM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책임 없이 어떻게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용미** : 건축사 사후설계관리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용역비가 건축사 대기기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안 해서 그렇지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이용하면 CM도 필요 없고 상주감리도 필요 없는 공사가 있을 수 있죠. CM이나 책임감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민간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제도잖아요. 건축물에 따라서는 CM이나 감리 다 필요 없이 그냥 설계자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사후설계관리업무로 할 수 있는 거죠.

**오선훈** : 현실을 보면, 설계와 감리를 통합 했을 때 많은 장점이 있음

에도 개인 민간 건축주들도 종종 분리발주를 시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대개 민간 개인 발주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감리를 통해서 설계내용을 검증하고 컨트롤하는 등 여러 가지 다목적이란 거죠.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협회에서도 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야겠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리의 국제적 정의에 대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수** :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이것도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상호간 못 믿어서. 방금 전 이용락 부회장이 말씀대로, 빌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보험에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그 보험보다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 시킬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도를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과 상관있는 복잡함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감리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리제도가 자꾸 지역적이고 상황논리 등에 의해서 들었다 놔다. 분리했다 붙였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감리라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님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협회에서도 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 내에서 회원들간 감리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야겠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리의 국제적 정의에 대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감리 업무를 저작권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건축계 내에선 이야기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때는 이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오히려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감리를 저작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란 측면, 또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를 배려한다는 측면 등이 그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건설 관련 분야가 특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건설산업에서 경제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 듯해요. 최근 논란이 되는 음원제작자와 음원 유통업자의 관계와 유사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으로는 하얀색 건물을 설계 했는데 검정색 건물로 지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원하지 않는 건물이 지어져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조금 법이 바뀌어서 색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게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면의 완성도란 측면인데요. 사실 설계가 100%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그런 설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설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의 모든 부분을 도면으로 그릴 수 없고, 그려진 것도, 시공사에서 SHOP DWG을 다시 그려 설계자승인을 받아야 하니, 설계 도면이 완벽하다는 것은 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설계자는 현장에서 SHOP DWG을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해서 디테일들을 전부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공자가 승인해서 알아서 하거나 현장 감리가 승인을 하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주변에 움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로 들면 작곡가가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하지 않고 지휘자한테 넘기게 되는데, 이 지휘자가 지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보면 악기가 안 맞거나 연주자의 자질 등 여러 문제로 연주에 애로가 생겨요. 실제로 그럼 반드시 작곡가랑 협의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연주곡들도 보면 지휘에 따라서 계속 번호가 바뀝니다. 조금씩 꺼곡이 바뀝니다. 연주를 위해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자가 설계한 것을 시공할 때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르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시공하시는 분이 그게 '아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사 실행 전 미리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추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먼저 말씀하신 일본처럼, 감리 이런 거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용우** : 방금 전 사후 설계감리,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박인수 건축사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설계가 왜 납품하는 단계에서 100% 완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건축주 입장에서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당연히 납품이 될 때는 설계가 100% 완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계가 납품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날 때 까지 계속 관리되어 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주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후설계관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은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항목0: 계획설계, 기획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럼 설

계 한 사람이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나. 물건을 사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따라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후설계라는 어떤 설계의 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의도에 따른 창작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자의 시공지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익수** :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 사후설계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준공내고 난 다음에….

**최동규** : 아니요, 설계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 감리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사후설계관리라는 법적 용어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우** : 저희가 납품하고 나서 그다음 현장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의 비용을 별도로 받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성훈** : 국건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된 바 있었다는데, 전영철 건축사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영철 건축사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회장단하고, 임원들 워크숍 때 한번 의견 수렴을 하면서 토론 끝에 투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시도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건축의 기본에 따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설계감리는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자체 결론이 난적이 있는데, 일단 사실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얘를 낳았는데, 너 얘를 잘 기울 수 없으니까 무조건 국가한테 위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사들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소형건축물을 설계 감리 분리를 해야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축사가 책임만 지고 감리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그냥 설

계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분리하자고 해서 감리비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작은 건축물을 감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정도의 감리만 했지 그야말로 안전관리를 하거나 품질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설계관리를 해주거나 뭐 이런 감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보다는 안 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죠, 일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그저께 월, 화요일날 주택공급과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의 황은경 박사가 발표를 한 내용이 건축물의 공사감리 법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법도 분법화 되어야 된다고 건축계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또 건축물의 공사 감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가 되게 된다면, 모든 주택 감리라든가 건기법이나 책임감리가 다 건축법에 있는 감리까지 해서 다 한군데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 훌륭없이 그 것은 아마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건축사들이 감리 전문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도 있고 안가지고 있는 건축사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감리를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축사들이라면, 정말 그 감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장비 구매라든가, 뭐 이런 별도의 노력 없이는 말로 내 몫이다 라고만 쟁기기에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용미**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감리를 위해서는 기제도 사야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는데, 그 감리는 검증이고 안전관리업무이고, 우리가 설계자로서 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 업무와는 좀 다릅니다.

**전영철** : 물론이죠. 그러니까 감리는 건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설계관리라고 하는 디자인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감리의 몫을 보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후설계관리는 많이 받아도 20%, 30%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의 몫도 건축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사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20%, 3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설계관리라고 하는 디자인감리라고 그 부분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건축사가 하면서 원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사 스스로가 원하기만 할 뿐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원하기만 해선 안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용우** : 규모를 갖춰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감리라던가, CM이라던가, 종합감리라던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현장조직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개인의 건축사사무소에

서 그런 일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 건축사사무소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작은 조직으로도 감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죠. 프로젝트에 있어서, 물론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협력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굳이 어떤 감리전문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전영철** : 제가 말씀 드린 게, 감리 전문회사를 같이 차리사는 게 아니고, 감리전문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시사무소에서도 감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감리전문회사들이 건축사에게 비전문적 집단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논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미** : 그것은 약간 초점이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 같으면 감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건축사가 실제 한 것을 건축사가 감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리는 PQ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따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오설훈** :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 감리가 분리된다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사후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니다. 사실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물론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와 이야기 한 것처럼 외국에서는 감리단계가 설계내용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통합해서 진행하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사는 감리의 범위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등의 이유가 설계, 감리의 분리에 빌미가 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설계, 감리가 분리되었을 때 사후설계단계에 설계자가 정밀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끼로 이야기를 전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법으로서는 설계 감리가 분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미 건축사가 말씀하신대로, 별도 비용 없이 자꾸 불리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서 자꾸 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후설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물론 그게 사후관리 설계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공공공사 감리인 철에 참여할 때 기점을 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설계자가 연속되게 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동규** : 공공건물을 법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려면 법적으로 찾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설계관리

니 뭐니 하는데,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계하는 행위를 마치 애를 낳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남에게 빼앗긴 거지요. 설계자가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예만 태우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계를 성실히 잘해서 고객이 만족하면 일은 두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는 자동으로 설계자에게 오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사전에 건축주를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생모가 마음에 안 드시면 계모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모가 마음에 들면 그냥 아이를 기르게 하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전교육이 없으면 감리도 하니의 아권이니 계속해서 감리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설계가 100%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고 설득합니다. 저는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건축주가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때 몇 점 받고 졸업했습니까? 물어봐요. 60점 이상이면 졸업 시킨다고 말하지요. 85점 이상은 우수생이고요.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빛대어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만평, 칠천오백 땅 되는 규모도 다 건축사가 건축사감리를 했어요. 건축사가 다 감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을지병원 설계를 했는데 워낙 건축주기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감리를 S설계에 맡겼는데, 감리가 하는 일을 보니 경찰의 일과 비슷하다군요. 경찰업무가 편하지요. 설계의 잘못만 들추어내면 되는 거지요. 한번은 감리가 부르기에 한번 갔지만, 다음부터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르는 아이를 왜 내가 둘보아야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렇게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할 때도 사실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어쨌든 공공건물 감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소원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급 건축가들이 모조리 연명해서 헌법소원 한 번 넣만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여자 분이 고속도로로 오토바이 못 타게 다니게 한다고 헌법소원 낸 거 있잖아요. 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단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민간건축의 경우는 설계할 때 건축주가 최대한 만족하도록 해수면 일이 누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 하죠.

**김용미** : 우리나라에서 책임감리는 성수대교 사태 이후 생긴 것이죠.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시공관리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그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대체로 책임감리비는 건축설계비보다 끌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감리협회도 전전 커지고, 이 분들이 초자일관 설계와 감리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시장이 거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건축들이 지어지는데 설계자는 도면 납품과 동시에 배제되는 현실에서 어떻



최동규 건축사(설계파트/최장)

1. 건축사자회원연합회 육원장  
2. 주서인 종합건축사무소

게 뛰어난 건축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건축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건축설계자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참여하고 설계비와 별도로 수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를 못 믿으니까 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굳이 꼭 분리를 해야 한다면 설계자가 설계디자인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비의 30%는 그 수고비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락** :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방금 전 김용미 건축사께서 70%만 한다고 이용우 건축사의 말씀을 지적 하셨잖아요? 정말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할 때 70%만 완성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30%는 시후설계라는 형태로 추후에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타당한건가요?

**최동규** :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신부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그 심황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용우** : 지금 3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건기법에 의해 감리가 분리되어 있고, 감리를 건축사가 못하고 있는데 설계자가 업무진행상 현장에 불려 다니고 하니까… 결국 그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건축사가 거기에서 몇 퍼센트는 우리 둘이다 하는 차원이고, 본질적으로는 감리 자체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분리될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다 해야 할 일이고, 100%다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이겠지요.

**이용락** :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건축사가 설계할 때 해야 할 것을 다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일을 사후에 보완해주는 일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인수** : 발주처에 납품이 원료된 후. 그러니까 설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죠.

**이용락** :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후 설계가 본래 해주어야 할 일을 미처 해주지 못하여 사후에 해주는 것이라면 설계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성된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인 것이라면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인수** : 그래서 미국에서도 CA, 컨스탁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업무를 하잖아요. 발주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완료했다고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공으로 넘어갈 순 없는 것이죠.

**최동규** : 미국건축사협회 규정에, 건축사는 적절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원활이 되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

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박경립** : 건축사하고 감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수기를 안주는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편법적으로 생겼던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설계를 프로세스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어느 시점에 끝나고 납품하면 되는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설계는 허기를 냈을 뿐이지, 그게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현장에서 보완

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보완되는 것은 건축사가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수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시공업체는 건축사가 설계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질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 측의 책임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공익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건축주는 현장에 있는 시공업체의 말에 기울게 됩니다. 건축사의 설계가 건축주나 시공업체에 의해 마음대로 흔들려 가지 않도록… 건축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박경립 교수 (발표자)

|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이용락** : 혹시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보면서 시공을 하려고 했더니 설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따라서 잘못 설계되어 있거나 부족한 설계를 보완하는 성격은 아닌지요?

**장양순** : 그럴 수도 있어요.

**김용미** :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조익수** :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설계감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공사 감리까지의 업무가 다 설계자의 업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형편상 설계과정에서 설계단계의 업무와 공사단계에서의 업무를 편의상 설계와 감리로 분리, 용역비 산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자와 감리자가 구분되고, 설계하는 건축사도 민간분야의 용역계약은 평당 설계비로 수주하고 감리비는 그 계약에 포함 서비스차원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설계자로서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책임감리제가 되어 감리는 설계와 분리되었고 설계자 대신 별도의 감리업역과 감리자를 제도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설계와 감리업무는 동일 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법에서 시공감리의 정의는 조금 전 이야기 했듯 이 건축법 및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 확인, 시공 품질관리 등 엔지니어링 업무로만 규정 한다면 당연히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해야 하는 업무는 그런 엔지니어링 측면이 아니에요. 건축의 완성이고, 책임이고 계속 품질을 높이고, 예산은 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서 안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감리단계의 업무에서도 건축물의 기능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설계자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는 필요하며 현대의 설계, 감리 분리 상태는 건축사가 이를 간과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책임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감리제도를 이제 와서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공감리에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업무로 규정하였는데 디자인감리 업무내용을 추가하여 설계자의 책임감리 업무에 직접 참여 토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감리업무를 보면 엔지니어링적 업무, 즉 시공, 품질, 양전관리, 검증 등은 사공사의 업무이고 설계와 디자인의 품질관리 즉 설계단계의 업무가 감리자의 주 업무이며 이런 관리체계 아래에서의 건축물의 하자 책임은 감리자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리에서의 책임의 의미는 공사에 대한 책임의 의미 보다는 당초 건축물의 내재적 가치를 규정한 설계자의 해석이 시공단계를 거쳐 완공 될 때까지의 완성도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시공의 책임은 시공자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우** :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해외 대형 공사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검증 자체도 시공자가 1차적으로 나하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inspection sheet 청구하는데 보면 현장 소장이 '내가 이리이려한 사항 다 체크하고 나 구조적으로 이상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하고 싸인하고 제출을 하면 이 서류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건축사는 그것을 모두 설계자가 가서 하고 나서, 감리자가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인수** : 그러니까 시공한 사실 증명을 원인자가 증명을 해야죠. 그걸 다른 사람이 가서 증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용락** :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후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보완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총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설계비를 산정할 때 설계비 속에 포함시켜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그걸 따로 떼어서 굳이 그것이 설계니 아니니, 그런 논쟁을 왜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용미** : 건축설계대가기준에 보면, 건축사가 흔히 설계비라고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외에는 설계비요율이 명확히 없지만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 예산처에서 이 업무에 대해 이해가 없다 보니 예산책정을 안 해서 우리가 무료로 사후설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처도 같이 설득을 해야겠습니다.

**이용락** : 지금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사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때 설계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 하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범위가 자동적으로 사후설계 그 업무 서비스까지 들어가고, 이 일도 당연히 건축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김용미** :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익수** : 저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감리업무 영역을 세분화 시키는 논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분화하기에 앞서 설계자의 업무 내용에 시공단계에서의 업무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공단계의 감리업무에도 엔지니어링 업무 내용 이외에 디자인감리에 대한 업무 규정이 제도적으로 명문화 되어야 설계 또는 감리업무는 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성훈** : 사실은 시공감리나 책임감리에 있는 공정이라든지 품질 등 의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들은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게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라는 이름으로 이중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감리에서 그러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익수** : 책임의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장양순** : 건축사법에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외의 예에서 보듯이 감리 필요 없이 공사의 모든 것은 시공자가 다 책임지고, 우린 디자인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감리하고 모든 공사업종을 총괄 자취하는 비용

을 더자인 감리든, 사후설계 감리든, 어떤 명목으로라도 노력한 만큼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민도와 건축사의 자질이 고르지 못함으로 분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도 아니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설계한 빌라도 대지레벨이 6m 차이 나게 사공되어 있는 실례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는 시공업자인 건축주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의무 이전에 나한테 일 준 사람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인천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나 하면 감리하고 설계를 분리해서 감리자를 별도로 두어야만 책임도 안지고 감리도 충실히 해진다는 것이지요. 감리가 설계의 연장이다라고 하는데 원칙은 합의하만,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계사의 디자인 감리와 타 건축사의 시공감리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성훈** :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설계와 감리의 연속성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가 안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분리가 되었을 때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짊어졌습니다만, 아까 설계경기 할 때도 김일환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반복 되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후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정말 가능하게 하느냐에 하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양순** : 그 점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건물도 전부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 설비는 설비, 그 다음에 경계선, 구조, 방수 등 건축분야도 전부 해서 그것을 감리라는 제목으로 하던 안전관리로 하던 간에 제 3의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대한 컬러 등 디자인 문제만 담당하고 모든 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한책임 아닙니까? 그 무한책임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법이 차신책 일을 것 같습니다.

**오성훈** : 일단 사후관리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양순 건축사의 말씀이 맞는 것이. 감리 갔다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거는 김리가 이니다 이겁니다. 법적인 조사검사업부지, 조사검사업부를 왜 우리가 안고서 계속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니까 떼어서 그거 아니면 공무원한테 위탁받은 건축사가 본인이 아님 다른 사람이 하고, 건축사는 순수하게 건축에 관한 일만 하자 이거죠. 왜 법적으로 이런 걸 건축사가 안고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감리 업무가 아니죠.

**전영철** : 이용우 건축사의 그 이야기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대한민국 건축사들

업무 영역이 이만큼 확보가 됐는데, '우린 이만큼만 할 테니 이건 다른데 가서 줘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해요.

**박경립**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완성이 될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으면서 못 들어기게 하는 제도는 잘못 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열어놔서 건축사의 선택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성훈** : 김일환 과장 말씀 듣고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자가 감리단계까지 갈 수 있는 타당성이 계속 논의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후관리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 즉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규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쪽에 포함 되느냐 혹은 감리 쪽에 30%는 20%는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방법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논의된 다른 이슈 중 하나인 감리와 설계가 분리된 이유에 관한 겁니다. 즉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제조합이나 건축법에 되어있는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 정도로 인식을 같이 했단 생각이 들고, 김일환 과장 말씀 한번 들어보죠.

**김일환** : 기본적으로 사후 디자인 감리 등 건축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을 감안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디자인감리와 같은 경우도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고 시공사를 끌고 갈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50% ~ 60%는 극히 소규모이고 업무량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위 20~30%는 거의 핸드폰 하니만 가지고 업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즉 모든 건축사분들의 업무역량이나 스타일이 같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감리제도가 왜 분리되었고 현재와 같이 되었는 가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표하신 자료 중에 82쪽을 보면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감리주체에 건축사가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80~90년대 까지는 모든 감리를 건축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했던 건축사 감리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리는 종전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 분양제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어차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운영하였고, 건축사도 상대적으로 충실히 못한 감리를 수행하는 데다 간설기술관리법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이 맞물려 본의 아니게 감리회사

에서 감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왜 현재와 같은 제도가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화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분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기공사와 소방감리는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통신, 기계설비, 구조, 지반도 별도 발주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도 감안해서 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 감리 또는 사후디자인 감리와 같이 추가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미** :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민간시장하고 공공시장하고 분리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민간시장에서 일하는 60~70% 건축사들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공건축에서의 디자인감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김일환**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공공민간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축사사무소 개설하신 분들이 한 만분쯤 되요. 만 명쯤 되는데 과연 그 분들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김용미** :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영역이 건축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고 일단 공공영역에서부터 디자인 감리제도나 사후설계감리업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도 아파트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양순**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죠. 왜 그러나 하면 이게 건축사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제일 억울한 사항이 그런 것들인데,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삼풍사고도 그렇고, 건축주가 돈에 눈이 멀어서 감리비를 안주고 도장을 찍으라 하니까 찍은 거지, 건축사가 돈을 잔뜩 받고서 기술자를 안 내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물매를 맞는 것입니다. 민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G20정상 회의에 의상국일 정도면 정말 이제 안전을 떠나서 문화를 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커리를 칠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커리를

칠해야 놔느냐. 이용락 부회장은 음악을 잘 았습니까, 지휘자는 자신이 직곡한 악보의 '강하게'나 '여리게'를 보고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감리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라움미술관 공사 시 검은색 외관을 페인트로 칠하지 말고, 콘크리트 자체를 결정으로 만들라고 설계자가 요구했어요. 온갖 실패 끝에, 4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감리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저리가고 말이죠. 뭐 높이가 1cm가 크니 뭐가 잘못 됐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최동규** : 오늘 주제는 공공건물의 설계와 감리의 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간영역도, 공공영역도 아니고, 민간 영역 중에서도 커다란 것은 잘 되요. 이런 소형건축들, 예전에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에서 감리를 분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 건축사들이 원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미** :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공공영역에서.

**최동규** : 예, 공공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잘하라 이거에요. 그래서 형이 잘하면 민간은 뒤따라가는 것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섬훈 좌장이 정리하시고 끝내세요.

**오섬훈** : 하여튼 전체 논의 중심에 설계감리의 연속성에 대한 필요성과 소위 디자인감리라는 사후관리 설계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공공영역 부분이 먼저 선도가 되어야 민간 등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명철** :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하면 이런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발표가 되면 당연히 알아서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그 정보를 봄고, 뭐 이렇게 수정이나 정책에 반영시켜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일환 과장이 말씀 하셨듯이, 그릇에 담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설계 감리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꼭 그릇에 담아서 정식으로 국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 하겠습니다.

**최동규** : 12월이 되면 건축사지가 500호가 되고 또 제 편찬위원회 임기 중에 그런 일을 맡게 돼서 과거 40몇 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계경기 분야는 제가 요약(Abstract)을 하고, 또 감리분야는 오섬훈 건축사가 요약을 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그 원고를 보면서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든지 이런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죄담회 내용들이 건축사들이나 건축 관계자들이 볼 때 생산적인 죄담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양순 건축사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미사

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G20정상 회의에 의상국일 정도면 정말 이제 안전을 떠나서 문화를 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커리를 칠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커리를

# 「건축사」지를 통해 본 건축사의 정체성과 윤리

장 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by Chang, Yang-soon

## | 들어가는 글

이 달로서 창간 500호를 맞는 「건축사」지는 1965년 9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설협회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고고의 성(聲)을 세상에 외친 후 10개월 만인 1966년 7월에 창간호를 냄으로써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금번 「건축사지편찬위원회」에서는 500호 특집을 기획하면서 그간 발간된 「건축사」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필자에게 주어진 것은 “건축사의 지위와 윤리”에 관한 글들을 정리해 달라는 청탁이었다.

집필에 앞서 필자는 「건축사」지에서 이와 관련된 제복들을 취합한 712편의 목록을 이용우 위워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이를 본문을 보기 위하여 「건축사」지를 섭렵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0여 편을 추가, 750여 편을 정독하였다. 이 결과 윤리와 정체성(지위)에 관한 것은 120여 편으로 약 16%를 점하였다.

나머지 84%는

첫째, 건축법을 위시한 관계법령(건축사 보수대가 포함)에 관한 것

둘째, 사건, 사고, 작품 등 현안(핫 이슈)에 대한 문제

셋째, 건축사 및 협회의 비전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필자들은 대부분 건축사들이며 15%가량은 대학건축과 교수를 비롯한 건축전문자 편집인과 비전공자인 일반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 글 쓸 때는 개업 건축사였으나 현재는 교수로 있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정칼럼과 기고 등은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고정칼럼이 비교적 근년에 생겼고, 내용 또한 기고와 별 차이가 없음으로 분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 또는 건축사와 비 건축사에 관한 것 등 어떠한 것에 대하여도 분류, 비교, 평가하지 않았다.

건축사나 건축사협회나 법률과 정관 그리고 전문자격자로서 정체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느끼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데서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위도 오르내리기를 하게 된다. 즉 윤리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사 개개인만이 아닌 건축사협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정체성과 윤리를 함께 다루었다.

본 고는 먼저 건축사의 윤리와 정체성을 다루고, 뒤에 협회의 윤리와 정체성을 다루었다. 가능한 한 계재된 순서를 지키고 동류항으로 묶어 소제목을 달아서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짐작하게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차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이로서 내일의 좌표를 세우는데 명경(明鏡)이 될 것이다.

글쓴이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 발표 연도를 나타내며, 연도가 같은 글이 계속될 경우, 첫 번 글에만 연도 수를 기재하였다. 경에는 지면상 평어체로 교체 하였고, 지면의 제약으로 문장도 축약하여 핵심만 볼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도를 기록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사」지 네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글쓴이, 연도, 제목이나 주요 사항의 일부는 굵게 표시했으며, 필자의 견해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건축사는 성명만 쓰고, 그 외 인사는 직명을 병기하였다.

## | 건축사의 윤리와 정체성

건축사의 윤리문제는 다른 건축사의 작품을 자기명의로 바꾸는 사례, 명평, 명의대여, 경쟁입찰의 참여, 현상경기의 로비, 계획설계 무료 제공, 부실설계 및 무책임한 감리행태, 무사안일, 정치에 대한 예측, 외국건축사의 작품 베끼기 및 외국건축사의 무

분별한 도입, 법망 피해가기, 도덕성, 허위보고 등이 거론되었고 이를 정화하고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고의 전환, 전문가 의식의 재정립, 자기만의 건축철학 확립, 교육, 공공성의 제고, 봉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건축사의 윤리와 철학

1966년 정인국교수는 한국건축계의 당면문제란 글 중에서 건축사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명의가 입의로 뒤바뀌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축주, 건축사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한 권위 있는 잡지에 아이디어와 도면제작자를 설계자로 발표했으나, 다른 계간지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소관기업처가 당당히 명

건축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건축의 사회성을 알아 거기에 배타되지 않게 행동을 가하는 정도에서 우리건축계에 해당시킬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작태도에 균원적 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혁명적,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대건축사조 속의 어떤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통털어 말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은 설계금액에 알맞게 적당히 처리하여 그려주는 구조물로 알고 있고 파상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치고 말든가, 자기상호를 선전하기 위하여 기교한 표현을 무절제하게 꾀하든가 하는 경향이 우리 건축사회의 풍조로 되어가고 있다.”면서 “권익을 위하여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라고 끝을 맺고 있다.

오옹석(74)은 “세상에는 건축사를 건축허가를 대서하는 사람으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앤마자카는 현 건축계의 혼란은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철학이라 함은 극히 속된 뜻으로 즉 건축의 순수성이나 예술성을 느끼고 있는가, 건축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건축의 사회성을 알아 거기에 배타되지 않게 행동을 가하는 정도에서 우리건축계에 해당시킬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작태도에 균원적 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혁명적,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대건축사조 속의 어떤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통털어 말하고 있다.

의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무질서와 자의와 횡포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는 한국뿐이다. 낙후한 윤리사회일수록 건축주의 횡포가 심하며,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묵인하여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는 데는 건축주의 횡포를 다반사로 알고 있는 불우한 세대의 체념도 아니고 철없는 삼척동자의 회통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탓도 아니다. 좀 더 깊은 철학적 고민에서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다룬 본문에서 건축에 있어서의 윤리적 요구를 담고 있다. 그는 “언제나 위대한 건축시대의 시초에는 건축의 내면에서보다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 강조되기 마련이다.”면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없이 도과될 요소가 많은 설계를 해 내치운 대학교수의 양심, 기술적 검토를 전문가에게 맡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비도 지불하지 않는 기업주의 인색, 이러한 도서를 유아무야 허가하여 준 행정관리의 무능, 또 이 공사를 무허가업자가 도용한 상호로 아무 기술 보장 없이 진행된 업자의 무리한 이익추구 등 일련의 일들을 일소하는 것이 건축계를 정화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건축가 개개인의 건축철학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앤마자카는 현 건축계의 혼란은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철학이라 함은 극히 속된 뜻으로 즉 건축의 순수성이나 예술성을 느끼고 있는가,

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건축사 스스로 건축허가 취득을 본분으로 일삼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건축허가사라는 직종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으며,

김지태(86)는 공정거래와 건축인의 자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윤리규약 제9조 ‘입찰은 참여하지 않는다’의 삭제를 요구 받고 이의 부당성을 논하면서, “회원은 윤리규약의 유무와 관계 없이 참여치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

### 계획설계의 무상 서비스에 대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계획설계 무상서비스는 해묵은 과제이다. 이에 대한 3인의 글이다.

**김석환(02)** : 체석장의 돌은 그냥 돌 일 뿐이지만 작가의 손을 거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된다. 건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가에 의해 한낱 건축자재가 생명력을 띠고 태어나는 정신적 산물이다. 그런데 업자들은 여기저기서 가설계를 받아본다고 한다. 계획설계는 눈에 들어나 보이는 성과물은 적어도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다. 시장원리로 보아도 용당 제대로 돈을 받아야한다.

**최영진(02)** : 이것만은 협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하나씩 시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자. \* 합당한 계획설계비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계경기에 불참한다. 공개경쟁, 지명경쟁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설계비의 보수기준

을 정하자. 모든 건축사는 계약 전 계획설계 서비스 요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한다. 설계도가 아닌 규모검토 및 타당성조사에서도 단계적인 보수기준을 정하며, 계획설계도단계별 보수기준을 시행하자.

조충기(08)는 가설계도면 그려주는 행위를 보고. –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는 특권을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대 왜 그리 목말라하면서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스스로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

### 윤리부재의 건축사와 용기 있는 건축사

조인철(00)도 “특별검사원을 하다보면 대충 어떻게 그 상황만 벗어나려는 건축사들이 있다. ‘그 정도의 설계비로 도면을 모두 그릴 수 없고 현장상황과 도면을 맞출 수 없다’ ‘업자가 나에게 설계 일을 가져오는데 냉정하게 감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회원들을 만나면 정말 특별검사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하게 된다.”면서 회의를 표하고 있다.

이광만(03)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48층에 비상계단이 하나뿐인…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할 설계자가 건교부 질의회신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며, 이로서 최대 전용율을 만들어 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우리 임무를 스스로 져버려 한 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홍문유(91)는 “첫째,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최저비용으로만 건축하려는 건축주들 때문에 어떤 구상이나 창작물에 대한 이해, 또는 상호협의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실태로는 시공자가 시공비에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수주하기 때문에 시공자에 의해 설계가 의뢰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시공자의 자질문제로, 시공 상 위법이 단연되어 감리 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이다 대부분 무자격자가 사공하고 495m<sup>2</sup> 이상의 건물도 면허를 대여 받아 개인이나 단종 업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이다.”고 실상을 고백하고 있다.

김기환(98)은 “현상설계에서 뇌물을 받은 고위직 공무원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소나 회사대표는 금액이 작아서인지 그대로 넘어갔다. 또 당선작도 그대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발하고. 김영섭(01)은 “심사위원에게 전 방위로비를 펼치다가 급기야 심사위원이 될만한 교수들에게 모두 무료해외여행을 주선하여 대부분의 관공서 설계경기를 독식해보려는 파렴치한, 건축허가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

유로 계획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해외에 발주시킨 건물로 각종 건축상을 염치없이 수상하는 행위. 건축설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교수들은 설계경기 심사 제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사절하라”고 권고한다.

손기찬(01)은 “그 잘난 작품들은 잡지를 쉽게 배끼고, 그도 모자라 가서 베낀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문화나 환경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외피만 그것도 일부만 베낀다. 아예 공공기관에서는 외국건축가와 협력 참여해야한다는 전제도 단다. 모범 답안 같은 지침서에 의해 응모된 구민회관들은 지역성은 무시된 채, 디자인감각을 뽐내는 하나같이 출품한 작품들이다. 어느 것이 당선되더라도(지역주민들이 이용 않는다면) 어느 구에 지어도 손색이 없다. 심사위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골라잡기 힘든 작품을 용케도 집어낸다”하고

김희곤(02)은 “현대의 자본을 동반한 첨단의 감성적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담은 건축을 만들어야한다. 설불리 선진건축가의 디자인 방법을 이용한 모방은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데

이현희(02) 교수는 “건축인으로서 자주 듣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에 관한 것이다. 예술적 감각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국민을 안타까워하고, 모든 건축사를 예술가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을 슬퍼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정하고 투자해 주지 못하는 사회상황을 속상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이 별 볼 일 없다고 비아냥이라도 할라치면 그 주범이 아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내심 자신의 불참을 안타까워한다. 비단 받더라도 차라리 ‘주범’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꼬집고 있다.

### 공존과 희망

최동규(04)는 “작은 사무실과 큰 사무실이 공존하여 건축문화라는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을까? 건축계에까지 배어들어온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들이 건축계 전반을 서서히 고사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쓰쓸하다”며 공존을 희망했으나, 6년 뒤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천후로 비풀 하는 터키 프로젝트부터 BTI까지를 제외하면 소규모 아틀리에 사무소의 영업대상은 정말 한정적이다. 마치 조선시대노비 신분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면천이 안 되듯 죽을 때까지 큰일은 손도 못 대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조자연 교수는 “외국관련 연구소 기공식에서 건축사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필자는 몹시 서운하고 부끄러웠다. 건물이 다 지어질 3년 후에는 건축사의 지위가 조금은 나아져 준공식에는 건축사가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표

정을 지으며 작품소개와 그간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이러한 윤리의 결여와 함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위상이 추락하는 현실과 치유방법에 대하여 최창규(71)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허가노서를 심사하는 사람이 설계자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입찰이란 수요자가 일정한 품질 규격 양식 보양을 제시하였을 때 동일한 규격으로 납품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건축사의 개성과 사상이 농후한 창작물에 경쟁입찰이 타당한가? 현실상의 문제점으로 창작물에 어떻게 덤핑이 있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이 있는가?"라고 물은 후, "정신적인 문제점으로 건축학은 이미 공학이나 예술의 경지를 넘어 철학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 자세가 되어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신에게 비판의 채찍을 들고 심판대 위에서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라는 자답을 하고 있다.

### 35년 전의 교훈

정인국(75) 건축가협회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직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를 사회적 직분이 미분명하고 서로의 유대관계도 없는 건축사법 공포 이전의 단계, 둘째단계는 법적으로 그 사회적 직분을 보장 받으며 공동이익을 위한 직업단체가 조직되고 건축주와 평등한 관계에서 쌍방 합의계약을 체결되는 법적 사회적 직분확립기로서 현재의 한국건축계가 이에 속하며 세 번째 단계는 그 사회에서 직업의 안이성과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참된 사회적 직분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자연적 사회적 직분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계가 3단계로 가는 데는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건축계에서 꾸준히 변화할 상황에 대하여 건축사들이 능히 자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따라서 장래한국 건축계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드나 세계건축 조류와 견주어서 몇 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축사의 수적 증대와 건축업무량간의 불균형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조만간 업무량은 건축사의 수적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 이 경우 자연도태현상은 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다. 건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차원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 건축사의 사고한계는 2~3년 내 끝난다. 세계건축 조류는 광포한 세력으로 벌어나칠 것이고 S·F구조, Pre-Fab 구조, 컴퓨터디자인 등은 우리들이 정신 차려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의 창작활동의 기반을 정지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세대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개성을 감안하여 건축철학을 수립하는데 온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고객 건축주의 안목은 점점 향상하여 건축사들이 비판받는 정도는 더욱 가혹해진다. 그들의 현실적 요구는 몇 년 안가서 사회

적 변화와 생활상의 변모에 따라 쉽게 불만스러워진다. 따라서 건축가는 봉사자인 동시에 지도자라는 W. Gropius의 교훈을 기억하고 한걸음 더 나가 기능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건축 활동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점점 강화된다. 따라서 건축사들의 설계능력이나 기술역량은 일종 광범위한 종합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많은 규제법과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는 과거의 좁은 울타리 속에 건축사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러한 3단계는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이 건축사들의 힘에 의해 해결될 때 도달한다. 질에 의한 도태가 이뤄지고 건축 조류에 대응하여 지식과 능력한계가 넓혀지고, 고객과 사회의 비평에 능히 견디어 내며 인간생활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다 할 때 인위적인 속박의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사회적 직분은 확립된다. 사회의 존경과 신뢰는 저절로 건축사에게 주어지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최상의 대가는 자진해서 받쳐진다. 그리고 우리 도시는 아름다워지고 건물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진선미를 다한 최상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건축사는 이 낙원에서 자기 직업의 만족스러움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험하고 멀지 모른다 언젠가는 올 것을 믿고 매진하는 것이 장래 건축사의 목표일 것이다"라면서 건축사 미래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자성의 바탕 위에 스스로 노력해야

유광택(84)은 "건축사의 권리과 지위는 스스로의 자가과 협력에 의한 것인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자기향상을 위한 노력과 서로운 기술 체득으로 세련된 전문적 기량을 소유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라"며 장양순(04)은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한 주일에 한 시간반 협회를 위하여 혼자나 시정점을 생각하고 밟혀준다면 우리협회의 기반은 공공해지고 권리은 신장될 것이다. 협회는 이를 한곳에 모아, 합의된 것은 일치단결하여 밀고나가야 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이 2~3% 수준, 올해부터는 봉사차원에서도 인터넷에 참여하여 명실공이 내가 주인인 협회를 만들어보자"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주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글에서도(06) "대상 심사 출품작의 어떤 건물은 한실 창문이 창호지가 밖에 있는 일본식 문이었고, 신도가 130 여명, 그중 남신도가 30여명인 아름다운 교회의 화장실 변기는 남자 4개에 여자는 2개였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변명뿐이었다. 정부시책도 한심하지만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배워 익히는 준엄한 자기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문지식의 충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김성우(98)는 "나를 배고프게 한 워인을 찾되 그 뿌리를 캐낼 때 까지 천저하지 못하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원인

을 가까운데서만 찾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는다.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의 극복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자성을 요구하고

김낙중 교수는 “미학적 배려에 의한 조형성은 찾기 어렵고, 법규와 대지형태에 다른 용적률을 극대화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분절만 있을 뿐이다. 과연 이들은 이 땅, 이도시가 주는 message를 투영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이 어 시대 상황의 어쩔 수 없는 반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건축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회복하면서 이 시대 고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건축사를 질타하고 있다.

### 사고의 전환과 봉사

송민구는 “내일을 전망하느니보다 내일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면서 우리들이 사상적 공백, 사상적 위기, 사상적 재건을 말하기 이전에 산사의 빙곤을 느끼게 되고 내일의 방향의 정립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의 회복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인간에게 건축가로서 무엇을 봉사하였는가, 또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사색하며 성찰하여야 한다”하고, 안병의는 “군자불기(君子不器)를 인용 건축사불기를 요구한다. 전문가이만 그치지 않고 교양과 덕을 갖춰 남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김승제(03)교수는 “이제 우리들도 해방 이후 근대건축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충분한 경험과 성과물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선진국의 건축이념을 담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한다.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힘으로 짚어지고 가는 늄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홍기택(95)은 사고의 전환에서 “Archi-Director는 자기중심적이 아닌 문제 중심 사고로 접근해야하고, 다수의 요구가 아닌 거주후평가(P.O.E)에서 올바른 Model Personality를 구해야 한다. 아키 디렉터로서 역할과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건축문화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하고, 장석웅(95)은 “건축인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계는 변하는 것이 없다. 대부분의 부실이나 사고의 근본원인은 관련종사자 개개인의 자질부족과 무사안일주의에서 온다”고 파악하고 있다.

박서홍(96)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고 건축물을 생산해 내는 주체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더욱 시급한 것은 이 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철저한 전문가 의식의 재정립이다. 그것은 자적 허위의식도 오만한 엘리트의식이 아닌 평범한 직업의식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이다. 삼풍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의식의 재정립부터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서보광(02)은 “도를 넘는 주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인인 건축가들의 선비정신이 아닐까. 적어도 그런 노력을 다음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최종철(03) 교수는 “앙드레 김의 의상이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건축사 개개인의 고유한 디자인에 의해 가치가 매겨져야한다. 그것은 유명세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종호는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자”고 제언하고 있다.

### 건축사의 사명

하영호(05) 목사는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자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건축사를 찾아온 손님은 그 누가되었든 꿈에 부풀어 온다고. 그 꿈을 먼 미래까지 이어가도록 해야하는 것 아닐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다 일거리 떨어져 밥 굽을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혼자만이라도–남은 알아주지 않아도–예술가의 긍지를 지니며, 식막한 도시에 혼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라며 지조 있게 살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필훈(96)은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키호테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산위에서 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한다.”고 처연하게 현실을 표현한다.

민현식(00)은 “우리의 건축이 별 볼일 없는 베나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고질병은 우리건축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점이고 그걸 위한 창조적 노력이 바보짓 같이 취급되는 풍토이다. 본래 윤리란 것이 중산층에만 있는 것이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20대 80의 사회로 재편되어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도덕 불감증마저 사라져 애써 자기기로 제정한 건축사 현장은 그저 박물관에 보관된 지난날의 유물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한다. 그는 다른 글에서 “맹보가 베를렌느에게 던진 질문처럼 또 다른 세기말에 우리의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보다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고,

심영섭(01)은 “건축가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해야하는 운명을 타고 났지만 그의 역할과 책임이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개발업자의 그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라는 건축가로서의 고유한 해결방식에 달려 있다. 이 어떻게?라는 고민이 결여될 경우 건축가는 개발업자

와 결코 다를 게 없으며 오히려 창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황을 방지하느니만 못하는 적극적 파괴자로서 남게 된다”고 경고한다.

박길룡(97) 교수는 “정치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는 경우 해당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자. 왜냐하면 공공건축은 국민이 만들어서 공복에게 임기동안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은 청사일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문화로부터 일탈로 보이는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건축이 정치를 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공공건축은 국가문화보다 앞선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경계한다.

### 외국건축사의 도입

방철린(98)은 “외국여행을 통해서 견문(?)이 넓어진 건축주의 욕심에서도 그렇거니와 외국의 건축사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건축계가 더욱 큰 문제이다. 크다는 설계경기는 외국건축가들까지 참가하다보니 이에 뒤질세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흉내를 낸다” 현실을 비판하고, 동정근(97) 교수는 “부실설계는 국내 건축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외국 건축가를 불러 들였고, 부실공사는 외국 감리단을 불러드렸다. 사치봉조는 사치성 수입자재를 끌어들였다. 스스로 우리가 불러들인 결과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내실보다는 외형, 안정보다는 팽창, 효율성보다는 지표 우위의 경제 원리를 고수하여 왔다”며 건축사를 질타한다.

### 관에서 보는 건축사 위치

장양순(99)은 아산시의 리인철 건축사의 예를 들어 “법 규정에 만 맞으면 건축할 수 있게 미관식의도 없애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신청한 노인 휴양시설이 ‘콘도’로 변신할까봐 혀가를 불허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법을 바꾸든가 추후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호구지책일지라도 일부는 ‘법은 맞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왔기 때문”이라며 관을 성토하고 자성을 요구하고, 리인철은 “필자가 아산시청의 건축 인 혀가 부정 부패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것은 나를 희생시키려는 이타심이지만 그 희생은 결국 우리 건축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사의 건축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건축문화를 제고하는 공화심(共和心)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 건축사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박순종은 “8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로서 이격거리가 틀린다며 구청장으로부터 협황족량을 해 갖고 청문에 나오라는 공문이 왔다. 살인용의자도 용의자 비용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

건축사는 공소시효도 없는 동네북인가”라며 성토한다.

다른 글에서 장양순은 “현장조사 견사 및 확인업무 허위보고 시 공무원 의제로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부어넣은 대우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은 법인도 회사인가 취소 외에 공인회계사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 건축사의 100m<sup>2</sup> 주택 현장조사보고서 수수료가 7천원인데 부동산중개사의 수수료는 300만원”이라며 정부의 건축사 홀대정책을 성토한다. 민규암(02)은 민원 때문이라며 초기의 설계안을 임의로 변경시킨 것에 제소하였다. “싸움은 2년 여 만에 대의명분상 압승했지만 실리적으로 큰 소득은 없는 것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필자가 제기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 정립을 소홀히 한다면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먼 훗날을 위해 당장에는 짐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대의명분을 세우고 출사표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다.

### 공정적 평가

장석웅은 “1999년은 우리들이 선포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건축3단체는 협력과 화합 하에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나름대로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했고, 오원근(98)은 “상암월드컵 시공자 선정에서 빅5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설계의 우수성이었고, 이것을 사무실이 작다고 홀대받던 건축사가 해냈다는 것이다. 사실 창작이란 수많은 인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우수한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재인(06)은 “설계해서 밥 먹고 살려는지? 밥 먹고 살기 위해 설계를 하는지? 큰집은 더 잘되고 작은집은 더 나빠지는 이유는? 밭주처 어르신네들, 간단한 스케치와 기본도면 10장 정도로 현상설계를 한다면 어떨까요? 건축사를 깥보는 세상 우리가 뉘집어야 안 되겠나? 열 받는다고 진짜 열 받으면 우리 밥그릇은 어디서 찾나”고 묻는다. 이 밖에도 수많은 근거를 밝히면서 건축사 만이 Architect여야 한다는 강명구(75)회장의 “건축사, 건축가와 Architect”란 글은 국제적인 명칭으로서 한국 건축사의 정체성을 논하고 있다.

### | 협회의 윤리와 정체성

대한건축사협회의 윤리에 관한 것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회원의 요구에서 정체성을 논할 수 있는데, 의외로 3단체의 통합에 대한 글들이 20년 전부터 대두되고, 공제조합 등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제언들이 일찍부터 있었음이 주목된다. 또한 협회활동에서 노장(老壯)의 조화로운

구성과 참여,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과 대의를 위한 행동 등은 지금도 장래에도 필요한 요소들이다.

### 총회꾼들과 임원의 부정

1970년 강명구 건축사협회장은 협회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며 임원임기에 대하여 부실한 2년보다 1년 단임제로 정관개정 요구하고 있다. 그는 “총회에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떠드는 총회꾼들이 설계의 경력과 관계없이 임원에 선임되고, 임원이 되면 협회를 발전시킨다는 미명 아래 사리사욕을 챙기고, 지부의 부당 운영을 묵인하고 차기를 위해 회원을 포섭하며, 공금을 중간 유용하고 본부의 공문을 찢어버리는 지부 임원을 성토하며 회원들도 실적회비를 도서등록비라고 하며, 부실설계를 뇌물로 칭찬 감아 넘겨 사회를 흐리게 하고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대로는 굴러갈 수 없는 자경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건축가협회는 노서등록에 대한 법조문이 협회의 체질개선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글이 건설통신에 게재되고, 건축학회에서는 이로 정연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라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모든 역원, 지부장, 이사, 회장직은 1년제 단임으로의 정관 개정안을 제안 한다”면서, 부실한 2년보다 알찬 1년을 원하고 있다. 이는 협회 창립 5년만의 일로서 협회의 난맥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 협회창립 10주년, 양단체장의 제언

그로부터 5년 뒤인 75년 정인국 가협회장은 “건축사협회의 업적을 들이켜보면 첫째, 조직을 정연한 체계로 수립하였고 둘째로는 대사회적인 활동에서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목적을 선명히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셋째로는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여온 점들이며, 대체로 이러한 업적들은 초창기에 성숙하여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초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건축가들의 책무를 명백히 하여 그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는 건축 창조 본연의 활동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게끔 협회자체의 총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느냐라는 것이고, 끝으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일에 얼마큼 보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협회가 법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법이 바로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법을 넘어선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의 형식적인 면을 초월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법의 목적 사항에 충실히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제1조에서는 엄연히 후반에 ‘건축분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의 제언도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즐겨 건축은 예술의 범주 안에 들며, 건축사의 활동은 단지 기술활동이 아니라 예술활동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기술자격 정비를 둘러싼 정부시책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들고 나선 유일한 무기는 이 전가의 보도였다. 내가 보기에는 건축사법 어느 한 구석에도 이를 위한 활동을 촉진시킬 근거조항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마땅히 법정신에 근거하여 건축사협회가 자기의 생명력을 왕성히 하기 위하여 벌여야 하는 근본사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1. 도서등록을 형식적인 면에서 구비서류 정도로 취급하는 봉보를 지양하여 질적 검토를 하는 방편을 세워야 하며,
2. 건축사는 개개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적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야 하며,
3. 이 때 까지 도와시 해 온 학교 연구기관, 자매단체와의 교류를 긴밀히 하여 상호협력의 기풍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무정형 무방향의 한국건축을 옮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훗미한 상태로 잡다한 양식과 스타일, 앞선 기교와 뒤 떨어진 기술의 갈등, 거센 외국 풍조와 전통과의 상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바, 그간 수 만 건의 건축허가건수는 모두 협회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선진 국가와 같이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얻어 보장되어 있다면 구태여 건축사협회에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건축가들의 자유스런 그룹 활동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후진국다운 법운영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협회가 유일한 활동근거지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김희춘 학회장은 “건축사의 자세는 우선 기존 가치관에서 탈피된 새로운 자아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다. 현재 건축사의 영역은 점차로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변화의 부정적인 수많은 요인을 내포한 도시화 과정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저조사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1. 모든 건축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건축인들 스스로의 역량과 지혜를 각 부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건축사를 위한 교양과 지도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3. 건축분야의 연구와 병행하여 관련분야 학문에 대한 꼭넓은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집행부와 리더의 자세

박서홍(95)은 새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집행부 구성이 논 공행상을 벗어날 수 있는가? 회장의 편향적 독선적 파행을 할 경우 면죄부를 받을 자신이 있나? 경륜의 원로와 폐기의 젊음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불가능한가? 정부의 관료주의 권위의식 기술 우선적 시각이 교정될 수 없다면 밀월은 끝난 것 아닌가? 전쟁을 결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묻고 있다. 장양순(07)은 돼지해에 불여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 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비회원 건축사까지 놀보고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몸을 회원에게 주는 화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전 글(06)에서 그는 “그간 건축사들은 저해기·옥의 안전진단 건축설계 등 전문성으로 자원봉사를 해왔다. 이에 비해 홍보는 부족했다. 이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역마다 펼치고 조직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건설업체의 설계 업무에 대한 공onga과 싸우고 있다. 이를 이기려면 정연한 논리만으로 안 된다. 국민들이 건축사의 편이 돼 주어야 한다. 봉사를 통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문제 집행부 대하여

오선교(04)는 “우리협회도 크고 작은 독불장군들의 보임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 자기의 주장만 옳고 제각기 1등이며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잘잘못을 따지기만 한다고 협회가 바보가지는 않한다”하고, 주수일은 “회장의 가장 큰 책무는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건축사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회장은 CEO로서 협회운영이 아닌 경영에 임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제 독불장군 식 경영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이종호(04)는 “의장석에 올라선 이세훈 회장이 법률자문변호사 2인을 회의장에 참석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다수 대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나중에 부의안건 순서부터 완전히 뒤바꿔야 했다. ‘회장신임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도 의장역할을 고수하려는 회장과 임시의장을 내세우려는 대의원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대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세훈 회장은 임기5개월을 남겨 놓고 퇴진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블문율인 시도회장의 이사겸직 등 독단적 행태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다.

## 노장(老壯)이 함께하라

윤시덕(05)은 “묵은 김치가 맘스터푸드에 길 든 신세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맛있게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회원의 30%가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진부하다 탓할 수는 있으되 상생해야 한다. 그러면 회망은 있다”고 하며, 조원용(08)은 “삶에서도 파종과 수확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 파종 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수확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기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임에 블루밍이 없다. ‘인생의 연륜이 풍부하신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된다”며 협회의 구성에 노장이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다.

## 공제조합을 설립하라

김중배(81)는 “협회는 면허대여, 이증직개설자 등 문제건축사에 대하여 점진적 개선이 아닌 과단성 있는 정화의 필요성 강조”하고 송수구(92)는 “타지역의 도서등록 시 일부이지만 배타적 현상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에 바라는 것은 이렇게 개체적인 것 외에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즉 강기세는 1994에 공제조합설립하자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무실 운영, 설계 감리의 질 향상, 건축사의 활동입장과 노후대책까지 효과, 늦출 수 없는 과제로서 복지회나 연금과는 달리 법률로써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면서 “기한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야 출범하는 공제조합을 보면서 그 해안을 거부한 과거가 안타깝다.

그런가하면 문홍길(04)은 “감리협회는 CM영역을 새로운 업역으로 확대하는데 우리협회는 감리관련 실무활동의 핵심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성의 바탕위에 선다는 것은 여태 우리가 잊고 자낸 가장원조적인 원리인 것이다. 내부문제로만 아웅다웅하면서 남 탓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 20년 전의 단체통합 주장

김무언은 1990년에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며’란 글에서 “3단체의 통합이 쉽지는 않으나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머물려 있던 깨질 속에서 뛰쳐나가는 용기와 아픔을 각오하여야 한다. 우리들만의 단합과 노력의 출정체인 협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한창진(97)도 “적어도 건축 3단체만이라도 수평으로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건축인들을 누가 깔보고 불신할 수 있었겠나. 개혁에는 부정적개혁(negative system)과 적극적 개혁(positive system)이 있다. 규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규제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떨

까” 제안하고 있다.

이경일(10) 건축문화편집장은 “건축사는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고 김중업선생의 말이다. 외국의 경우 큰 역할을 하는 건축단체는 대개 하나이고, 이 단체가 국내적으로 법령의 개정이나 입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단체가 하나일 경우, 대외적으로도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랄나위가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는가? 얼마나 전에 부결된 어느 제안이 생각나진 않는가?

이상림 건축가협회장은 사협회의 통합정관 부결 사유 중 하나는 “가협회 회원이 사협회 회원의 자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한데 있다고 본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불신과는 작별해야 한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집단이 될 것이다”라면서 가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건미준과 새건축사협회

박태웅(94)은 건미준에 관여한 회원들에게 “건미준의 제안이 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정도가 아닌가? 실천 가능한 현실론인가? 일례로 금년에 3배 이상 합격한 건축사의 배출이 환영만 할 일인가, 질적 저하에 대한 대처는 어찌할 것인가”를 묻고 있으며. 동정근(01)은 “건축계에서도 3단체 간 혹은 주변 집단 간 보이지 않는 담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가진 자의 간교함과 목소리큰 사람의 영웅적인 외침에 의해 닫힌 사회로 가면서 스스로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새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권도웅(02)은 “건축계를 대표하는 3개의 단체에 모두 가입하여 어정쩡하게 보냈는데, 또 하나의 단체가 탄생된다니 한 봄을 4개의 단체에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알맹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껌데기인 조직은 왜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것인지?”라며 회의를 표하고 김무권(03)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새건축사협회가 만들어져,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둘로 갈라진 상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건축사협회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도 차제에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회원과 협회

장양순(06)은 “서울회장은 노조사태로 사퇴하고 새 회장을 선임하는 임시총회는 가까스로 성원되었으나, 회장선임 전 정

족수 확인요청 발언으로 회장선출이 무산되었다. 그 회원도 이 총회가 얼마나 어렵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모든 일은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면 이는 행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규정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또 다른 글(09)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어려워도 팝박을 받아도 의로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을 위한 정의이며 종국적으로 거론된 당사자도 살리는 활인(活人)의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협회에 대한 회원의 공선사후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현(05)교수도 “건축계의 모순은 일차적으로 내부에 있다. 건설과 설계, 대형과 소형사무소는 같은 선상에 있지 않으며, 감리와 설계 시장의 결합여부도 이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순은 내 속에 가득 발견된다. 그래서 성서는 말한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마 10:36)”라면서 건축사의 이기주의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장양순(07)은 “과천 별 옥외집회를 위해 흥보분과위는 기획사가 TV 2사와 메이저신문 2사에 책임지기로 하여 각종 문안작성에 심혈을 기우렸으나 3일을 앞두고 불가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흥보단당이사로서 부한책임을 통감하며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께 사과한다.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처참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함이다. 감성보다 이성이, 형식보다 실리가 중요한 때이다.”라고 고충을 고백하고, 백민석은 “협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회원의 의견들을 수렴,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원은 습득된 정보를 이용 사회적 규범과 상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스스로 노력하는 협회의 서포터가 되어야 한다.”며 양자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 맺는 글

「건축사」지에 나타난 대한건축사협회의 45년을 정리하며, “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을 또 한 번 실감한다. 혜안으로 미래를 내다 본 35년 전의 글도.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도 모두 놓쳐버린 현실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모아놓은 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 지행합일(知行合一)!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건축사협회를 이끄는 회장과 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뜻이 있는 회원은 물론, 협회의 구성인자인 회원 각자도 이 글을 읽음으로서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협회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한다. ■

# 기획 : <커튼 콜> 지역건축탐방

## 한국의 젊은 건축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추적

전진삼 | 본사 편집위원 (Korean ABC) 박영민  
By Jahn, Jim-sam

1997년 10월호 「건축사」지는 인천을 빙두로 지역건축탐방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후 울산·경주·포항(1997년 12월호), 마산·부여·공수(1998년 3월호), 부산(1998년 4월호), 충주·청주(1998년 5월호), 대구·김천·구미(1998년 6/7월호), 수원(1998년 8월호), 전주·익산·군산(1998년 9/10월호), 대전(1998년 11월호), 춘천·강릉(1999년 1/2월호), 광주·나주·목포(1999년 5월호), 진주·마산·창원(1999년 6월호), 서울(1999년 8/9월호), 제주(1999년 10/11월호), 신도시(1999년 12월호/2000년 2월호), 북한(2000년 3/4월호)을 탐방지로 정하여 각 지역 또는 주제를 대표하는 총 95인의 필자기 동원되었고, 또한 각 지역의 건축사, 도시계획가, 문학평론가, 지널리스트, 역사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등 1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의 도시와 건축 문제 쟁점이 이어졌다.

종래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들이 아닌 지방을 출발의 기점으로 하여 중간 기착지에서 서울을 다루는 포맷도 신선했을 뿐더러 신개한 지역을 도시의 성격별로 그루핑하는 의도도 눈에 띠는 것이었다. 기획의 최종 단계에서 당시 불붙고 있던 신도시를 통으로 둑어 공간문제를 구조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북한의 도시와 건축을 한 둑음으로나마 놀아볼 수 있었던 점은 이 기획의 스펙트럼이 사뭇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금번 「건축사」지의 500호 기획을 준비하면서 우리 편찬위원회에서는 저간의 지역건축탐방의 대단원을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 건축의 영토를 무

한 확장해보자는 의도에 쉽게 합의를 보았다.

방법론적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저널리즘에 입각한 글쓰기를 해온 두 사람의 전문 필자를 위촉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용,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공히 젊은 건축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시하면서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새로운 시각을 살필 수 있었고, 외국에서 활약하는 그들을 단지 한국인이라는 우호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기급적 독립사무소(또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건축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는 현장성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이내고자 했다.

당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국내외를 오가며 건축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긴장된 모습을 엿보이기도 하는데, 조직의 슬림화와 느슨한 관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의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축디자인 생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기획이 거둔 수확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저들 중 일부가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걸어쥐고 나갈 수 있는 '강소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주사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끝으로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다. 이 기획의 완성을 위해 애를 쓴 두 필자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로 사선이 달지 않은 또 다른 무리의 젊은 건축인들 다수가 국내외에 포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이 기획물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대안재이며, 숨어 있는 우리 건축의 잠재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다소 분량이 많지만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

# 글로벌 Young Architects 네트워크 1

지정우 | 이유컨설 대표(뉴욕)  
by Ji, Jung-woo

##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Alternative Territories)

세계적으로 젊은 건축가의 활동이 활발한 때이다. 경제 여건의 악화와 건축사사무소들도 대형 펌(Firm)들로 재편이 되는 현상이 확대되는 한편, 그런 틈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마켓과 디자인 영역을 만들어가고 또 준비해가는 젊은 건축가도 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 건축가들 또한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어느 국가의 젊은 건축가를 뭇지않게 특지와 폐기, 그리고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기에 그 활동들이 기대를 하게끔 한다.

### 상황과 조건

물론 해외에서 사무실을 내고 자신의 작업을 개척해나가는 것은 국내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상황과 조건들을 헤쳐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황과 조건에는 국내보다 건축에 대한 인식과 사회분위기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다소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자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하여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신분증’ 자체를 취득하는게 불가능 한 곳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젊은 건축가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모전을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 중이 아직 쌓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지인, 혹은 큰 설계사무실에서 작은 일이라도 의뢰받아서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이지만 외국에서 온 젊은 건축가는 건축대학원 기간 정도를 그 나라에서 보낸 입장이기에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가족 친척들이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에, 얼핏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육아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국내의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는 심리적 부담감에 작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가 쉽다. 즉 생존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모전의 경우도 종류와 기회는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실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어서 오히려 국내의 주요 현상설계에 외부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곤 한다.

반면 ‘마이너리티 지원’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어워드(Award) 같은 젊은 건축가 지원제도가 국내보다는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다.

### 스펙트럼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젊은 건축가들은 의외로 다양한 타입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일 많은 비율이 한국에서 건축학부 혹은 대학원을 마치고 몇 년간의 실무경험 후 외국에서 석사나 그에 해당하는 학위 공부를 하며 2~3년을 보내고 졸업 후 다시 몇년을 외국의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자신의 사무실을 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개 30대에 유학을 나와서 사무실을 낼때쯤이면 30대후반에서 40대초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최근에는 유학 후 자신의 의지, 혹은 그 지역 취업상황이 안 좋은 경우, 혹은 우연한 프로젝트의 수주와 경우 학업 후 그 지역에서 바로 사무실을 내고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 혹은 그 이전부터 해외에서 수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이 경우, 한국의 건축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고 언어나 문화적 차의 극복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출신이라는 정체성 보다는 그 국가의 젊은 건축가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일찍부터 성장을 한 교포 출신 건축가들은 그 개인이 한국의 정체성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전이 있는가가 '한국인 젊은 건축가'라는 범주에 포함여부를 결정짓게 되리라 본다.

또한 사무실의 형태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보다는 부부 혹은 두명 이상의 동료들이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 출신끼리 사무실을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그 국가의 농도, 혹은 배우자와 사무실을 꾸려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 경우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마켓シェ어(Market share)를 바탕으로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마켓을 개척하고 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최근 해외에 대형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지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지사 소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건축사사무소에서 경력을 많이 쌓으며 그 사무소의 소장급으로 올라서는 경우도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한국이냐, 해외냐가 중요한 때라기 보다는 어느 경우든 열정과 에너지로 자신의 건축세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때라고 본다. 아울러 해외의 건축가들을, 혹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한국의 건축의 발전(혹은 건축담론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 드문 방식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아무런 학습의 경험도 없이 바로 국내에서 옮겨가서 자신의 실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학을 했던 국가 혹은 대륙과 또 다른 외국으로 가서 자신의 실무를 구축하는 경우도 발견되곤 한다.

또한 서울과 뉴욕, 런던과 서울 이런식으로 서로 다른 도시에서 파트너들이 작업을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도 기술적,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의 한국 젊은 건축가들의 진출을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화된 한국의 모습만큼 다양성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플랫폼

보이는 타입 혹은 형태보다 중요한 점은 해외의 그 지역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배경이냐, 혹은 도전의 대상이냐 하는 것일 것이다. 바꿔말하면 그 해외의 지역에서 한국을 봤을 때 단순한 해외일 뿐이냐, 아니면 다른 관점의 접근이나 열정의 대상이냐 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중국이나 한국 등에 마켓으로 접근하는 차원정도의 정서라면 외국에 있는 진정한 한국의 젊은 건축가라 부르기엔 어려울 수 있겠다.

또한 실무의 차원이 몇번의 공모전을 진행하는 정도로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해결하

는 경우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속적인 리서치나 이상적인 작업이더라도 얼마나 발전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하겠다. 외국의 젊은 건축가들도 자신의 실무와 학교에서의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젊은 건축가들도 그 사이에서의 밸런스, 그리고 어떤 티칭, 혹은 어떤 네트워크나 따라 앞으로의 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모든 분야의 발전속도가 빠른만큼 젊은 건축가가 담당해야 할 프로젝트나 역할이나 발전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해가 다르게 설계하는 양이나 구축되어지는 건축, 성과물이 날라져간다. 반면 해외의 젊은 건축가들은 비교적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 사이트에는 새로 업데이트되는 프로젝트들이 빨리 느는 반면 해외의 그들에는 아티클이나 퍼블리케이션 등이 주로 업데이트 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이는 상황과 예전에 의한 차이가 클것이다.

이제는 한국이냐, 해외냐가 중요한 때라기 보다는 어느 경우든 열정과 에너지로 자신의 건축세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때라고 본다. 아울러 해외의 건축가들을, 혹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한국의 건축의 발전(혹은 건축담론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고 본다.

## 네트워크? 지형?

다음의 세계 각 지역의 젊은 건축가 인터뷰는 아래의 몇가지 키워드에 의해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답을 얻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상황 그대로를 옮겼다. 아직은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각각의 지형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Keyword	X. Territory	Y. Work	Z. Attitude
A. Now	AX	AY	AZ
B. Plan	BX	BY	BZ

## [GINSENGCHICKEN] 뉴욕, 미국

AZ. 대부분의 영 아키텍트(Young Architect)가 갖고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롬페티션 같이 아이디얼한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지요.

아직 아이디어 뱅크를 우리만의 색으로 채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프로젝트에서 큰 아이디어를 작은 부분부터 우리만의 색으로 현실화하는 사이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공법연구는 물론, 벽이나 바닥 마감재를 정하는 것부터 코너가 돌아가는 느낌, 작은 스위치를 디자인하는 순간까지 느낌을 찾고, 색을 정하고, 놓여질 위치를 정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초반에 개념을 잡아가는 순간만큼이나 긴장되고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진셍치킨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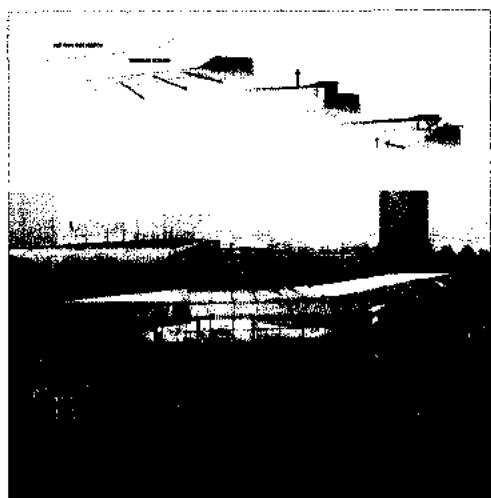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금 흔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에서부터 그려한 저희의 의욕이 묻어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회사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교육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 이름이 건축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등록이 여려번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지를 관철했고, 수차례 편지를 보낸 끝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건축적 시도를 통해 저희만의 색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 여려 형태의 출판과 전시회를 통해 저희 작품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고 장육진 선생의 미술관 설계를 위한 9인의 건축가 그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국에서 저희 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Z. 진셍치킨만의 건축태도라고 할까요. 각기 다른 작업을 관통하는 개념이나 방법론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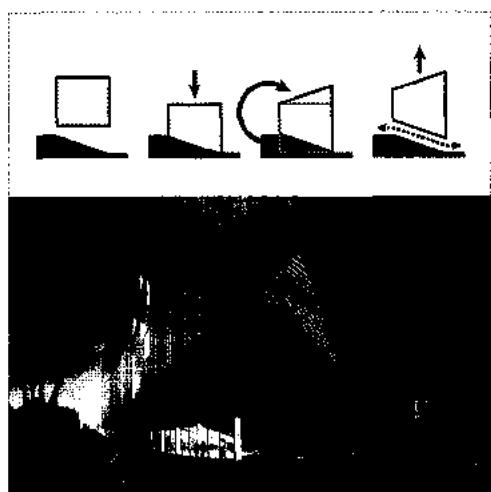
저희 회사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때로는 진부하게까지 여겨지는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과 모습으로 사용함으로써 흔히 보던 사물과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을 통해 흔했던 것들이 다시 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태나 물성 자체보다는 그것들이 건축에 쓰여지는 다양한 방법과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통해 건축을 넘어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X. 진셍치킨은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지만 뉴욕 이외의 장소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뉴욕에서 작업하는 의미와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활동 영역(유무형)은 어떻게 계획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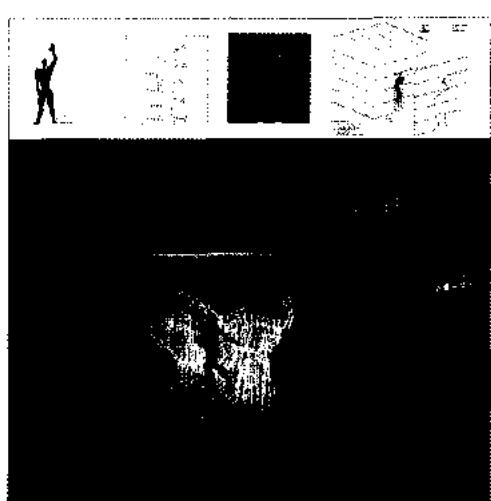
건축적인 사고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많은 사고의 교류가 만들어 가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 활주로에 가장 많은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JFK 공항입니다. 뉴욕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계 여려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섞이고 그것이 우리만의 색으로 정리되면서 진정한 세계를 향한 한국 건축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Infostructure : Stratford Information Kiosks for London Olympic 2012, London UK



Open Paradox : KAIST IT Convergence Center, Daejeon KOREA



Design is Human is Design : Installation for Modern Atlanta, Atlant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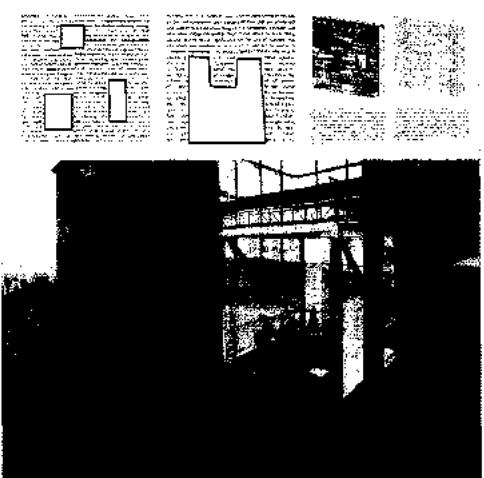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작업을 어떤 작업방식으로 이루어나가려는지요.

공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같거나 절대적인 답을 찾기 위한 수학적 공식이라기보다는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현실적 변수들과 함께 꿈, 이상, 간성 등의 무형의 변수들까지 주입되어 누구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는 공식을 말합니다. 우리만의 색을 띤 이러한 공식을 찾아 우리 작업장식의 뼈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확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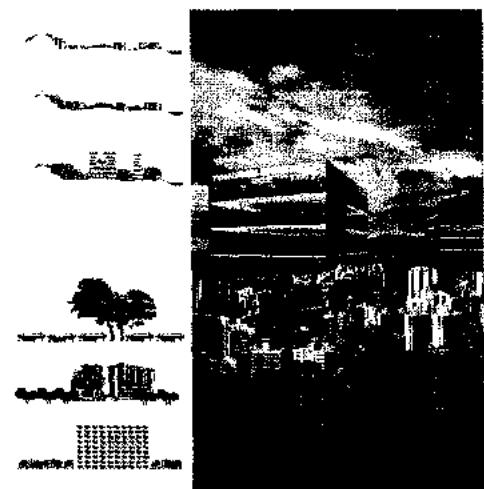
BZ. 한국의 바깥에 있지만 한국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생치킨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한국의 도시와 건축에 어떤 입장인지요.

저희의 근원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인들 속에 섞여 있으면 그 모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만나는 프랑스 사람 몇명이 프랑스 한 국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긍정의 힘으로 나타나지만, 베타적인 곳에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감출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우리의 본질이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도시와 건축에는 다양한 시행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통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이 섞여 있는 곳도, 자기 색을 강하게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사조 보다는 재료의 유행이 자배적인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장재만 봐도 언제 지어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정치가 하나의 문화적 요소가 되어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크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광식을 가질만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규모에 비례해서 일의 규모가 나눠지는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디자인 경쟁력을 키우자면 큰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꽂아가기를 기대합니다.



Random Access + Formal Purity : St. Paul Church in Rakvere ESTONIA



술 : 용산공원, Seoul KOREA

## 프로필

Ginseng Chicken Architecture P.C.는 뉴욕을 거점으로 안지용과 이상화에 의해 2008년 설립되었고, 2010년 AIA NY Design Award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한 Stratford Information Kiosk 국제 현상공모에서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뉴욕 79가에 위치한 32층 Hampton House 리노베이션을 디자인 중이다.

안지용은 흥익대학교 건축학부를 졸업후 서울건축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뒤, Univ. of Michigan에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Rafael Vinoly, Pei Cobb Freed, EYP에서 실무를 쌓았다. 뉴욕과 메사츄세츠 주에 건축사로 등록되어 있다.

이상화는 U.C. Berkeley 건축학부를 졸업 후 경북대학교와 Columbia University에서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뉴욕 1100 Architects에서 실무를 쌓았다. 친환경 자격증(LEED AP)을 소지하고 다양한 재료에 관한 실용적인 접근을 연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ginsengchicken.net](http://www.ginsengchicken.net) 이메일 : [jan@ginsengchicken.net](mailto:jan@ginsengchicken.net)



## [The Living] 뉴욕, 미국

AX.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작업을 하고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다. 약간 외람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가장 도전적인 측면은 가족에 관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일년의 약 1/3을 서울에서, 2/3를 뉴욕에서 지내고 있다. 와이프는 뉴욕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름에 약 석달, 겨울에 약 한 달. 그리고 중간중간 1~2주일씩 몇 번을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실히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최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가장 힘들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본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위의 많은 건축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많은 도전들은 선배나 동료의 이야기를 통해, 또는 건축가의 작업과 그 과정을 다루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가정생활에 관한 일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일이 많아지거나 흥미로워질수록, 건축가들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행기로 열 두시간 떨어져 있는 두 도시를 상대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문제는 오히려 가족의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다. 언젠가는 (사무실) 식구들을 어느 곳에 위치시키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 될 것 같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5년간 꾸준히 발전시켜오던 인터랙티브한 작업들을 작년에는 굉장히 공공적인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서울의 Living Light와 뉴욕의 Amphibious Architecture가 그것이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작은 스케일의 작업이었지만, 환경부 대기질 정보와의 연동 과정의 행정절차, 건물의 입면에서 일어나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처리와 디스플레이, 굉장히 독특하고 폐쇄적인 전파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의 의사소통, 전기/전자 장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수상에서 구현하는 것 등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모두는 더 스케일이 크고, 더 의미있는 작업을 상상하고 실행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BX. 실무적인 작업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인 연구 방향 등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인터랙티브한 작업에 대한 리서치를 주로 진행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수업의 내용에 대해 약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앞으로 몇 년간은 한국의 아파트나 신도시 개발문화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학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추가 분양을 통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도시적으로도 건강한 재건축 모델을 생각해 보는 작업을 학생들과 진행했다. 리서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적인 변화 중,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가장 심각



Lifecycles 1 : 재생 플라스틱과 이끼가 Google 검색 패턴에 의거해 한 달간 한 평의 방으로 자라는 건축



Lifecycles 2 : CNC 이끼 머신이 Google 검색 패턴에 의거해 이끼 배양액을 뿌리는 모습



Living Light : 서울 대기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건축



Amphibious Architecture : 뉴욕 수질과 수중 생태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건축

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일본과 같이 노령화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수도 근교 신도시의 불량까지도 가지고 오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가능하다. 2011년 봄학기에는 현재 자별 건설사와 약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서울 근교 신도시에 진행하고 있는 개발업자의 후원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사회구조를 예측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모델에 관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 학생들의 약간은 무지하고 약간은 신선한, 객관적인 시선이 우리 건축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려. 외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가 우리 도시와 건축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예전에 실제로 짓는 건축작업을 지향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리서치와 실험적인 작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씩 클라이언트를 통한 건물 설계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물을 설계하면서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나는 LED나 문자메세지가 근본적으로 대리석과 그리 다르지 않은 건축 재료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때 적절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건축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톨레이션이나 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직 예기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은 부딪히며 배우고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해 본다.

**BZ**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앞으로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혹은 한국의 도시와 건축에 어떤 입장인지요.

굳이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는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시대, 문화, 지리, 사회 등)에 대한 명확하고 진지한 인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디자이너보다는 작업 자체가 적절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보다도 활씬 더 구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홍콩과 선전에서 진행한 Street Life는 중국 남부지역이 거리음식 문화가 발달했으며, 전 세계적인 LED 생산자라는 사실에서 착안한 작업이었다. 지난 여름 INDAF(인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업했던 Lifecycles는 인천 송도가 갖는 신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부각시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재료와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도 그때 그때 선택해서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같이 막연하고 인위적인 범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의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논의를 한국을 넘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미국 건축계와 학계로 확장하여 진지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프로필

양수인은 2004년 데이빗 벤자민과 함께 더리빙(The Living)을 결성하였다. 더리빙은 오픈소스적인 실험과 다양한 협력작업을 통해, 손바닥만한 인터페이스부터 도시블록 단위의 건물까지를 디자인 한다. 그들의 작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에서 출판, 전시되었다. 더리빙은 현재 미국 뉴저지에 15,000 평 규모 주상복합 건물 설계를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수중생명체의 존재와 수질의 변화를 알려주는 은은한 빛의 구름을 뉴욕의 강에 띄우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양수인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와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에 출강 중이며, 동 대학원 산하 리빙건축연구소의 공동 소장직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 [www.thelivingnewyork.com](http://www.thelivingnewyork.com) 이메일 : [yangsooin@gmail.com](mailto:yangsooin@gmail.com)



House Of Doors : 90% 재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가 작업실



## [eu concept] 뉴욕, 미국

AX. 건축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기획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u concept의 활동 영역과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 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개인 Practice를 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기에 개인 클라이언트를 만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따라서 의뢰받은 일이 없다면 버티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저는 베터리파크시티 마스터플랜으로 유명한 뉴욕의 도시설계 회사인 EE&K에서 아시아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한편 개인 실무조직을 아래와 이끌면서 다양한 기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상설계 참여와 특히 도시설계와 공공공간의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구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것보다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저런 인연이나 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한국건축담론에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축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기획을 현재까지 제 실무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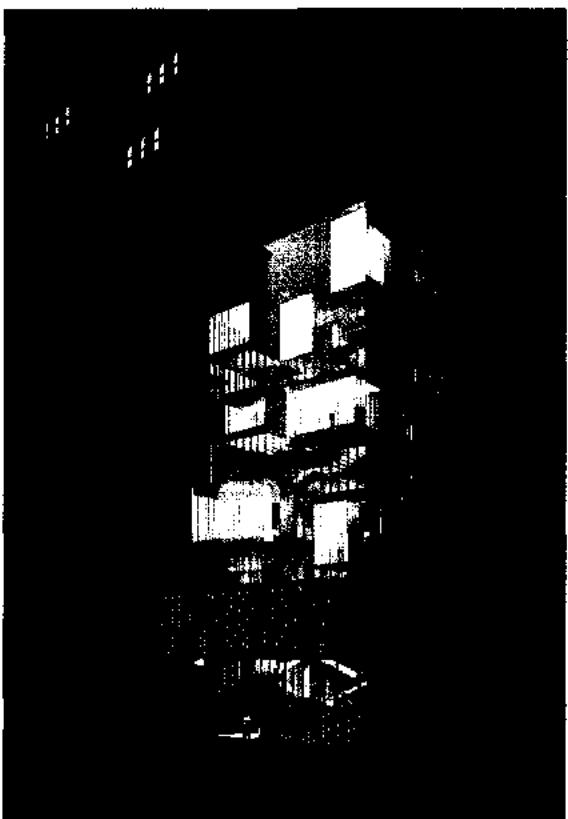
아쉽게도 아직까지 건축설계적인 성취는 미흡합니다. 이러저저한 공모전의 수상과 경력들은 좋은 건축을 디자인하기 위한 밀커룸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한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건축가들과 함께 만든 [AT\*10: Ten Emerging Korean Architects] 책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뉴욕의 젊은 건축가들과 의미있는 작업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공동으로 꾸는 꿈과 실천이 의미가 있는 때가 오겠지요.

AZ eu concept의 디자인과 글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인지요.

현재 eu concept의 상황도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관심있게 보게되는 것이 과연 Young Practice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입니다. 해외에서의 젊은 건축가의 실무는 어떻게든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한편으로 주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영역으로 본다면, 디자인과 글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경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경계를 좀더 풍요롭게 하여 중심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경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으로 '점진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어휘와 실무적인 방법론 모두 점진성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시설계와 공공분야의 공간들은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



상해 North Bund 강변에 지어질 레스토랑 (EEK Architects의 프로젝트 아키텍트로 디자인)



BAU건축과 협력하여 디자인한 뉴욕 한국 문화원 공모 엔트리



뉴욕 Westchester County에 리노베이션 디자인하여 완공된 J's House

진적인 변화를 그 경계의 깊이에 적용을 하여 해결해 나갈때 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공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 BY. 앞으로 어떠한 작업 방식을 갖을 계획인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직원을 여려명 두고 하는 사무실 이전까지는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셰어(Share)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한 관심사의 젊은 건축가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공동의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너지를 통해 더 다른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지니까요.

#### B2.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앞으로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혹은 한국의 도시와 건축에 어떤 입장입니까.

두가지 방향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도시 건축 상황, 사회상황은 좋고 나쁨을 떠나 저의 작업의 에너지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한국은 그 안에서나 밖에서나 활동의 무대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내와 해외의 구분보다는 얼마나 의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작업으로 한국의 노시와 건축이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조경회사 그룹한과 공동 작업한 동탄신도시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서울시 벤치 공모전 당선안



#### 프로필

지정우는 인테리어 아키텍트인 부인 서주리와 함께 설립한 스튜디오 [eu concept]의 파트너로 소규모 프로젝트 작업과 공모전, 기획, 강의 등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며, 2004년부터 이어온 블로그를 통해 소통해온 건축 동료들이 서울에 만든 BAU Architects의 뉴욕 파트너로 활동하며 한국과 뉴욕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8년 서울시 주최의 벤치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2007년 서울시 가로 시설물 현상설계에서 2등 수상, 고려대에서 건축 학 석사를 마친후 JAD 디자인연구소에서 인테리어부터 건축 환경디자인을 맡아 연구했으며 Cornell University에서 Master of Architecture로 학위를 받았다.

2009년 월간 건축잡지 C3의 300호 기념 단행본인 [NoDie Island]의 기획, 2006년부터 '세계속의 젊은 한국 건축가(Another Scale of Architecture)'를 기획, 진행하여 월간 건축문화에 연재 한 후 2010년 9월[ AT\*10 Ten Emerging Korean Architects]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블로그 : <http://kr.blog.yahoo.com/jungwooji> 이메일 : jungwooji@gmail.com

## [N.E.E.D.] 뉴욕+서울, 미국+한국

AZ 김상목 씨는 건축 출신이지만 조경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건축과 조경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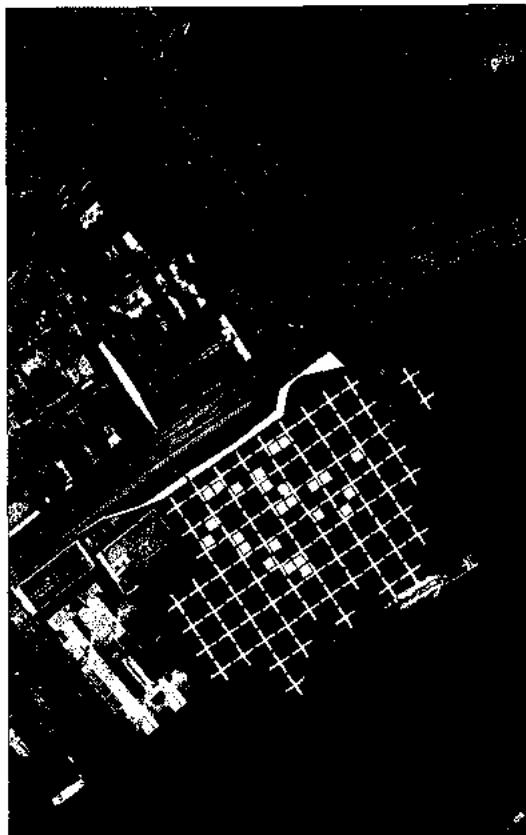
조경디자이너로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오다보면, 건축을 제3자의 입장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직종으로서의 조경디자이너의 활동환경이 건축가에 비해 상당히 좁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면허체계를 통한 법률의 문제, 프로젝트 계약의 문제, 또는 책임소재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직종간의 경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N.E.E.D.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건축이라는 현재까지는 좀 더 큰 규범적 경계 안에서 한계를 두지 않고 조경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들을 시험하고 실현해보고 싶었던 점에 있었습니다.

AY 프로필에도 나와 있듯이, N.E.E.D.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도시관련 리서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간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바라는 건축을 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건축주와 건축가의 달혀진 관계에서 벗어나 건축가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그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열린 관계를 만들기 원합니다. 도시관련 리서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밀작업으로 학교 강의를 통한 아카데믹한 도시 읽기부터 저희 스스로 관심있는 건축/도시의 이슈들을 차근차근 추적하고 저희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롭고 신나는 '판'을 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Z 뉴욕의 김상목 씨와 한국의 김성우 씨가 파트너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어려움 등이 쉽게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파트너십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전이 되고 어떤 작업 방식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N.E.E.D.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저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건축작업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같은 프로젝트의 협력관계로 만나 현상설계 등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었고, 별도의 개인작업 등을 통한 의견교환을 지속해 왔기에 물리적 거리에 의한 의견교환의 불편함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이 있음으로 인한 협업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자의 독립성의 유지도 필수적인데 거리감과 시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독립성의 유지가 저희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기에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교환함으로써 자극을 줄 수 있고, 뉴욕과 서울의 시간차로 인해 낮과 밤이 뒤바뀐 상황에서 낮 시간 동안 작업한 내용을 저녁에 온라인을 통해 교환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작업하는 식으로 각자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저희 나름의 작업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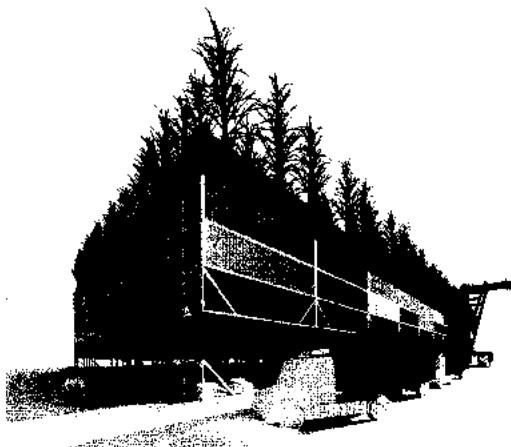
Fish(WORKS), South Street Seaport, New York NY, 2008.



디제,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0.

BX. N.E.E.D에게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장점은 무엇인지요. 앞으로도 뉴욕을 기반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뉴욕이 다른 여타의 국제도시,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무의식적으로 강요되는 지방색이 약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원의 희소성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과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진행되어온 한국과 미국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도 한국인으로서 뉴욕을 쉽게 이용하면서, 작업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후 역사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미국과 한국은 벌써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질화 되었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뉴욕의 중성적 도시성과, 한국과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문화적/경제적 동질화는 물리적 위치에서 오는 작업의 차이를 더 좁힐지 않을까 합니다.



Trees to Go, Container Housing, Newark NJ, 2008.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 랜드스케이프를 관통하는 N.E.E.D.만의 개념과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최근 조경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의 경향을 보면, 건축과 조경간의 통합적 아이디어가 10년 넘게 누적되어 상당부분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건축가와 조경디자이너의 협업 혹은 건축가의 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조경디자이너의 건축 작업, 즉 전혀 다른 학문적 근원지에 바탕을 둔 건축 작업과 이론화는 크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미적 기준과 근거에까지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이기에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BZ.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 혹은 마켓이 앞으로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혹은 한국의 도시와 건축에 어떤 입장인지요.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며 한국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바라본 한국은, 그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면서 동시에 전후 복구과정에서 근대건축의 이념이 빠른 속도로 구현된 장소이기도 하고, 현재는 '녹색'이라는 슬로건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폭력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개발의 속도, 폭력성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와 적응력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생명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잠재성에 비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시모형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테두리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건축가로서 점점 정체되어가는 근대도시의 새로운 미안으로서 한국 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도시모형으로 구체화 하여 밖으로 알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 프로필

N.E.E.D.는 2007년 김상목, 김성우에 의해 뉴욕과 서울에 설립된 건축/조경/도시설계사무소이다.

김상목은 서울대학교와 Columbia University에서 수학하고, Balmori Associates를 거쳐, 미국 건축사로 활동 중이다.

김성우는 서울대학교와 Berlage Institute에서 수학하고, Architekten Cie, 정림건축, dmp partners를 거쳐 네덜란드 건축 사로 활동하며, 현재 한국종합예술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설계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n-e-e-d.org](http://www.n-e-e-d.org) 이메일 : [sangmok.kim@n-e-e-d.org](mailto:sangmok.kim@n-e-e-d.org)

## [AnL Studio] 뉴욕, 미국

AX 안기현 씨는 이민수 씨와 뉴욕에서 게릴라성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벨기에와 호주,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작업 중입니다. AnL 스튜디오에게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의 컨텍스트는 남다르리라 봅니다. 안기현 씨만의 지역적인 영역이나 작업적인 영역을 설명한다면.

글로벌 혹은 로컬 컨텍스트 중 하나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건축가와 비슷하게 장소(지역적)의 문맥, 역사, 그리고 문화들을 수용·이해하며 저희의 프리즘(Global&Local)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영감·직관·해석)을 통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었기에 어느 하나에 더 무게를 준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프리즘(작업방식)도 한가지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지처럼 유연하게 흡입할 수 있게 항상 기술·지식에 습득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AnL studio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룬 성취라는 질문이 이제 시작한 저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질문에 답하자면 어느 특정 프로젝트로의 성취보다는 건축가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그릇은 하나하나의 작업으로부터 그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또 그 외의 갖추어야 할 새로운 그릇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저희가 하는 작업에 자신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의미있는 성취인 것 같습니다.

AZ 젊은 건축가들은 실제로 짓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접근이 더욱 어렵고요. 그러나 AnL은 특히 파빌리온을 실제로 짓는 기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의 자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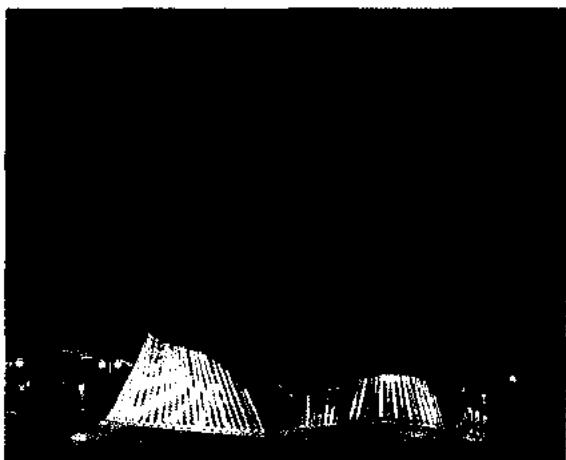
건축가로서 도시, 지역 혹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제시한다거나 권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저희를 매혹시키는 것을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혹의 대상과 묘사가 주어진 필요조건에 대한 충족,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하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매혹된 것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자세를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 아니 그 이후까지 고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BX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파빌리온 이외에 어떤 영역을 다루고 싶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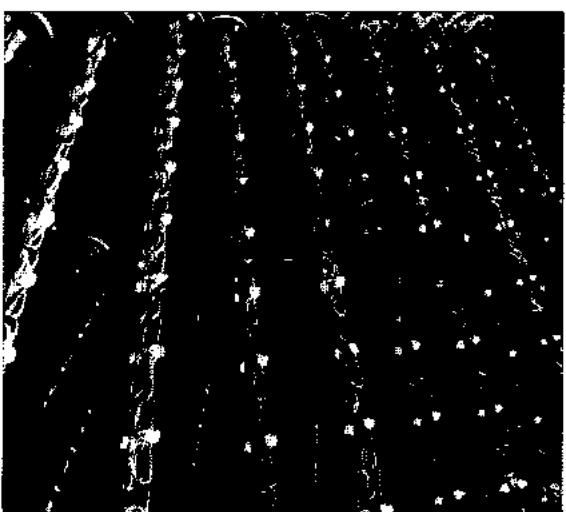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희가 매혹한 것들을 특정 지역·작업·스케일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작업하고 싶습니다. 만약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이미 파빌리온 형식의 조형성이 강하고 작은 스케일의 작업을 해보았으니 좀 더 스케일을 키워나가면서 보다 건축적인 접근으로 여러 요건들에 대한 매트릭스들을 만들고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Oceanope-01-overview, [Inchoen, 2010. 1월 완공]



Ligetwave-01-overview, [Brisbane, Australia, 2010. 10월 완공] The main installation for Unlimited: Designing Asia Pacific – Design Triennial (As the performative kinetic lighting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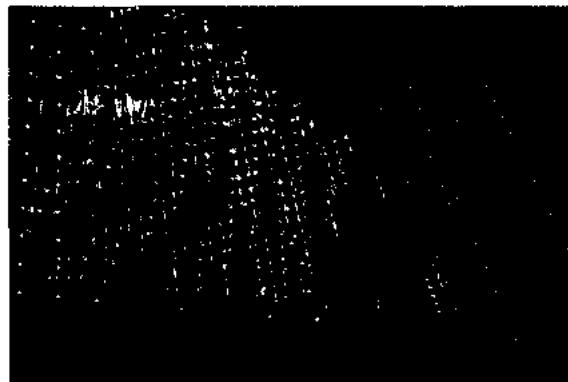
Lightwave-02-conceptual collage

BY. 게릴라성 스튜디오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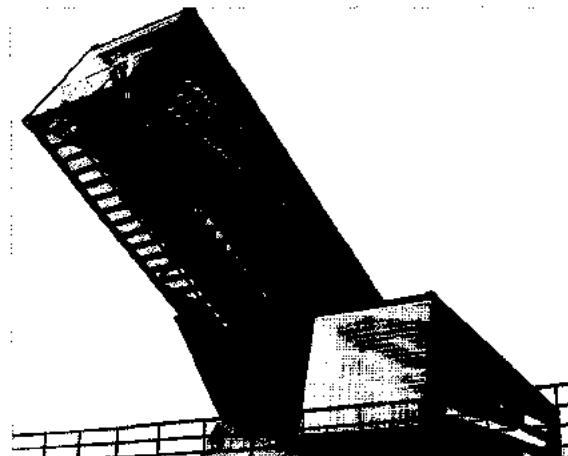
게릴라성 스튜디오라 병명하고 자주 묵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조직구성이나 소통은 그때그때 날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지만 다른 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큰 공모전 혹은 그외의 작업을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2. 한국 출신의 젊은 건축가는 세계 어디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AnL은 한국의 오션스코프 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국에 대한 접근을 실무적 차원, 담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예정인지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접근을 해외에서의 접근과 다르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건축가로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시도하든지 항상 수많은 쟁쟁한 건축가와 경쟁하는 것, 그리고 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부딪히며 살아남아야 함은 어디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만의 특수함이 있을 것이고 해외의 어느 나라는 다른 특수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이 조심스럽고 힘든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 언어적인 현실, 조건을 어기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보니 같은 제약이더라도 더 크게 죄이오는 것 같으며 그로 인해 상상의 폭에 스스로 많은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선입관, 스스로의 벽을 허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Lightwave-03-interactivity



Oceanscope-02

## 프로필

AnL studio는 뉴욕·서울을 거점으로 안기현과 이민수에 의해 2009년 게릴라성 스튜디오로 설립하여 계속 운영 중이며 2010년 1월 완공된 오션스코프(인천)는 2010 Red Dot Award에서 Best of Best로 선정되었으며, 호주 브리스번의 Design Triennial의 Main Installation 초청 설계경기에 대상을 수상한 인터랙티브 파빌리온, 라이트웨이브를 올 10월에 완공하였다.

안기현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후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뒤, U.C.Berkeley 건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 Asymptote Architecture에서 3년간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등 세계 각지의 프로젝트에 메인 디자이너로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였으며, 현재는 유럽(벨기에/독일)에서 프리랜싱 건축가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민수는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부 그리고 NYU ITP에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석사과정을 졸업 후 미국의 Asymptote Architecture, Leeser Architecture, Howeler+Yoon Architecture 등 다양한 건축사사무소에서 디자인 실무를 배운 뒤 현재 뉴욕에서 인테리어/인터랙티브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AnL studio는 물론 Tangible.com을 운영 중에 있다.

홈페이지 : [www.anlstudio.com](http://www.anlstudio.com) 이메일 : ahnkee@gmail.com



## [INOKNOLL] 아틀란타, 미국

AX.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아틀란타에서 비교적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젊은 건축가 사무실과 다른 작업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이민자의 사회에서 건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삶을 위한 기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최상의 과제이고 이것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시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초기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건물이 장기적으로 오너(Owner)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적합한 디자인과 디테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때문에 건물의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AY. 지금까지 이룬 INOKNOLL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디자인 빌드(Design Build)로 영역을 확장해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다보니,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해 졌고, 공사에 있어서도 건축가 출신의 시공자가 주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점을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점차 주류 사회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지금은 시공부분이 독자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Z. 사무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실무적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디자인과 빌드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일관적인 건축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용이다. 사용이나 관리에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면에서 사용자나 오너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Paragon Shopping Center / Duluth, GA / Retail / 170.000 SF



금호 타이어 / Macon, GA / Industrial / 1,000.000 SF / 한티인 공동작업

BX. 미국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계일 수도 있는데, 한국 출신의 젊은 건축가로서의 지역성에 대한 큰 도전은 무엇인지요.

주류 사회에 대한 노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처음과 비교하면 지금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즈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돋는 일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면서 현지사정에 정통하다는 장점때문에 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과 CM에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구상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까지의 과정은 오너, 건축가, 시공자가 각자의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 밸드에 디벨로핑(Developing)까지 더할 수 있다면 모든 건축 주체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건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설계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전문화된 다양한 부분이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또 다 할 수도 없다. 잘 모르면서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Star Tower / Buford, GA / Office / 500.000 SF



UMC Church / Duluth, GA / Office / Construction - Private

## 프로필

현재 INO Architects 대표, KNOLL Construction 부대표

Registered Architect, State of Georgia and Alabama

General Contractor of Georgia State

LEED Accredited Professional

Master of Architecture, Illinois Institute Technology, Chicago, IL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홈페이지 : [www.inoknoll.com](http://www.inoknoll.com) 이메일 : [jhpark@inoknoll.com](mailto:jhpark@inoknoll.com)



## [SsD] 보스톤·뉴욕, 미국

AX. SsD가 타 젊은 건축가 사무실과 다른 작업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대부분의 젊은 건축가들과 같이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 디자인의 각 영역뿐 아니라 비지니스, 구조, 환경 등 다른 분야들과의 새로운 방식의 협업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해결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리서치도 우리 실무 작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박진희 씨, 혹은 SsD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디어에 소개된 것이나 수상 등이 큰 전환점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들이 그다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HBNY는 '클라이언트'를 '유저(User)'로 인식하여 특정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하는 디자인이 아닌 볼록 정 다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온 작업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유저는 전통적인 건축디자인 신부와 산업디자인 실무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8 towers가 나왔고요(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봐 주십시오.) 성취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사건은 AIA Young Architects Award를 수상하고서 Boston Globe의 건축비평가인 Robert Campbell이 저에 대한 기사를 색션 전면에 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호평이였지만, 비평가였다 하더라도 젊은 건축가의 길지 않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에 저명한 비평가가 평가를 힘으로써 힘을 실어주었던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Z. 주택에서부터 공공프로젝트, 인스톨레이션에 이르기까지 SsD의 작업들을 관통하는 태도나 개념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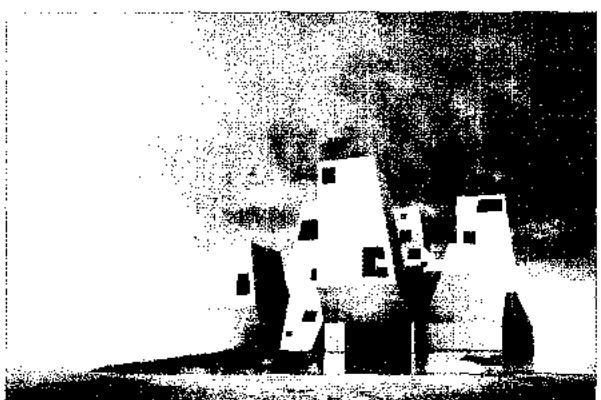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항상 새로운 해결안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인데, 군더더기 없는 절제된 해결안을 찾으려 합니다. Sustainable Minimalism이라 명명하였는데, 디자인의 미적기준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미니멀리즘입니다.

BX. SsD에게 보스턴과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장점은 무엇인지요. 앞으로도 두 도시를 기반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두 도시에 사무실이 세운 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각 도시의 장점이라 한다면… 보스턴의 단단한 인재력과 뉴욕의 디자인에 대한 개방성…? 학교 졸업 후에 우연한 계기로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다가 뉴욕에 프로젝트들이 생겨서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상주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곳의 회사를 크게 키우는 대신에 작게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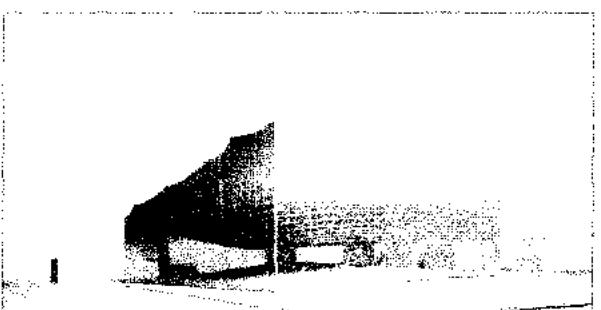
HBNY, NYC, U.S.



8 Towers, Ordos, China



Braver House, Newton, U.S.



Czech Library, Prague, Czech Republic

해서 여러개를 하자는 것이 우리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장점은 프로젝트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보스턴과 뉴욕에 사무실이 있으나 이제까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의 위치가 겹치지 않을 정도로 프로젝트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여전히 되면 사무실을 세우려 합니까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것은 퀘리언트에게 안정감을 주고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점점 더 사무실의 위치는 그 의미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뉴욕에 오피스가 있어도 생각 뉴욕에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직원들과는 매일 매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저는 지금은 주로 뉴욕에 있지만 작년에는 보스턴에 많이 있었고, 내년이면 서울이 될지 모르지요.



Big Dig House, Lexington, U.S.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학생들과 작업 할 계획인지요.

버려진,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하려 합니다. 지역의 주제성을 찾는 과정은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카고의 IIT 등 몇몇 학교에서 진행했던 스튜디오의 제목이 'Finding Waste Land'였는데, 여기서 Waste Land는 일반적인 뜻인 오염된 땅이라는 뜻뿐 아니라 비려진 땅의 의미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버려졌던 곳의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같은 주제로 현재 갈라파고스(Galapagos)군도를 사이트로 해서 다음 학기에 하버드에서 스튜디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으로 사이트를 잡으려 합니다.

B2. 한국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전시도 기획하고, 한국에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 SsD에게 어떤 대상인지요.

현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건축은 세계의 주목을 끈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서 한국에 어떤 건축물이 좋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건축계가 발전하려면 생신되는 양에 적합한 다양한 분석, 평가들이 나와야 하죠. 또한 그것들을 국제적으로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하버드대학에서 기획했던 <Convergent Flux, Korea>전은 그런 맥락으로 매우 깊은 작업이였고 Birkhauser에서 책 출판을 제의함 만큼 다행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고 현재 우리가 디자인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밖에서 들여다보는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의 건축가들을 자주 접하면서 생기는 관찰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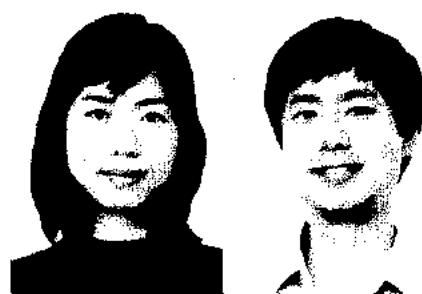
## 프로필

보스턴에서 시작한 박진희, 존 흥 부부의 건축사사무소 SsD는 최근 뉴욕으로 사무실을 확장 시켰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협동적인 벤처의 형태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간다. 박진희와 존 흥을 비롯해 2명의 인원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SsD는 건축, 풍경, 역사, 사회 체계, 법률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재료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는 것을 기본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 <Metropolis Magazine>, <Dwell Magazine>과 같은 주요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것과 함께 AIA Young Architects Award(2006, 2009), Young Architects Forum Award(2007) 등 저명한 디자인 상도 빙았다.

또한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등 많은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강의와 전시를 해오고 있다.

홈페이지 : [www.ssdarchitecture.com](http://www.ssdarchitecture.com) 이메일 : [jinhee@ssdarchitecture.com](mailto:jinhee@ssdarchitecture.com)



## [Choi + Shine Architects] 보스톤, 미국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이 베풀어준 것은 일상의 모든 사물과 환경을 보다 의식적인 관찰과 판단을 통해 더 느끼고 더 배우는 풍요로움입니다. 저희는 사물과 장소를 보면서 더 아름답게, 더 기능적으로 만들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저희에게 이것은 훌륭한 도전이자 열정을 다할 의무입니다. 건축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디자인 접근은 저희에게 건축물에만 한정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스타일과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건축 디자인 이외에도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구조 설계, 편집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작업의 범위가 앞으로도 더 넓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Z. 주택작업 등 Build Work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보스턴 AIA에서 Unbuilt Award를 받은 송전탑이지요. 서로 다른 작업과 분야를 넘나들 때 일관된 작업 논리나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열심히 생각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혹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해결안이나 개선안이라 믿는 바를 즐거운 작업을 통해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 장소로 만들려 합니다.

BX. Choi + Shine Architects에게 현재의 Local Area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적인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는 젊은 건축가들도 많습니다만, 최해진 씨의 로컬과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적, 지리적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지역성의 표현이 개발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Designed in California', 'Designed in Tokyo' 등으로 상품화되고 개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것이 세계적이 되고,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파트너십과 조직 등 작업방식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의 개념적 프로젝트들이 실제 건설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작업 분야의 다양화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BZ. 사무실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건축, 디자인 매체에 소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한국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접근, 시선은 어떠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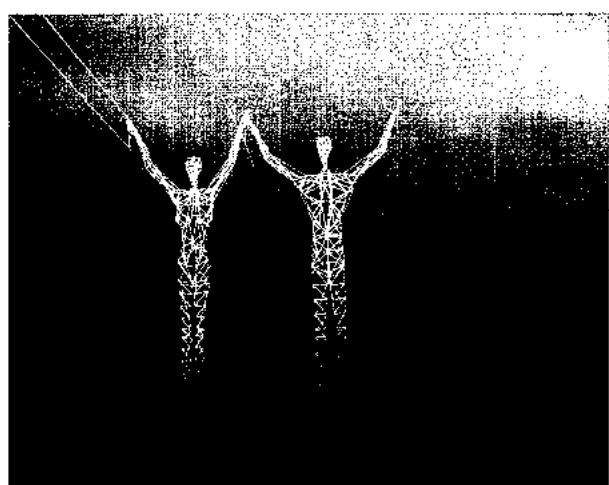
한국의 현대 건축에 대한 열정과 디자인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실험적인 정신이 건축



'Land of Giants™': 2008년 아이슬랜드의 Landsnet이 주최한 '고임전선 송전탑 디자인 국제 설계경기', Design Recognition 당선작, 2010년 Boston Society of Architects의 'Unbuilt Architecture'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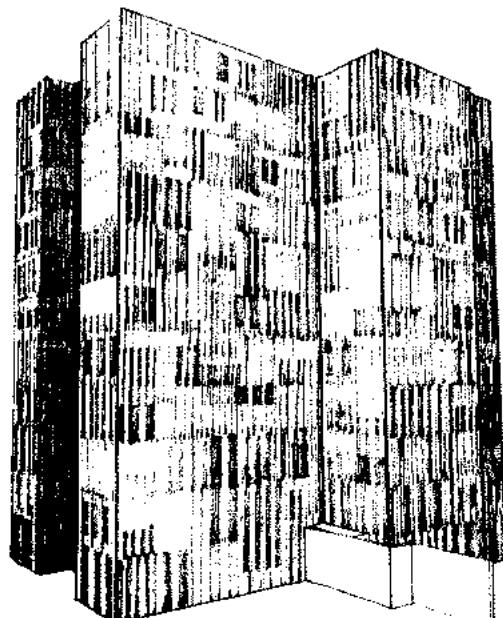
'Land of Giants™': 조립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자세와 표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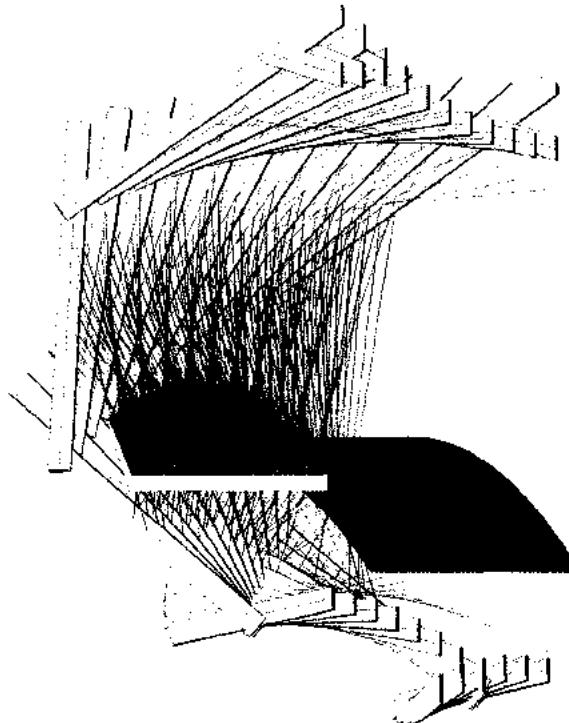
'Land of Giants™'

물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놀랍고 뿌듯합니다.

최근 발표된 건축물의 배경으로서의 경희궁의 사진을 오랜만에 접하게 되었는데, 온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한국인 건축가로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otel 10', 디자인 초기 스케치.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가 주최한 'Parkway Iconic Bridge Design Competition' Entry, 2007년.

## 프로필

2004년 미국 보스톤에 세워진 최+샤인 건축은 두 창업 건축가의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정신과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디자인으로 현실화시킨다.

최혜진은 한국에서 MFA를 취득하고 미국 Yale대학 건축과 석사과정 졸업한 후, 보스톤의 Moshe Safdie and Associates와 Leers Weinzapfel Associates 등의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최+샤인 건축의 소장이자 보스톤의 Suffolk 대학의 Adjunct Faculty로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샤인은 건축에 종사하기 전 Bio Tech과 Engineering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여러개의 국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미국 Yale 대학 건축과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보스톤의 SBRA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최+샤인 건축을 창업하였다.

홈페이지 : [www.choishine.com](http://www.choishine.com) 이메일 : [jchoi@choishine.com](mailto:jchoi@choishine.com)



## [Ethership] 보스톤, 미국

AX. 다른 젊은 건축가 사무실과 다른 작업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대부분의 젊은 건축가와 비슷한 고민과 방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들 중 이 시점에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건축을 기점으로 다른 분야의 접목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아티스트 손예민 씨의 기획으로 진행된 ‘듀얼미라지’ 프로젝트에서는 소설 형식을 빌어 건축공간을 풀어냈습니다. 아티스트 정소영 씨와 했던 ‘Unrealized Project’ 프로젝트에서는 퍼포먼스 형식을 빌어 건축적 의미를 아트워화 했었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는 ‘에테르아트’를 또한 이러한 시도들의 결과물을 인데요. 그 시작은 건축적 상상인데 작품을 해내가는 방식에서는 현대수학, 애니메이션 모핑기법, 컨템포러리 지오메트리 등 건축외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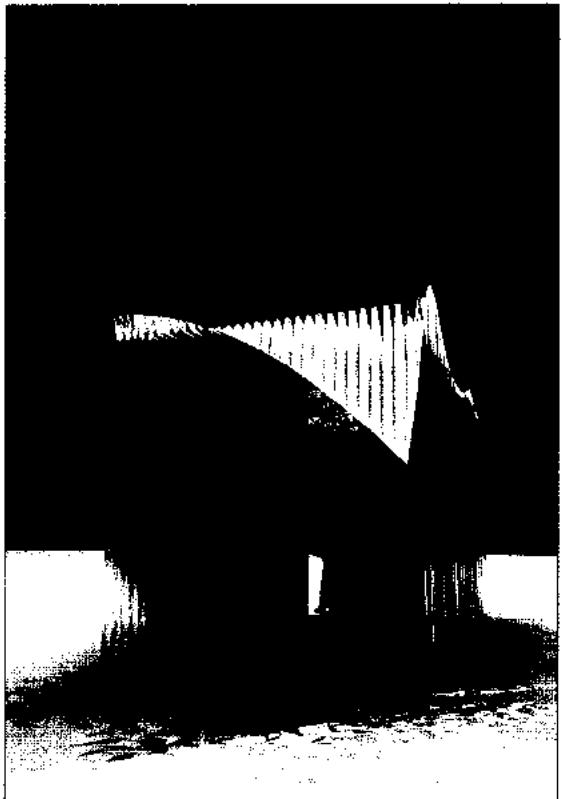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국제건축가연맹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성과 자체도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깊었습니다. 기사화되면서 몇몇 비건축인들에게 격려의 연락을 받았었는데,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새만금의 갯벌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해법 제시에 어느정도 사회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디자인과 사회성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볼 수 있었고, 지금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AZ. 콤파티션이나 어워드 등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은 그만큼 젊은 건축가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느 면에서는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젊은 건축가로서는 즐거운 혜택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그 문화와 역사, 얹혀진 육망 등을 찾아내고 알게되는 것에서부터,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사용자의 사적인 생활, 특정계층의 사람들의 행동패턴 등 발견하고 배우게되는 경험과 지식들이 즐겁게 욕구를 채워줍니다.

BX. 국가간의 경계와 상관없이 능력을 펼치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젊은 건축가로서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지요.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 지역의 건축철학과 그 장소의 문화, 역사, 철학이 잘 연계되어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을 많은 시도들과 단계들은 즐겁게 거쳐야할 숙제들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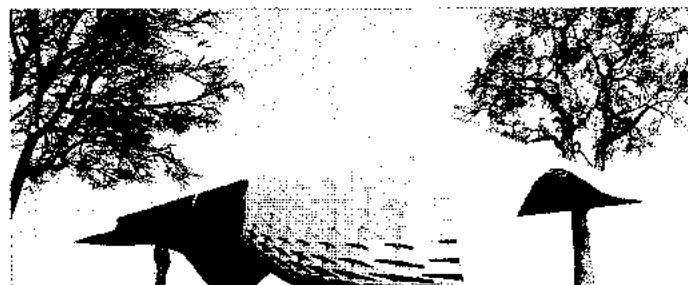
move vague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파트너십 혹은 조직 등 작업방식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으면 하는 것은 언제나 가져왔던 바람입니다.

BZ. '아젠다'라는 디자인 그룹의 모임을 주도하며 매년 전시회도 열고 한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한국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건축가들이 실험과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대한민국 건축을 대표하는 기회들도 있어야 하겠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다양성도 생길 수 있고, 유연함도 생기며, 다양한 방식의 건축이 존재할 때 서로를 인정하며 협업을 통해 뚝특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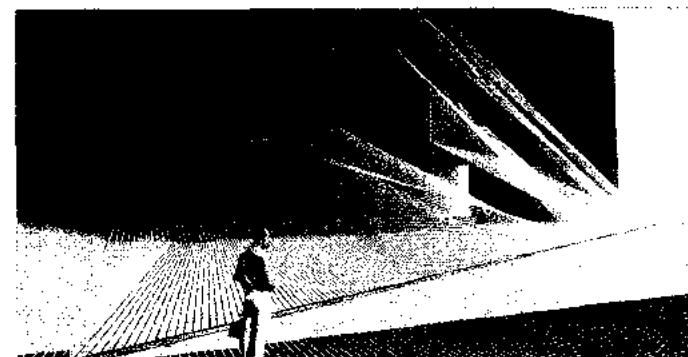
mass cavity



holocaust memorial



nature grain



tracing history

## 프로필

양성구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스위스 헤르조그 앤 드메론과 미국 마처도 실베티에서 실무를 익혔다. 2006년 UIA 국제공모전 'Celebration of Cities 2'에서 전문가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2007년 미국 BSA가 주관한 'Unbuilt Architecture Design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뉴욕 건축연맹이 수여하는 'New York Young Architects Award'에 선정되었다. 같은 해 광주비엔날레 초청작가로 선정되었다.

홈페이지 : [www.yangsunggoo.com](http://www.yangsunggoo.com) 이메일 : [sunggeoyang@gmail.com](mailto:sunggeoyang@gmail.com)



## [c2 architecture studio] 워싱턴 D.C. · 디트로이트, 미국

AX. 다른 젊은 건축가 사무실과 구분되는 c2 architecture studio만의 작업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저는 c2가 어떤 정해진 틀에 얹매이지 않고 항상 신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였으면 합니다. 예산, 건물의 프로그램, 대지 조건 또는 문화적인 이슈 등이 많은 경우 제약이 되지만, 저는 이런 제약 속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경계를 넘나들며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작업에 있어서 끊임 없는 실험과 깊은 탐구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나 c2 만의 특별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이지요.

AY. 지금까지 이룬 c2 architecture studio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성취 한가지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건축이 참 흥미 있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매번 각각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마다 “음… 다음 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는걸…” 하는 여운을 항상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지금 보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해 항상 자신을 준비하고 다음 기회를 갈망하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의 건축 작업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들, 또한 여전히 저의 미래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AZ.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오면서 작업과 Practice의 어떤 태도가 현재까지 사무실을 이끌어왔다고 보십니까.

저의 많은 탐구와 실험적인 작업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응용되고 큰 개념적인 블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끊임 없는 의구심으로 실험하고 만들며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지요. 저의 모든 작업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시간과 공간, 환경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집요한 질문들입니다.

BX. 미국 내에서 서로 다른 캐릭터인 미시건과 DC를 배경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지역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의도적이었다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들에 의해 결정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개인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부 도시 디트로이트는 저에게는 마치 American Wild West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건축가인 저는 이곳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현재는 워싱턴 D.C.에서도 많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워싱턴 D.C.는 무척 다른 색깔을 지닌 도시들이고, 물론 서로



WarehouseBarn; Memory Quilt / Investigation of live-work / Exterior View



M-1 Light Rail Stations, Detroit, Michigan / Station View / 12 stops with 23 stations along Woodward Avenue



Dentalium, Plymouth, Michigan / Dental Office Renovation and Addition / Exterior View

다른 도시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디서 작업을 하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의 건축이 각각의 도시 특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사부상의 물리적인 장소에 관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전에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네크놀로지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협동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적 제한을 넘어선 넓은 네트워크가 저의 커다란 경쟁력입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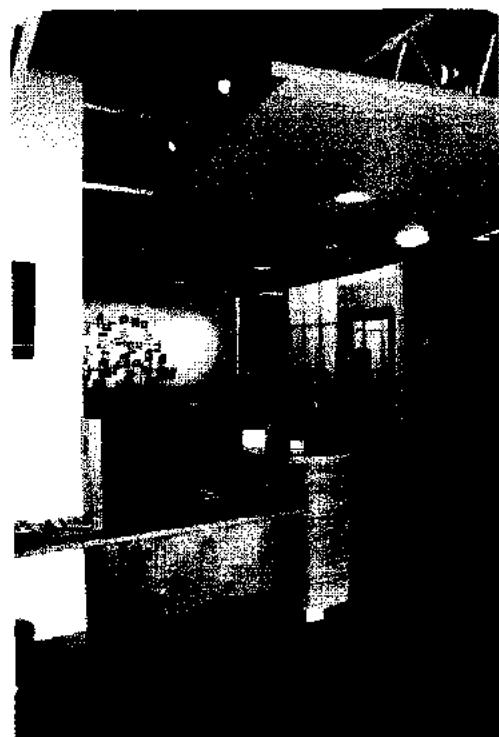
저는 앞으로도 저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풍부하고 다양하며 많은 건축적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c2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조경, 문화 인류학 그리고 재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함께 작업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BZ** 다른 한국 출신 젊은 건축가 오피스에 비교하면 이곳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만큼 프랙티스에 유리한 점이 없지 않으리란 생각입니다만, 미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한국 건축 혹은 건축 시장에 대한 접근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국 건축 혹은 사회에 대한 시선을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메가시티는 우리 건축가들에게 언제나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밀도의 서울은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속에서의 저의 건축작업은 기존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죠. 아직 까지 한국의 건축 담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서울과 같이 거대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디트로이트와 같은 점점 축소 되어가고 있는 도시와 비교하며 탐구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 있고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한 이슈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건축을 논의 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건축사」지 특집의 참여와 같은 노력이 앞으로 제가 한국 건축계와 보다 많은 소통을 시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Virgil Carr Cultural Arts Center, Detroit, Michigan / Adaptive Re-use / Theatre view



Dentalium, Plymouth, Michigan / Dental Office Renovation and Addition / Interior Lobby

## 프로필

constructTWO(c2)는 김주연(AIA)이 2000년에 설립한 유통적이며 개방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현재 미시간 디트로이트와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으며, c2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혁신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건축을 구현해가고 있다.

홈페이지 : [www.constructtwo.com](http://www.constructtwo.com) 이메일 : [julie@constructtwo.com](mailto:julie@constructtwo.com)



## [Smal and Partners] 런던, 영국

AX. 뉴욕도 마찬가지이지만 런던도 젊은 건축가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실을 헌정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탄탄히 자리를 잡았는데, Smal and Partners가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보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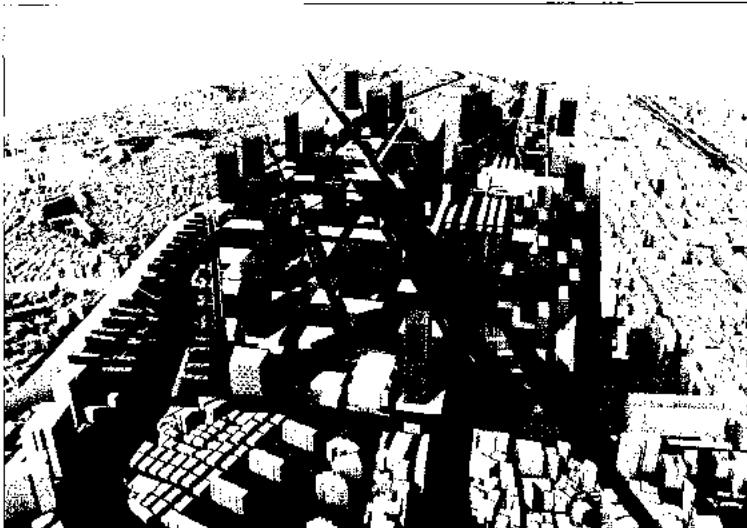
저희 스말앤드파트너스가 자리를 잡았다고 단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첫 돌을 지냈는데 이곳 런던에서의 포지션을 논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듯 하고요. 특히 요즈음같이 경제적 공황이 심할 때는 더욱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재정적으로 건실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차잇자반해서 일을 그르칠까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서히 스말앤드파트너스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Smal and Partners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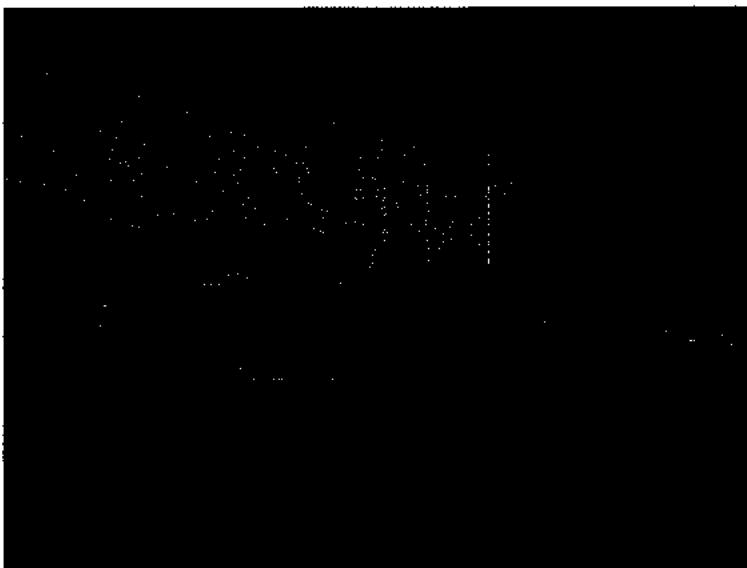
얼마 전 런던 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아주 반가운 내용의 이메일 회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 초 런던을 가로 지르는 많은 고가도로 아래 대부분 특별한 용도 없이 남겨진 곳들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보자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예 반응도 없더니만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안 된다” 라던 대답은 이제서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라는 뜻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계란으로 벽에 약간의 흙집을 낸 느낌이라고 할까요?

AZ. 이전에 다른 건축가들과 작업을 하다 독립했는데, 조직의 일원이었을 때와 조직을 이끌고 있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태도가 있지요.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건축가의 시선과 일반인들의 시선은 많이 다르고 개인적으로는 건축가의 나이와 이런 시각의 차는 서로 비례한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건축 더 나아가서는 도시를 반드시 작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개인 혹은 커뮤니티 즉 사용자가 되야 지속 가능해진다고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전 역세권 르네상스



사이프러스 박물관



엘리자베스 2세하우스

BY. 지금의 사무실을 시작하기 전 워크숍에 대한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현재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학생들과 소통을 활발히 했는데 해외에서 시작하는 젊은 학생, 건축가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주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근래 온라인을 통해 넘쳐나는 수많은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 배경의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접하며 자신의 신념과 희망을 쉽게 잊어 버리는 듯 하고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허우적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신념을 잊지 말고 그래서 정체성으로 성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울러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 법규, 스케줄 등 많은 제약 혹은 구속들이 따릅니다. 그 중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도 많지요.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로 우리 스스로가 유인되고 그래서 오히려 독특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툴(Tool)로 사용하려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팀워크, 컨설턴트들과의 팀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팀 내의 다른 인원들과의 팀워크. 저에 프랑스 건축가 장누벨의 강의를 듣는 예, 그분은 강의 내용 “나의 컨셉은..” 혹은 “나는……했다” 등의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더군요! 자하 하디드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어떤 자리에서 그 누구도 “우리”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작업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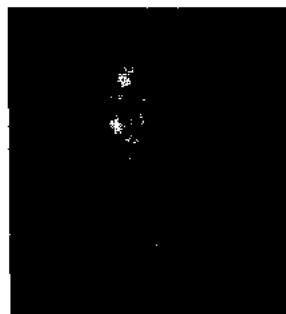
BZ. 현재 있는 로컬에서, 혹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프랙티스를 전개해 나갈까요.

저희가 만들어 내는 건축을 통해 작게나마 인류에 공헌할 수 있고 동시대의 건축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2세하우스

## 프로필



Smal and Partners는 영국 런던에 설립된 도시 및 건축 설계 파트너십이다.

스탈 앤드 파트너스는 각 프로젝트의 배경, 문맥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세한 스케일에서 거대한 스케일까지,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서부터 지구촌의 포괄적인 문맥까지를 자유롭게 다루며 작업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smalandpartners.com](http://www.smalandpartners.com) 이메일 : [cpark@smalandpartners.com](mailto:cpark@smalandpartners.com)

## [Poly.m.ur] 런던+서울, 영국+한국

AX. 뉴질랜드를 거쳐 뉴욕에서 공부하고, 런던에서 실무를 하며 그리고 한국과 네트워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업을 하는 만큼 한국건축에 대한 입장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몇몇 나라를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적, 구조적으로는 글로벌화로 인해 도시 형태들이 농잡화 되어가면서도, 항상 그 안에서 이질적이나 변이적인 것들에 의해 도시들이 가지는 성격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 형태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변이나 이질성(전통적인 것을 떠나서)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관찰해 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Poly.m.ur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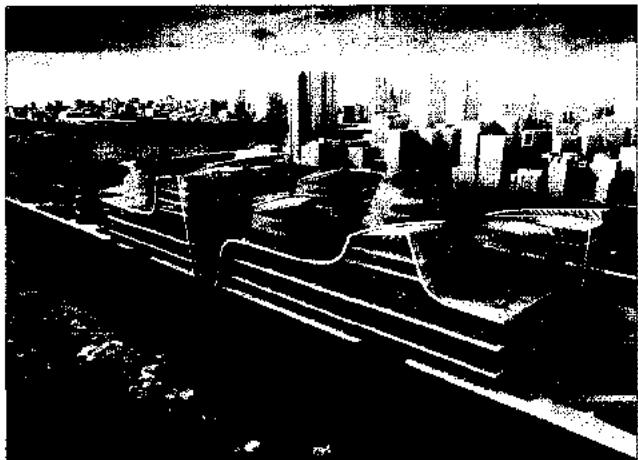
아직 의미를 둘만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고작 3년을 해왔고 또 실제로 지어진 건물도 많지 않아 아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점점 다양한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어 작업의 스펙트럼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 런던과 서울로 병행되는 작업이 어느정도 시너지를 발생할수 있는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AZ. Redundancy를 화두로 김호민 씨와 파트너십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몇 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입니다. 그 화두가 어떤 결과물들로 나오고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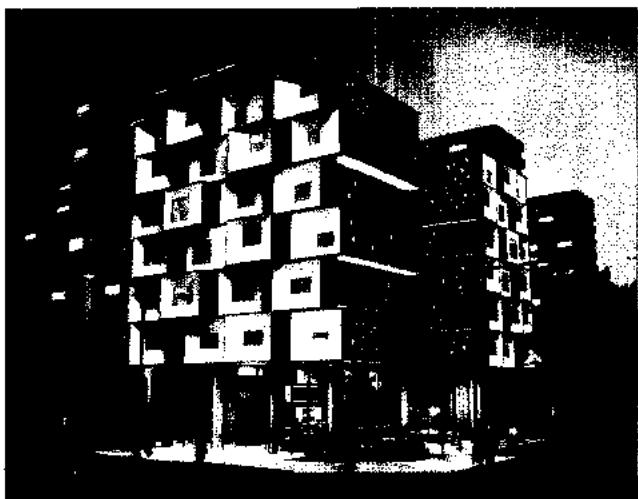
아직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큰 범주 안에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되어주고 있고, 김호민 씨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Redundancy라는 큰 범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토픽들을 이끌어 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질서와 혼돈의 경계라던지, 다른 질서 사이의 마찰이라던지, Redundancy가 존재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있고 작업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BX. 한국에 계신 김호민 씨와 더불어 서로 다른 지역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이 Poly.m.ur의 작업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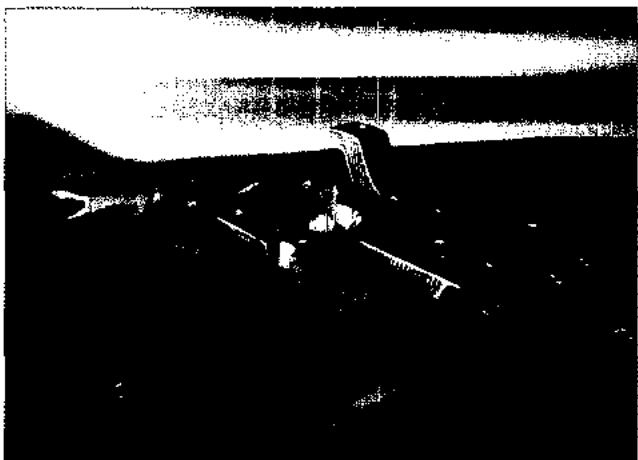
학교를 통해 여러 작품들을 동시에 접하다보면, 사실 위기감을 느낄때가 많이 있는데, 꼭 작품의 퀄리티에 놀라 위기를 느낀다기보다, 같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가에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작업을 반추하게 되고, 좀 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Kaohsiung Port Terminal 현상 안. 도시와 바다의 형태적 이미지를 차용한 연속적인 매칭타입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적 요구들을 유동적으로 풀어내려 하였다.



등촌동 구립 미술관 현상안. 컨테이너 형태의 박스들의 단순한 질서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듬과 변이들을 통해 빈복적이면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내려 하였다.



새만금 홍보관 현상안. 공간이 지표면에 주입되듯 지상층이 들어올려져면서 건물이 대지에 흡수되도록 의도하였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학생들과 작업 할까요.

버려진,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하려합니다. 지역의 주체성을 찾는 과정은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카고의 IIT 등 몇몇 학교에서 진행했던 스튜디오의 제목이 'Finding Waste Land' 였는데, 여기서 Waste Land는 일반적인 뜻인 오염된 땅이라는 뜻뿐 아니라 버려진 땅의 의미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버려졌던 곳의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같은 주제로 현재 갈라파고스 군도를 사이트로 해서 다음 학기에 하버드에서 스튜디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으로 사이드를 잡으려 합니다.



2009 인천도시축전 주공 흥보관. 솔리드와 보이드가 방문객의 동선을 따라 휘감아져 건물이 부동적인 실들의 조합이 아닌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조합으로 읽히기를 원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런던과 서울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작업 방식은, 런던은 주로 디자인 단계와 국제 현상을, 그리고 서울을 주로 실시설계 단계와 국내 현상을 담당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역할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매 프로젝트마다 서로 연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까지 서로 간에 다른 시각의 인풋들을 주고 받으면 안을 발전시킬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피스의 사이즈가 작다보니 일을 동시에 별적으로 벌이기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로 좀 더 발을 넓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Z. 다이내믹한 한국의 건축환경에서 가능성이 많은 젊은 건축가들은 정신없이 일을 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작업 태도로 보여준 유동성이 앞으로도 유효한지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일을 해오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일을 수주하는 데에 급급해 해왔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의 작업들이 발전적이기 보다는 소모적이라는 느낌이 오년 때가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작업형태가 어떤 궤도에 오르기에는 같길이 먼 편이고 유동적으로 작업해가면서 가능성들이나 장점들을 탐색해 보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특히나 지인들 사이에서는 건축환경이 많이 변해있고(국내외를 통틀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건축가로서의 자세나 입장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나누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춘다는 것이 아직은 유용한 부분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프로필



**polymur**는 김호민과 유승우에 의해 런던에서 출발해 현재 런던과 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무소로 실무와 학계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루트 House of Arts, 마드리드 검찰청사 등 다수의 국제현상에 입상하였고, 제주세계유산센터,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한국전통문화학교 기예능공방, 충주 중원연구소 등 국내 현상설계에 당선되었으며, **polymur**의 작업은 다양한 국내외 매체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9팀의 다른 건축가들과 함께 「Alternative Territories \* 10」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홈페이지 : [www.polymur.com](http://www.polymur.com) 이메일 : [csy@polymur.com](mailto:csy@polymur.com)

## [KLNB architects] 파리, 프랑스

AZ. 한국과 프랑스에서 공부와 실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현재의 사무실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울러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파리에서 2003년 학교 졸업후 6년 동안 4군데의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그중 x-tu라는 사무소에서 팀장으로서 수행한 일 중 2006년 전곡리선사박물관 프로젝트가 국제현상에서 당선되어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나 자신을 위한 일들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당시 동료였던 Nenad Basic과 함께 2년 동안 준비하여 2008년 사무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도전은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국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과 동시에,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KLNB architects의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몽펠리에 건축페스티벌에 초청작가로 선정되었고, 현상설계에 제출한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에서 젊은 건축가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AZ. 젊은 건축가들은 실제로 짓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접근이 더욱 어렵고요. 반면 그만큼 주변의 영향에서 한발 떨어져서 자신의 작업 논리와 개념을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의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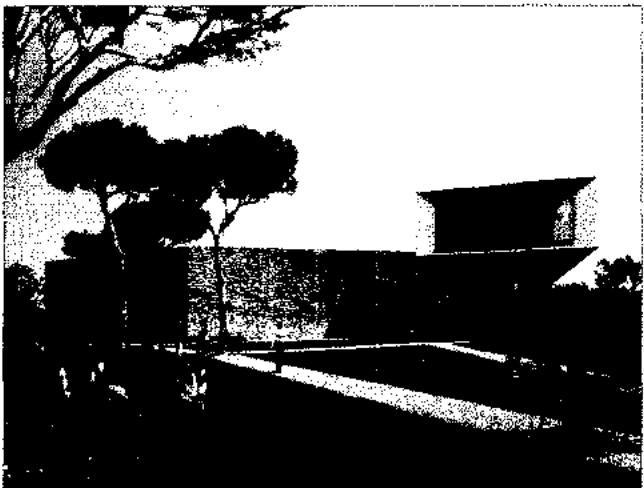
사회, 문화, 물리적인 컨텍스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마다 매번 새로운 세계, 독특한 감성 또는 유머를 주입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친환경디자인에 관한 것은 기술적인 것보다 건축자체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을 통합시키는 간결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컨트롤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 무엇보다 항상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려 애쓰는 편입니다.

BX. 유럽, 혹은 프랑스에서 젊은 건축가의 미래는 어떻다고 봅니까. 제한된 건축기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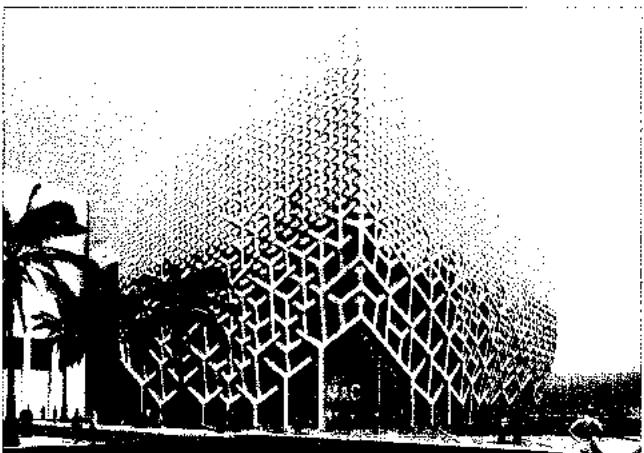
프랑스에서는 공공사업의 발주가 일자적으로 건축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현상설계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현작이 적은 젊은 건축가들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방



Artificial Landscape\_Montpellier Festival of Architecture 2009



Dherinia City Hall\_Cyprus 2009



House of Art and Culture\_Beirut Lebanon 2009

법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성 건축가들과 협업의 기회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저희만의 색깔을 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유럽건축에 대한 정보나 유럽연합내 다른 국가에 대한 접근이 쉬운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파트너십 등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히 파트너와 둘이 함께 주도하는 디자인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편으로 건축가는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몇몇 프로젝트는 KLNB라는 이름아래 한사람이 주도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활동과 함께, 도시프로젝트와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무소와의 협력관계, 저희 사무소의 조직과 작업방식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매우 유동적이여야 할 것 같습니다.

BZ. 다이나믹한 한국의 건축환경에서 가능성이 많은 젊은 건축가들은 정신없이 일을 해나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건축계에서 비중있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수주 이외에 한국의 건축 담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상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한국건축계에 인사를 한 정도인 것 같아서 설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을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본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축디자인의 사회적가치를 공유하고, 건축가들이 자신이 제안하는 지식, 아이디어와 디자인 능력으로 인정받고 그것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생겨나길. 또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하는 제도가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이러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프로필



이기용은 프랑스 파리에서 네나드 바직과 함께 KLNB 아키텍츠를 이끌고 있는 젊은 건축가이다. 1996년 명지대학교 졸업 후 2003년 파리 마른-라-발레 건축학교를 졸업하였고, 6년간 eodm, x-tu등 파리의 여러 유명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2008년 KLNB 아키텍츠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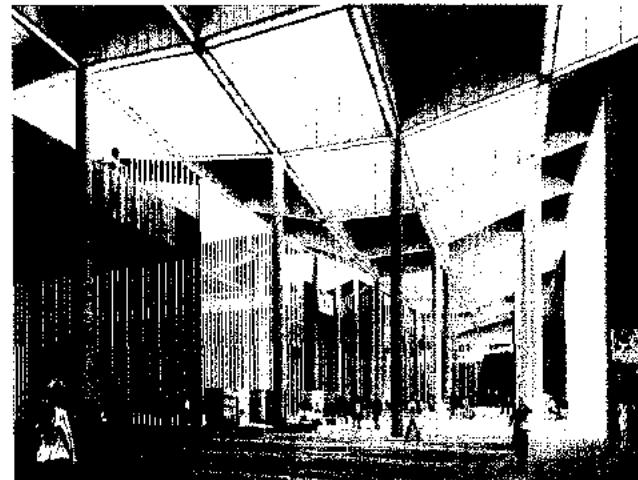
현재 프랑스건축사협회 정회원이며, 2008년 델프트 건축학교 국제현상 입선, 2009년 키프로스 데리니아 시청 현상 특선, Prix Spécial(e) Hiver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해 프랑스 몽펠리에 건축 페스티벌, 서울건축학교 여름워크숍과 전시회에 초청작가겸 투터로 참가하였고, 최근 제3회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홈페이지 : [www.klnb.fr](http://www.klnb.fr)

이메일 : [kt@klnb.fr](mailto:kt@klnb.fr)



Bouwkunde Reloaded\_Delft School of Architecture 2008\_a



Bouwkunde Reloaded\_Delft School of Architecture 2008\_b

## [ZI:UM] 파리, 프랑스

AX. 프랑스는 젊은 건축가들이 개인 프랙티스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제도적인 핸디캡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현재의 사무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울러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프랑스에서 개인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를 위해서 국가공인 건축사 자격증 이외에 영주권 같은 레지던트 체류증이 필요하죠. 제 경우, Architecture-Studio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Project Manager까지 승진해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해 본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팀 운영, 건축주나 시공회사간의 관계 유지에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즈음 레지던트 체류증을 발급 받은 것이 독립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립 후 지금까지 프라이버트 프로젝트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관공사 현상설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서류심사에 통과가 되어야지만 현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물론 제 도장이 찍힌 프로젝트만 인정을 받지요. 현상설계가 젊은 건축가에게는 등용문이라고 하지만 실적이 없으면 설계안을 낼 수 없다는게 제도적인 모순이지요. 조민간 그간 해온 프라이버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관공사 현상에 응모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적으로는 아직 무엇인가 성취했다라고 느껴 본 적이 없네요.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고 반성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제게 일을 한번 맡겼던 건축주가 결과에 만족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저를 찾아 왔을 때와 건축설계를 서포트해 주는 구조사무실이나 설비사무실 그리고 시공업체 등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일을 마치고 그들이 제 설계를 지지해주었을 때입니다.

AZ. 젊은 건축가들은 실제로 짓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접근이 더욱 어렵고요. 그러나 의외로 다양한 규모와 지역의 일을 해왔는데,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의 자세에 대해서 들고 싶습니다.

시공을 염두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이는 시공이 불가능하면 설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공할 수 있는지까지 설계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시공가능성이 자유로운 설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설계를 해도 시공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나 시공방식에 대한 끊임 없는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건축을 문화로 본다면 재료나 시공방식은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물질화시키는 것들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문화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재료나 시공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건축적으로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X. 유럽, 혹은 프랑스에서 젊은 건축가의 미래는 어떻다고 볼니까. 제한된 건축 기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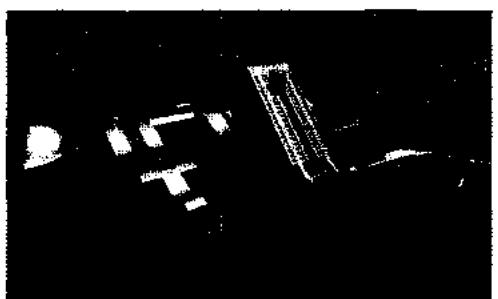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작은 사무실들이 살아 남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



Dammam 1 : Half Moon Bay Aqua City, Dammam, Kingdom of Saudi Arabia, 복합건물(호텔, 백화점, 수족관, 모스크), 125,000m<sup>2</sup>, 350 million euro, View from Half Moon Bay



Dammam 2 : Half Moon Bay Aqua City, Dammam, Kingdom of Saudi Arabia, 복합건물(호텔, 백화점, 수족관, 모스크), 125,000m<sup>2</sup>, 350 million euro, Bird's-eye view



Dammam 3 : Half Moon Bay Aqua City, Dammam, Kingdom of Saudi Arabia, 복합건물(호텔, 백화점, 수족관, 모스크), 125,000m<sup>2</sup>, 350 million euro, Bird's-eye view

으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작은 사무실의 특성화와 작은 사무실간의 연계입니다. ZIUM의 경우 복성화를 위해 BIM을 기반으로 한 통합설계 Coordination팀을 만들고 있고 그 인원은 모두 다른 회사와 연계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들고 싶습니다.

위에 답변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첫번째 계획은 BIM을 기반으로 한 건축, 구조, 설비의 통합설계 Coordination팀을 육성하여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참여가 제가 맡아서 하는 프로젝트라면 좋겠지만 아직 기본안들만 제출되고 진행이 유보된 상태라 아쉽지만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두번째 계획은 제가 개인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과 친환경 건축을 위한 새로운 설계프로세스 개발입니다. 건축설계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불이 일고 있는데 수박겉핥기식의 이룸만 친환경인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맡는 건축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의 저의 작업은 위에 두가지를 바탕으로 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BZ. 다른 해외의 건축가들과는 달리 한국에 프로젝트 차원의 접근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한국은 이승호 씨에게 어떤 의미, 혹은 가능성입니까.

글쎄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성취한 것이 그다지 없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빠져 있어서 일까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한국의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지만 찾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군요. 물론 한국은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한 낮이기에 언제든지 일이 있다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체험한 다른 경험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리를 막아하지 않고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싶습니다.



Cannes : Cannesimmo-La Bocca, France, 178세대 친환경 집합주거 단지, 12,500m<sup>2</sup>, 25 million euro, View from court yard



Biernaime : Biernaime 씨택 전원주택, France, 농가 리모델링, 243m<sup>2</sup>, 150,000 euro, View from Mezzanine

## 프로필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이승호는 스트拉斯부르그에 소재한 유럽의회를 설계했던 Architecture Studio에서 4년 간 근무 후, 2006년부터 건축사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본인 이름으로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파리 지역에 다수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활동해 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ger International에서 디자인 매니저 컨설턴트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의 국제 컨벤션센터 영빈관 리모델링 및 신축 프로젝트에 참가하였고, 다암시 아쿠아시티 계획안 및 지중해 간느 시에 친환경 집합주거 단지 계획안을 메인 건축사자격으로 설계하였다.

2010년 현재 개인 설계사무실을 유한회사 groupe ZIUM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이메일 : archi.shl@free.fr

## **[Stocker Lee Architetti] 멘드리시오, 스위스**

AX.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스위스는 젊은 건축가들이 개인 프랙티스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제도적인 핸디캡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현재의 사무실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울러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현재 어느 곳에서도 젊은 건축가들이 일을 시작하기 쉬운 곳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유럽에 비해 수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 당시 외국인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약간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Y. 지금까지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정 작업에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이때까지의 모든 작업에 애정을 둡니다.



Multi family House : Mendrisio, Switzerland (2007-2009)

AZ. 짧은 건축가들은 실제로 짓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접근이 더욱 어렵고요. 그러나 의외로 다양한 규모와 지역의 일을 해왔는데,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의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내게 있어 건축은 개념(Concept) 작업입니다. 개념작업에 되도록 놓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충실한 간단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개념작업을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이란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이울리 파트너십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는 6~7개의 크고 작은 계획(주택, 학교, 포도주 제조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BZ. 다른 해외의 건축가들과는 달리 한국에 프로젝트 차원의 접근이 눈에 띠지는 않는데, 한국은 이동준 씨에게 어떤 의미 혹은 가능성입니까?

내게 스위스에서 건축가를 한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재능있는 건축가와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건축문화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학교 졸업 후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무작정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이이의 아빠가 됐고, 한국이란 나라도 내게 좀 더 의미있는 곳이 됐습니다. 기회가 좋는다면 한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One family house : Tremona, Switzerland (2006)



## 프로필



2005~	건축사무소 Stocker Lee
1998~2005	프리랜서(or Mario Botta, Aurelio Galfetti, Antonio Citterio)
2002~	건축대학 강사 (USI - Accademia di Architettura)
1997~2002	스위스 건축대학 (USI - Accademia di Architettura)
1995~1997	일본, 이탈리아, 영국
1992~1995	인테리어 디자인 (서울)

홈페이지 : [www.stocker-lee.ch](http://www.stocker-lee.ch) 이메일 : d.lee@stocker-lee.ch

## [kimlim architekten] 장크토갈렌, 스위스

AX.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스위스는 젊은 건축가들이 개인 프랙티스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제도적인 핸디캡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현재의 사무실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울러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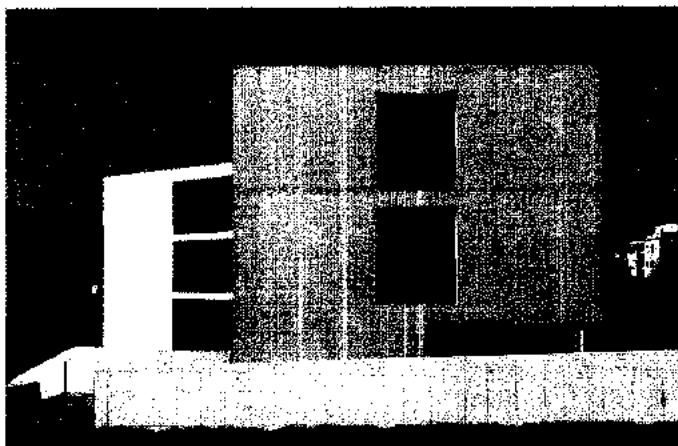
스위스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젊은 건축가가 자신의 사무실을 설립해 실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변사람의 설계의뢰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공개현상설계에서 당선되는 경우다.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였고 당선되었다. 설계 당시 생활터전은 오스트리아였으나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또 당선이 된 건물이 스위스에 자리져야 하니 이 곳에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외국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AY. 지금까지 kimlim architekten이 이룬 성취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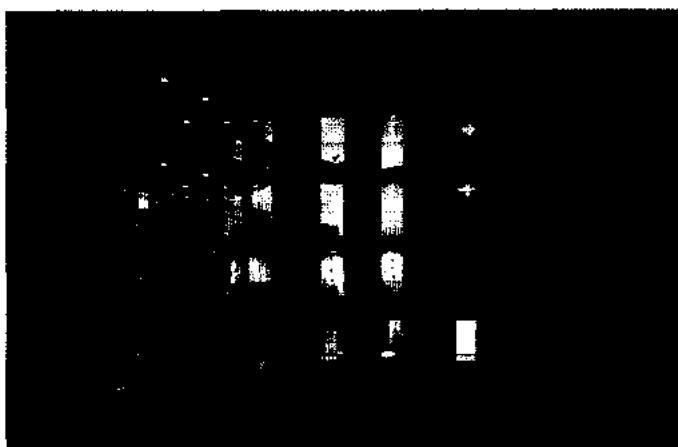
2006년 유럽 공개현상설계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투나우(Wohnhaus Tunau)에 당선되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스위스의 작은 도시 Reinach에 우리의 첫 작품이 지어졌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8명의 각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형성되어 매달 우리의 설계를 비평하며 발전시켜 나갔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건축에 관한 안목이 비 건축인임에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처음이다보니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건축주의 이해로 무사히 아니, 아주 잘 끝낼 수 있었다.

BY.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파트너십 조직과 소통 등 작업방식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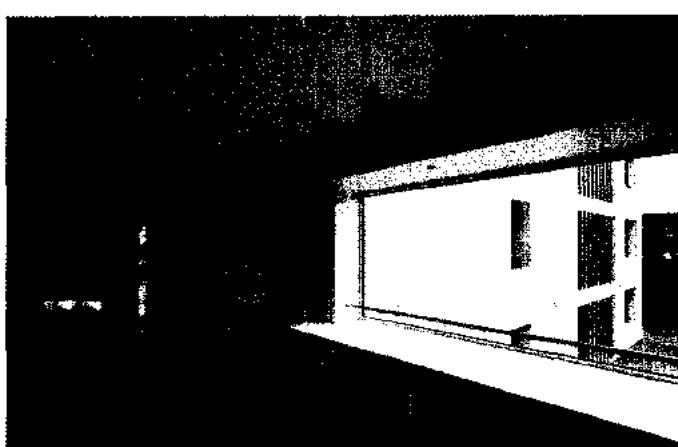
구체적인 작업 계획이나 제한은 없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볼 생각이며 그렇게 하고 싶다. 파트너십 조직에 대해서는 첫 작품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투나우(Neubau Wohnhaus Tunau)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Trogen 국립고등학교 식당 및 부속건물(Umbau und Erweiterung Mensa Kantonsschule Trogen)의 경우를 예를 들어야겠다. 둘 다 현상설계를 통해 획득한 프로젝트이고 모든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경험에 많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갑리 전문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좋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많은 건축



Tunau 01 : 중심광장에서 본 입면으로 배치도에서는 매스가 비교적 크게 느껴지지만 중심광장 및 각각의 도로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입면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개념이다. 적당한 높이의 콘크리트 담은 이용자 및 방문객이 드나드는 입구에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이다. 축날 이 담은 담쟁이덩굴로 덮여져 노출콘크리트와 대비되게 계획되었다.



Tunau 02 :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을 연결하는 관절과도 같은 공간으로 북쪽으로 불박이창과 함께 커다란 창이 있다. 반대편 남쪽으로는 넓은 베란다가 있어 밝고 매력적인 공간이 연출된다. 이 커다란 창틀에서 가벼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Tunau 03 : 건물의 남서쪽에 위치한 아레나형의 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한국의 마당과 같은 공간 개념으로 내부의 다목적실과 연계되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가들이 이러한 조작을 통해 건물을 완성해낸다.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설계 자체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BX.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건축가들이더라도 한국 건축계를 마켓 차원, 담론 차원, 혹은 아이덴티티 차원으로 연관을 맺게 되곤 합니다. 한국은 *kimlim architekten*에게 어떤 의미 혹은 가능성입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며,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언어와 문화 등의 공통점 때문에 한국에 우리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ETH(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그리고 스위스 건축이 우리에게 더 큰 부분이다. 작업의 공간적 한 영역에 어찌한 저한을 드고 있지는 않다.



Trogen 01 : 증축하는 프로젝트로 주 중심광장 끝에서 광장의 축을 살려 전체 교정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광장쪽으로 매스를 늘려 전체 광장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Trogen 02 : 북측입면으로 기존의 입면을 판자판으로 전체를 감싸 차암막 역활을 향과 동시에 복잡한 매스를 단순하게 했다. 각 입면마다 빛이 많이 필요한 공간에 하나의 큰 창을 두었다. 이 커다란 창은 바로 인접한 알프스의 대자연을 내부 공간으로 유입하도록 계획했다.

## 프로필



김은호는 연세대학교 졸업 후 동우건축에 근무했으며, 그 후 베를린 공과대학 건축과를 다녔고, 쿠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건축과를 졸업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수학했고, 베를린의 건축사사무소 Rainer Oelstein, 쿠리히에 있는 사무소 Gruber Pulver에서 일했다. 졸업 후 유럽 공개현상설계에 장애자를 위한 주거시설 투나우가 당선되어 완공했으며, 2009한국 건축대전조대작가로 전시한 바 있다. 2006년부터 *kimlim architekten*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있으며, 대표작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투나우와 트로겐 공립학교 등이 있다.

임구성은 중앙대 졸업 후 동우건축과 삼우설계에 있었으며, 쿠리히 연방공과대학 건축과(ETH Zurich)를 졸업했다. 설계사무소 Dueng AG와 Burkhardt Sumi에 근무했으며, 현재 스위스건축가협회(SIA) 정회원으로 설계사무소 Baumschläger Eberle에 있으면서 10회 이상의 국제, 유럽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으며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김은호와 유럽공개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스위스 장크트갈렌에서 *kimlim architekten*을 설립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kimlim.ch](http://www.kimlim.ch)

이메일 : [info@kimlim.ch](mailto:info@kimlim.ch)

# 글로벌 Young Architects 네트워크 2

● 강 권 정 예 | 건축전문 블리安稳 기자  
by Kang, Jeongye

## [BAU 건축]

권형표 + 김순주 + 민우식

BAU 건축의 시작과 존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BAU는 블로그 아키텍처 유닛(Blog Architecture Unit)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그들이 블로그를 통해 만나 결성된 건축가 집단이란 것을 설명해 준다. 동시에 '짓는다(bau)'라는 말과 발음이 같아, 젊은 건축가로서 그들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구축에 있다는 것도 은연 중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상 그들은 뉴미디어로 등장한 '블로그'를 통해 동년배의 젊은 건축가들이나 세상과 문턱 없는 소통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소통은 건축가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욕망을 균원적으로 실현시켜준 것은 실제 건축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조직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독립 건축가로 데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축가로서 그들의 시작이 카페와 링크로 수많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면, 그들의 작업은 스케치와 모형을 만드는 수작업을 늘상 동반한다는 것이다.

바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일 년여 동안, 그들은 크고 작은 근린생활 건물에서부터 천안 주류 박물관과 금천 패션IT문화 존과 같은 거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개인 수주 프로젝트와 현상설계 당선 프로젝트를 병행해왔다. 그리고 서울 쪽섬유원지 자벌레 관 내부에 있는 비정형의 미디어 월과 벤치는 설계에서 시공까지를 맡아하였다. 독립 건축가가 처한 아틀리에의 현실 프로젝트와 과거 그들이 규모가 있는 설계 조직에서 얻은 각자의 실무 경험과의 괴리는 PM 체제 하의 협력과 공동 작업으로 좁혀 들어간다.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의 다른 건축가들과 공동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며, 작은 전시를 하나 열만큼 종횡무진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젊은 기간 다양한 작업들에서 보이는 것은 작업의 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들은 건축 언어의 일관성이나 주된 흐름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는 건축의 여러 모습과 과정 자체들을 드러낸다. 오히려 일관성이 필요한가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마치 연극에서 다양한 극중 인물에 몰입하는 배우와도 같은 모습을 자처한다. 그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짓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공 프로젝트의 현상설계에 도전한다. 그것은 작고 평범한 건축물을 하나씩 완성도 있게 만들어, 도시를 채워 가는 것이 사회나 문화적으로 유익미한 것이라 여기는 믿음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도시와 건축의 이상에 느리지만 진일보하는 방식이다.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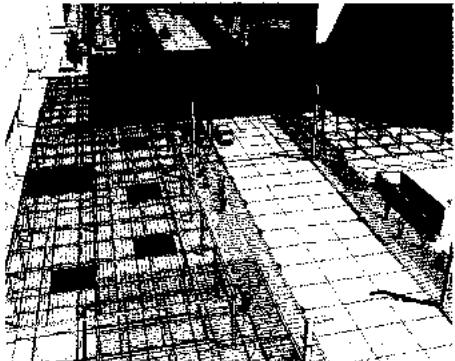


권형표는 인하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종합설계, CSIDE 디지털공간연구소, 김이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김순주는 인하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원도시 건축연구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권형표와 함께 '건축가 30대의 꿈'의 전시 초대작가였다.

민우식은 Univ. of Tennessee(BFA),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Cranbrook Academy of Art(M. arch.)를 졸업, 민설계, Steven Holl Architects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BAU 건축은 세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교의 파티오 하우스(중정형 주택)가 완공이 임박해 있고 천안에 주류 박물관 설계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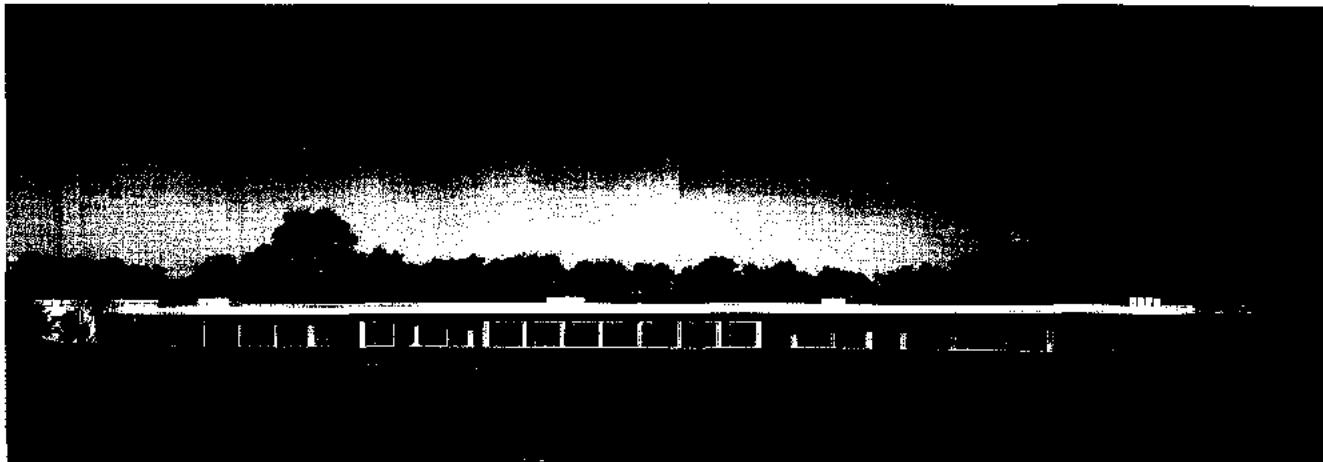
금천 패션 아이티 문화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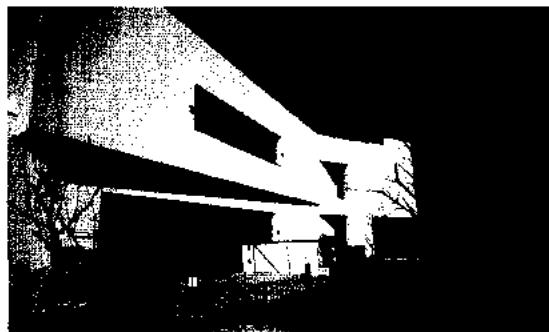
천안 전통 민속주 전시 체험관 및 주제관 현상설계 당선안, 2009

## [S.A.A.]

박창현 + 이진오 + 임태병



SKMS 연구소, 이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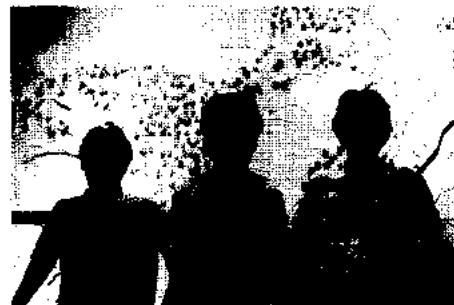
분당주택, 성남, 2010

동을 병행하며,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무작위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양을 조절한다.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수를 조절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프로젝트는 거절하기도 한다. 네트워크가 취약한 젊은 건축가들이 의존하게 되는 현상 설계보다는 여러 관계망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주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통해 건축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관계를 통해 다시 프로젝트를 소개 받는, 느리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취한다. 그들의 작업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몇 가지 원칙들도 건축의 재료 자체보다 재료를 가공하는 노동을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추구한다. 그래서 SKMS 연구소처럼 완성도 높은 작업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다시 귀결된다.

그들이 작업의 대부분을 토론과 합의에 의해 최적의 계획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기본적으로 셋의 공통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건축 프로젝트가 개별적인 접근에 의존하기 보다 합의와 토론에 의한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이유에서이다.

## 프로필



박창현은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 후 (주)위가건축, 두이건축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를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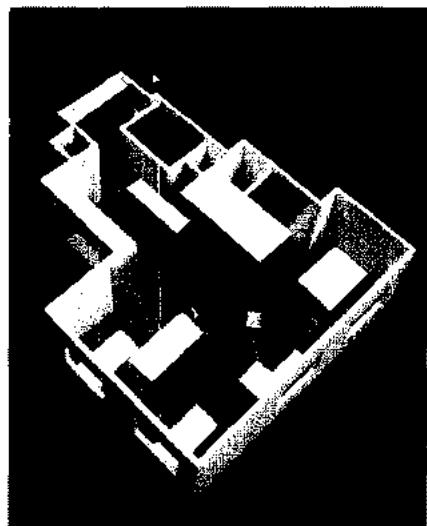
이진오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을 졸업하고, (주)위가건축, D.P.J & Partner's, Korea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과에서 강의 중이다. 임태병은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주)건축사사무소 AI, (주)옴니디자인, (주)Minoru Yamashiki Architects, Korea 등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출강 중이다.



모바일 갤러리, 2010



와이 하우스, 서울, 2010



광교 오피스텔 상가 및 단위 유닛기본설계 광교, 2010

와이즈의 첫 작업인 Y-House, 도시 다세대 주택이나 균린생활 시설에서 피해야 할 수 없이 주요하게 작동되는 패터인 최대 면적과 저가의 공사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로프트가 있는 중이층의 세대를 부명한 막으로 썩은 형태로, 평당 320만 원의 저 예산가 건축이다. 또 2.4 × 1.2m의 작고 가벼운 구조물로 이루어진 모바일 갤러리 역시 초저예산가에 맞춰진 이동식 공간 시스템이다.

와이즈의 작업은 이러한 '작은 것들(Smallness)'에 주목한다. 주거 유닛이나 도시 다세대 주거에서 상업 공간의 리노베이션, 모바일 갤러리 등, 규모는 작고 대상은 지엽적이며, 타 분야 전문가 그룹과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건축 설계에서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를 펼친다. 동시에 그들의 작업은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진행되는 자기 동기부여(Self Motivation)형 작업들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그들의 작업 공간으로도 쓰고 있는 Y-House는 도시 골목길과 연계되는 작은 공간에서 이웃들이 머무르고, 동네 아이들과 벽화 작업으로 함께 공간을 만들어 갈 여지를 남겨둔다.

그들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바탕에는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디테일에 대한 고민과 실험들이 있다. 와이즈 건축의 작업 공간이 공구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와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사이에 있는 것도, 언제든지 재료를 구입해 디테일을 만들어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더욱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고민과 실험은 작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오히려 일상을 바일상적인 것으로 보는 그들만의 특별한 안목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전의 건축 경험과 그들이 밖은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일 년이 채 되지 않는 독립 건축가로서 역시 제일 큰 고민인 '어떻게 일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역사나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제스츄어라 할 수 있다. 대량 반복 생산에 의한 저예산의 건축 생산 시스템과는 달리, 장인적이면서 기존과 차이를 두는 그들의 작업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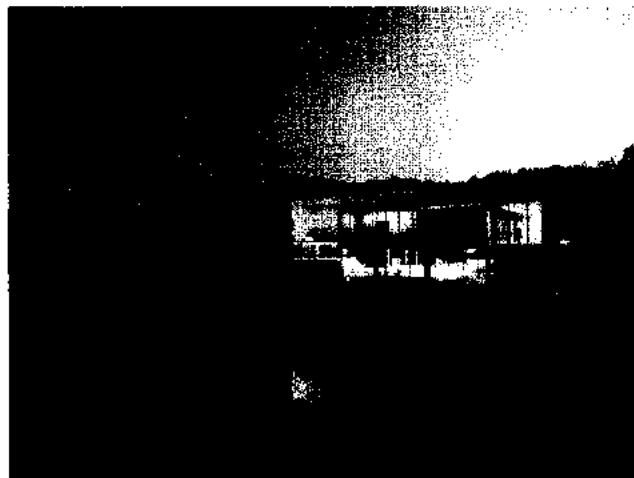
장영철은 총익대학교를 졸업하고 U.C. Berkeley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로제, Steven Holl Architects, Rafael Viñoly Architects에서 실무를 하였다. 전숙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Princeton University에서 수학, 이로제,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에서 실무를 하였다. 장영철과 전숙희는 공동으로 2008년 'WISE ARCHITECTURE'을 개소 후, 뉴욕에서 체스터필드 펜트하우스를 설계하였고 서울에서 로프트 형식의 플라스틱 주택(Y-House)을 지었다. 현재 여러 집단과 연결되어 건축 놀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D-Lim 건축]

임영환 + 김선현



안중근기념관, 서울, 2010



헤이리 갤러리, 2010

디림(D-LIM: Design & Life in Mind) 건축에게 건축 철학은 설불리 말하기 조심스럽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부분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작업에 표현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이라는 것 대신에 도시와 건축이 지나친 장식과 쉽게 빨리 변하는 트렌드를 좇는 것이나 건축물의 지속성에 대해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과 문제 의식을 갖는다. 또한 건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견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가가 줄 수 있는 건축의 메시지로도 설명한다. 그들에게 건축적 메시지는 건축이 오래 남아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건축가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축적 메시지는 늘 두 가지 시선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다. 지속 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 기술과 반기술, 투박함과 세련됨, 지역성과 보편성 같은 것들에 이중적이고 모순된 물음이 두 가지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안중근 기념관에서는 화려하면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현상 설계의 패턴이나 건축의 보편적인 기능이 하나의 시선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형태로 구현되는 건축적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시선이다. 칼날의 양면 같은 두 시선은 작업 단계마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일관된 시나리오로 유지되기도 한다.

그들은 운이 좋아 현상 설계에 당선된 프로젝트가 첫 작업이 되었고 건축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를 안에 스스로 가둬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의 메시지가 약한 현상 설계 작업도 의미 있는 것으로 둔다. 그리고 그들이 꾸준한 관심사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이다. 현재 에너지 절약에 집중돼 있는 이슈를 계획 단계에서 코워크으로 풀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그들의 과제이며, 연구 주제다. 어쩌면 자연이나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건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와 인간의 삶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가치들로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가치를 지속 가능성이라는 논리로 풀어내고, 설계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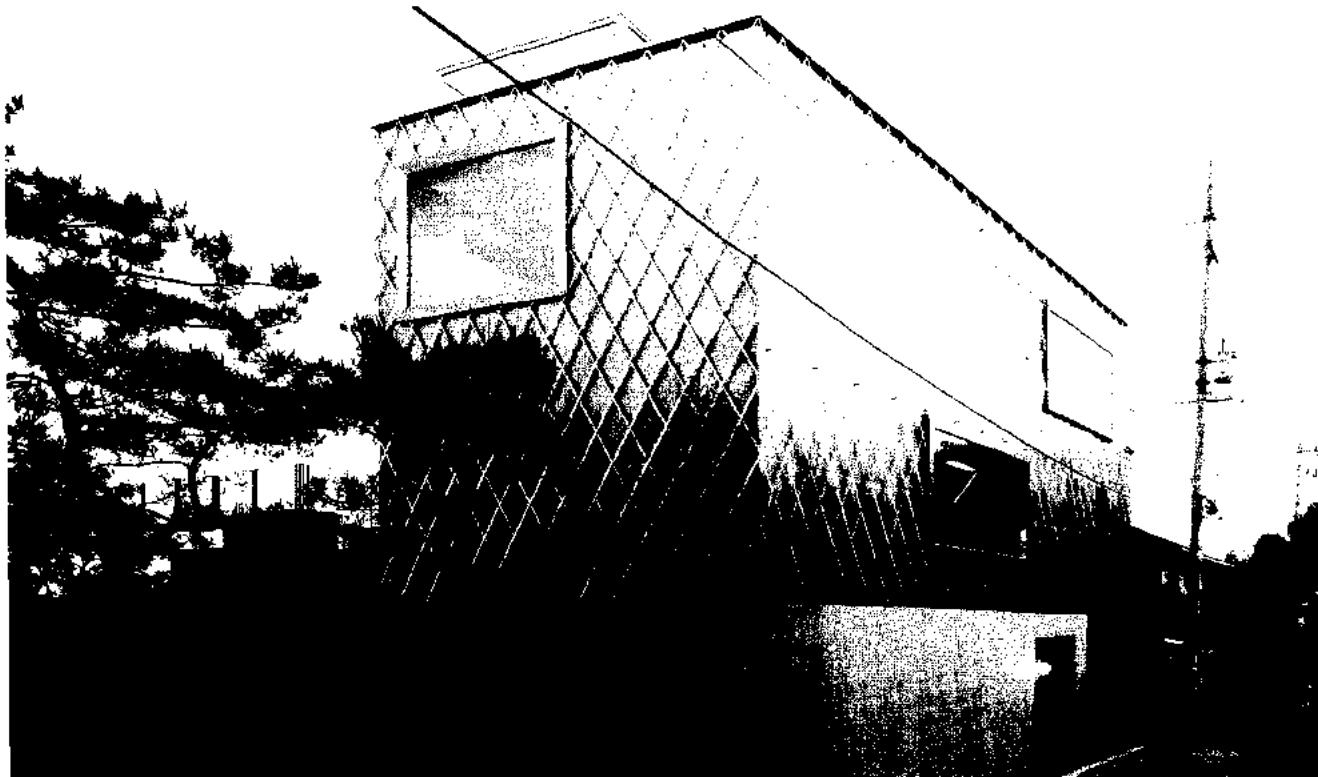
임영환은 흥익대학교 건축학과와 펜실베니아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미국 Granary Associates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흥익대학교 건축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

김선현은 흥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수년간 실무 경험 후에,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다. Jones Lang LaSalle과 Skylan, Inc.에서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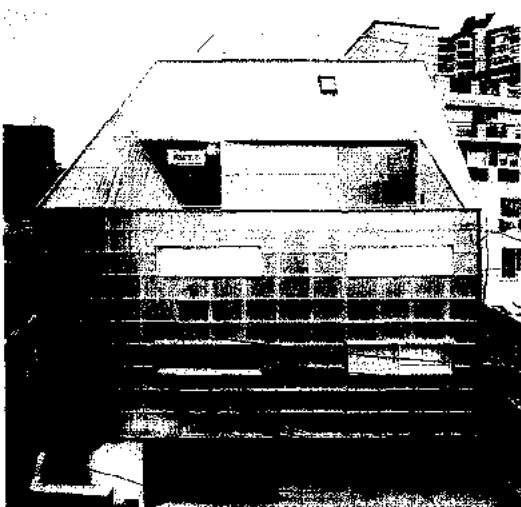
그들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안중근 기념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최-페레이라 건축】

최성희 + 로랑 페레이라



스틸 레이디, 서울, 2008. ⓒ 박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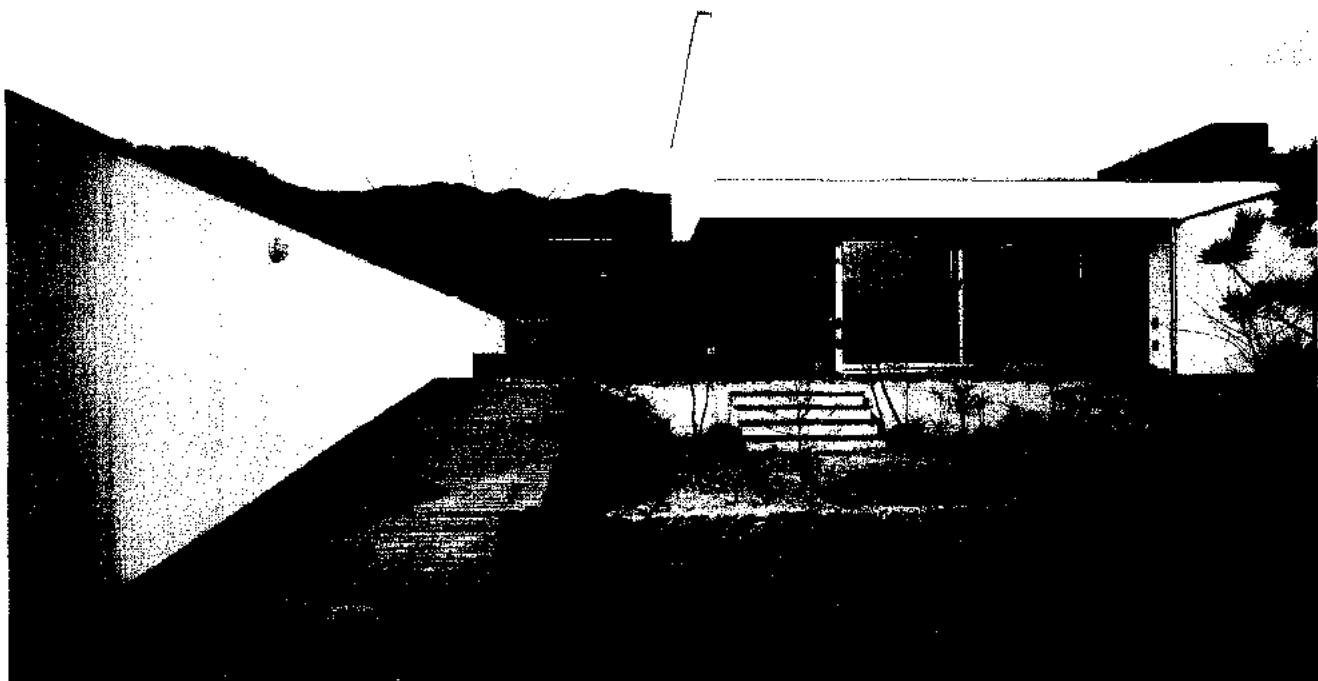


실버 색크, 서울, 2009. ⓒ 박완순

### 프로필



2005년 최-페레이라 건축은 최성희와 로랑 페레이라가 함께, 2006년 서울 공연예술센터 국제 아이디어 설계コン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첫 주택설계 작품 GODZILLA로 2009 서울시 건축상, 2009 한국건축가협회 엄덕문상을 수상하였고, 2010 하버드 대학 한국건축 특별기획전에 참여했다. 최성희는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와 프랑스 파리 라 빌레트 국립건축대학을 졸업하였다. 로랑 페레이라는 생활 건축 대학 졸업 후, 아뜰리에 장 누벨, 한양대 초빙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 건축학과 교수이다.



내동 K씨 주택, 200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008

김현진은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규정한다. 지역에서, 농립 건축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비주류 건축가이다. 기대하는 이윤에 맞춰 베드수와 병원의 규모를 정하는 인사이더 의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병원을 운영하는 아웃사이더 의사와 비교하자면, 분명 본질적으로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그의 건축은 작가적 언어와 일관성보다는 펼쳐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성된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담는 건축의 속성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타인의 자아에 몰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건축가로서 역할은 최근의 청각 장애인 학교의 공간환경 개조와 같은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건축가로서 그가 하는 역할은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불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공유하고 알리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 중 큰 부분은 건축가 자신의 성숙과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며, 건축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데 많은 의미를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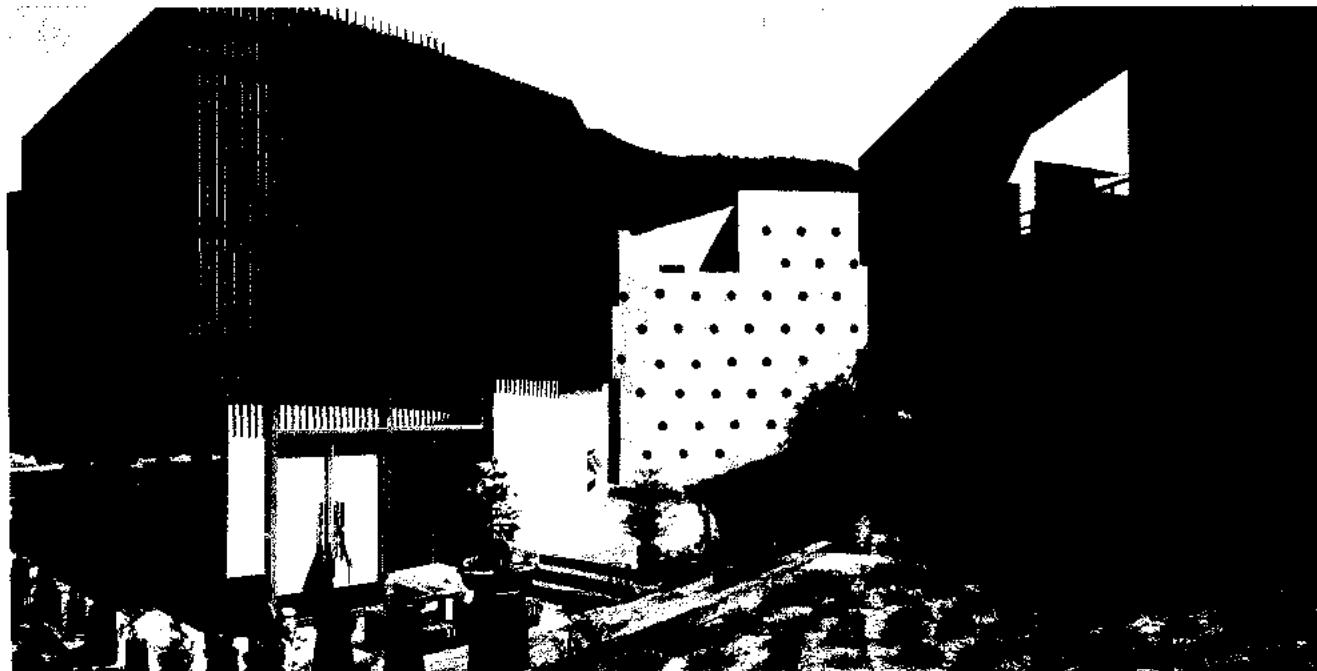
그는 무엇보다 일관된 데마 혹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유형화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합리적인 판단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건축가로서 가진 것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보다 항상 더 중요한, 공간과 사건의 본질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웃사이더 건축가로서 그가 전축하는 방법론이다.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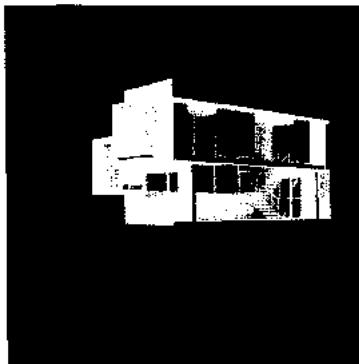


김현진은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프랑스 파리-라빌레뜨 국립건축대학을 졸업하고 장 피에르 뷔피 건축사사무소와 (주)동우 E&C에서 실무를 하였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사무국장과 200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공동 마스터 플래너 등을 맡은 바 있다.

한미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KOMA) 국제현상설계에 당선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9년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SPLK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서산주택, 서산, 2008



모듈러 주택, 2007

디자인그룹 오즈(DGOZ)는 건축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 오즈가 오거나이즈(Organize)의 약자를 표방하듯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조율하고, 조직체를 조직하는, 제비! 코디네이터 역할을 꼬괄한다. 공공 디자인의 기획, 건축의 발주 방식이나 정책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 까지 포진되어, 연구나 지식 기반의 작업들이 병행된다. 그래서 결과물은 건축물이 아닌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모듈러 주택은 두 가지 타입의 모듈(모듈러 플랫폼과 선택 모듈)로 구성된 주거 시스템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모듈을 선택하여 다양한 공간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고안된 주거 시스템이다.

디자인그룹의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의, 수동적 의의의 협업을 넘어서, 어쩌게 하면 협업 구도로 가져갈 것인가에 맞춰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맑은 프로젝트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영역별로 나뉘어, 공동 제안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마다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항상 중심에 둔다. 가령 모듈러 주택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더 싸고 잘 지을 수 있는 집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디자인그룹은 프로젝트를 통해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으로써, 인터 디서플린(Inter discipline)이라고 하는 통합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장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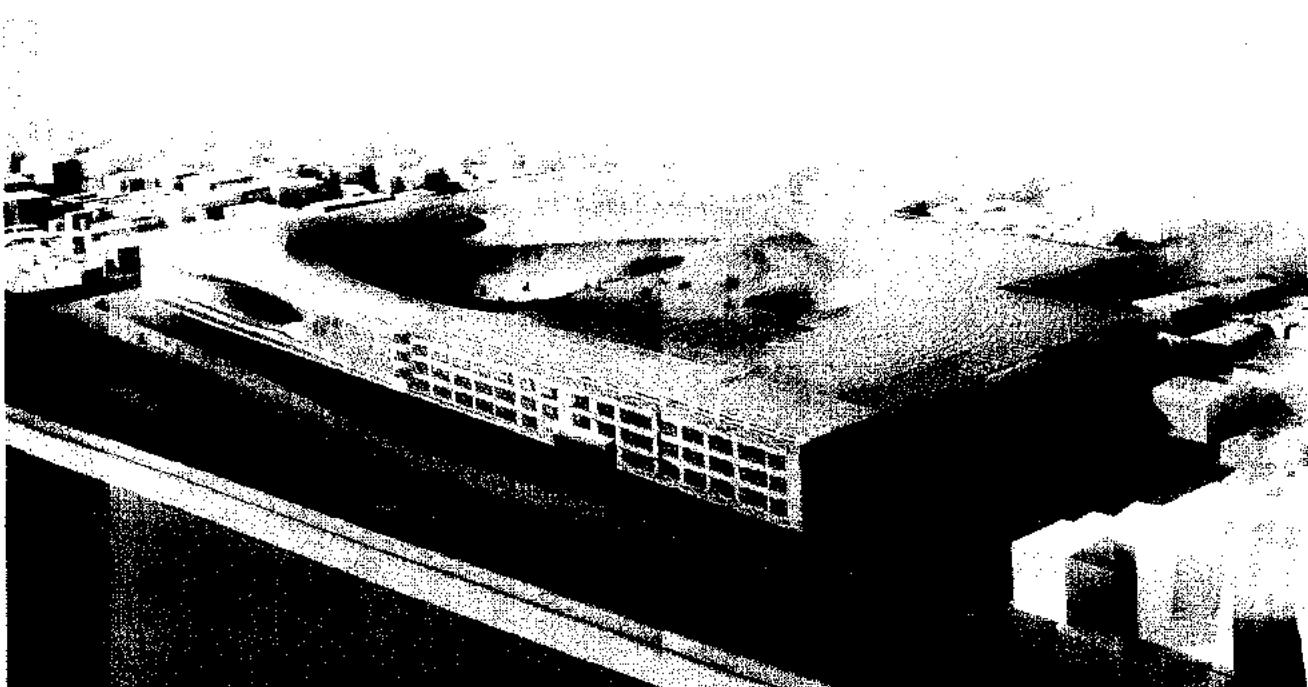
## 프로필



신승수는 현재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서울대학교 설계 스튜디오 투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베를라하에 건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부건설, 김이건축, 아름건축에서 실무를 하였고 건축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제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작가 겸 부 커미셔너로 활동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 현상설계 우수작



헤르마 주차 빌딩, 서울, 2010

과 입지를 부각시키는 효과와 같은, 건축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본질적으로는 건축의 표피성이 공간성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앞으로 그의 작업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며 잠재돼 있는 건축 디자인 수요층에게 제대로 된 품 도적이 부족한 현실에, 그의 전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건축주 계층을 발굴하고 계발하며,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던 눈을 지역으로 눈을 돌려 그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지역의 방치되어 있던 중, 소규모의 건축물에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도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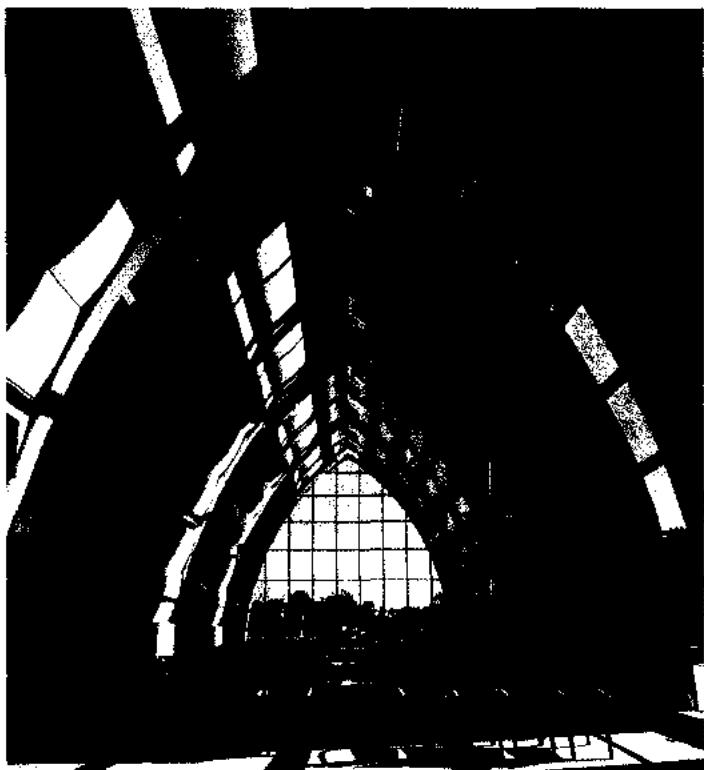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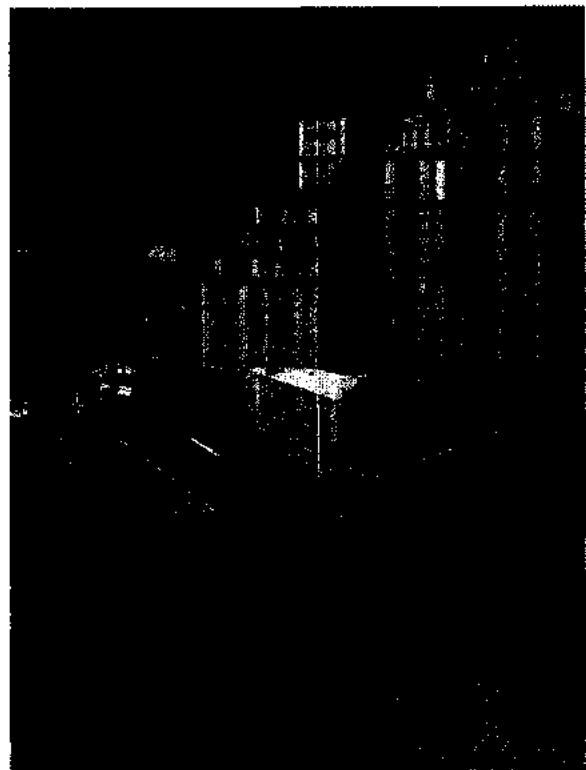
이정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낭시 건축학교에서 건축 재료학으로 석사를, 파리 라빌레뜨 건축학교에서 건축이론 석사를 취득했다.

시게루 반 유럽 사무소, 런던 자하 하디드 사무소에서 활동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현상에서 우수작, 전곡리 선사유적박물관 국제 현상에서 Merit Award 등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JOHO Architectur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다. 2010년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다.



화이트 채플, 미국, 2002



엠 플러스, 서울, 2009

건축가로서 그는 현상 설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거의 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놓고 볼 때, 현상설계에 의한 프로젝트는 일정 시점에서 건축가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가 하는 프로젝트는 개인 건축주에 의한 것들이고 슬로우 푸드처럼 오랜 기간 공들여 진행한다. 주택 하나 설계하는 데에 보통 1년이 소요되고 그 보다 더 걸리기도 한다. 기간이 오래되는 만큼이나 작업 과정이 많다. 그는, 건축의 결과물만족이나 과정에서의 경험과 프로세스가 소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건축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게 의미 있는 건축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건축에서 이야기가 건축주의 이야기로 대표되지는 않는다. 도시의 수많은 건물의 건축주와 소유주가 다르고, 사용자가 또 다른 만큼, 수많은 건축물들은 건축주 만의 건물이 아니고, 건축주 만의 이야기로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시 못 하는 자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그의 건축 이야기는 건축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말이나 글로써, 전시나 출판으로써도 드러난다.

그가 오랜 시간 천천히 건축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온갖 건축적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철학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건축 철학을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건축가 개인의 건축관 정도이겠으나, 그것을 넘어 발생하는 소통이고 건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의 방식 또한 느리고 다방면에서 접점을 만들어낸다. 그는 사향길에 들어선, 아니 거의 죽었다고 하는 건축 비평, 건축 이론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꿈꾸는 것이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건축 작업이 건축 이론과 병치되는 것을 스스로 보고 싶은 것이며, 그가 건축가로서 생존하는 방법이자, 경쟁력인 것이다.

## 프로필



조한은 홍익대 건축학과와 예일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VOA Associates, Perkins & Will Inc., Solomon Cordwell Buenah & Associates, Inc.에서 근무했다.

그는 다양한 생태철학 기반의 건축 디자인 철학 및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MP로 활동하였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제 2회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자, HAHN Design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11회 이사회

2010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0일 오후 3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등록업무수행준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에 관한 건,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 별책 제작의 건, 건축사 채용의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등록업무수행준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건,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 별책 제작의 건, 건설기술자(이관자)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수행준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 별책 제작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 채용의 건  
-친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원만

공고를 통해 모집하기로 하고, 12월 이사회 때 재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등록업무수행준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이의구 고문으로, 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일시 : 2010. 12. 6(월) 14시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제3호의안 :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 별책 제작의 건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별책을 다음과 같이 제작키로 의결함.
- ▷건축사지 500호 특집호 및 기념 별책 제작비는 2010년도 출판사업비 예산 중 집행잔여예산을 목내전용하여 사용
-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 및 광고수익 등으로 충당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의안 : 건설기술자(이관자)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8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8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산업」 토론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 토론회 계획을 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별표1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설계와 토목설계의 발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위원회(안)를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세움터의 dwg 포맷파일 업로드와 홍보방안에 관한 건
- 건축관련 기획 강연에 관한 건

#### ■ 제9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9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별표1 개정(안)의 축조심의에 관한 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건축 사보도 초급·중급·고급 기술자로 인정하여 농농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함
- 위원회 겸토(안)으로 소관위 심사 때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 수정조치를 요청하기로 함
- 제2호 :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설부문과 건축부문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겸토사안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회의에서 협의키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 제4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제4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설계 저작권보호를 위한

#### 대책 마련에 관한 건

-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추진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건축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기획·계획설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사후설계관리업무 관련 개선에 관한 건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에 동 업무의 개념 및 내용이 규정되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바, 법제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전산장비 등 추가 도입 협의의 건
  - 전산장비 등 추가 도입에 대해 협의함.
- 제2호 : 공제조합 운영규정(안) 협의의 건
  - 공제조합 운영규정(안)에 대해 협의함.
- 제3호 : 결산 및 예산(안) 협의의 건
  -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협의함.
- 제4호 : 정관 개정(안) 협의의 건
  - 정관 개정(안)에 대해 협의함.
- 제5호 : 기타사항
  - 기타사항을 논의함.

####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의 건
  -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공제요율(안) 협의의 건
  - 공제요율(안)에 대해 협의함.
- 제3호 : 기타사항
  - 기타사항을 논의함.

####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창립총회 개최의 건
  -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정관 개정(안)의 건
  - 정관 개정(안)은 금주 개최되는 행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협의함.
- 제3호 : 보증수수료·이용한도 등 조정의 건
  - 보증수수료·이용한도 등에 대해 조정함.

####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보증수수료 등 업무세칙 개정의 건
  - 보증수수료 등 업무세칙 개정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창립총회 개최 관련의 건
  -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 함.
- 제3호 : 창립총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
  - 창립총회 부의안건에 대해 협의 함.
- 제4호 : 기타사항
  - 기타사항을 논의 함.

## ■ 제5회 문화홍보위원회

제5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

## ■ 제1회 친환경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회 친환경위원회 실무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사례집' 제작에 관한 건
- 사례집제작을 위한 자료요청
- 친환경관련 법령자료 수록
- 향후 일정 관련

## ■ 제10회 친환경위원회

제10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 사례집'제작에 관한 건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 사례집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 사례집 보급에 대한 홍보
- 제2호 : 부동산 TV 공동기획 제작안 협의에 관한 건
- 부동산 TV와의 공동기획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친환경 건축에서 건축사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위원

회에서 진행하도록 함

-부동산 TV의 담당PD와 다음 회의때 함께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 후 전담위원을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 제3호 : 2011년도 친환경위원회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에 관한 건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의 사례를 통한 설계기법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신규사업으로 추가함

-친환경 건축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추가함

- 제4호 : 기타의 건

-친환경위원회의 연임에 관한 건

12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의 건
- 정관개정(안) 제5조의2부터 제28조 까지 축조·심의함.

## ■ 제11회 사업위원회

제11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0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결과 평가의 건

-리드엑스포와 정산은 협회가 손해보지 않는선에서 최대한 조율키로 함.

-협회 부대행사에 소요된 무료부스(장소) 및 장치비용 등을 금액으로 가시화하여 결과보고서 및 감사자료로 보고하여 전시사업의 내부인식을 높이고자 함.

- 제2호 : '2011년도 행사 계획'의 건

-전시사업워크숍을 통하여 깊이 있는 대화와 협회다운 전시회로 진화하는 방법을 논의키로 함.

-국토해양부/환경부/지식경제부장관상 시상을 전시회의 특징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 ■ 제1회 재경위원회

제1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협회의 2010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및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함.

## ■ 제3회 정관개정검토위원회

제3회 정관개정검토위원회 회의가 지난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편성방향 협의의 건
-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예산안 을 년간 실제정수임 가능액을 기준한 '실행(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금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신중히 논의하여 결정키로 함.

#### ■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예산의 목간전용에 관한 건  
협의
-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예산의 목 간전용 사용승인(안)을 재경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키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건
-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내에 완결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이 월(안)을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 상 정기로 함.
- 제3호 : 2011년도 임시예산안 삼의  
- 2011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중 일 반회계 국제사업부문 예산안을 살 감, 조정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 산안은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 상 정키로 함.
- 제4호 : APEC 등록건축사회계 예 산에 관한 건  
- APEC등록건축사회계 예산과 관련한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장의 건 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의 견대로 재경위원회 의견을 정리함.

#### ■ 제2회 재경위원회

제2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 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예산의 목간전용에 관한 건  
협의
-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예산의 목 간전용 사용승인(안)을 예산결산소 위원회의 협의안 대로 이사회에 상정 키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건
- 2010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금년 내에 완결할 수 없는 세출예산 의 이월(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 협 의안 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3호 : 2011년도 임시예산안 심의  
- 2011년도 1~2월 임시예산안(일반회 계 및 9개 특별회계)을 예산결산소위 원회의 협의안 대로 이사회에 상정키 로 함.
- 제4호 : APEC 등록건축사회계 예 산에 관한 건  
- APEC등록건축사회계 예산과 관련한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장의 건 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의 견대로 재경위원회 의견을 정리함.

#### ■ 제2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제2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제1법제도개선위원회(안)으로 협의 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 :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안)에 관한 건  
- 특별건축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제3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 무기준(안)에 관한 건  
- 건축법상 등 제도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 는 권고(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호 : '11년도 법·제도 관련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 법제도 관련 위원회 전체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므로 법제위원회 합동워크샵(12월 1일(수) 예정)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제1회 친환경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회 친환경위원회 실무소위원회 회의 가 지난 11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사 폐집' 제작에 관한 건  
- 사례집제작을 위한 자료요청
- 친환경관련 법령자료 수록
- 향후 일정 관련

#### ■ 제8회 정책위원회

제8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4 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위원회 업무추진현 황 및 결과평가에 관한 건  
- 정책위원회에서 2010년에 협의한 주요 사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함.
- 제2호 : Passive House Program 한 국화 작업에 관한 건  
- PHPP의 한국 도입 필요성 및 예상되 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함.
- 제3호 : '공공청사의 호화논란' 관련 토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 토론회 참여와 관련하여, 주제인 '공공청사의 흐화논란'에 대해 사전 토론을 진행한 후, 정책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 및 발언 방향을 정리함.

- 제4호 : 건축설계의 지식가치산업화 방안과 전략

-조정식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참여와 관련하여, 주제인 '건축설계업의 지식 가치산업화 방안과 전략'에 대해 사전 토론을 진행한 후, 정책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 및 발언방향을 정리함.

- 제5호 : 협회 재정 개선방안

-협회의 중요 정책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재정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토론함.

## ■ 제8회 국제위원회

제8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1~2월 임시예산 편성의 건
-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결의함. 단, 중국 건축학회(ASC)와의 MOU 체결은 회장 귀국 후 방침을 받은 후에 중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국제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계획의 건
- 2011년도 국제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계획을 항목별 검토하였으며, 행사별 참석 및 초청인원을 조정함.
- 제3호 : 2011년도 상반기 해외 단체 초청의 건
- 해외 단체의 초청, 방문은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올해 추진하지 않은 몽골건축사협회(UMA)와의 초청 및 방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약서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11년도 교류 프로그램을 다시 몽골측과 협의하기로 함.

- 제4호 : 중국건축학회(ASC)와의 MOU 체결의 건
- 중국건축학회(ASC)와의 MOU 체결은 회장 귀국 후 방침을 받은 후 추진하기로 함.

## ■ 제9회 회관관리위원회

제9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공사 소송의 건
- 회관 하자보수공사의 소송진행은 하자 부분의 감정 및 내역산출을 의뢰하기로 하고 금액이 산출되면 소송진행방안, 소송가액, 성공보수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함.
- 제2호 : 예식사업자 공개입찰 협의의 건
- 예식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고액 가격 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하고 공개입찰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함.
- 제3호 : 회관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의 건
- 회관 유지관리의 BIM 구축에 대한 오토데스크의 제안내용을 차기회의에서 검토하여 회장에게 건의후 추진키로 함.
- 제4호 : 2011년도 회관관리예산 심의의 건
- 2011년도 회관관리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비 항목을 검토하여 일부내용을 조정하고 차기회의에서 전체 예산(안)을 협의키로 함.
- 제5호 : 건축사공제조합 임대 약정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 임대약정은 입주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입하는 것으로 체결토록 함.

## ■ 제4회 법제위원회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의 개선에 관한 건

-건축사 대가기준의 요율산정에 대한 방향설정

-BIM 설계에 대한 요율적용은 의무화 시키지 않도록 함

- 제2호 : 2011년도 법제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평정에 관한 건

-연구용역사업의 건의

-법제위원회 워크숍(10.12.1)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제3호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건

-시행령 제38조에 허가청에 공제증서를 제출하는 단서조항을 만들

-업무신고 면제기관의 범위 축소

- 제4호 : 기타의 건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위원을 선정

## 우리협회, 조정식 국회의원과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토론회 개최



우리협회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지난 12월 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과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정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집 회장은 축사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건축도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건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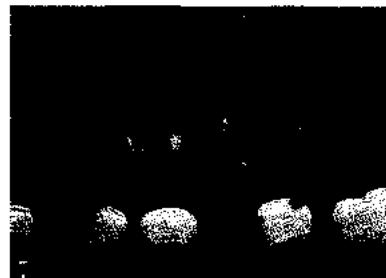
주제발표에서 김진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축'에 대해, 실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건축',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건축계가 요구하는 지식산업의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2부 순서에서 전영일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건축설계업의 열악한 현실', '정부차원의 건축설계업의 지원 필요', '복합적인 성격의 건축분야의 재정립', '주인의식이 필요한 건축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서울건축사회, 신입회원 "가을로의 초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11월 16일(화) 오후 6시30분 건축사회관 3

## 최영집 회장,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UIA 기후변화 오픈포럼 참가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제28차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세계건축사연맹(UIA)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COP-16)'에 참석했다.

국제건축사연맹(UIA)과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는 10, 11, 28(일)부터 11, 30(화)까지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COP-16)을 개최하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오픈포럼(COP-15)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행사는 "친환경 디자인 전략"을 주제로 UIA Louise Cox 회장, 부회장인 Mauricio Rivero Bornell, Patricia Kimmett, Albert Dubler와 Kazuo Iwamura 등의 진행으로 2일간 개최되었다.

포럼의 연사로는 전임 UIA 회장인 Sara Topelson de Grinberg와 Vassilis Sgoutas, UIA 재생에너지실무위원장 Nikos Fintikakis, 남아프리카건축사협회 회장인 Fanuel Motsepe 등 세계적

인 전문가와 UIA 인사가 초청되어 강연하였으며,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특별 강연 연사로 초청되어 "탄소중립도시모델(Neutral Carbon City Model)"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UIA 기후변화오픈포럼 개최 전인 11, 24(수)부터 26(금)까지 멕시코 셀라야 시티(Celaya City)에서 개최된 제28차 멕시코건축사대회에서는 우리 협회 대표단을 포함하여 북중남미건축사협회(FPAA) 대표단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최영집 회장이 멕시코건축사협회 명예회원 및 프레지던셜 메달을 수상하고, 중남미국가와의 국제교류 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번 멕시코 행사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FTKA)을 대표하여 최영집 대표회장, 이상범 공동회장, 김희곤 건축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남미국가와의 향후 교류 추진의 활로를 모색한 동시에, 2017 UIA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총 국제회의실에서 신규 입회한 회원들에 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개식행사에 이어 'Standing Party'로 진행하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친밀히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 건축사회는 21세기 시대정신을 가지고 건축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건축리더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010 가을친목 회' 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손근익)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경상북도 주왕산, 백암 일원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가을친목회'를 개최했다.

주왕산의 아름다운 가을경관을 온몸으로 느끼며 등반과 성류굴 관람과 부석사 답사를 통해 건축사 선·후배 동료들 간의 정을 더욱 돋구하게 다졌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이번 행사로 각 지회 회원들 간에 친목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하반기 '대한건축사전국등산동호회' 등반 대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10월 21일 수도권 건축문화 탐방행사를 개최했다. 2010년 하반기 대한건축사 전국등산대회가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창녕에 위치한 화왕산 도립공원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전국등산동호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 등산동호회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강원도 등산동호회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전국 12개 시도에서 회원 및 가족 2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 도시, 모든 공간설계를 디자인하는 전문가'란 주제로 화왕산성 및 관룡사를 찾은 관광객 및 산행에 참여한 등산객들에게 건축사 홍보를 함과 동시에 산행 후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부터 2년간 동호회를 이끌어갈 박형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최영집)은 지난 12월 6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71개 조합사 중 42개사 [총 출자좌 835좌 중 515좌 출석 (61.68%)]가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의안 : 공제규정 개정(안)의 건', '제2호 의안 :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3개 의안 모두 참석 조합사 전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임원으로는 운영위원(3인)과 비상근 감사(1인)가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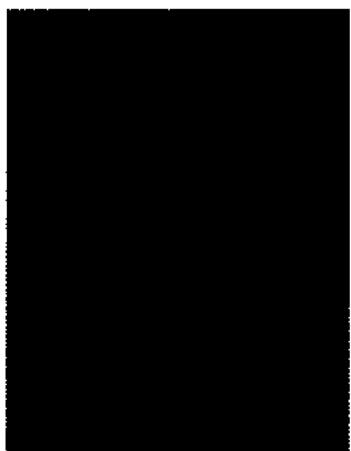
- 비상근 감사 : 변종환(공간조형 건축 사사무소)
- 운영위원 : 김영수(주.건축국종합 건

축사사무소), 안길원(주.무영 건축사 사무소), 안택영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02-3473-0900

## 작품집

###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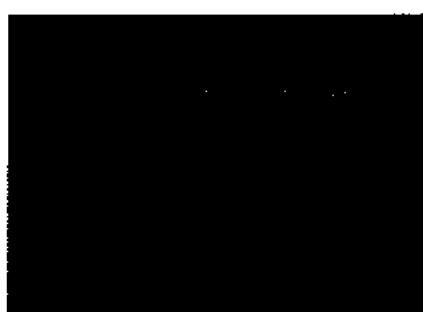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계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

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임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 사전 신청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해외진출 작품 사례 등을 수록한 「KOREAN ARCHITECTURE 2010」과 「건축사지 통권 500호」 발행을 맞이하여 반세기 한국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칼럼, 논단, 시론 등을 발췌해 수록한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을 한정 발행합니다. 사전신청을 통해 제작실비로 널리 보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 도서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발행시기 : 2011년 1월말

· 사전신청 가격

- 「KOREAN ARCHITECTURE 2010」 / 4만원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2만원

- 2권 세트로 신청시 / 5만원(별송비 포함)

· 접수방법 : 신청서 송부 및 은행계좌 입금(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입금계좌 : 제일은행 435-20-178073(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성명 및 지역 기재(예 : 홍길동 부산)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원장 김광현, 이하 아카데미)는 지난 12월 3일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이하 목천재단) 연구결과 보고회'를 목천재단 이사장실에서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국정과제인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설립, 국보해양부의 지원금과 목천재단 외 14개의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친환경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목천재단은 친환경 건축에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아카데미에 기부를 통해 친환경 건축설계의 교육 이외에도 친환경 건축설계 관련 연구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는 지난해부터 4개의 연구주제(친환경 건축설계 지원 주제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_이선영,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자격제도 기초연구\_최영호, 친환경 건축관련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및 교육과정평가 기획연구\_이병연)를 선정, 연구를 완료했고, 또 현재 새로운 주제(친환경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목천재단에서 김정식 이사장, 김미현 국장과 아카데미에서 김광현 원장, 전영철 이사, 이선영 교수, 이병연

교수가 참석하였다. 보고회는 2시간에 걸쳐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에서 연구했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건축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대한건축학회, '건축이론아카데미' 개최

대한건축학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건축이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축에 대한 이론적 사고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건축의 방향성을 고색하고자 한 달 동안 총 5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aik.or.kr](http://www.aik.or.kr))를 통한 인터넷신청과 현장등록하며, 입장인의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 '2010 충남건축문화제' 성료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가 주최하고 시향위원회가 주관한 '2010 충남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이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문화제는 청운대학교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숲화전시관 도민, 학생, 건축인 등 3,0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료 됐다. 개막행사에는 도민, 학생, 건축인 등 500여명과 김종민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김중성 충청남도교육감,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교육지원청 안성준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부회장, 충북건축사회 구창서

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임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 사전 신청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해외진출 작품 사례 등을 수록한 「KOREAN ARCHITECTURE 2010」과 「건축사지 통권 500호」 발행을 맞이하여 반세기 한국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칼럼, 논단, 시론 등을 발췌해 수록한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을 한정 발행합니다. 사전신청을 통해 제작실비로 널리 보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 도서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발행시기 : 2011년 1월말

· 사전신청 가격

- 「KOREAN ARCHITECTURE 2010」 / 4만원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2만원

- 2권 세트로 신청시 / 5만원(별송비 포함)

· 접수방법 : 신청서 송부 및 은행계좌 입금(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입금계좌 : 제일은행 435-20-178073(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성명 및 지역 기재(예 : 홍길동 부산)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원장 김광현, 이하 아카데미)는 지난 12월 3일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이하 목천재단) 연구결과 보고회'를 목천재단 이사장실에서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국정과제인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설립, 국보해양부의 지원금과 목천재단 외 14개의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친환경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목천재단은 친환경 건축에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아카데미에 기부를 통해 친환경 건축설계의 교육 이외에도 친환경 건축설계 관련 연구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는 지난해부터 4개의 연구주제(친환경 건축설계 지원 주제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_이선영,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자격제도 기초연구\_최영호, 친환경 건축관련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및 교육과정평가 기획연구\_이병연)를 선정, 연구를 완료했고, 또 현재 새로운 주제(친환경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목천재단에서 김정식 이사장, 김미현 국장과 아카데미에서 김광현 원장, 전영철 이사, 이선영 교수, 이병연

교수가 참석하였다. 보고회는 2시간에 걸쳐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에서 연구했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건축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대한건축학회, '건축이론아카데미' 개최

대한건축학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건축이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축에 대한 이론적 사고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건축의 방향성을 고색하고자 한 달 동안 총 5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aik.or.kr](http://www.aik.or.kr))를 통한 인터넷신청과 현장등록하며, 입장인의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 '2010 충남건축문화제' 성료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가 주최하고 시향위원회가 주관한 '2010 충남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이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문화제는 청운대학교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숲화전시관 도민, 학생, 건축인 등 3,0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료 됐다. 개막행사에는 도민, 학생, 건축인 등 500여명과 김종민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김중성 충청남도교육감,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교육지원청 안성준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부회장, 충북건축사회 구창서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개막을 축 하했다.

대학생들이 참여한 '제3회 충남건축문화 대전'은 150여 작품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살아가다'의 작품을 출품한 호서대학교 최준환, 정수현의 대상을 비롯한 60여명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이번 '2010 충남건축문화제'는 '회복'을 주제로 열렸으며,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시부문으로 충남건축문화대전, 어린이 집 그리기 및 만들기 대회 수상작 전시와 건축사작품전, 여수초대전, 찬조작품전, 건축인회화전, 아산도시디자인 공모전 전시와 부대행사로 미니 목조 주택 만들기 및 조노동을 활용한 공간구조물 만들기, 측량해보기 등의 어린이 건축체험교실과 김봉준 교수의 중국문화와 중국진출 전략, 최영삼 건축사의 집·꿈·숲, 진형준 교수의 상상력 혁명, 김덕수 교수의 창의력 개발로 또 다른 나를 창조하자 등의 건축문화 세미나, 외암민속마을, 공세리성당, 현충사 답사를 내용으로 한 건축문화 기행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다 다채롭게 열렸다. 먼저 행사기간 중 3일간에 걸쳐, 청주지역 내 독거노인과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열었다. 참가한 30~40여명의 건축사들은 이들 주거지의 도배와 장판 교체, 페인트칠, 싱크대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무심천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환경보호 캠페인운동에 100여명의 건축사 및 가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초청 강연회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올 강연은 상황론으로 본 작품론, 문화산업의 미래, 세계최고층 'Burj Khalifa' 시공사례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이밖에도 건축인 체육대회, 건축인의 밤, 건축답사 등은 건축사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건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제3회 여수건축문화제' 개최



여수시와 여수시건축사회는 '제3회 여수 건축문화제'를 지난 1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될 도시 여수시에서 개최했다.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건축문화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으며,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녹색도시·생태도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하고 지역 건축문화발전과 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도시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 전시하는 '디지

털카메라 공모전',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그림 그리기 대회', 여수지역 건축사들의 작품 중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선정 하는 '건축상'을 여수시장 표창으로 수여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 설명회', 국내최대 규모가 될 문화의 공간 '예울마루 설명회' 등이 개최됐다. 건축작품 수상작과 공모작품 그리고 설명회 작품은 모든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함께 가졌다.

여수시 건축·도시문화 관련단체 그리고 여수시는 그 농안의 건축이 경제발전을 위한 건축이었다면, 이제 문화가 있는 건축물을 후손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녹색·생태도시와 건축문화발전을 위해선 건축사의 노력과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건축문화·도시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문화제를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 한옥문화원, '내 집을 지읍시다' '아파트를 한옥처럼' 강좌

(사)한옥문화원은 '내 집을 지읍시다', '아파트를 한옥처럼'이란 제목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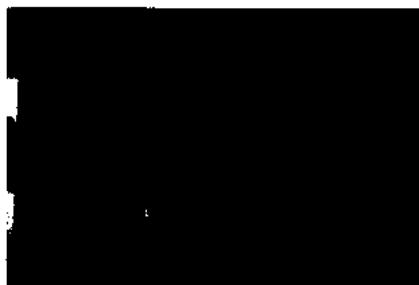
각 강좌 모집정원은 각 30명이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 강좌로 수료 후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1월 6일이다.

개강일은 '내 집을 지읍시다' 강좌가 2011년 1월 11일, '아파트를 한옥처럼' 강좌가 13일이다.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형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옥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 문의 : (사)한옥문화원, 02-741-7441, www.hanok.org

### '2010 충청북도건축문화제' 개최



충청지역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 '2010 충청북도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11월 2일 열린 개막식에는 충북도청 관계자 및 건축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건축문화 유공자 표창과 회원 및 학생 작품, 공모전 작품 등 전시회가 열렸다. 2010 충청북도건축문화제는 어느 해보

## 건축의 노래



허여지 저 | 268쪽 | 기문당

신간 '건축의 노래'는 건축과 음악이라는 두 장르의 융합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속에 두 가지의 소주제를 품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건축과 음악이 어떤 공통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사적,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구성요소와 원리 등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짚어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간의 연관성 연구는 건축과 음악의 접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음악이 건축 디자인이라는 창조적 예술작업에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5

## 건축과 철학\_건축과 탈식민주의 비판이론

Felipe Hernández 저, 이종건 역  
| 156쪽 | 시공문화사

신간 '건축과 철학 : 건축과 탈식민주의 비판이론'은 건축의 닫론과 실행에 이바지한 호미 바바의 공헌을 검토한다. 더불어 호미 바바가 제시한 이론들을 완벽히 소개하고, 그 이론들아 작금의 건축에 대한 수많은 가정들에 도전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맥락에서 작금의 건축에 대해 알아본다.

• 문의 : 시공문화사 3147-1212

##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공간학 사전

일본건축학회 저, 한영호·  
최진희 공역 | 270쪽 | 기문당

이 책은 건축, 도시계획을 위한 건축·도시공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해설 사전이다. 인간의 의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공간과 디자인하려는 입장에서 파악하는 공간의 2가지 시점에서 공간에 대하여 이론과 연구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건축계획 연구부문에서 최근 연구된 공간의 파악, 공간의 이동, 공간의 구성, 공간의 해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각 용어의 해설을 용어에 관련하는 공간이나 연구의 실례를 인용하고 도표와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간결하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5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10년 10월말

부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면적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합계	5,325	5,325	102	204	8	24	5,435	5,553	1,664	1,654	245	490
서울	898	898	27	54	2	6	927	958	891	891	142	288
부산	473	473	16	32	2	6	491	511	95	95	19	38
대구	421	421	20	40	3	9	444	470	66	66	18	36
인천	269	269	3	6	0	0	272	275	62	62	7	14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40	40	7	14
대전	241	241	5	10	1	3	247	254	35	35	9	18
울산	178	178	5	10	0	0	183	188	17	17	2	4
경기	722	722	1	2	0	0	723	724	233	233	17	34
강원	172	172	2	4	0	0	174	176	25	25	2	4
충북	209	209	4	8	0	0	213	217	30	30	5	10
충남	238	238	1	2	0	0	233	240	45	45	5	10
전북	240	240	4	8	0	0	244	248	22	22	2	4
전남	193	193	1	2	0	0	194	195	19	19	1	2
경북	325	325	5	10	0	0	357	362	36	36	4	8
경남	405	405	1	14	0	0	412	419	28	28	3	6
제주	113	113	0	0	0	0	113	113	10	10	0	0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분	건축사회	회원수			비율	면적	면적
		건축사	2급	계			
합계		8,139	10	8,149	100%	23	
서울		2,393	3	2,396	33.9%	10	
부산		674	1	675	7.9%	9	
대구		601	0	601	7.7%	0	
인천		355	0	355	3.8%	0	
광주		275	0	275	3.7%	0	
대전		338	1	339	3.7%	0	
울산		212	0	212	2.6%	0	
경기		1,011	2	1,013	12.2%	2	
강원		208	0	208	2.8%	0	
충북		279	0	279	3.0%	0	
충남		309	3	312	3.1%	0	
전북		278	0	278	3.0%	0	
전남		220	0	220	1.9%	0	
경북		409	0	409	4.6%	0	
경남		452	0	452	5.0%	1	
제주		126	0	126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553	2,597	-	8,150	
비율	68.13%	31.87%	-	100%	
사무소수	5,435	2,012	-	7,447	
비율	72.08%	27.02%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